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362-000001-10

2010

동남권 청소년 통계

(부산·울산·경남)



동남지방통계청

<http://kostat.go.kr/dnro>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머 리 말

최근 우리 사회는 다음 세대를 이어갈 청소년에 대한 관심(인구, 교육, 안전분야 등)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역으로 사회를 올바르게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건전한 보호·육성책이 필요하며, 이는 올바른 통계에 기초하여 마련되어야 합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서는 부산·울산·경남지역의 각종 청소년 보호·육성 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지표를 모아 「2010 동남권 청소년 통계」를 전자책으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방통계청에서는 앞으로도 지역정책수립과 추진의 기본이 되는 통계개발에 노력함과 동시에,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통계의 생산·제공으로 이용자 여러분이 편리하게 통계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0년 6월

동 남 지 방 통 계 청 장 현 영 기

이용자를 위하여

1. 이 책자는 통계청과 각 행정기관에서 공표한 통계를 바탕으로 동남지방통계청에서 취합·편집하여 작성한 보고서입니다.
2. 각 통계표별로 자료 출처를 명시하였으며 각 기관에서 작성된 자료들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기 때문에 해당 자료의 공표 시점에 따라 수록된 자료의 시계열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3. 숫자는 단위 미만은 사사오입을 원칙으로 하였으므로 내용란의 합계가 총계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 이 책자에 수록된 통계자료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숫자가 필요한 경우 혹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표기된 자료출처나 동남지방 통계청(Tel : 051-850-4244, E-mail : aycool@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차 례

I. 「2010년 동남권 청소년통계」 작성개요 11

동남권 청소년통계 주요 내용 12

부산 청소년통계 주요 내용 13

울산 청소년통계 주요 내용 14

경남 청소년통계 주요 내용 15

II. 동남권 부문별 청소년통계 18

1. 인구·가족 18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18
1.2. 권역별 청소년 인구 19
1.3. 학령인구 20
1.4. 청소년의 혼인 21
1.5.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22
1.6. 다문화 청소년 현황 23

2. 교 육 24

2.1. 진학률 24
2.2.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급수 25
2.3. 교원 1인당 학생수 26

3. 노 동 27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27
3.2.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28
3.3. 소득 만족도 29
3.4. 소비생활 만족도 30
3.5.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31
3.6. 직업선택요인 32

4. 문화여가	33
4.1. 주말, 휴일의 여가활용	33
4.2. 독서인구	34
4.3. TV 시청	35
4.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36
4.5.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37
4.6. 여가활용 만족도	38
4.7.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	39
5. 보건·복지	40
5.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40
5.2. 청소년 사망원인	41
5.3.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42
6. 사회참여·안전	43
6.1. 주관적 만족감	43
6.2. 장애인 학교 취학자	44
6.3.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45
6.4. 청소년 교통사고	46
6.5. 아동학대 현황	47
Ⅲ. 부산 부문별 청소년통계	50
Ⅳ. 울산 부문별 청소년통계	86
Ⅴ. 경남 부문별 청소년통계	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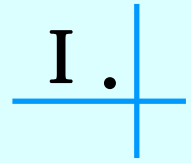
	〈부산〉	〈울산〉	〈경남〉
1. 인구·가족	50	86	122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50	86	122
1.2. 시도별 청소년 인구	51	87	123
1.3. 학령인구	52	88	124
1.4. 청소년의 혼인	53	89	125
1.5.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54	90	126
1.6. 다문화 청소년 현황	55	91	127
2. 교육	56	92	128
2.1. 진학률	56	92	128
2.2.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급수	57	93	129
2.3. 교원 1인당 학생수	58	94	130
2.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59	95	131

	〈부산〉	〈울산〉	〈경남〉
3. 노동	60	96	132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60	96	132
3.2.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현황	61	97	133
3.3. 소득 만족도	62	98	134
3.4. 소비생활 만족도	63	99	135
3.5.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64	100	136
3.6. 직업선택요인	65	101	137
4. 문화·여가	66	102	138
4.1. 주말, 휴일의 여가활용	66	102	138
4.2. 독서인구	67	103	139
4.3. TV 시청	68	104	140
4.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69	105	141
4.5.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70	106	142
4.6. 여가활용 만족도	71	107	143
4.7.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	72	108	144
5. 보건·복지	73	109	145
5.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73	109	145
5.2. 청소년 사망원인	74	110	146
5.3.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	75	111	147
5.4.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76	112	148
5.5.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77	113	149
6. 사회참여·안전	78	114	150
6.1. 주관적 만족감	78	114	150
6.2. 장애인 학교 취학자	79	115	151
6.3.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80	116	152
6.4. 청소년 교통사고	81	117	153
6.5. 아동학대 현황	82	118	154

VI. 출처통계 목록	156
--------------------------	------------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2010년 동남권 청소년통계 개요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I. 「2010년 동남권 청소년통계」 개요

1. 작성배경 및 목적

- 최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소년 교육, 노동, 안전, 복지, 건강 등 청소년의 『삶의 질』에 대한 통계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청소년 관련 자료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통계집을 작성하여 청소년 활동·복지·보호 정책의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 통계 활용도를 높이고자 함

2. 작성 연혁 및 작성방법

- '07 ~ '08 “부산”, “울산”, “경남 청소년통계” 1회, 2회 작성
- '09 “부산”, “울산”, “경남” 및 “동남권 청소년통계” 3회 작성
※ 동남권 부문 추가
- '10 “동남권 및 부산·울산·경남 청소년통계” 4회 작성
- 통계자료와 청소년 관련 각 기관 및 연구소 등에 산재되어 있는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작성
* 통계표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되었으므로 합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3. 청소년 범위

- 연령 0~24세 인구를 대상으로 하되 모(母)통계 작성 특성에 따라 통계표에서 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음
 - 활용통계에서 대상 청소년의 연령, 세부범위는 통계표를 참고

※ <참고> 여러 법령에서 규정된 청소년 범위

- 청소년 보호법 : 0세~18세(만19세 미만)
- 청소년 기본법 : 9세~24세 이하
- 아동복지법 : 18세 미만

동남권 청소년통계 주요 내용

1. 인구·가족

- 2010년 동남권의 9~24세 청소년 인구비율은 21.2%
- 5개 광역권 중 수도권(20.7%) 다음으로 9~24세 청소년 비중(21.2%)이 가장 낮음
- 2010년 동남권의 학령인구(6~21세)는 1,567천명으로 2000년 1,918천명 이후 351천명 감소
- 2009년 동남권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111세대로, 2000년에 비해 813세대 감소
- 2009년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총 3,167명으로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이 2,664명(84.1%)

2. 교 육

- 2009년 동남권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약 9명(90.3%)이 대학에 진학
- 2009년 동남권은 전년대비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증가
- 2009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3명으로 2000년 이후 9.9명 감소

3. 노 동

- 2008년 동남권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1%
- 2009년 동남권의 학교급별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학이 85.0%로 가장 높음
- 2009년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15~19세 17.9%, 20~24세 17.8%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9.1%) 과 '대기업'(22.0%)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이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적성·흥미'와 '수입'

4. 문화·여가

- 2009년 동남권 15~19세는 'TV시청', 20~24세는 '사교관련 활동'으로 주로 여가를 활용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의 독서율은 15~19세 77.5%, 20~24세 78.8%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의 TV시청비율은 15~19세 95.7%, 20~24세 96.7%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 2009년 동남권 15~19세의 22.5%, 20~24세의 27.3%가 현재 여가활용에 만족
- 여가활용불만족 이유는 15~19세는 '시간부족', 20~24세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큼

5. 보건·복지

- 2008년 24세 이하 청소년의 사망률은 10만명 당 34.2명으로 2000년에 비해 25.0명 감소
- 2008년 동남권 청소년 사망원인 1순위는 1~9세 암, 10~19세 운수사고, 20~29세 자살
- 2009년 발생한 동남권 요보호아동은 922명으로 2008년보다 366명 감소

6. 사회참여·안전

- 2009년 동남권 15~19세의 20.6%, 20~24세의 25.2%는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 2009년 동남권 장애인 학교 취학자는 총 3,592명으로 정신지체가 2,627명(73.1%)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은 자신의 장애인 차별은 '없'으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심함'
- 2008년 동남권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48,236명 중 25세 이하는 10,720명(22.2%)
- 2008년 동남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560건, 아동학대 사례는 817건

부산 청소년통계 주요 내용

1. 인구·가족

- 2010년 부산의 9~24세 청소년 인구비율은 20.5%
- 7대 특광역시 중 서울(19.4%) 다음으로 9~24세 청소년 비중(20.5%)이 가장 낮음
- 2010년 부산의 학령인구(6~21세)는 650천명으로 2000년 920천명 이후 270천명 감소
- 2009년 부산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44세대로, 2000년에 비해 293세대 감소
- 2009년 국제결혼가정의 학생 총 991명으로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이 699명(70.5%)

2. 교 육

- 2009년 부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약 9명(88.3%)이 대학에 진학
- 2009년 부산은 전년대비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증가
- 2009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8.9명으로 2000년 이후 11.3명 감소

3. 노 동

- 2009년 부산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2.3%
- 2009년 부산의 학교급별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학이 84.5%로 가장 높음
- 2009년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15~19세 17.8%, 20~24세 17.1%
- 2009년 부산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26.6%)'과 '대기업(22.3%)'
- 2009년 부산 청소년이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

4. 문화·여가

- 2009년 부산 청소년은 'TV 시청'으로 주로 여가를 활용
- 2009년 부산 청소년의 독서율은 15~19세 72.7%, 20~24세 79.6%
- 2009년 부산 청소년의 TV시청비율은 15~19세 96.5%, 20~24세 97.3%
- 2009년 부산 청소년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 2009년 부산 청소년 15~19세의 22.6%, 20~24세의 30.1%가 현재 여가활용에 만족
-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는 15~19세 '시간부족', 20~24세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큼

5. 보건·복지

- 2008년 24세 이하 청소년의 사망률은 10만명 당 34.6명으로 2000년에 비해 17.4명 감소
- 2008년 부산 청소년 사망원인 1순위는 1~9세 암, 10~19세와 20~29세는 자살
- 2009년 발생한 부산 요보호아동은 367명이며, 2008년보다 314명 감소

6. 사회참여·안전

- 2009년 부산 청소년 15~19세의 21.7%, 20~24세의 25.4%는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 2009년 부산의 장애인 학교 취학자는 총 1,717명으로 정신지체가 1,163명(67.7%)
- 2009년 부산 청소년은 자신의 장애인 차별은 '없'으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심함'
- 2008년 부산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17,954명 중 25세 이하는 4,057명(22.6%)
- 2008년 부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63건, 아동학대 사례는 307건

울산 청소년통계 주요 내용

1. 인구·가족

- 2010년 울산의 9~24세 청소년 인구비율은 23.1%
-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 다음으로 9~24세 청소년 비중(23.1%)이 높음
- 2010년 울산의 학령인구(6~21세)는 251천명으로 2000년 271천명 이후 20천명 감소
- 2009년 울산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7세대로, 2000년에 비해 77세대 감소
- 2009년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총 340명으로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이 285명(83.8%)

2. 교 육

- 2009년 울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9명 이상(92.7%)이 대학에 진학
- 2009년 울산은 전년대비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교 증가
- 2009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21.0명으로 2000년 이후 10.9명 감소

3. 노 동

- 2009년 울산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3%
- 2009년 울산의 학교급별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학이 85.8%로 가장 높음
- 2009년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15~19세 18.0%, 20~24세 14.0%
- 2009년 울산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29.0%) 과 '국가기관'(23.6%)
- 2009년 울산 15~19세는 '적성흥미', 20~24세는 '안정성을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

4. 문화·여가

- 2009년 울산 15~19세는 '컴퓨터게임, 인터넷', 20~24세는 'TV시청'으로 주로 여가를 활용
- 2009년 울산 청소년의 독서율은 15~19세 82.9%, 20~24세 80.0%
- 2009년 울산 청소년의 TV시청비율은 15~19세 94.4%, 20~24세 96.9%
- 2009년 울산 청소년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 2009년 울산 15~19세의 23.7%, 20~24세의 23.1%가 현재 여가활용에 만족
-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는 15~19세는 '시간부족', 20~24세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큼

5. 보건·복지

- 2008년 24세 이하 청소년의 사망률은 10만명 당 32.8명으로 2000년에 비해 24.5명 감소
- 2008년 울산 10~29세 청소년 사망원인 1순위는 자살
- 2009년 발생한 울산 요보호아동은 109명으로 2008년보다 66명 감소

6. 사회참여·안전

- 2009년 울산 15~19세의 20.9%, 20~24세의 16.9%는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 2009년 울산 장애인 학교 취학자는 총 540명으로 정신지체가 415명(76.9%)
- 2009년 울산 청소년은 자신의 장애인 차별은 '없'으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심함'
- 2008년 울산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8,007명 중 25세 이하는 2,006명(25.1%)
- 2008년 울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46건, 아동학대 사례는 237건

경남 청소년통계 주요 내용

1. 인구·가족

- 2010년 경남의 9~24세 청소년 인구비율은 21.4%
- 9개 시도 가운데 4번째로 전국 평균수준
- 2010년 경남의 학령인구(6~21세)는 667천명으로 2000년 728천명 이후 61천명 감소
- 2009년 경남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60세대로, 2000년에 비해 443세대 감소
- 2009년 국제결혼가정 학생은 총 1,836명으로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이 1,680명(91.5%)

2. 교 육

- 2009년 경남 고등학교 졸업자 10명 중 약 9명 이상(91.6%)이 대학에 진학
- 2009년 경남은 전년대비 초등학교 3개교 감소, 중학교 4개교 증가
- 2009년 초등학교 교원 1인당 학생수는 19.0명으로 2000년 이후 8.2명 감소

3. 노 동

- 2008년 경남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5%
- 2009년 경남의 학교급별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학이 85.5%로 가장 높음
- 2009년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하는 청소년은 15~19세 18.1%, 20~24세 20.1%
- 2009년 경남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34.3%) 과 '대기업'(19.1%)
- 2009년 경남 청소년이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은 '적성·흥미'와 '수입'

4. 문화·여가

- 2009년 경남 15~19세는 '컴퓨터게임·인터넷', 20~24세는 '사교관련 활동'으로 주로 여가를 활용
- 2009년 경남 청소년의 독서율은 15~19세 80.6%, 20~24세 77.2%
- 2009년 경남 청소년의 TV시청비율은 15~19세 95.3%, 20~24세 95.9%
- 2009년 경남 청소년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 2009년 경남 15~19세의 22.0%, 20~24세의 25.1%가 현재 여가활용에 만족
- 여가활용 불만족 이유는 15~19세는 '시간부족', 20~24세는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큼

5. 보건·복지

- 2008년 24세 이하 청소년의 사망률은 10만명 당 34.2명으로 2000년에 비해 34.3명 감소
- 2008년 경남 청소년 사망원인 1순위는 1~9세와 10~19세는 운수사고, 20~29세 자살
- 2009년 발생한 경남 요보호아동은 446명으로 2008년보다 14명 증가

6. 사회참여·안전

- 2009년 경남 15~19세의 19.2%, 20~24세의 27.9%는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 2009년 경남 장애인 학교 취학자는 총 1,335명으로 정신지체가 1,049명(78.6%)
- 2009년 경남 청소년은 자신의 장애인 차별은 '없'으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심함'
- 2008년 경남 전체 교통사고 사상자 22,275명 중 25세 이하는 4,657명(20.9%)
- 2008년 경남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51건, 아동학대 사례는 273

동남권 부분별 청소년통계

1. 인 구 · 가 족
2. 교 육
3. 노 동
4. 문 화 · 여 가
5. 보 건 · 복 지
6. 사 회 참 여 · 안 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Ⅱ . 동남권 부문별 청소년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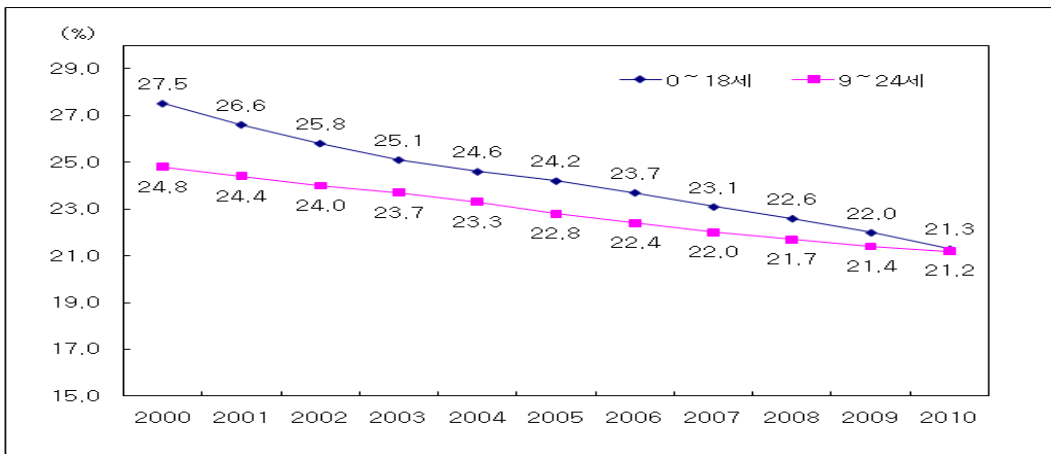
1. 인구와 가족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2010년 동남권의 9~24세 청소년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2%로 2000년 24.8%에 비해 10년간 3.6%p 감소

- 2010년 현재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의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는 각각 1,637천명, 1,630천명으로 동남권 총 인구 중 각각 21.3%, 21.2%를 차지함
- 2009년에 비해 인구구성비가 0~18세는 0.7%p, 9~24세는 0.2%p 낮아짐
-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구성비는 2000년 각각 27.5%, 24.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간 6.2%p, 3.6%p 낮아짐

〈 동남권 청소년 인구구성비 〉



〈 동남권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단위 : 천명)

	연도	총인구	0~18세		9~24세		0~24세	
			인구	%	인구	%	인구	%
동남권	2000	7,804	2,143	27.5	1,938	24.8	2,923	37.5
	2001	7,809	2,074	26.6	1,904	24.4	2,861	36.6
	2002	7,808	2,011	25.8	1,876	24.0	2,794	35.8
	2003	7,801	1,957	25.1	1,850	23.7	2,724	34.9
	2004	7,786	1,914	24.6	1,814	23.3	2,644	34.0
	2005	7,764	1,875	24.2	1,773	22.8	2,558	32.9
	2006	7,746	1,832	23.7	1,734	22.4	2,476	32.0
	2007	7,730	1,788	23.1	1,701	22.0	2,404	31.1
	2008	7,714	1,741	22.6	1,670	21.7	2,339	30.3
	2009	7,697	1,691	22.0	1,648	21.4	2,282	29.6
2010	7,680	1,637	21.3	1,630	21.2	2,233	29.1	
전국	2010	48,875	10,655	21.8	10,288	21.1	14,422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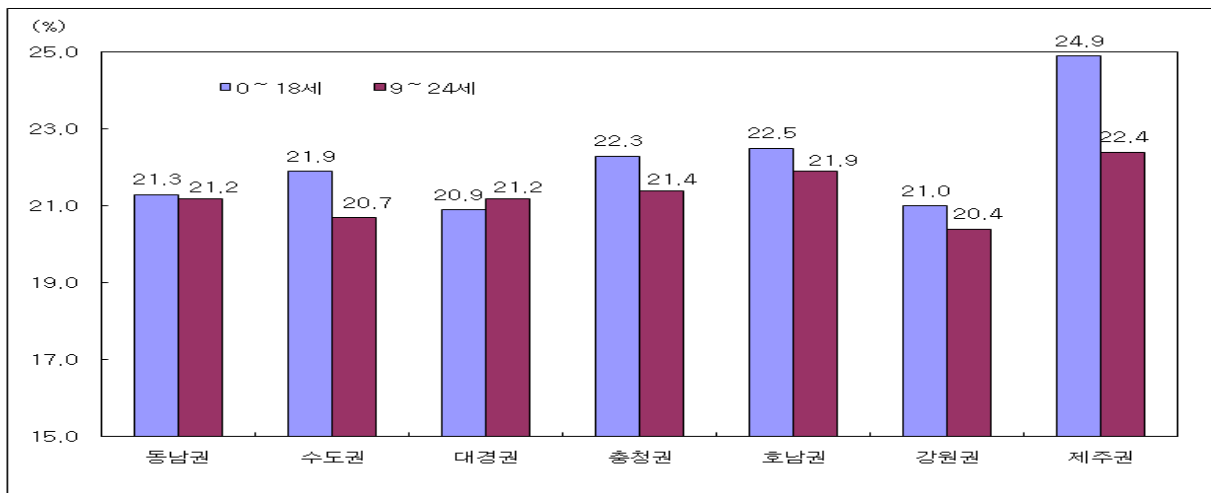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2007. 5), 「장래인구추계」(2006. 11)

1.2. 권역별 청소년 인구

2010년 동남권의 총 인구 대비 9~24세 청소년 인구 비중(21.2%)은 5개 광역권 가운데 수도권(20.7%)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동남권의 0~18세 청소년 인구는 총인구의 21.3%로 전국 평균(21.8%)과 비교하여 0.5%p 낮고, 이는 5대 광역권 가운데 대경권(대구·경북) 20.9%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 동남권의 9~24세 청소년 인구는 총인구의 21.2%로 전국 평균(21.1%)과 비교하여 0.1%p 높고, 이는 5대 광역권 가운데 수도권(서울·경기·인천) 20.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 권역별 청소년 인구구성비 (2010) 〉



〈 권역별¹⁾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2010) 〉

(단위 : 천명)

	총인구	0~18세		9~24세		0~24세	
			%		%		%
동남권	7,680	1,637	21.3	1,630	21.2	2,233	29.1
수도권	24,336	5,332	21.9	5,048	20.7	7,191	29.5
대경권	5,023	1,050	20.9	1,064	21.2	1,452	28.9
충청권	4,953	1,105	22.3	1,059	21.4	1,491	30.1
호남권	4,893	1,101	22.5	1,071	21.9	1,471	30.1
강원권	1,443	303	21.0	294	20.4	409	28.3
제주권	547	136	24.9	122	22.4	176	32.1
전 국	48,875	10,655	21.8	10,288	21.1	14,422	29.5

자료 : 통계청, 「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7. 5), 「 장래인구추계」 (2006. 11)

주 : 1) 동남권 : 부산·울산·경남, 수도권 : 서울·경기·인천, 대경권 : 대구·경북,
충청권 : 대전·충북·충남, 호남권 : 광주·전북·전남

1.3. 학령인구

**2010년 동남권의 학령인구(6~21세)는 1,567천명으로
2000년 1,918천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2010년 동남권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6~21세)는 1,567천명임
 - 전체 학령인구에서 6~11세(초등학교) 인구가 500천명(31.9%) 12~14세(중학교) 311천명(19.8%), 15~17세(고등학교) 335천명(21.4%), 18~21세(대학교)가 421천명(26.9%)임
 - 2000년(1,918천명)에 비해 351천명(18.3%) 감소하였으며, 2009년(1,603천명)에 비해 36천명(2.2%) 감소
 - 총 인구에 대한 학령인구 비중은 전국 대비 동남권이 0.1%p 높음

〈 학령인구(6~21세) 구성비 〉



〈 학령인구(6~21세) 〉

(단위 : 천명)

	학령인구 (6~21세)	총인구대비 비율 (%)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변화율	
							(전년대비, %)	
동남권	2000	1,918	24.6	676	316	374	553	-
	2001	1,885	24.1	684	312	340	548	△1.7
	2002	1,840	23.6	684	315	316	524	△2.4
	2003	1,789	22.9	678	322	307	482	△2.8
	2004	1,742	22.4	664	330	307	441	△2.6
	2005	1,705	22.0	643	339	312	412	△2.1
	2006	1,681	21.7	622	343	318	398	△1.5
	2007	1,662	21.5	597	341	325	399	△1.1
	2008	1,636	21.2	565	334	333	405	△1.6
	2009	1,603	20.8	532	324	337	411	△2.0
2010	1,567	20.4	500	311	335	421	△2.2	
전국	2010	9,901	20.3	3,297	1,962	2,069	2,57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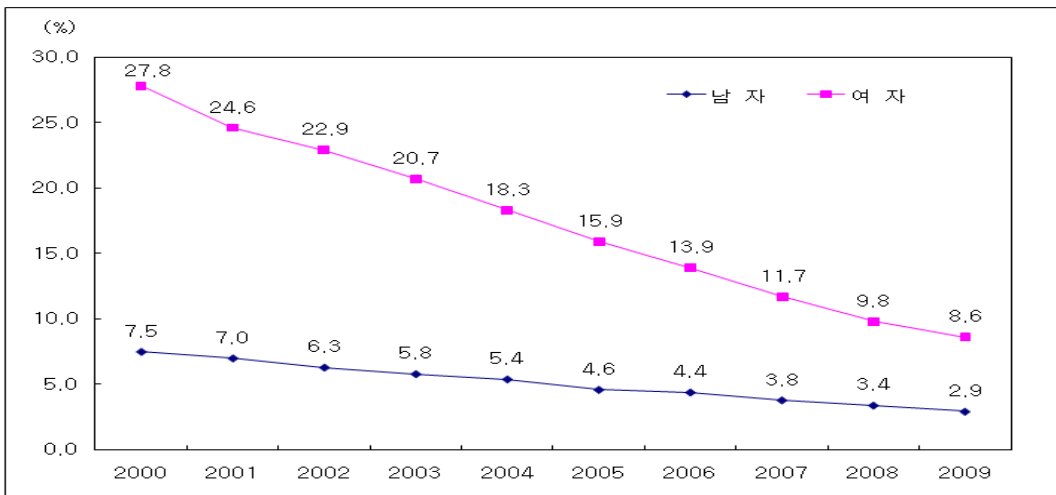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2007. 5), 「장래인구추계」(2006. 11)

1.4. 청소년의 혼인

만혼 추세로 총 혼인건수에서 청소년(24세 이하)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동남권의 24세 이하 인구의 남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2%, 2.8%이며, 여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6%, 8.0%임
 - 2008년에 비해 남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3.2%에서 2.8%로 0.4%p 감소, 여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9.1%에서 8.0%로 1.1%p 감소하였음
- 전국 15~24세 청소년의 혼인구성비(남자 3.2%, 여자 11.6%)에 비해 남자는 0.3%p, 여자는 3.0%p 낮음

〈 청소년(15~24세)의 혼인 구성비 추이 〉



〈 청소년의 혼인 구성비 〉

(단위 : 건, %)

		남 자				여 자			
		총 혼인	15~24세	15~19세	20~24세	총 혼인	15~24세	15~19세	20~24세
동남권	2000	50,133	7.5	0.5	6.9	51,703	27.8	2.2	25.5
	2001	47,404	7.0	0.5	6.5	48,680	24.6	2.1	22.6
	2002	45,333	6.3	0.5	5.8	46,283	22.9	1.8	21.1
	2003	44,113	5.8	0.4	5.4	44,162	20.7	1.4	19.3
	2004	44,920	5.4	0.3	5.1	44,652	18.3	1.2	17.1
	2005	44,576	4.6	0.3	4.3	43,600	15.9	1.0	14.8
	2006	48,299	4.4	0.3	4.2	46,580	13.9	0.9	13.0
	2007	50,602	3.8	0.2	3.5	48,991	11.7	0.8	11.0
	2008	48,483	3.4	0.2	3.2	46,607	9.8	0.7	9.1
	2009	45,375	2.9	0.2	2.8	43,560	8.6	0.6	8.0
전 국	2009	309,759	3.2	0.2	3.0	309,759	11.6	1.7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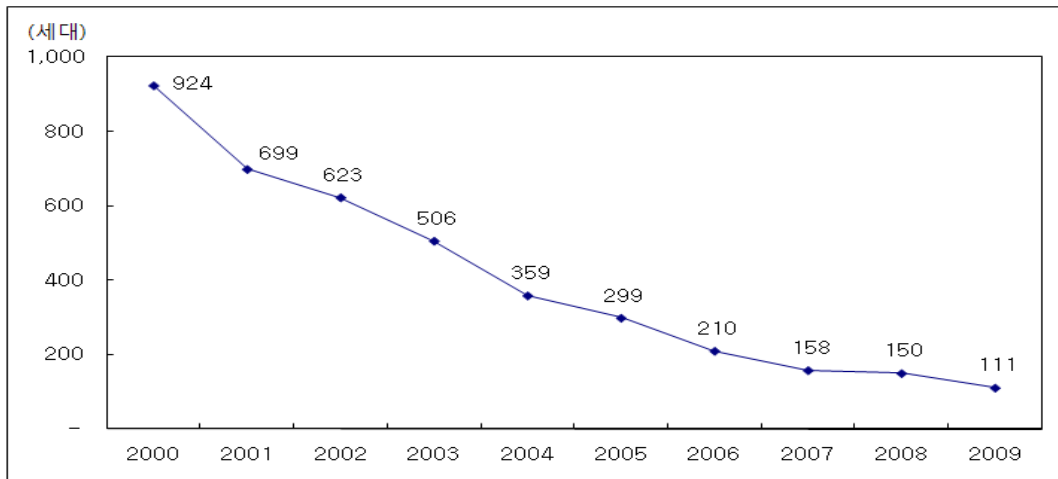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1.5.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2009년 동남권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111세대로,
2000년(924세대)에 비해 813세대 감소**

- 2009년 동남권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111세대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체 세대원은 160명이고, 재학상태별로는 미취학 1명(0.6%), 초등학교 7명(4.4%), 중학교 40명(25.0%), 고등학교 105명(65.6%), 기타 7명(4.4%) 임
- 2008년 150세대에 비해 39세대(26.0%)가 감소하였고, 2000년 924세대에 비해 813세대(88.0%) 감소하였음
- 전국 소년·소녀가장은 총 1,054세대, 1,596명으로 동남권은 총 세대 중 10.5%, 세대원 중 10.0%를 차지

〈 소년·소녀가장 세대 추이 〉



〈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

(단위 : 세대, 명)

	세대주	세대원 ¹⁾	재학상태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²⁾	
동남권	2000	924	1,413	18	249	480	613	53
	2001	699	1,075	21	184	337	492	41
	2002	623	957	11	201	296	424	25
	2003	506	789	8	139	244	382	16
	2004	359	580	8	112	176	272	12
	2005	299	479	4	68	163	234	13
	2006	210	332	1	39	97	180	15
	2007	158	243	2	24	77	134	6
	2008	150	226	1	15	68	133	9
	2009	111	160	1	7	40	105	7
전국	2009	1,054	1,596	10	196	440	904	46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세대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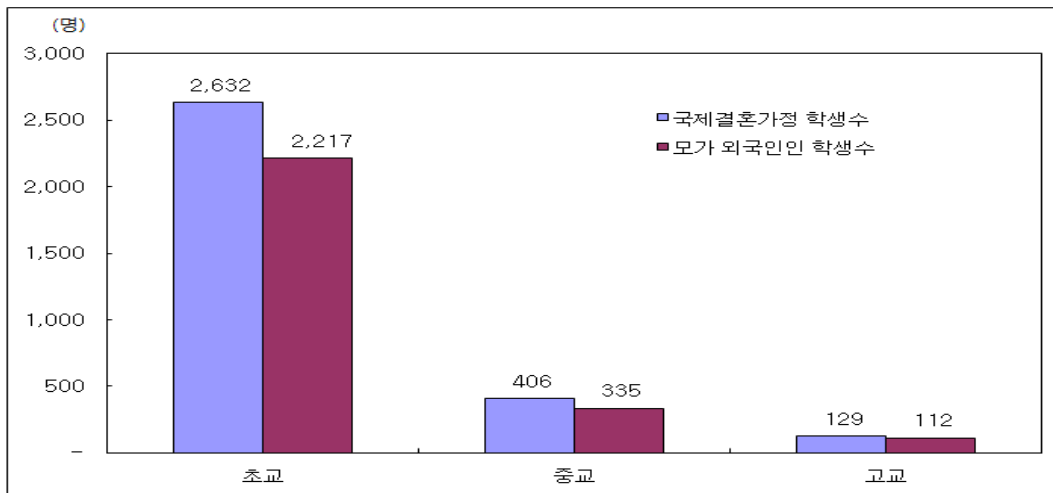
2) 미재학자, 기타 고교 재학자 및 대학 재학자 포함

1.6.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09년 동남권의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는 3,167명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2,664명임**

- 2009년 동남권의 국제결혼가정 학생수는 전체 3,167명으로, 초등학생이 2,632명, 중학생이 406명, 고등학생이 129명임
 - 이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2,664명으로 국제결혼가정의 84.1%
 - 학교급별로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은 초등학생 84.2%, 중학생 82.5%, 고등학생 86.8%임
- 국제결혼가정 중 외국인 어머니 비율은 전국 90.0%에 비해 5.9%p 낮음

〈 학교급별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09) 〉



〈 다문화 청소년 현황 〉

(단위 : 명, %)

		동남권				전국			
		계	초교	중교	고교	계	초교	중교	고교
2007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1,806	1,536	214	56	13,445	11,444	1,588	413
	구성비	100.0	85.0	11.8	3.1	100.0	85.1	11.8	3.1
2008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2,564	2,093	359	112	18,778	15,804	2,213	761
	구성비	100.0	56.9	14.0	4.4	100.0	84.2	11.8	4.1
2009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3,167	2,632	406	129	24,745	20,632	2,987	1,126
	구성비	100.0	83.1	12.8	4.1	100.0	83.4	12.1	4.5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2,664	2,217	335	112	22,264	18,845	2,519	900
	구성비 ¹⁾	84.1	84.2	82.5	86.8	90.0	91.3	84.3	79.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주 : 1) 각 학교급별 국제결혼가정 학생 수 대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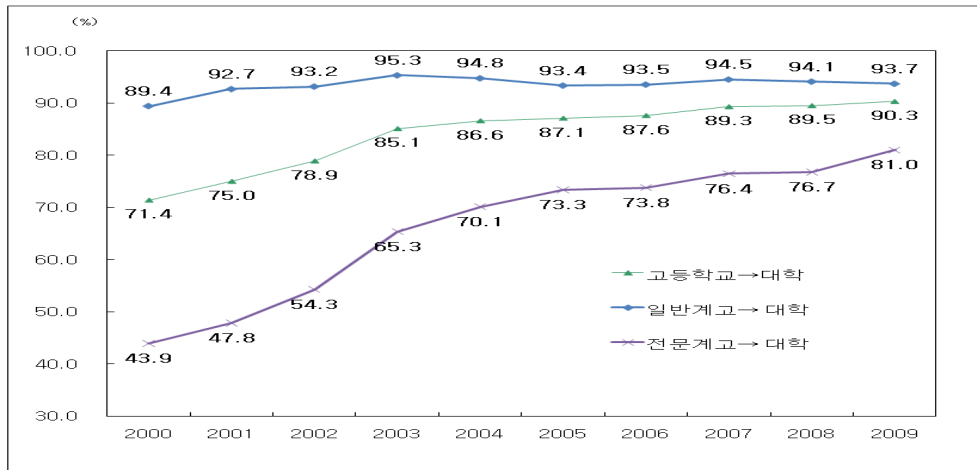
2. 교육

2.1. 진학률

2009년 동남권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90.3%임

- 2009년 동남권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0.3%로 10명 중 9명 이상 대학에 진학하였음
 - 대학진학률은 2008년 89.5%에 비해 0.8%p 증가, 2000년 71.4%에 비해 18.9%p 증가
 - 전국 평균 대학진학률 92.2%에 비해 1.9%p 낮음
- 2009년 동남권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2000년 이후 계속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5%로 2000년에 비해 0.3%p 감소

〈 대학교 진학률¹⁾ 추이 〉



〈 학교급별 진학률¹⁾ 〉

(단위 : %)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 ²⁾	일반계고교 → 대학 ²⁾	전문계 ³⁾ 고교 → 대학 ²⁾
동남권	2000	99.9 ⁴⁾	99.8	71.4	89.4	43.9
	2001	99.9 ⁴⁾	99.7	75.0	92.7	47.8
	2002	99.9 ⁴⁾	99.8	78.9	93.2	54.3
	2003	99.9 ⁴⁾	99.8	85.1	95.3	65.3
	2004	99.9 ⁴⁾	99.7	86.6	94.8	70.1
	2005	99.9 ⁴⁾	99.7	87.1	93.4	73.3
	2006	99.9 ⁴⁾	99.8	87.6	93.5	73.8
	2007	99.9 ⁴⁾	99.6	89.3	94.5	76.4
	2008	99.9 ⁴⁾	99.6	89.5	94.1	76.7
	2009	99.9 ⁴⁾	99.5	90.3	93.7	81.0
전국	2009	99.9 ⁴⁾	99.6	92.2	97.0	78.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 /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포함

3) 2007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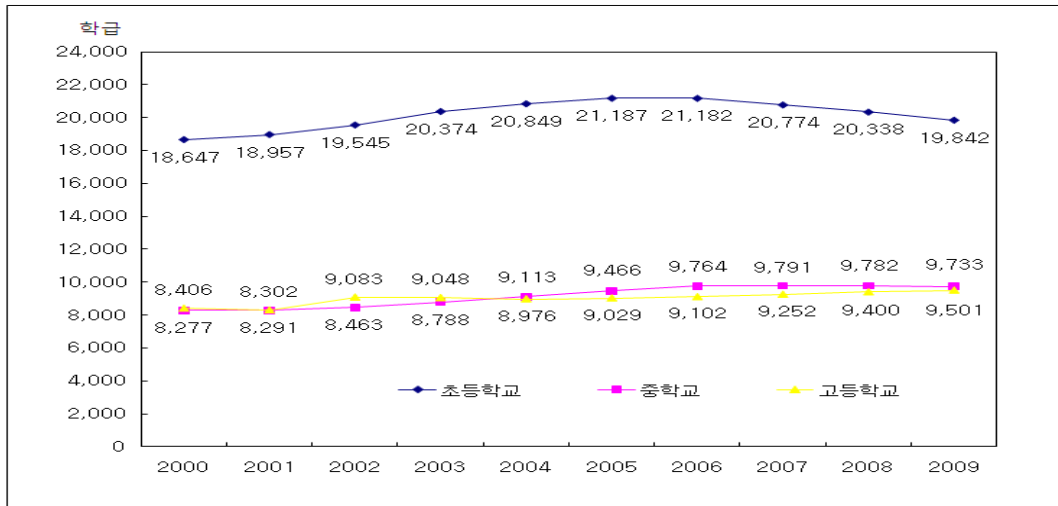
4)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2.2.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급수

**2009년 동남권은 초등학교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증가**

- 2009년 동남권의 초등학교는 908개교, 중학교 498개교, 고등학교 372개교로 2008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1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3개교 증가
 - 동남권 학교 수는 전국 중 초등학교 15.6%, 중학교 16.0%, 고등학교 16.7%를 차지
- 학급 수는 초등학교가 19,842개로 2008년에 비해 496개 학급 감소, 중학교는 9,733개 학급으로 2008년에 비해 49개 학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학급수는 9,501개로 2008년에 비해 101개 학급이 증가하였음

〈 학교급별 학급수 추이 〉



〈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급수 〉

(단위 : 개)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동남권	2000	801	18,647	437	8,277	321	8,406
	2001	810	18,957	443	8,291	322	8,302
	2002	825	19,545	448	8,463	329	9,083
	2003	841	20,374	460	8,788	338	9,048
	2004	859	20,849	463	9,113	350	8,976
	2005	873	21,187	472	9,466	350	9,029
	2006	893	21,182	478	9,764	363	9,102
	2007	898	20,774	488	9,791	362	9,252
	2008	907	20,338	491	9,782	369	9,400
	2009	908	19,842	498	9,733	372	9,501
전국	2009	5,829	124,892	3,106	58,396	2,225	57,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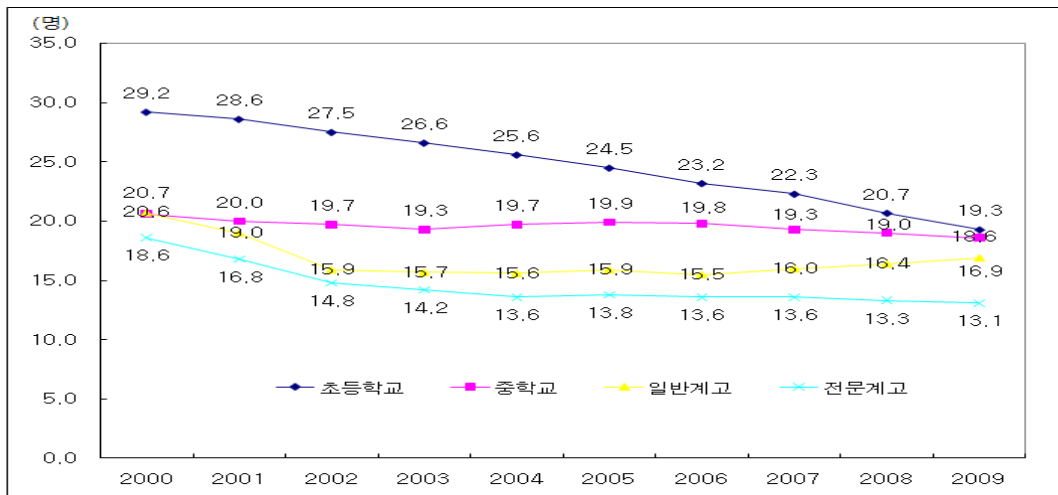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3. 교원 1인당 학생수

2009년 동남권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9.3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계 고등학교 13.1명으로 가장 적음

- 2009년 동남권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9.3명, 중학교 18.6명, 일반계 고등학교 16.9명, 전문계 고등학교 13.1명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는 각각 1.4명, 0.4명, 0.2명 감소한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0.5명 증가하였음
 - 2000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9.9명, 중학교는 2.0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3.8명, 전문계 고등학교는 5.5명이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초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는 각각 0.5명, 0.2명이 적고, 중학교, 일반계 고등학교는 각 0.2명 많음

〈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 〉



〈 교원 1인당 학생수 〉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동남권	2000	29.2	20.6	20.7	18.6
	2001	28.6	20.0	19.0	16.8
	2002	27.5	19.7	15.9	14.8
	2003	26.6	19.3	15.7	14.2
	2004	25.6	19.7	15.6	13.6
	2005	24.5	19.9	15.9	13.8
	2006	23.2	19.8	15.5	13.6
	2007	22.3	19.3	16.0	13.6
	2008	20.7	19.0	16.4	13.3
	2009	19.3	18.6	16.9	13.1
전국	2009	19.8	18.4	16.7	13.3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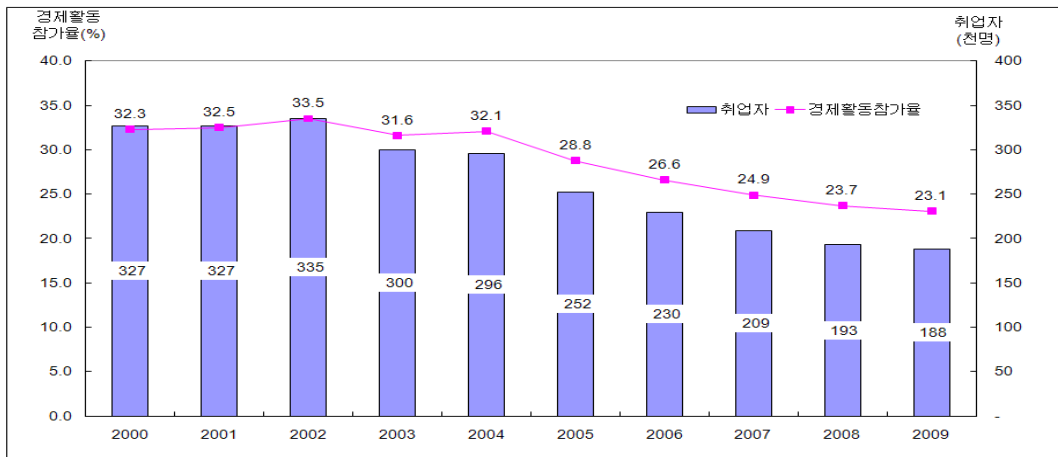
3. 노 동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2009년 동남권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3.1%

- 2009년 동남권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1%이며, 이 중 15~19세는 4.8%, 20~24세는 47.6%임
- 2000년과 비교하면, 진학률의 증가로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2.3%에서 9년만에 9.2%p 하락
- 전국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25.4%에 비해 동남권은 2.3%p 낮음

〈 청소년의 경제활동 〉



〈 청소년의 경제활동 〉

(단위 : 천명, %)

	연도	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비취업자		
동남권	2000(15~24세)	1,162	375	327	787	32.3
	2001(15~24세)	1,126	366	327	759	32.5
	2002(15~24세)	1,090	365	335	723	33.5
	2003(15~24세)	1,053	333	300	720	31.6
	2004(15~24세)	1,015	326	296	687	32.1
	2005(15~24세)	966	278	252	688	28.8
	2006(15~24세)	936	249	230	687	26.6
	2007(15~24세)	920	229	209	691	24.9
	2008(15~24세)	914	216	193	697	23.7
		(15~19세)	516	24	21	492
	(20~24세)	398	192	172	206	48.2
전국	2009(15~24세)	915	212	188	702	23.1
	(15~19세)	521	25	21	496	4.8
	(20~24세)	395	188	167	207	47.6
	2009(15~24세)	5,934	1,507	1,359	4,427	25.4
	(15~19세)	3,284	203	178	3,082	6.2
	(20~24세)	2,650	1,305	1,181	1,346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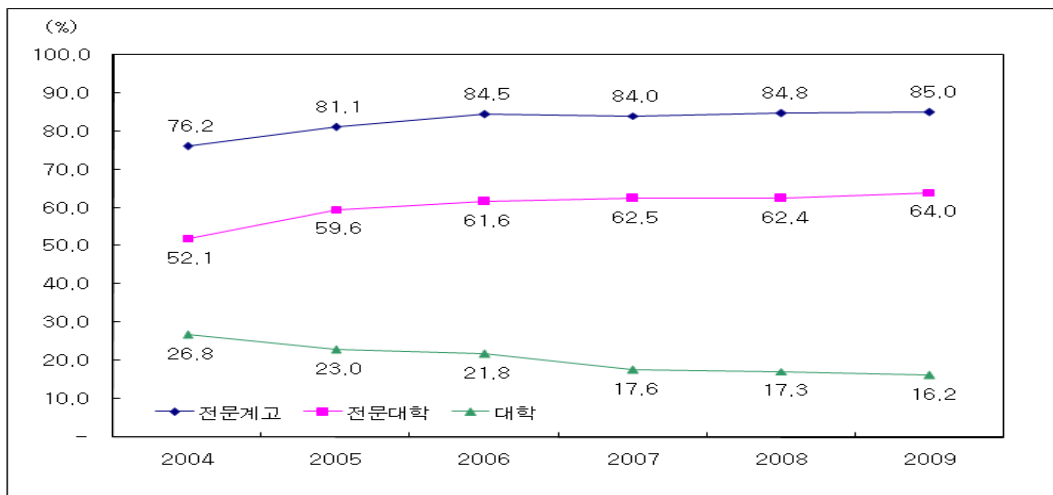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3.2.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2009년 동남권의 학교급별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학이 85.0%로 가장 높음**

- 2009년 동남권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은 전문대학이 85.0%로 가장 높고 대학 64.0%, 전문계고 16.2% 순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전문계고는 1.1%p 감소한 반면, 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1.6%p, 0.2%p 증가하였음
 - 2004년과 비교하면,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자 비율은 10.6%p 감소하였으며, 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11.9%p, 8.8%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에 비해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비율은 0.5%p 낮고, 전문대학, 대학은 각각 3.5%p, 3.3%p 높음

〈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



〈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

(단위 : 명, %)

	연도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동남권	2004	33,048	8,860	26.8	38,666	29,460	76.2	39,398	20,507	52.1
	2005	30,299	6,967	23.0	34,656	28,120	81.1	39,604	23,607	59.6
	2006	28,630	6,253	21.8	32,460	27,419	84.5	39,265	24,176	61.6
	2007	27,396	4,827	17.6	31,765	26,694	84.0	40,378	25,235	62.5
	2008	27,581	4,763	17.3	28,709	24,348	84.8	40,545	25,316	62.4
	2009	25,741	4,178	16.2	27,063	23,005	85.0	40,543	25,963	64.0
전국	2009	151,410	25,297	16.7	199,421	162,608	81.5	279,059	169,277	60.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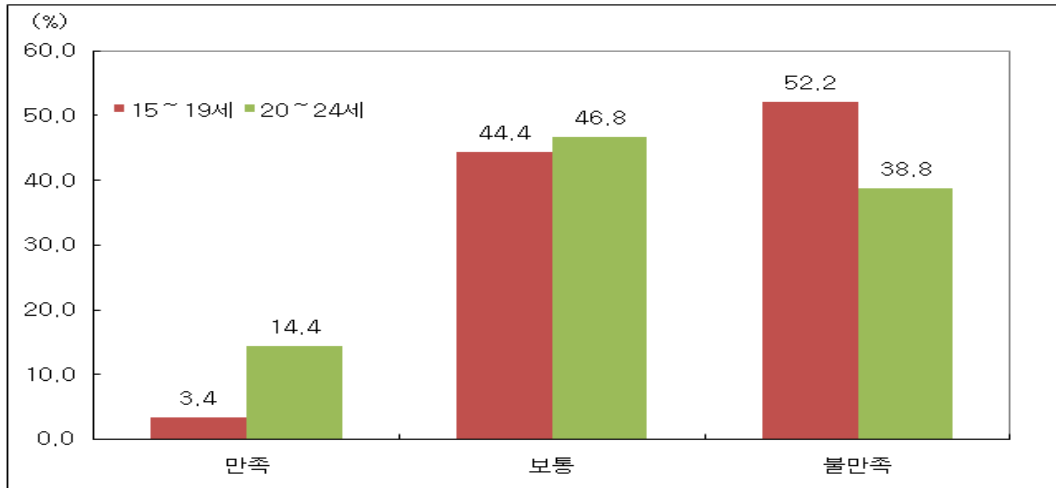
주 : 1) 취업자 : 순수 취업자(진학자, 입대자 제외)

3.3. 소득 만족도

2009년 소득이 있는 동남권의 청소년 중 15~19세의 3.4%, 20~24세의 14.4%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

- 2009년 동남권 청소년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15~19세의 5.8%, 20~24세의 45.0%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0.9%p 증가한 반면, 20~24세는 1.3%p 감소함
- 소득이 있는 청소년 중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3.4%, 20~24세 14.4%, '불만족'은 15~19세 52.2%, 20~24세 38.8%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의 '만족'비율은 3.5%p 감소, 20~24세는 8.2%p 증가
 - 전국에 비해 15~19세의 '만족'비율은 9.6%p 낮고, 20~24세는 1.8%p 높음

〈 청소년의 소득 만족도 (2009) 〉



〈 청소년의 소득 만족도 〉

(단위 : %)

			계	소득 있음 ¹⁾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소득 없음		소득 없음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동남권	2007	15세 이상	100.0	61.8	100.0	9.6	1.1	8.5	37.1	53.4	36.6	16.8	38.2
		15~19세	100.0	4.9	100.0	6.9	2.3	4.6	38.8	54.3	40.0	14.4	95.1
		20~24세	100.0	46.3	100.0	6.2	0.6	5.7	42.0	51.8	38.5	13.3	53.7
	2009	15세 이상	100.0	65.5	100.0	13.2	1.3	12.0	37.5	49.2	33.9	15.3	34.5
		15~19세	100.0	5.8	100.0	3.4	0.0	3.4	44.4	52.2	41.7	10.5	94.2
		20~24세	100.0	45.0	100.0	14.4	0.9	13.5	46.8	38.8	29.7	9.1	55.0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65.9	100.0	14.1	1.5	12.5	39.3	46.6	33.2	13.4	34.1
	15~19세	100.0	7.5	100.0	13.0	3.2	9.7	36.0	51.0	40.7	10.4	92.5	
	20~24세	100.0	45.2	100.0	12.6	1.5	11.1	40.4	47.1	36.2	10.9	54.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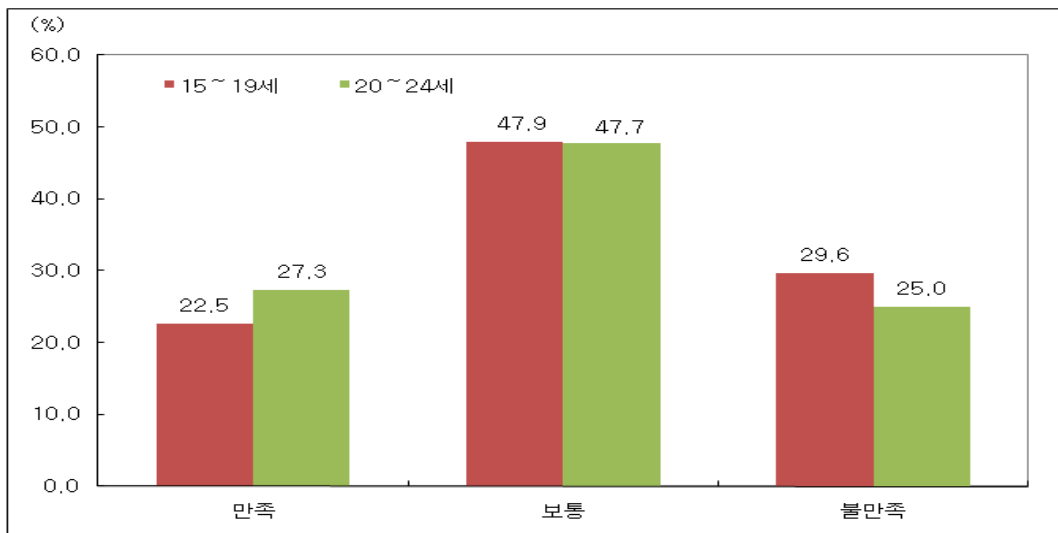
주 : 1) 조사시점 현재(2009년 7월) 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

3.4. 소비생활 만족도

**2009년 동남권 15~19세의 17.9%, 20~24세의 17.8%가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하고 있음**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이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현재 전반적인 소비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17.9%, 20~24세 17.8%
 - 2007년에 비해 15~19세, 20~24세 각각 4.1%p, 6.5%p 증가
- 현재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36.7%, 20~24세 38.3%
 - 2007년에 비해 15~19세, 20~24세 각각 4.1%p, 4.0%p 감소
- 전국에 비해 '만족'비율은 15~19세는 0.8%p 낮고, 20~24세는 2.2%p 높음
 - '불만족'비율은 15~19세는 0.5%p 낮고, 20~24세는 1.5%p 높음

〈 청소년의 소비생활 만족도 (2009) 〉



〈 청소년의 소비생활 만족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동남권	2007	15세 이상	100.0	9.4	0.9	8.5	44.0	46.6	34.9	11.7
		15~19세	100.0	13.8	2.3	11.5	45.3	40.8	33.9	7.0
		20~24세	100.0	11.3	0.9	10.5	46.4	42.3	32.7	9.6
	2009	15세 이상	100.0	12.4	1.7	10.7	45.7	41.9	32.5	9.4
		15~19세	100.0	17.9	3.7	14.2	45.3	36.7	28.7	8.1
		20~24세	100.0	17.8	4.6	13.2	43.9	38.3	30.1	8.2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13.7	1.8	11.9	46.1	40.2	30.5	9.7
		15~19세	100.0	18.7	4.1	14.6	44.1	37.2	28.2	9.0
		20~24세	100.0	15.6	2.9	12.7	47.6	36.8	29.4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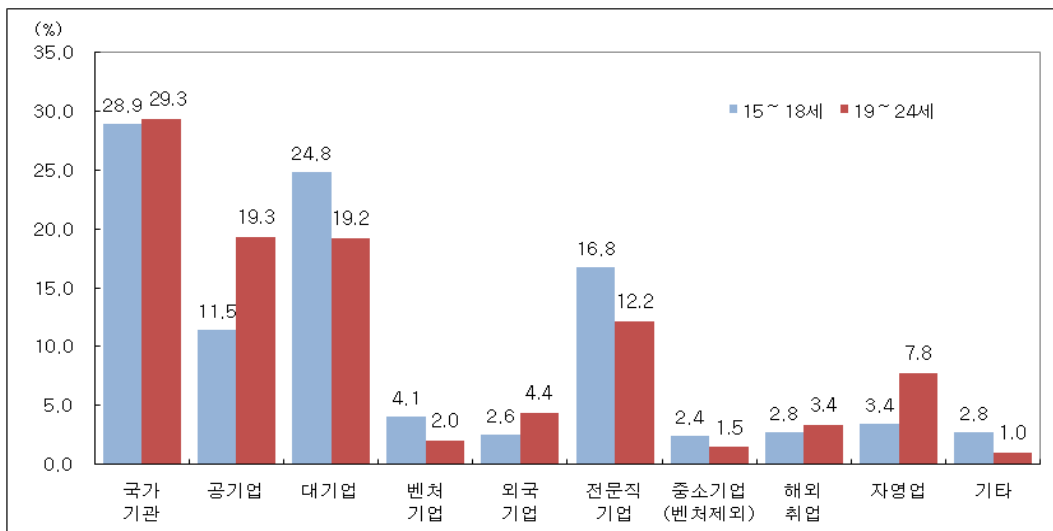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3.5.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 2009년 동남권의 15~24세 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으로 29.1%를 차지, 그 다음 '대기업' 22.0%, '공기업(공사공단)' 15.4% 등의 순
 - 15~18세는 '국가기관' 28.9%, '대기업' 24.8%, '전문직 기업' 16.8% 등의 순
 - 19~24세는 '국가기관' 29.3%, '공기업(공사공단)' 19.3% '대기업' 19.2% 등의 순
- 2006년에 비해 '대기업' 4.0%p, '공기업(공사공단)'은 3.5%p 증가, '국가기관' 6.6%p, '자영업' 1.6%p, '전문직 기업'은 1.5%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24세의 '대기업' 선호비율은 4.9%p 높고, '자영업'은 3.8%p, '공기업' 2.2%p 낮음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2009) 〉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

(단위 : %)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외국계기업	전문직기업	중소기업(벤처제외)	해외취업	자영업	기타	
동남권	2006	15~24세	35.7	11.9	18.0	3.2	2.6	16.0	2.0	3.1	7.2	0.4
		15~18세	35.1	8.8	18.4	4.9	2.2	20.3	1.7	2.4	6.0	0.3
		19~24세	36.1	14.5	17.6	1.8	2.8	12.5	2.3	3.7	8.1	0.4
	2009	15~24세	29.1	15.4	22.0	3.0	3.5	14.5	1.9	3.1	5.6	1.9
		15~18세	28.9	11.5	24.8	4.1	2.6	16.8	2.4	2.8	3.4	2.8
		19~24세	29.3	19.3	19.2	2.0	4.4	12.2	1.5	3.4	7.8	1.0
전국	2009	15~24세	28.6	17.6	17.1	2.5	4.3	14.1	1.9	3.5	9.4	1.0
		15~18세	29.6	12.5	20.6	3.1	4.0	17.4	1.9	3.2	6.0	1.7
		19~24세	27.0	18.7	16.7	2.8	4.3	13.5	2.4	4.6	9.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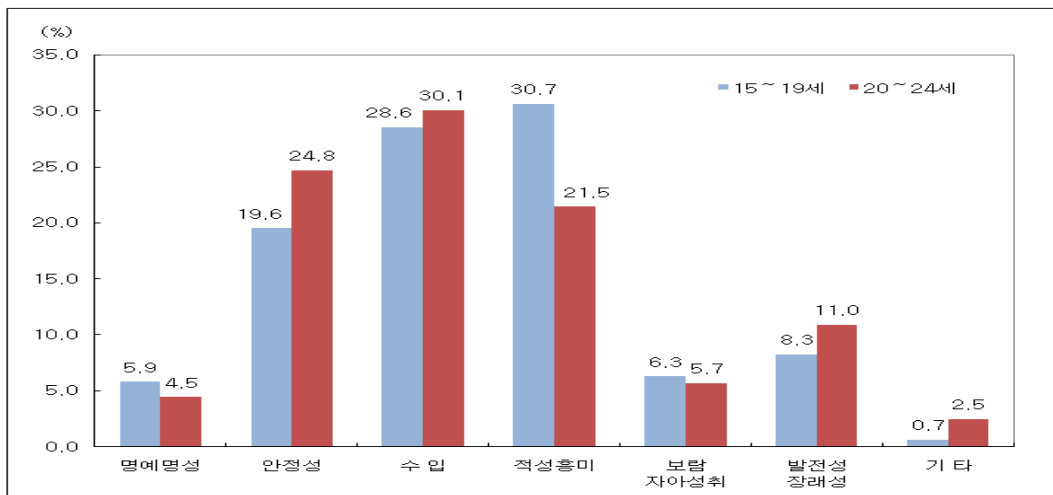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3.6. 직업선택요인

2009년 동남권 15~19세는 '적성·흥미', 20~24세가 '수입'을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

- 2009년 동남권의 청소년이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 15~19세는 '적성·흥미'가 30.7%로 가장 높고 '수입' 28.6%, '안정성' 19.6% 순
 - 20~24세는 '수입' 30.1%, '안정성' 24.8%, '적성·흥미' 21.5% 순으로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15~19세는 '수입'과 '적성·흥미'가 각각 9.5%p, 1.8%p 증가한 반면, '안정성'과 '보람·자아성취'가 각각 5.6%p, 2.9%p 감소
 - 20~24세는 '적성·흥미'와 '명예·명성'이 각각 3.5%p, 2.0%p 증가한 반면, '안정성'과 '보람·자아성취'가 각각 4.9%p, 1.1%p 감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수입'과 '명예·명성'이 각각 3.7%p, 1.1%p 높음
 - 20~24세는 '수입'이 3.2%p 높고, '보람·자아성취'는 3.7%p 낮음

〈 직업선택요인 (2009) 〉



〈 직업선택요인 〉

(단위 : %)

			계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 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기타 ¹⁾
동남권	2006	15세 이상	100.0	2.6	33.6	33.9	10.9	5.4	9.3	4.3
		15~19세	100.0	4.8	25.2	19.1	28.9	9.2	10.0	2.8
		20~24세	100.0	2.5	29.7	29.6	18.0	6.8	11.7	1.7
	2009	15세 이상	100.0	3.1	27.9	42.0	11.6	5.2	6.9	3.4
		15~19세	100.0	5.9	19.6	28.6	30.7	6.3	8.3	0.7
		20~24세	100.0	4.5	24.8	30.1	21.5	5.7	11.0	2.5
전국	15세 이상	100.0	3.3	30.4	36.3	11.3	7.4	7.8	3.5	
	15~19세	100.0	4.8	19.3	24.9	30.1	10.0	9.4	1.5	
	20~24세	100.0	3.9	25.2	26.9	21.9	9.4	11.5	1.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모르겠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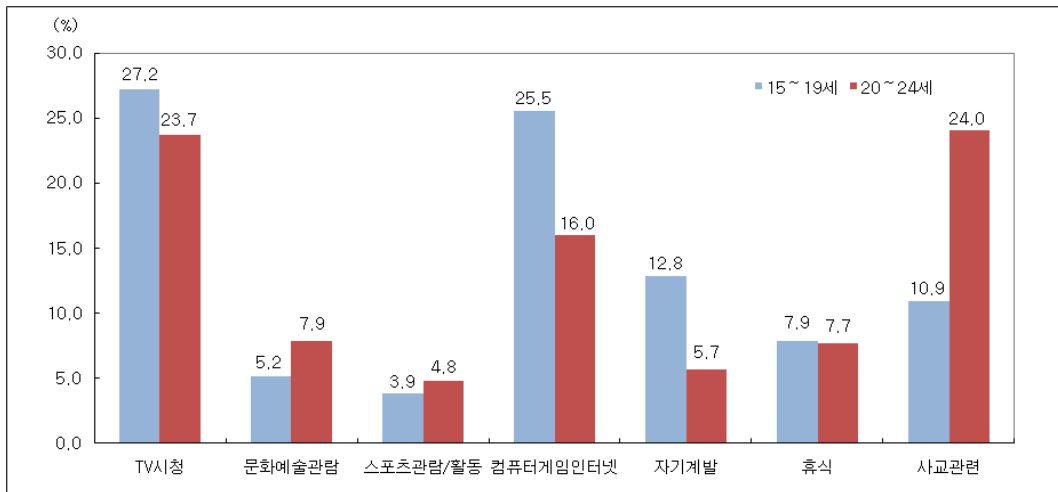
4. 문화여가

4.1.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2009년 동남권 15~19세는 'TV시청',
20~24세는 '사교관련 활동'으로 주로 여가를 활용**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의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으로 15~19세는 'TV시청'이 27.2%, 20~24세는 '사교관련'활동이 24.0%로 가장 많음
 - 그 다음 15~19세는 '컴퓨터게임, 인터넷' 25.5%, '자기계발' 12.8% 등의 순
 - 20~24세는 'TV시청' 23.7%, '컴퓨터게임, 인터넷' 16.0%, '문화예술 관람' 7.9% 등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TV시청'과 '문화예술 관람'이 각각 3.4%p, 1.7%p 증가, 20~24세는 '사교관련 활동'과 'TV시청', '여행'이 각각 3.8%p, 2.3%p, 1.5%p 증가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문화예술 관람' 1.8%p, 'TV시청' 0.7%p 높고, 20~24세는 '사교관련' 3.9%p, '컴퓨터게임, 인터넷' 1.1%p 높음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2009) 〉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주된 응답) 〉

(단위 : %)

			TV	여행	문화	스포츠	컴퓨터	창작적	자기	종교	가사	휴식	사교	기타 ¹⁾
			시청		예술	관람/	게임,	취미	계발	활동	일		관련	
동남권	2007	15세 이상	28.9	5.6	1.9	6.1	6.4	0.9	2.8	6.6	14.0	16.7	9.5	0.6
		15~19세	23.8	0.5	3.5	4.4	26.5	1.6	13.3	4.2	0.5	11.3	10.1	0.4
		20~24세	21.4	1.8	6.7	5.7	18.0	1.5	6.8	4.2	1.9	11.3	20.2	0.6
	2009	15세 이상	31.2	5.5	2.8	6.9	6.3	1.0	2.7	6.5	13.7	13.1	8.9	1.3
		15~19세	27.2	0.7	5.2	3.9	25.5	1.6	12.8	3.0	0.7	7.9	10.9	0.7
		20~24세	23.7	3.3	7.9	4.8	16.0	1.6	5.7	2.8	1.4	7.7	24.0	1.1
전국	15세 이상	30.1	5.3	2.5	6.3	5.9	1.0	3.1	9.6	14.1	12.9	8.3	1.1	
	15~19세	26.5	1.2	3.4	4.4	25.2	1.4	14.2	4.1	0.7	7.4	10.7	0.7	
	20~24세	22.8	3.5	8.9	5.6	14.9	1.4	7.6	3.9	2.2	8.7	20.1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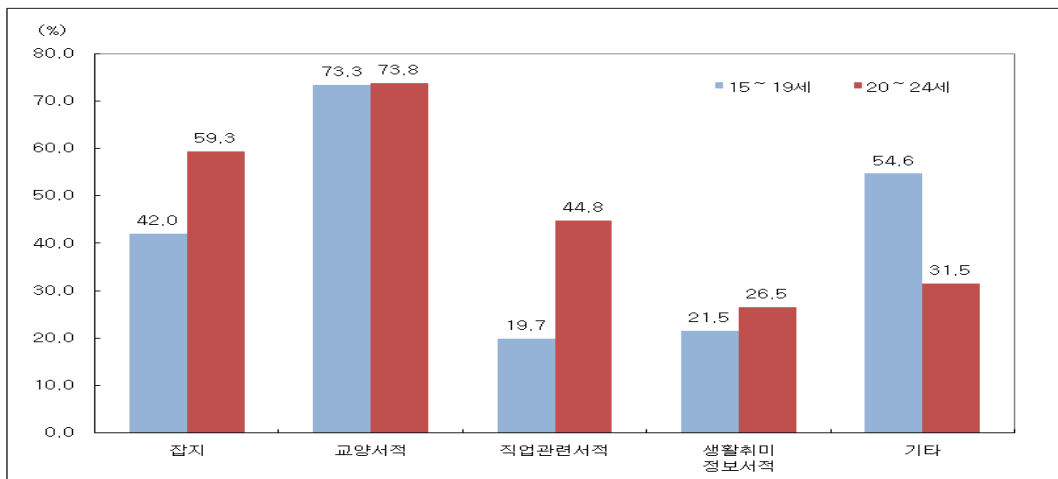
주 : 1) 「봉사활동」 포함

4.2. 독서인구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의 독서율은 15~19세 77.5%, 20~24세 78.8%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은 15~19세의 77.5%, 20~24세의 78.8%가 지난 1년(2008. 7. 6.~ 2009. 7. 5.)동안 독서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0.5%p, 20~24세는 2.5%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0.8%p, 20~24세는 3.5%p 낮음
- 서적류별로는 '교양서적'이 15~19세 73.3%, 20~24세 73.8%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15~19세는 '기타서적' 54.6%, '잡지' 42.0%, '생활취미정보서적' 21.5% 등의 순
 - 20~24세는 '잡지' 59.3%, '직업관련서적' 44.8% 등의 순

〈 청소년의 독서율 (2009) 〉



〈 청소년의 독서율 〉

(단위 : %)

		독서율 ¹⁾	독서율 (%)					
			잡지 ²⁾	교양서적 ²⁾	직업관련서적 ²⁾	생활취미정보서적 ²⁾	기타 ²⁾	
동남권	2007	15세 이상	57.1	51.2	62.9	31.0	24.4	19.9
		15~19세	78.0	38.6	70.6	12.5	14.1	50.5
		20~24세	81.3	49.3	67.0	36.4	18.0	37.4
	2009	15세 이상	59.0	54.1	61.9	36.2	28.4	23.0
		15~19세	77.5	42.0	73.3	19.7	21.5	54.6
		20~24세	78.8	59.3	73.8	44.8	26.5	31.5
전국	2009	15세 이상	62.1	51.1	67.2	39.0	27.6	20.4
		15~19세	78.3	38.0	75.1	19.8	17.0	49.0
		20~24세	82.3	56.3	73.6	45.2	27.6	34.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2008.7.6.~2009.7.5.)동안 독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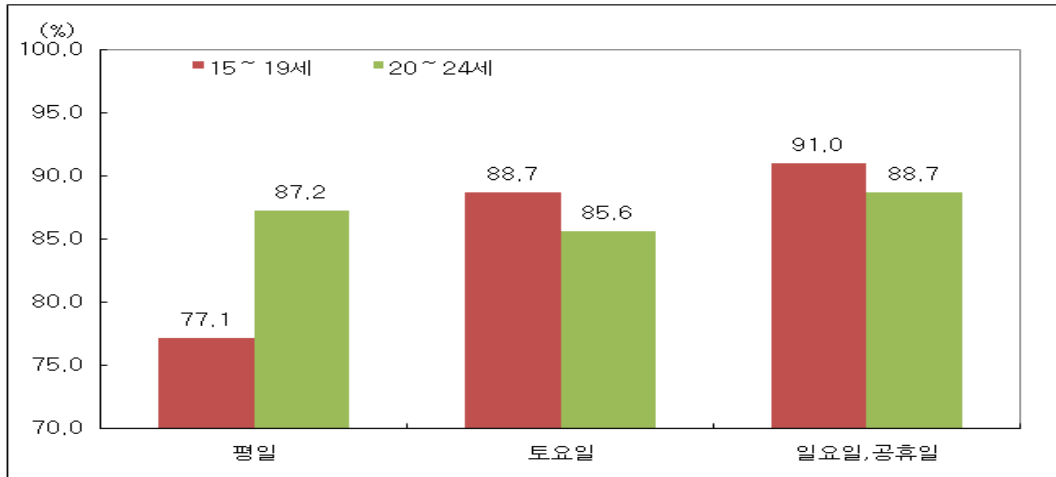
2) 서적별 독서율은 복수응답

4.3. TV 시청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의 TV시청비율은 15~19세 95.7%, 20~24세 96.7%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이 지난 1개월(2009. 6. 6.~ 7. 5.) 동안 TV를 시청한 비율은 15~19세 95.7%, 20~24세 96.7%로 나타남
 - 요일별로 15~19세는 일요일·공휴일 91.0%, 토요일 88.7%, 평일 77.1% 순
 - 20~24세는 일요일·공휴일 88.7%, 평일 87.2%, 토요일 85.6% 순임
- 2007년에 비해 TV시청비율은 15~19세 1.4%p, 20~24세 1.1%p 증가
 - 15~19세는 평일 2.1%p, 토요일 1.4%p, 일요일·공휴일 0.9%p 증가
 - 20~24세는 토요일 4.2%p, 일요일·공휴일 2.5%p 감소
- 전국에 비해 TV시청비율은 15~19세는 2.0%p, 20~24세는 2.2%p 높음

〈 TV 시청 비율 (2009) 〉



〈 TV 시청 비율 〉

(단위 : %)

			계	TV ¹⁾ 시청함	시청비율 (%)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동남권	2007	15세 이상	100.0	96.4	91.8	92.0	92.8
		15~19세	100.0	94.3	75.0	87.3	90.1
		20~24세	100.0	95.6	87.0	89.8	91.2
	2009	15세 이상	100.0	96.8	91.7	89.6	90.9
		15~19세	100.0	95.7	77.1	88.7	91.0
		20~24세	100.0	96.7	87.2	85.6	88.7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96.4	90.4	89.5	91.1
		15~19세	100.0	93.7	72.5	85.1	89.0
		20~24세	100.0	94.5	86.5	86.0	87.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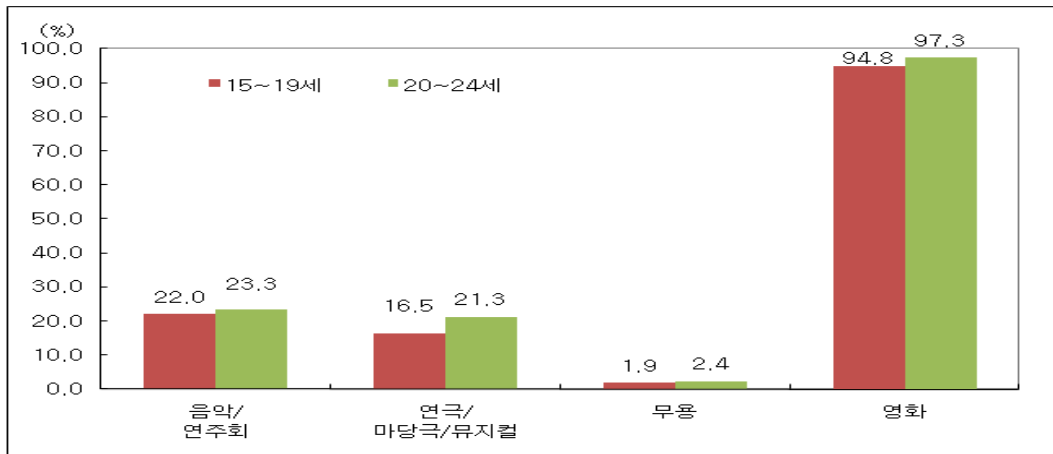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개월(2009.6.6.~7.5.) 동안 TV를 본 적이 있는 사람

4.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81.1%, 20~24세 81.6%**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의 지난 1년(2008. 7. 6.~ 2009. 7. 5.)동안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81.1%, 20~24세 81.6%
 - 분야별로는 공연장 관람률이 15~19세 92.8%, 20~24세 95.8%로 가장 높음
- 2007년에 비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20~24세 각각 5.2%p, 3.1%p 증가
 - 15~19세는 체육시설이 3.3%p 증가, 전시장, 공연장은 각각 1.4%p, 1.2%p 감소
 - 20~24세는 체육시설, 전시장, 공연장 각각 6.2%p, 3.3%p, 2.6%p 증가
- 전국에 비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는 1.7%p 높고, 20~24세는 2.5%p 낮음

〈 공연장 관람률 (2009)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단위 : %)

		관람률 ¹⁾	공연장 ²⁾					전시장 ²⁾	체육시설 ²⁾	
			음악/연주회 ³⁾	연극/마당극/뮤지컬 ³⁾	무용 ³⁾	영화 ³⁾				
동남권	2007	15세 이상	51.7	84.9	26.4	19.5	2.8	86.6	36.1	22.3
		15~19세	75.9	94.0	27.9	14.4	3.9	92.9	31.4	16.5
		20~24세	78.5	93.2	19.4	17.0	1.2	95.7	19.7	25.2
동남권	2009	15세 이상	53.0	87.2	23.3	20.5	2.2	90.8	30.4	27.0
		15~19세	81.1	92.8	22.0	16.5	1.9	94.8	30.0	19.8
		20~24세	81.6	95.8	23.3	21.3	2.4	97.3	23.0	31.4
전국	2009	15세 이상	55.0	89.5	26.1	26.2	2.3	91.0	32.5	20.5
		15~19세	79.4	94.6	24.3	20.1	2.9	93.7	26.4	13.7
		20~24세	84.1	96.0	26.6	29.7	2.6	96.3	26.8	21.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2008.7.6.~2009.7.5.)동안 공연장이나 전시장 또는 체육시설에 가 본적이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대상을 100%로 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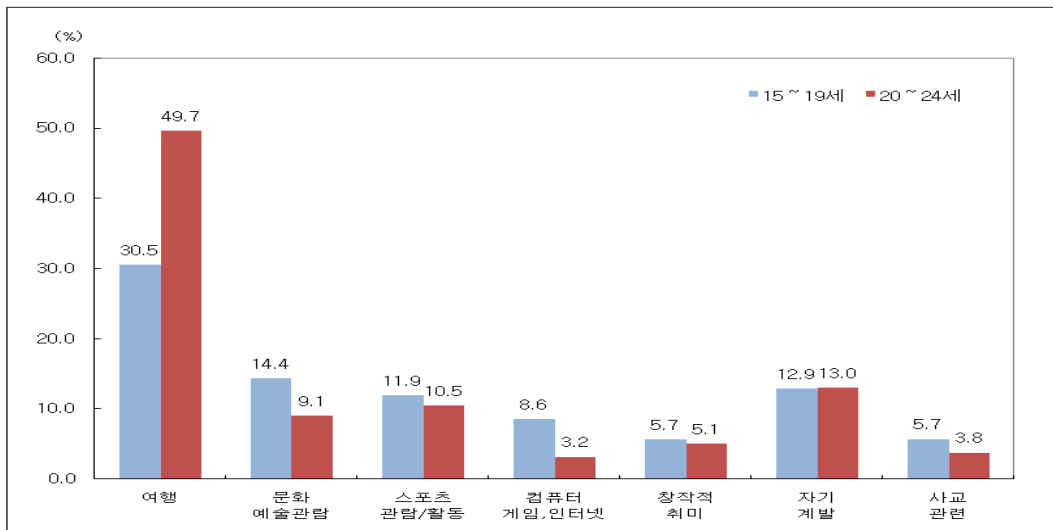
3)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 대상을 100%로 하여 산출

4.5.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 2009년 동남권 15~19세의 30.5%, 20~24세의 49.7%가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꼽음
 - 그 다음으로 15~19세는 '문화예술관람' 14.4%, '자기계발' 12.9%, '스포츠관람·활동' 11.9% 등의 순
 - 20~24세는 '자기계발' 13.0%, '스포츠관람·활동' 10.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여행'이 1.9%p 증가, '스포츠관람·활동' 1.7%p 감소, 20~24세는 '여행', '사교관련'활동이 각각 6.5%p, 0.7%p 증가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여행'이 1.2%p, '문화예술관람'이 0.7%p 높음
 - 20~24세는 '여행'이 3.1%p, '스포츠관람·활동'이 1.9%p 높음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09)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주된 응답) 〉

(단위 : %)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관람	스포츠 관람/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종교 활동	가사 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 ¹⁾
동남권	2007	15세 이상	4.8	43.7	6.9	11.0	1.8	4.7	8.3	3.7	1.5	5.9	5.3	2.2
		15~19세	3.5	28.6	14.9	13.6	9.8	6.4	14.4	1.0	0.1	2.5	4.7	0.5
		20~24세	2.7	43.2	10.0	11.9	3.0	4.1	17.9	1.4	0.1	2.1	3.1	0.3
	2009	15세 이상	4.7	43.0	6.4	10.6	1.6	4.9	9.9	4.0	1.1	4.9	5.8	3.0
		15~19세	4.8	30.5	14.4	11.9	8.6	5.7	12.9	0.7	0.0	3.8	5.7	1.1
		20~24세	2.6	49.7	9.1	10.5	3.2	5.1	13.0	0.9	0.0	1.6	3.8	0.7
전국	2009	15세 이상	4.7	45.1	6.8	9.5	1.8	4.2	8.9	4.3	1.1	5.6	5.1	2.8
		15~19세	4.6	29.3	13.7	11.3	9.7	5.7	13.7	1.1	0.0	4.0	6.2	0.7
		20~24세	2.7	46.6	10.4	8.6	3.3	4.4	16.5	0.8	0.0	2.8	3.2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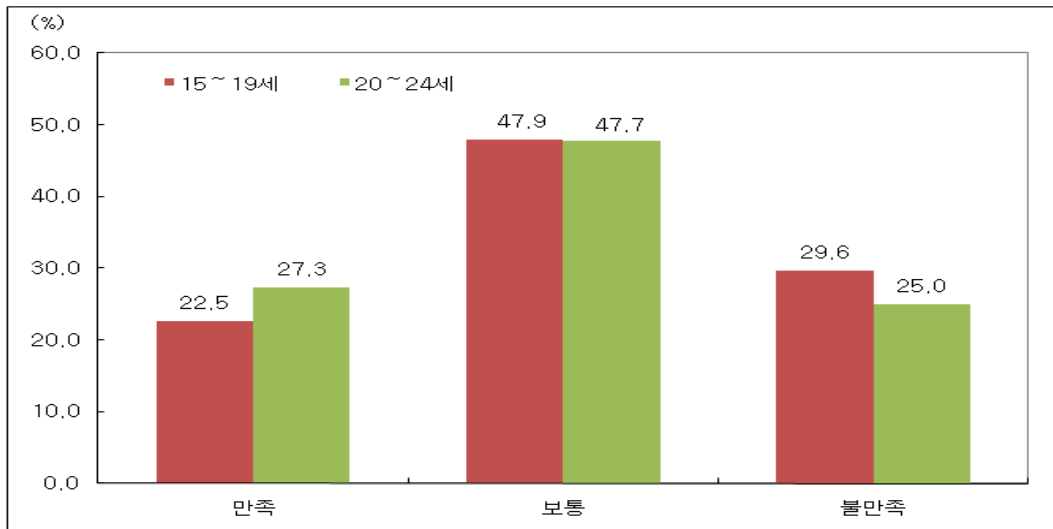
주 : 1) 기타에 봉사활동 포함됨

4.6. 여가활동 만족도

2009년 동남권 15~19세의 22.5%, 20~24세의 27.3%가 현재 여가활동에 만족

- 2009년 동남권 청소년 중 현재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가 22.5%, 20~24세 27.3%로 나타남
 - '불만족'인 비율은 15~19세는 29.6%, 20~24세 25.0%임
 - 15~19세는 여가활동 '불만족' 비율이, 20~24세는 '만족' 비율이 더 높음
- 2007년에 비해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15~19세는 1.1%p, 20~24세는 5.2%p 증가
- 전국에 비해 '만족'비율이 15~19세, 20~24세 각각 2.7%p, 0.3%p 낮음

〈 여가활동 만족도 (2009) 〉



〈 여가활동 만족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동남권	2007	15세 이상	100.0	20.8	-	-	-	79.2	-	-
		15~19세	100.0	21.4	-	-	-	78.6	-	-
		20~24세	100.0	22.1	-	-	-	77.9	-	-
	2009	15세 이상	100.0	19.8	4.3	15.4	45.8	34.5	27.5	7.0
		15~19세	100.0	22.5	4.5	18.1	47.9	29.6	22.9	6.7
		20~24세	100.0	27.3	5.6	21.7	47.7	25.0	20.7	4.3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21.8	4.9	16.9	46.1	32.1	24.7	7.4
		15~19세	100.0	25.2	6.5	18.6	44.3	30.5	22.8	7.8
		20~24세	100.0	27.6	5.6	22.1	47.5	24.9	20.8	4.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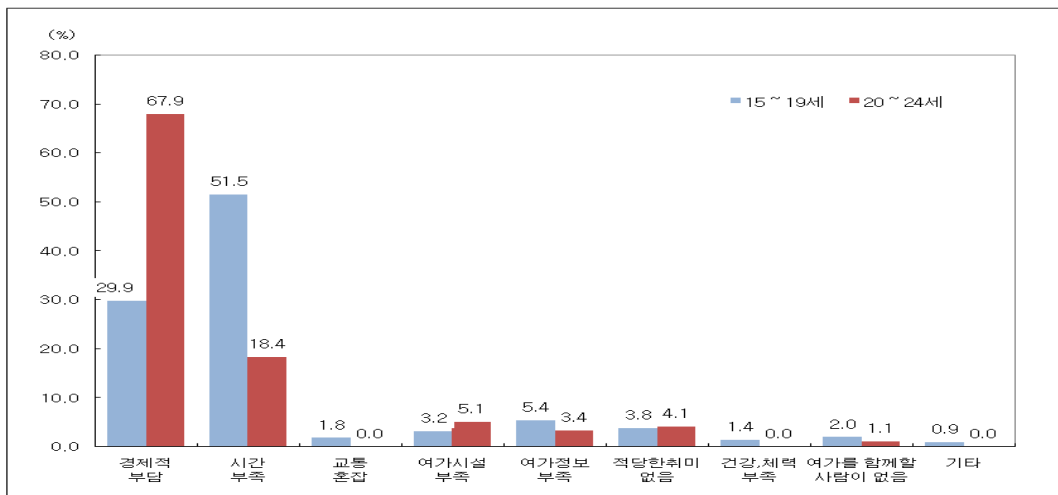
주 : 1) 2007년은 '만족', '불만족'으로만 구분

4.7.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9년 동남권 15~19세는 '시간부족',
20~24세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불만족**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의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는 15~19세는 '시간부족'이 51.5%, 20~24세는 '경제적 부담'이 67.9%로 가장 높음
 - 그 다음 15~19세는 '경제적 부담' 29.9%, '여가정보부족' 5.4% 등의 순
 - 20~24세는 '시간부족' 18.4%, '여가시설부족' 5.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여가정보부족'과 '교통혼잡'이 각각 2.5%p, 1.2%p 증가한 반면 '경제적 부담'은 3.5%p 감소
 - 20~24세는 '경제적 부담'과 '여가정보부족'이 각각 9.0%p, 1.7%p 증가한 반면, '시간부족'은 4.8%p 감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경제적 부담', '여가정보부족'이 각각 4.0%p, 3.2%p 높음
 - 20~24세는 '경제적 부담'이 14.6%p 높고, '시간부족'은 10.8%p 낮음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9) 〉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

(단위 : %)

		계 ¹⁾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 시설 부족	여가 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 없음	건강, 체력 부족	여가를 함께할 사람이 없음	기타	
동남권	2007	15세 이상	100.0	57.7	23.9	2.0	2.5	1.7	3.1	7.4	1.5	0.1
		15~19세	100.0	33.4	51.0	0.6	5.3	2.9	4.2	1.0	1.2	0.4
		20~24세	100.0	58.9	23.2	2.2	5.2	1.7	5.2	0.6	2.9	0.0
	2009	15세 이상	100.0	57.6	24.4	1.8	1.9	1.0	1.9	8.1	2.2	1.2
		15~19세	100.0	29.9	51.5	1.8	3.2	5.4	3.8	1.4	2.0	0.9
		20~24세	100.0	67.9	18.4	0.0	5.1	3.4	4.1	0.0	1.1	0.0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54.3	28.4	1.9	1.8	0.8	2.4	7.7	1.8	0.9
		15~19세	100.0	25.9	57.9	2.2	4.2	2.2	4.4	0.6	1.5	1.0
		20~24세	100.0	53.3	29.2	2.0	4.5	1.7	4.6	1.9	2.0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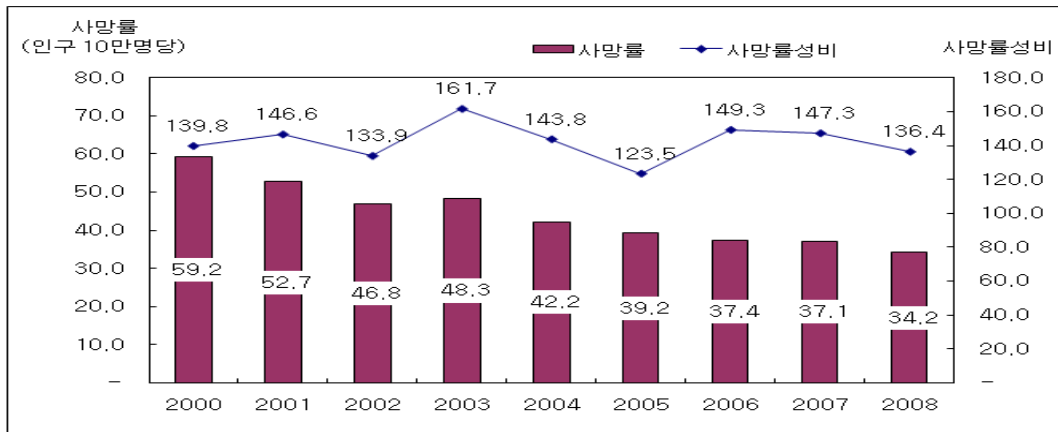
5. 보건·복지

5.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2008년 동남권 0~24세 청소년의 사망률은 10만명당 34.2명으로 2000년 59.2명에 비해 25.0명 감소

- 2008년 동남권 0~24세 사망률은 10만명당 34.2명으로 2007년 37.1명에 비해 2.9명 감소하였음
 - 사망률성비는 2008년 136.4로 전년에 비해 10.9p 낮아졌음
 - 전국에 비해 0~24세 사망률은 1.1명(10만명당) 높고 사망률 성비는 0.7p 높음
- 청소년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는 0세의 사망률이 337.9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20~24세가 44.5명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사망률 〉



〈 청소년(0~24세) 사망자수 및 사망률 〉

		계		남 자		여 자		사망률 성 비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동남권	2000(0~24세)	1,760	59.2	1,071	68.4	689	48.9	139.8
	2001(0~24세)	1,540	52.7	956	62.1	584	42.3	146.6
	2002(0~24세)	1,336	46.8	802	53.1	534	39.7	133.9
	2003(0~24세)	1,348	48.3	870	58.9	478	36.4	161.7
	2004(0~24세)	1,146	42.2	709	49.2	437	34.2	143.8
	2005(0~24세)	1,031	39.2	601	43.0	430	34.8	123.5
	2006(0~24세)	951	37.4	598	44.3	353	29.6	149.3
	2007(0~24세)	915	37.1	573	43.7	342	29.7	147.3
	2008(0~24세)	820	34.2	499	39.0	321	28.6	136.4
	(0세)	231	337.9	123	348.9	108	326.2	107.0
	(1 ~ 4세)	62	22.7	38	26.7	24	18.3	145.4
(5 ~ 9세)	59	13.4	28	12.1	31	14.9	81.0	
(10~14세)	64	11.6	37	12.5	27	10.6	118.1	
(15~19세)	173	31.5	122	41.2	51	20.2	203.6	
(20~24세)	231	44.5	151	54.6	80	32.9	165.7	
전 국	2008(0~24세)	5,381	35.3	3,223	40.4	2,158	29.8	135.7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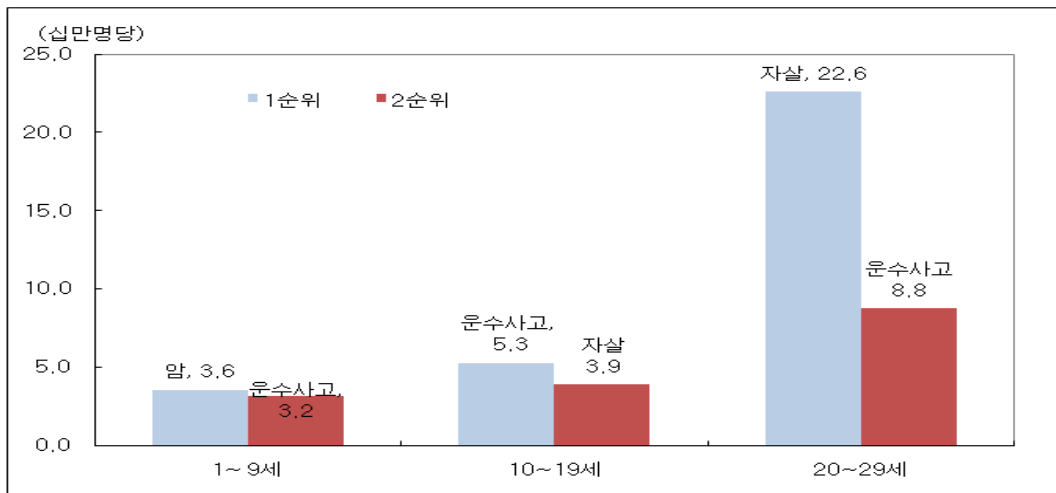
주 : 사망률성비 = (남자사망률/여자사망률 × 100)

5.2. 청소년 사망원인

2008년 동남권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1~9세 암(악성악생물), 10~19세 운수사고, 20~29세 고의적 자해(자살)

- 2008년 동남권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1~9세는 '암', 10~19세 '운수사고', 20~29세 '고의적 자해'로 나타남
 - 그 다음 1~9세는 '운수사고', '호흡기 결핵', '선천기형', '가해(타살)'이 원인
 - 10~19세는 '고의적 자해', '암', '익사사고', '추락사고' 순
 - 20~29세는 '운수사고', '암', '심장질환', '추락사고' 순
- 남자 1~9세는 '암', 10~19세는 '운수사고'가 사망원인 1순위이며, 여자 1~9세는 '운수사고', 10~19세는 '고의적 자해'가 사망원인 1순위
 - 20~29세는 남녀 모두 '고의적 자해'가 사망원인 1순위임

〈 청소년 사망원인 (2008) 〉



〈 청소년 사망원인 (2008) 〉

(단위 : 10만명당)

	1위	2위	3위	4위	5위
1~9세 사망률	암(악성신생물) 3.6	운수사고 3.2	호흡기 결핵 2.6	선천기형 1.4	가해(타살) 1.2
남 자	암(악성신생물) 3.6	운수사고 3.2	호흡기 결핵 2.6	선천기형 1.4	가해(타살) 1.2
여 자	운수사고 3.2	호흡기결핵, 암(악성신생물) 3.2	호흡기 결핵 2.6	선천기형, 가해(타살) 1.4	가해(타살) 1.2
10~19세 사망률	운수사고 5.3	고의적자해(자살) 3.9	암(악성신생물) 3.5	익사사고 1.5	추락사고 0.8
남 자	운수사고 5.3	고의적자해(자살) 3.9	암(악성신생물) 3.5	익사사고 1.5	추락사고 0.8
여 자	고의적자해(자살) 3.9	암(악성신생물) 3.5	운수사고 3.2	호흡기 결핵, 심장질환 3.2	추락사고 0.8
20~29세 사망률	고의적자해(자살) 22.6	운수사고 8.8	암(악성신생물) 6.1	심장질환 2.4	추락사고 1.9
남 자	고의적자해(자살) 22.6	운수사고 8.8	암(악성신생물) 6.1	심장질환 2.4	추락사고 1.9
여 자	고의적자해(자살) 22.6	암(악성신생물) 6.1	운수사고 8.8	가해(타살) 1.2	심장질환 1.9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8년

5.3.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및 보호내용

**2009년 발생한 동남권 요보호아동은 922명이며
발생유형은 '부모이혼 등'이 33.9%**

- 2009년 발생한 동남권의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922명
 - 발생유형별로 '부모이혼 등' 33.9%, '학대' 20.6%, '부모사망' 14.3%, '부모빈곤실직' 10.7% 순
 - 전국에 비해 '부모이혼 등'은 9.1%p, '학대' 9.0%p, '부모사망' 5.8%p 높음
- 요보호 아동의 보호내용은 각종 시설보호가 50.9%, 가정보호가 49.1%를 차지
 - '위탁보호가정' 39.9%, '양육시설'은 33.8%, '공동생활가정' 12.9% 등의 순
 - 전국에 비해 '위탁보호가정', '양육시설'은 각각 9.6%p, 7.1%p 높고, '일시보호시설'은 14.3%p 낮음

〈 요보호아동¹⁾ 발생유형 〉

(단위 : 명, %)

	연도	계	기아	미혼모아	미아	비행가출 부랑아	학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동남권	2006	1,007	41	26	14	72	854 ²⁾				
	2007	1,080	29	25	7	111	908 ²⁾				
	2008	1,288	42	312	13	66	113	140	218	69	315
	2009	922	46	57	2	41	190	99	132	42	313
	구성비	100.0	5.0	6.2	0.2	4.4	20.6	10.7	14.3	4.6	33.9
전국	2009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구성비	100.0	2.5	34.0	0.4	7.8	11.6	7.9	8.5	2.5	24.8

〈 요보호아동¹⁾ 보호내용 〉

(단위 : 명, %)

	연도	계	시설보호				가정보호		
			양육 ³⁾	일시보호 ³⁾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입양	소년소녀 가정책임
동남권	2006	1,007	384		-	-	581	6	36
	2007	1,080	449		6	-	565	28	32
	2008	1,288	477	35	4	92	467	171	42
	2009	922	312	36	2	119	368	49	36
	구성비	100.0	33.8	3.9	0.2	12.9	39.9	5.3	3.9
전국	2009	9,028	2,406	1,640	35	686	2,734	1,314	213
	구성비	100.0	26.7	18.2	0.4	7.6	30.3	14.6	2.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요보호아동 연령은 만 18세 미만임

2) 2005년~2007년 = 학대+빈곤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3) 2008년 아동보호시설이 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로 구분, 미혼모시설이 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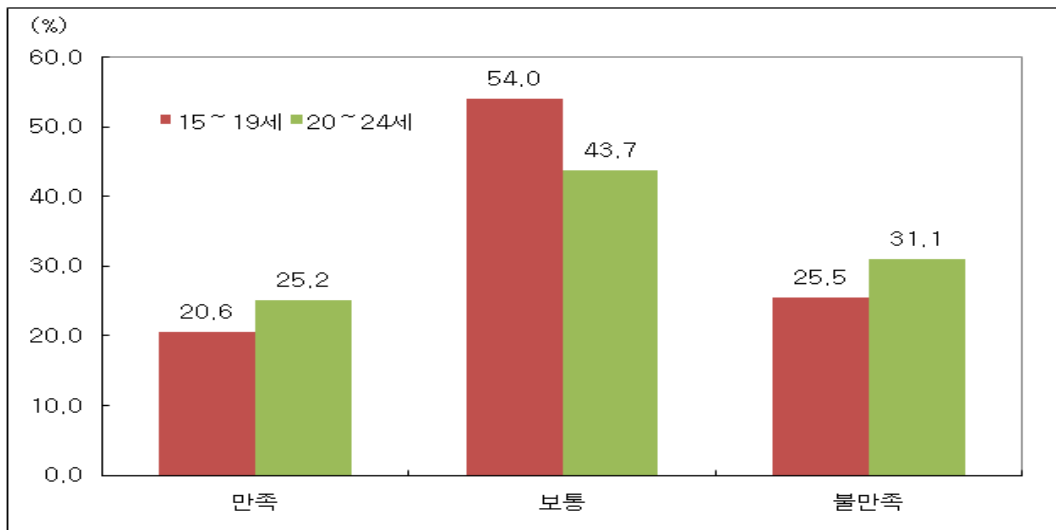
6. 사회참여·안전

6.1. 주관적 만족감

**2009년 동남권 15~19세의 20.6%, 20~24세의 25.2%는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 2009년 동남권 청소년 중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20.6%, 20~24세 25.2%
 - '불만족'인 비율은 15~19세 25.5%, 20~24세 31.1%
 - 15~19세, 20~24세 모두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높게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만족' 비율은 15~19세 13.9%p, 20~24세 2.9%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만족'은 15~19세가 3.2%p 낮고, 20~24세가 1.9%p 높음

〈 주관적 만족감 (2009) 〉



〈 주관적 만족감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동남권	2006	15세 이상	100.0	28.0	3.8	24.3	39.7	32.2	23.9	8.3
		15~19세	100.0	34.5	7.0	27.5	42.5	23.0	17.8	5.2
		20~24세	100.0	28.1	3.7	24.4	40.8	31.1	24.7	6.4
	2009	15세 이상	100.0	18.5	2.8	15.8	45.5	36.0	28.6	7.4
		15~19세	100.0	20.6	4.2	16.3	54.0	25.5	21.3	4.1
		20~24세	100.0	25.2	5.5	19.7	43.7	31.1	24.7	6.4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20.9	3.3	17.6	45.3	33.8	26.5	7.4
		15~19세	100.0	23.8	5.3	18.5	48.8	27.4	22.2	5.2
		20~24세	100.0	23.3	4.4	18.9	49.2	27.6	21.6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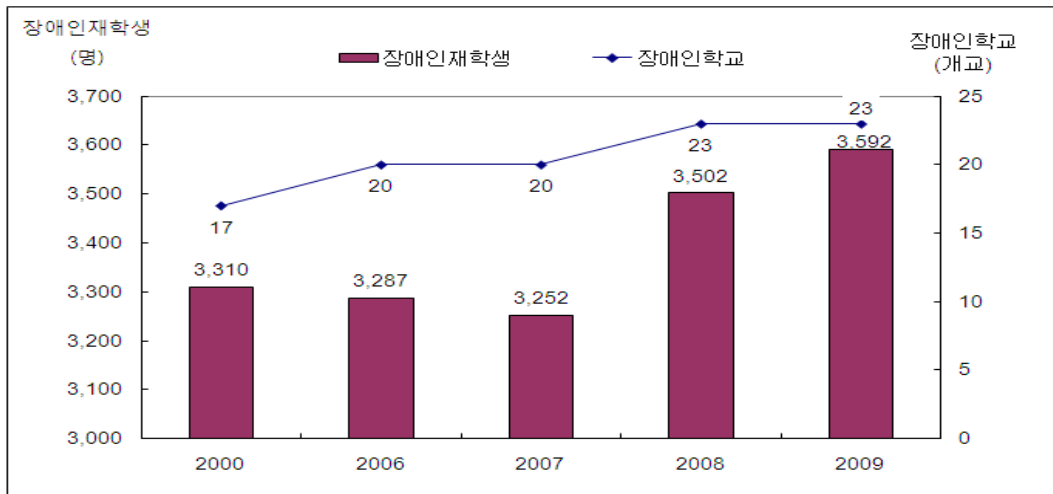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6.2. 장애인 학교 취학자

2009년 동남권 장애인 학교 취학자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73.1%로 가장 많음

- 2009년 동남권의 장애인 학교는 23개로 총 재학생은 3,592명
 - 2000년에 비해 장애인 학교는 6개교 증가, 총 재학생은 282명 증가
- 재학생의 장애유형별 구성비는 '정신지체'가 73.1%로 가장 많고, '지체부자유' 14.4%, '청각장애' 5.8%, '시각장애' 3.5%, '정서장애' 3.2% 순
 - 2008년에 비해 시각장애 취학자는 6.0% 증가한 반면, 정서장애와 청각장애 취학자는 각각 18.3%, 5.0%의 감소율을 보임
 - 전국에 비해 '지체부자유'와 '정신지체' 비율이 각각 3.4%p, 2.1%p 높음

〈 장애인 학교 취학자 〉



〈 장애인 학교 취학자 현황 〉

(단위 : 개교, 명, %)

	연도	학교수	재학생 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부자유인	정신지체인	정서장애인
				(명)	(명)	(명)	(명)	(명)
동남권	2000	17	3,310 (100.0)	110 (3.3)	364 (11.0)	546 (16.5)	2,290 (69.2)	- (0.0)
	2006	20	3,287 (100.0)	98 (3.0)	238 (7.2)	573 (17.4)	2,270 (69.1)	108 (3.3)
	2007	20	3,252 (100.0)	96 (3.0)	260 (8.0)	516 (15.9)	2,271 (69.8)	109 (3.4)
	2008	23	3,502 (100.0)	117 (3.3)	220 (6.3)	496 (14.2)	2,527 (72.2)	142 (4.1)
	2009	23	3,592 (100.0)	124 (3.5)	209 (5.8)	516 (14.4)	2,627 (73.1)	116 (3.2)
	증감률 ¹⁾	0.0	2.6	6.0	△5.0	4.0	4.0	△18.3
전국	2009	150	23,720 (100.0)	1,457 (6.0)	1,347 (6.0)	2,648 (11.0)	16,734 (71.0)	1,518 (6.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비율임

6.3.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은 자신의 장애인 차별은 '없다'고 생각하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심하다'고 생각

- 2009년 동남권 청소년은 사회의 장애인 차별정도에 대해 15~19세는 '없다' 20.4%, '심하다' 79.6%, 20~24세는 '없다' 24.5%, '심하다' 75.5%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15~19세는 '없다' 83.2%, '심하다' 16.8%, 20~24세는 '없다' 89.9%, '심하다' 10.1%의 응답을 보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자신과 사회의 인식에 차이를 보임
- 전국에 비해 사회의 장애인 차별 '없음'은 15~19세, 20~24세 각각 1.9%p, 5.0%p 높고 자신의 장애인 차별 '없음'은 15~19세, 20~24세 각각 3.2%p, 0.3%p 낮음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사회) 〉

(단위 : %)

			계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함	매우심함
동남권	2007	15세이상	100.0	2.6	23.3	44.3	20.5	9.3
		15~19세	100.0	1.7	20.8	44.5	22.9	10.1
		20~24세	100.0	1.5	17.0	46.7	21.4	13.4
	2009	15세이상	100.0	2.1	24.1	47.0	18.9	7.9
		15~19세	100.0	1.9	18.5	46.2	22.2	11.1
		20~24세	100.0	1.8	22.7	46.0	21.4	8.1
전국	2009	15세이상	100.0	1.8	21.8	48.1	19.9	8.4
		15~19세	100.0	1.8	16.7	49.1	22.3	10.1
		20~24세	100.0	1.2	18.3	48.0	23.5	9.0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자신) 〉

(단위 : %)

			계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함	매우심함
동남권	2007	15세이상	100.0	19.3	70.9	8.5	1.1	0.2
		15~19세	100.0	16.2	69.5	12.3	1.8	0.2
		20~24세	100.0	14.5	71.3	12.4	1.4	0.4
	2009	15세이상	100.0	20.0	72.1	7.0	0.7	0.2
		15~19세	100.0	12.0	71.2	14.1	2.4	0.3
		20~24세	100.0	17.2	72.8	9.3	0.7	0.0
전국	2009	15세이상	100.0	19.3	73.1	6.4	0.9	0.3
		15~19세	100.0	14.2	72.2	10.8	2.1	0.8
		20~24세	100.0	14.6	75.6	8.7	1.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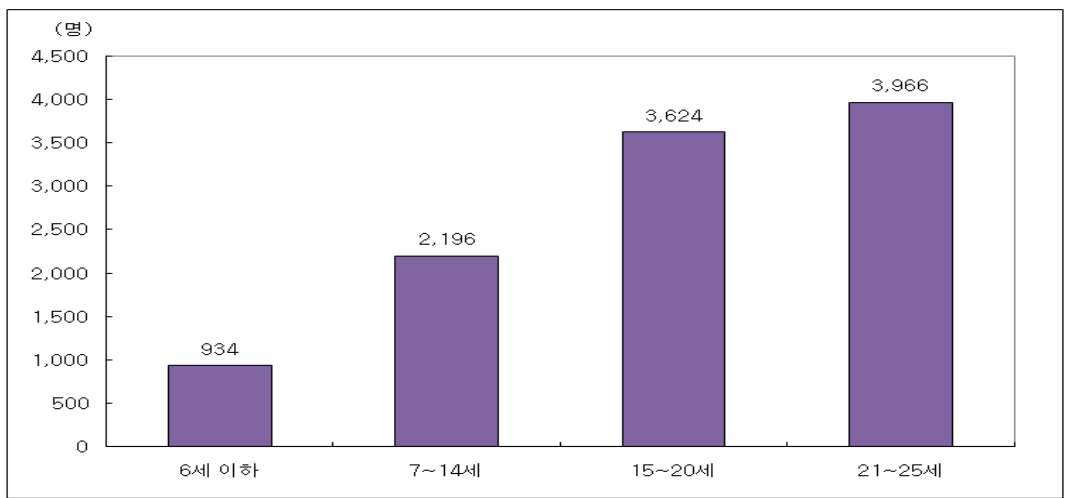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6.4. 청소년 교통사고

2008년 동남권의 교통사고 사상자 중 25세 이하가 22.2%를 차지

- 2008년 교통사고로 인한 동남권의 25세 이하 사상자는 10,720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자 48,236명의 22.2%를 차지함
 - 이 중 연령별로 보면 21~25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가장 높음
- 2007년에 비해 25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는 6.2% 증가하였음
- 전국에 비해 25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비율은 0.7%p 낮음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

(단위 : 명, %)

		전 체	25세 이하	6세 이하 ¹⁾	7~14세 ¹⁾	15~20세	21~25세
동남권	2005	45,925	10,642	1,562	1,638	2,784	4,658
	2006	48,203	10,874	1,464	1,670	3,034	4,706
	2007	43,988	10,096	1,314	1,636	3,058	4,088
	2008	48,236	10,720	934	2,196	3,624	3,966
	구성비	100.0	22.2	1.9	4.6	7.5	8.2
	증감률 ²⁾	9.7	6.2	△28.9	34.2	18.5	△3.0
사망자		879	114	10	12	46	46
부상자		47,357	10,606	924	259	3,578	3,920
전 국	2008	344,831	79,029	7,230	15,295	26,348	30,156
	구성비	100.0	22.9	2.1	4.4	7.6	8.7
	증감률 ²⁾	0.8	△0.2	△8.3	1.1	10.2	△6.5
	사망자	5,870	815	69	92	295	359
	부상자	338,961	78,214	7,161	15,203	26,053	29,797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년도

주 : 1) 2005년 ~ 2007년 : 7세 이하와 8~14세로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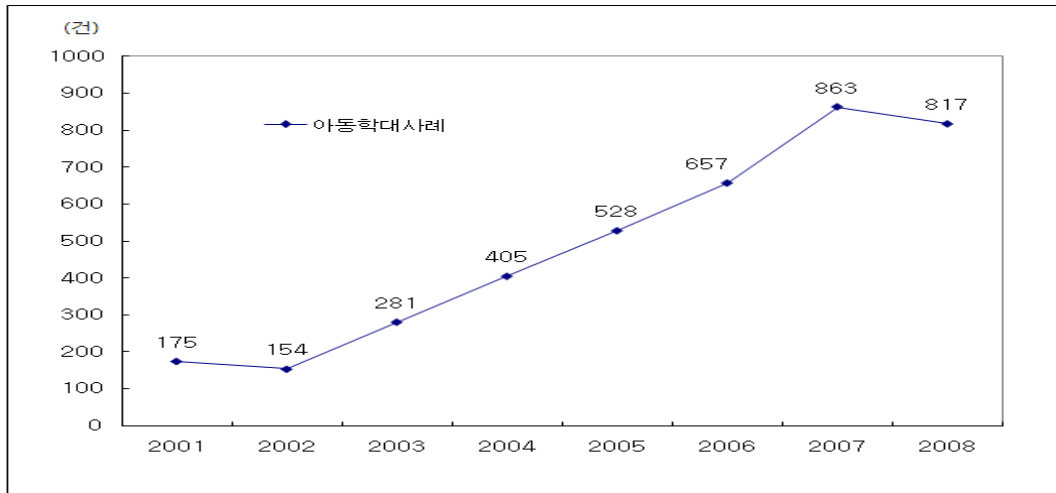
2) 2007년 대비 2008년의 증감비율임

6.5. 아동학대 현황

2008년 동남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560건, 아동학대 사례는 817건

- 2008년 동남권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560건이고, 그 중 아동학대 사례는 817건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82건 증가한 반면, 아동학대 사례는 46건 감소
 - 2002년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391건에서 1,560건으로 1,169건 증가, 아동학대사례는 154건에서 817건으로 663건 증가
 -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나, 아동학대사례는 전년대비 감소
- 전국 중 동남권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6.3%, 아동학대사례는 14.6%를 차지

〈 아동학대 사례 〉



〈 아동학대 현황 〉

(단위 : 건)

	연도	아동학대 신고건수			초기개입결과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 상담	계 ¹⁾	아동학대사례		잠재 ²⁾ 위험사례	일반 사례
						응급아동학대사례	단순아동학대사례		
동남권	2001	411	232	179	232	175		39	-
	2002	391	218	173	218	8	146	29	35
	2003	607	377	230	377	38	243	52	44
	2004	903	546	357	546	66	339	58	83
	2005	1,082	624	458	624	66	462	33	63
	2006	1,264	795	469	795	62	595	46	92
	2007	1,478	1,155	323	1,155	77	786	80	212
	2008	1,560	1,111	449	1,111	95	722	94	200
전국	2008	9,570	7,219	2,351	7,219	602	4,976	491	1,150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주 : 1) 2001년 초기개입결과 계에는 부적절 사례 포함

2) 2001년 잠재위험사례는 무혐의 사례 자료임

부산 부분별 청소년통계

1. 인 구 · 가 족
2. 교 육
3. 노 동
4. 문 화 · 여 가
5. 보 건 · 복 지
6. 사 회 참 여 · 안 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Ⅲ. 부산 부문별 청소년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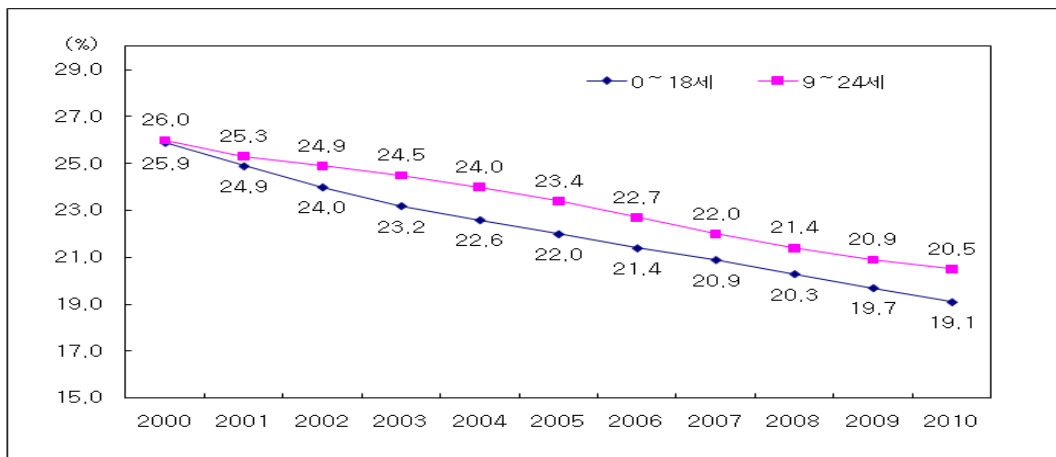
1. 인구·가족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2010년 부산의 9~24세 청소년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0.5%로 2000년 26.0%에 비해 10년간 5.5%p 감소

- 2010년 현재 부산의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는 각각 660천명, 705천명으로 총 인구 중 각각 19.1%, 20.5%를 차지함
 - 2009년에 비해 인구구성비가 0~18세는 0.6%p, 9~24세는 0.4%p 낮아짐
 -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구성비는 2000년 각각 25.9%, 26.0%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간 6.8%p, 5.5%p 낮아짐

〈 부산 청소년 인구구성비 〉



〈 부산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단위 : 천명)

	연도	총인구	0~18세		9~24세		0~24세	
			인구	%	인구	%	인구	%
부 산	2000	3,733	966	25.9	969	26.0	1,382	37.0
	2001	3,715	925	24.9	941	25.3	1,339	36.0
	2002	3,683	883	24.0	916	24.9	1,291	25.1
	2003	3,646	845	23.2	893	24.5	1,244	34.1
	2004	3,620	817	22.6	869	24.0	1,199	33.1
	2005	3,586	789	22.0	839	23.4	1,148	32.0
	2006	3,554	761	21.4	806	22.7	1,097	30.9
	2007	3,525	736	20.9	776	22.0	1,050	29.8
	2008	3,498	710	20.3	748	21.4	1,008	28.8
	2009	3,471	685	19.7	725	20.9	972	28.0
	2010	3,446	660	19.1	705	20.5	940	27.3
전 국	2010	48,875	10,655	21.8	10,288	21.1	14,422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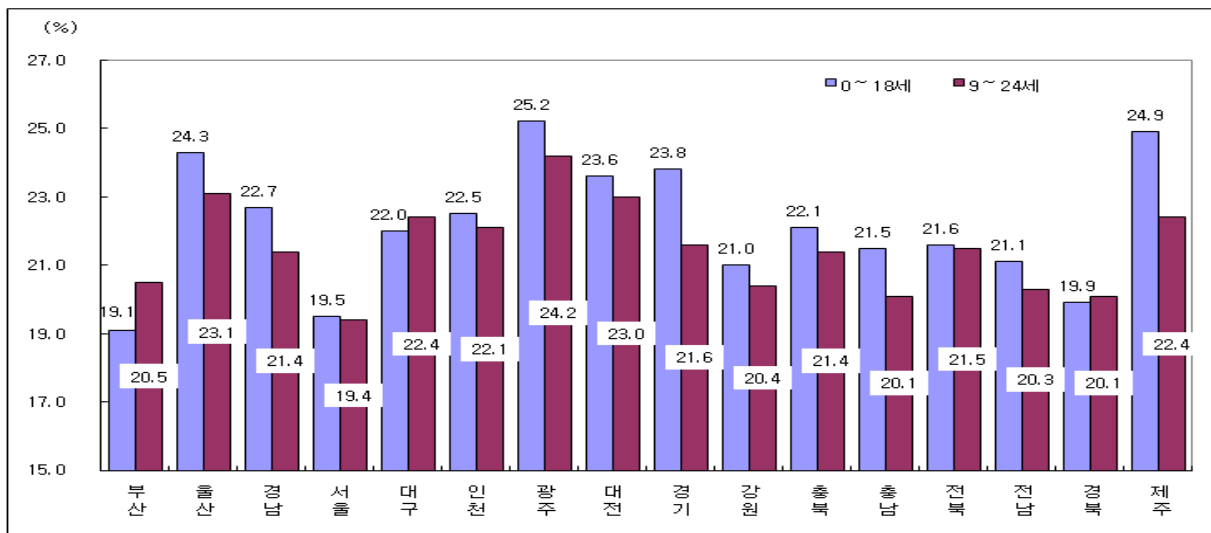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2007. 5), 「장래인구 특별추계」(2006. 11)

1.2. 시도별 청소년 인구

부산의 총 인구 대비 9~24세 청소년 인구 비중(20.5%)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19.4%) 다음으로 낮은 수준임

- 부산의 0~18세 청소년 인구는 총인구의 19.1%로 전국 평균(21.8%)과 비교하여 2.7%p 낮고, 이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임
- 부산의 9~24세 청소년 인구는 총인구의 20.5%로 전국 평균(21.1%)과 비교하여 0.6%p 낮고, 이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서울(19.4%)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임

〈 시도별 청소년 인구구성비 (2010) 〉



〈 시도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2010) 〉

(단위 : 천명)

	총인구	0~18세		9~24세			총인구	0~18세		9~24세	
			%		%				%		
부 산	3,446	660	19.1	705	20.5	경 기	11,637	2,765	23.8	2,509	21.6
전 국	48,875	10,655	21.8	10,288	21.1	강 원	1,443	303	21.0	294	20.4
서 울	10,039	1,957	19.5	1,951	19.4	충 북	1,479	327	22.1	317	21.4
대 구	2,431	534	22.0	544	22.4	충 남	1,959	422	21.5	394	20.1
인 천	2,661	600	22.5	588	22.1	전 북	1,703	368	21.6	367	21.5
광 주	1,450	365	25.2	350	24.2	전 남	1,740	368	21.1	354	20.3
대 전	1,515	357	23.6	348	23.0	경 북	2,592	516	19.9	520	20.1
울 산	1,094	266	24.3	253	23.1	경 남	3,141	712	22.7	672	21.4
						제 주	547	136	24.9	122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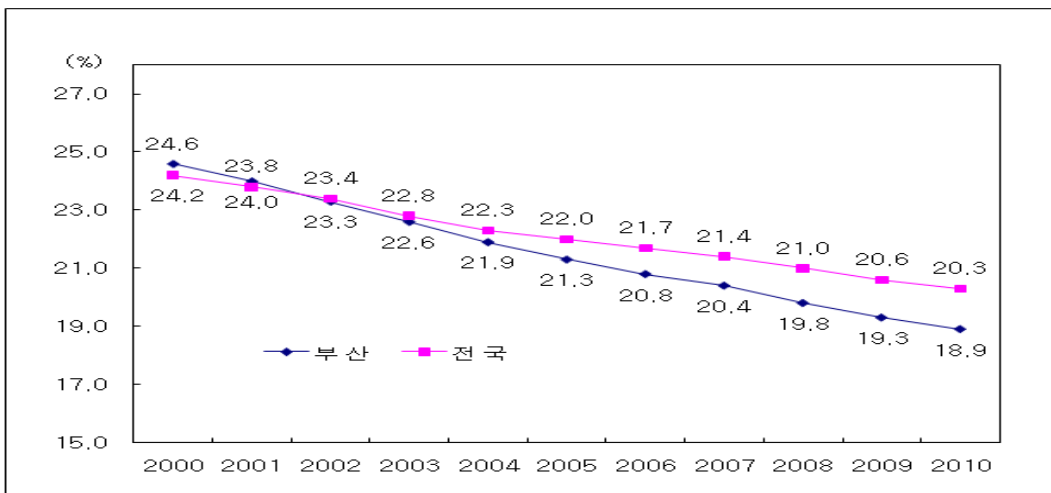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7. 5), 「장래인구추계」 (2006. 11)

1.3. 학령인구

**2010년 부산의 학령인구(6~21세)는 650천명으로
2000년 920천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2010년 부산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6~21세)는 650천명임
 - 전체 학령인구에서 6~11세(초등학교) 인구가 194천명(29.8%) 12~14세(중학교) 126천명(19.4%), 15~17세(고등학교) 142천명(21.8%), 18~21세(대학교)가 187천명(28.8%)임
 - 2000년(920천명)에 비해 270천명(29.3%) 감소하였으며, 2009년(672천명)에 비해 22천명(3.3%)감소
 - 총 인구에 대한 학령인구 비중은 전국 대비 부산이 1.4%p 낮음

〈 학령인구 (6~21세) 구성비 〉



〈 학령인구 (6~21세) 〉

		학령인구 (6~21세)	총인구대비 비율 (%)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변화율 (전년대비, %)
부 산	2000	920	24.6	296	145	190	289	-
	2001	893	24.0	296	144	169	284	△2.9
	2002	859	23.3	291	144	155	269	△3.8
	2003	822	22.6	284	144	147	248	△4.2
	2004	792	21.9	274	145	144	228	△3.7
	2005	763	21.3	261	147	142	212	△3.6
	2006	739	20.8	250	147	142	199	△3.2
	2007	718	20.4	237	144	143	193	△2.8
	2008	694	19.8	222	139	145	188	△3.3
	2009	672	19.3	208	133	145	186	△3.3
전 국	2010	9,901	20.3	3,297	1,962	2,069	2,57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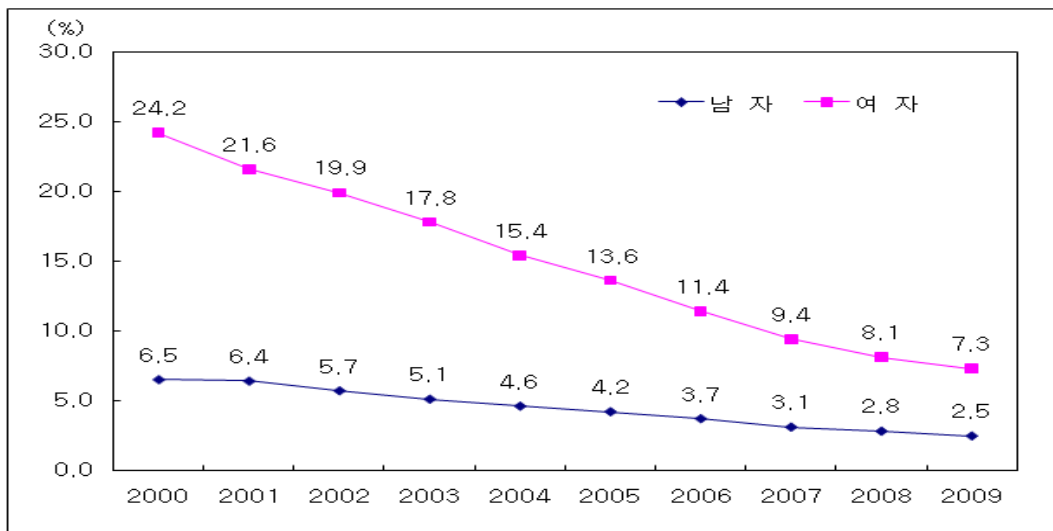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2007. 5), 「장래인구추계」(2006. 11)

1.4. 청소년의 혼인

만혼 추세로 총 혼인건수에서 청소년(24세 이하)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부산의 24세 이하 인구의 남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1%, 2.3%이며, 여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5%, 6.8%임
 - 2008년에 비해 남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2.6%에서 2.3%로 0.3%p 감소, 여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7.6%에서 6.8%로 0.8%p 감소하였음
- 전국 15~24세 청소년의 혼인구성비(남자 3.2%, 여자 11.6%)에 비해 남자는 0.7%p, 여자는 4.3%p 낮음

〈 청소년의 혼인 구성비 (15~24세) 추이 〉



〈 청소년의 혼인 구성비 〉

(단위 : 건, %)

		남 자			여 자				
		총 혼인	15~24세	15~19세	20~24세	총 혼인	15~24세	15~19세	20~24세
부 산	2000	23,343	6.5	0.5	6.0	26,185	24.2	1.9	22.3
	2001	21,825	6.4	0.4	5.9	24,196	21.6	1.7	19.9
	2002	20,916	5.7	0.4	5.3	22,914	19.9	1.4	18.5
	2003	20,027	5.1	0.3	4.8	21,549	17.8	1.1	16.7
	2004	19,898	4.6	0.3	4.3	21,442	15.4	0.9	14.6
	2005	18,973	4.2	0.2	4.0	20,408	13.6	0.8	12.8
	2006	20,017	3.7	0.2	3.6	21,624	11.4	0.6	10.8
	2007	21,484	3.1	0.2	2.9	23,106	9.4	0.6	8.8
	2008	20,149	2.8	0.2	2.6	21,401	8.1	0.5	7.6
	2009	18,614	2.5	0.1	2.3	20,079	7.3	0.5	6.8
전 국	2009	309,759	3.2	0.2	3.0	309,759	11.6	1.7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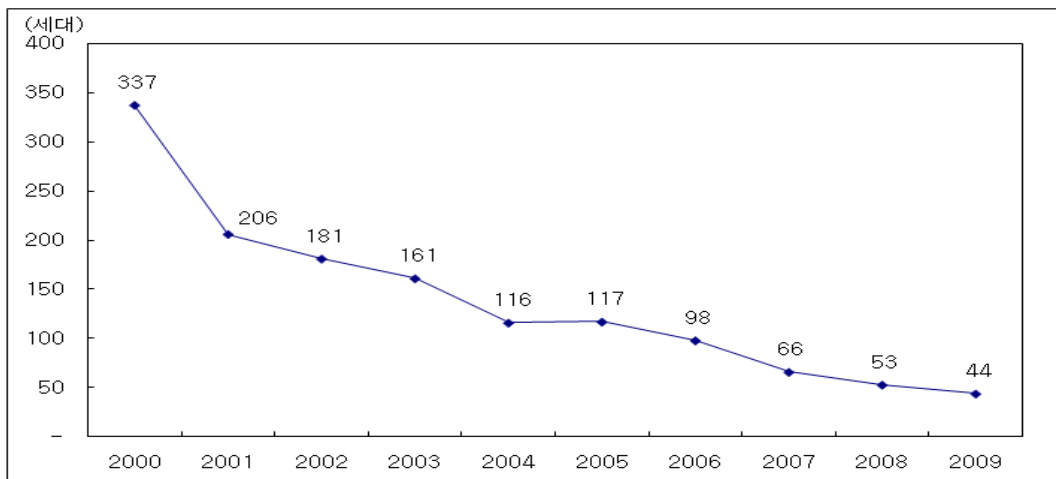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1.5.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2009년 부산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44세대로,
2000년(337세대)에 비해 293세대 감소**

- 2009년 부산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44세대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체 세대원은 63명이고, 재학상태별로는 미취학 1명(1.6%), 초등학교 2명(3.2%), 중학교 14명(22.2%), 고등학교 41명(65.1%), 기타 5명(7.9%) 임
- 2008년 53세대에 비해 9세대(17.0%)가 감소하였고, 2000년 337세대에 비해 293세대(86.9%) 감소하였음
- 전국 소년·소녀가장은 총 1,054세대, 1,596명으로 부산은 총 세대 중 4.2%, 세대원 중 3.9%를 차지

〈 소년·소녀가장 세대 추이 〉



〈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

(단위 : 명)

	세대주	세대원 ¹⁾	재학상태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²⁾	
부 산	2000	337	495	3	87	158	220	27
	2001	206	309	6	36	83	168	16
	2002	181	274	1	47	73	135	18
	2003	161	246	2	34	72	127	11
	2004	116	191	1	39	53	90	8
	2005	117	194	2	30	70	85	7
	2006	98	153	-	15	40	94	4
	2007	66	98	1	9	31	55	2
	2008	53	77	1	3	24	48	1
	2009	44	63	1	2	14	41	5
전 국	2009	1,054	1,596	10	196	440	904	46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세대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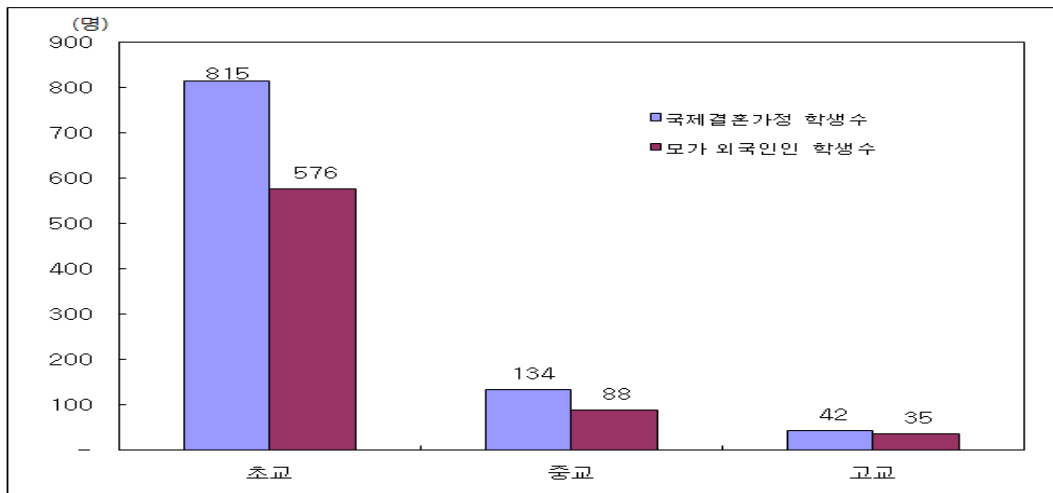
2) 미재학자, 기타 고교 재학자 및 대학 재학자 포함

1.6.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09년 부산의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는 991명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699명임**

- 2009년 부산의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는 전체 991명으로, 초등학생이 815명, 중학생이 134명, 고등학생이 42명임
 - 이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699명으로 국제결혼가정의 70.5%
 - 학교급별로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은 초등학생이 70.7%, 중학생이 65.7%, 고등학생이 83.3%임
- 국제결혼가정 중 외국인 어머니 비율은 전국 90.0%에 비해 19.5%p 낮음

〈 학교급별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09) 〉



〈 다문화 청소년 현황 〉

(단위 : 명, %)

		부 산				전 국			
		계	초교	중교	고교	계	초교	중교	고교
2007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483	391	67	25	13,445	11,444	1,588	413
	구성비	100.0	81.0	13.9	5.2	100.0	85.1	11.8	3.1
2008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391	335	44	12	11,825	10,387	1,182	256
	구성비 ¹⁾	81.0	85.7	65.7	48.0	88.0	90.8	74.4	62.0
2009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770	634	92	44	18,778	15,804	2,213	761
	구성비	100.0	82.3	11.9	5.7	100.0	84.2	11.8	4.1
2009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641	542	70	29	16,937	14,452	1,885	600
	구성비 ¹⁾	83.2	85.5	76.1	65.9	90.2	91.4	85.2	78.8
2009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991	815	134	42	24,745	20,632	2,987	1,126
	구성비	100.0	82.2	13.5	4.2	100.0	83.4	12.1	4.5
2009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699	576	88	35	22,264	18,845	2,519	900
	구성비 ¹⁾	70.5	70.7	65.7	83.3	90.0	91.3	84.3	79.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주 : 1) 각 학교급별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대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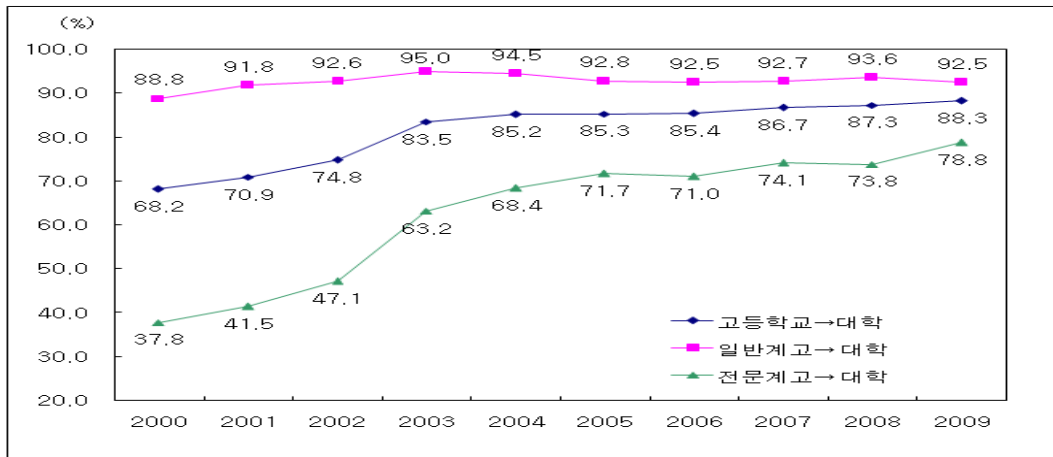
2. 교육

2.1. 진학률

2009년 부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88.3%임

- 2009년 부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88.3%로 10명 중 약 9명이 대학에 진학하였음
 - 대학진학률은 2008년 대비 1.0%p 증가, 2000년 68.2%에 비해 20.1%p 증가
 - 전국 평균 대학진학률 92.2%에 비해 3.9%p 낮음
- 2009년 부산지역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00%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7%로 2000년 이후 비슷한 수준임

〈 대학 진학률¹⁾ 추이 〉



〈 학교급별 진학률¹⁾ 〉

(단위 : %)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 ²⁾	일반계고교 → 대학 ²⁾	전문계 ³⁾ 고교 → 대학 ²⁾
부 산	2000	99.9 ⁴⁾	99.7	68.2	88.8	37.8
	2001	99.9 ⁴⁾	99.7	70.9	91.8	41.5
	2002	99.9 ⁴⁾	99.8	74.8	92.6	47.1
	2003	99.9 ⁴⁾	99.8	83.5	95.0	63.2
	2004	99.9 ⁴⁾	99.7	85.2	94.5	68.4
	2005	99.9 ⁴⁾	99.7	85.3	92.8	71.7
	2006	99.9 ⁴⁾	99.9	85.4	92.5	71.0
	2007	99.9 ⁴⁾	99.6	86.7	92.7	74.1
	2008	99.9 ⁴⁾	99.6	87.3	93.6	73.8
	2009	100.0	99.7	88.3	92.5	78.8
전 국	2009	99.9 ⁴⁾	99.6	92.2	97.0	78.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 /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포함

3) 2007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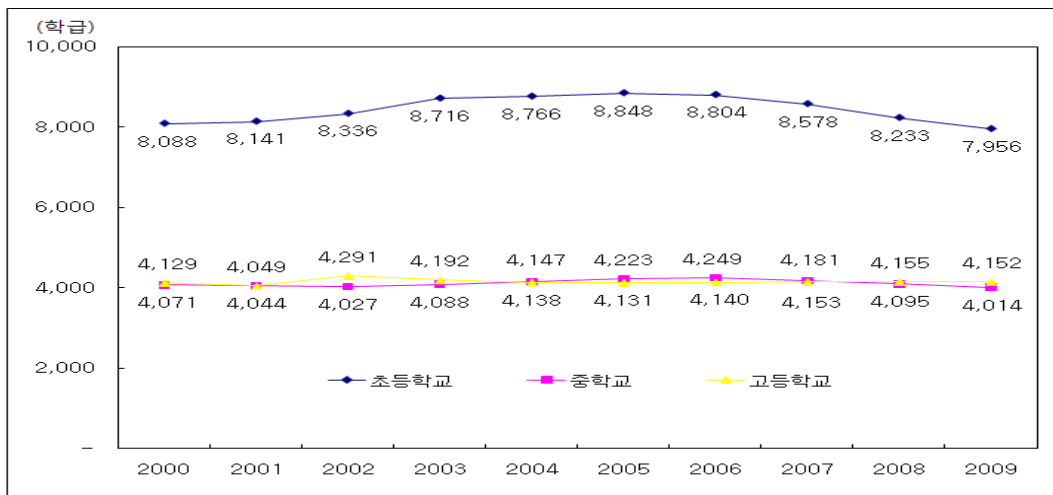
4)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2.2.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급수

**2009년 부산은 전년대비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증가**

- 2009년 부산의 초등학교는 297개교, 중학교 172개교, 고등학교 142개교로 2008년에 비해 초등학교 4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 증가
 - 부산 학교 수는 전국 중 초등학교 5.1%, 중학교 5.5%, 고등학교 6.4%를 차지
- 학급 수는 초등학교가 7,956개로 2008년에 비해 277개 학급이 감소하였으며, 중학교는 4,014개 학급으로 81개 학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학급수는 4,152개로 2008년에 비해 3개 학급이 감소하였음

〈 학교급별 학급수 추이 〉



〈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급수 〉

(단위 : 개)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부 산	2000	267	8,088	157	4,071	127	4,129
	2001	269	8,141	158	4,044	127	4,049
	2002	273	8,336	161	4,027	130	4,291
	2003	279	8,716	165	4,088	133	4,192
	2004	283	8,766	165	4,147	135	4,138
	2005	285	8,848	166	4,223	135	4,131
	2006	292	8,804	168	4,249	137	4,140
	2007	293	8,578	170	4,181	137	4,153
	2008	293	8,233	170	4,095	140	4,155
	2009	297	7,956	172	4,014	142	4,152
전 국	2009	5,829	124,892	3,106	58,396	2,225	57,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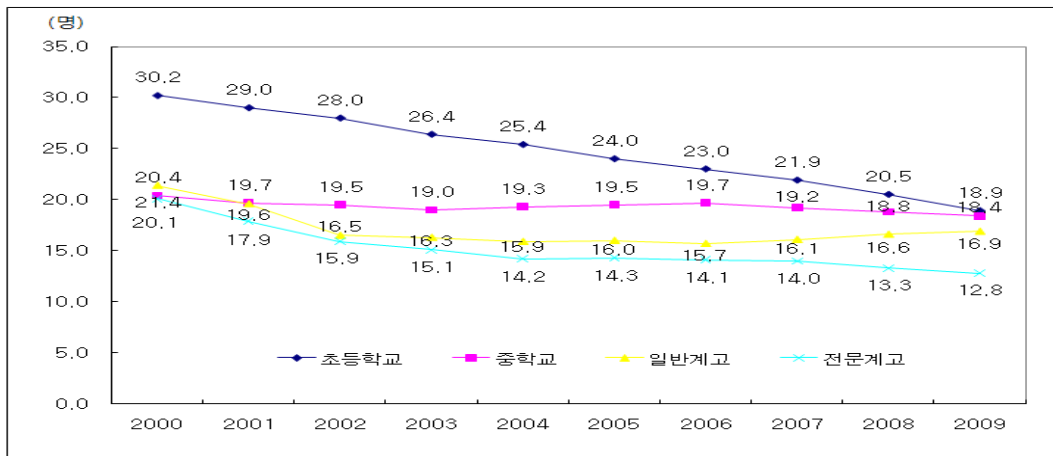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3. 교원 1인당 학생수

2009년 부산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8.9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계 고등학교 12.8명으로 가장 적음

- 2009년 부산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8.9명, 중학교 18.4명, 일반계 고등학교 16.9명, 전문계 고등학교 12.8명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는 각각 1.6명, 0.4명, 0.5명 감소하였으나 일반계 고등학교는 0.3명 증가하였음
 - 2000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11.3명, 중학교는 2.0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4.5명, 전문계 고등학교는 7.3명이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초등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는 각각 0.9명, 0.5명이 적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0.2명 많음

〈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 〉



〈 교원 1인당 학생수 〉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부 산	2000	30.2	20.4	21.4	20.1
	2001	29.0	19.7	19.6	17.9
	2002	28.0	19.5	16.5	15.9
	2003	26.4	19.0	16.3	15.1
	2004	25.4	19.3	15.9	14.2
	2005	24.0	19.5	16.0	14.3
	2006	23.0	19.7	15.7	14.1
	2007	21.9	19.2	16.1	14.0
	2008	20.5	18.8	16.6	13.3
	2009	18.9	18.4	16.9	12.8
전 국	2009	19.8	18.4	16.7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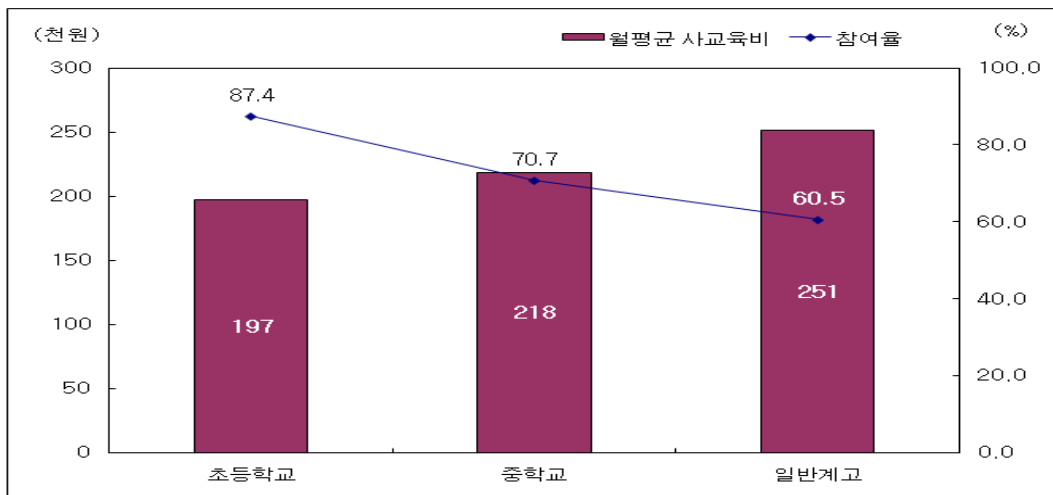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9년 부산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만3천원

- 2009년 부산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7.4%, 중학교 70.7%, 고등학교 51.5%로 나타남
 - 일반계 고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60.5%로 전체 고등학교의 참여율 51.5%보다 9.0%p 높게 나타남
 -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72.4%로, 전국 평균 75.0%에 비해 2.6%p 낮아 7개 특·광역시 중 최저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용은 20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 24만2천원보다 낮음
 - 일반계 고등학교가 25만1천원으로 가장 높고, 중학교 21만8천원, 초등학교 19만7천원 순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9) 〉



〈 지역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9) 〉

(단위 : %, 천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부 산	72.4	203	87.4	197	70.7	218	51.5	198	60.5	251
전 국	75.0	242	87.4	245	74.3	260	53.8	217	62.8	269
서 울	79.6	331	88.8	305	76.9	326	67.3	377	74.2	433
대 구	77.5	251	89.6	253	76.5	291	59.0	206	62.9	235
인 천	73.9	221	86.7	231	69.3	213	57.0	211	65.1	253
광 주	75.9	209	91.8	230	75.3	228	47.6	151	55.0	185
대 전	74.2	234	87.1	249	69.5	217	56.2	225	64.5	268
울 산	75.4	234	88.4	251	73.5	247	55.9	190	64.9	231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09년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참여 비용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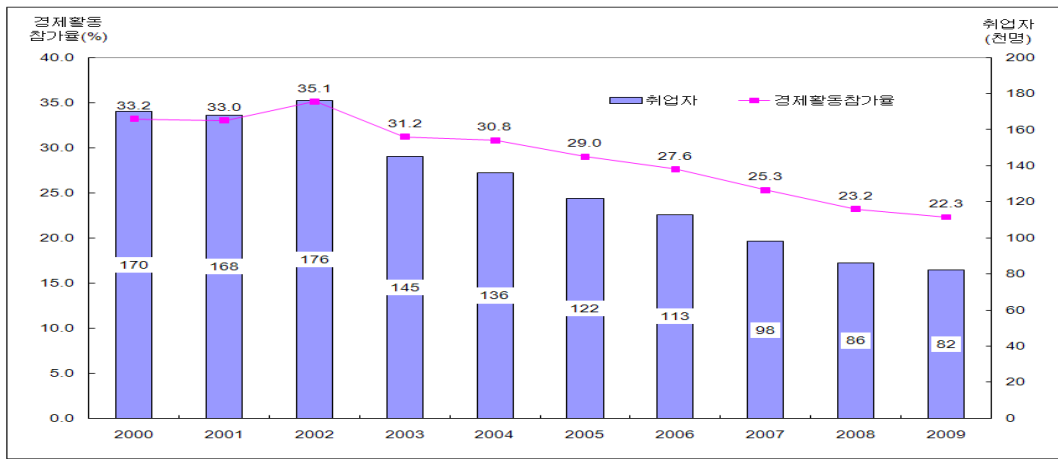
3. 노 동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2009년 부산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2.3%

- 2009년 부산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2.3%이며, 이 중 15~19세는 5.5%, 20~24세는 43.1%임
- 2000년과 비교하면, 진학률의 증가로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3.2%에서 9년간 10.9%p 하락
- 전국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25.4%에 비해 부산은 3.1%p 낮음

〈 청소년의 경제활동 〉



〈 청소년의 경제활동 〉

(단위 : 천명, %)

	연도	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비취업자		
부 산	2000(15~24세)	608	202	170	406	33.2
	2001(15~24세)	581	192	168	389	33.0
	2002(15~24세)	553	194	176	358	35.1
	2003(15~24세)	524	164	145	360	31.2
	2004(15~24세)	496	153	136	343	30.8
	2005(15~24세)	466	135	122	331	29.0
	2006(15~24세)	443	122	113	321	27.6
	2007(15~24세)	427	108	98	319	25.3
	2008(15~24세)	422	98	86	324	23.2
	(15~19세)	231	11	9	220	4.6
(20~24세)	191	87	77	104	45.6	
2009(15~24세)	416	93	82	323	22.3	
	(15~19세)	230	13	10	218	5.5
	(20~24세)	186	80	71	106	43.1
전 국	2009(15~24세)	5,934	1,507	1,359	4,427	25.4
	(15~19세)	3,284	203	178	3,082	6.2
	(20~24세)	2,650	1,305	1,181	1,346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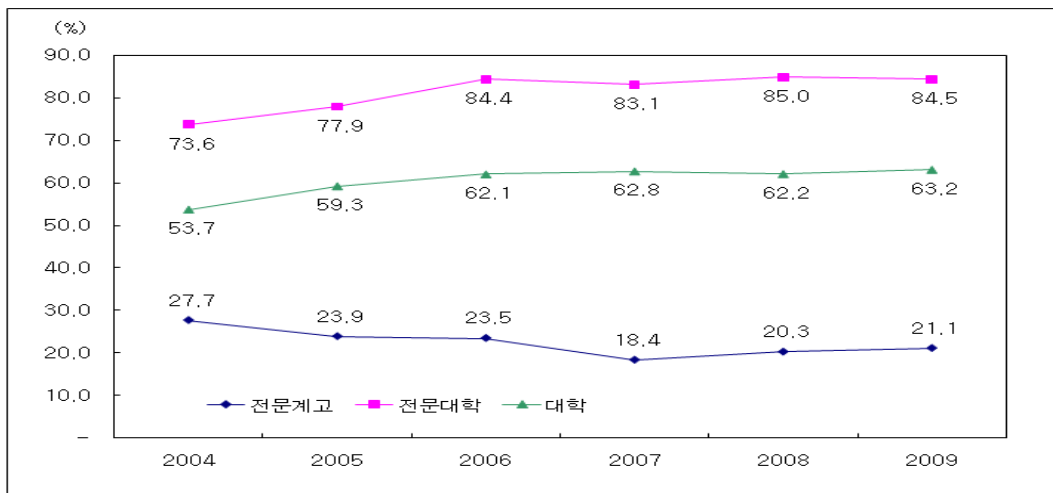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3.2.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2009년 부산의 학교급별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학이 84.5%로 가장 높음

- 2009년 부산의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학이 84.5%로 가장 높고, 대학 63.2%, 전문계고 21.1% 순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전문대학은 0.5%p 감소한 반면, 대학과 전문계고는 각각 1.0%p, 0.8%p 증가하였음
 - 2004년과 비교하면, 전문대학과 대학 졸업자의 취업비율은 각각 10.9%p, 9.5%p 증가한 반면, 전문계고는 6.6%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에 비해 졸업자의 취업비율은 전문계고 4.4%p, 전문대학 3.0%p, 대학 2.5%p 높음

〈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



〈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

(단위 : 명, %)

	연도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부 산	2004	16,865	4,667	27.7	21,604	15,908	73.6	25,965	13,955	53.7
	2005	16,092	3,847	23.9	18,475	14,393	77.9	26,481	15,699	59.3
	2006	14,748	3,463	23.5	17,272	14,581	84.4	26,250	16,295	62.1
	2007	14,214	2,613	18.4	17,259	14,343	83.1	26,342	16,542	62.8
	2008	14,307	2,900	20.3	15,042	12,779	85.0	26,204	16,294	62.2
	2009	13,217	2,794	21.1	14,067	11,880	84.5	26,699	16,868	63.2
전 국	2009	151,410	25,297	16.7	199,421	162,608	81.5	279,059	169,277	60.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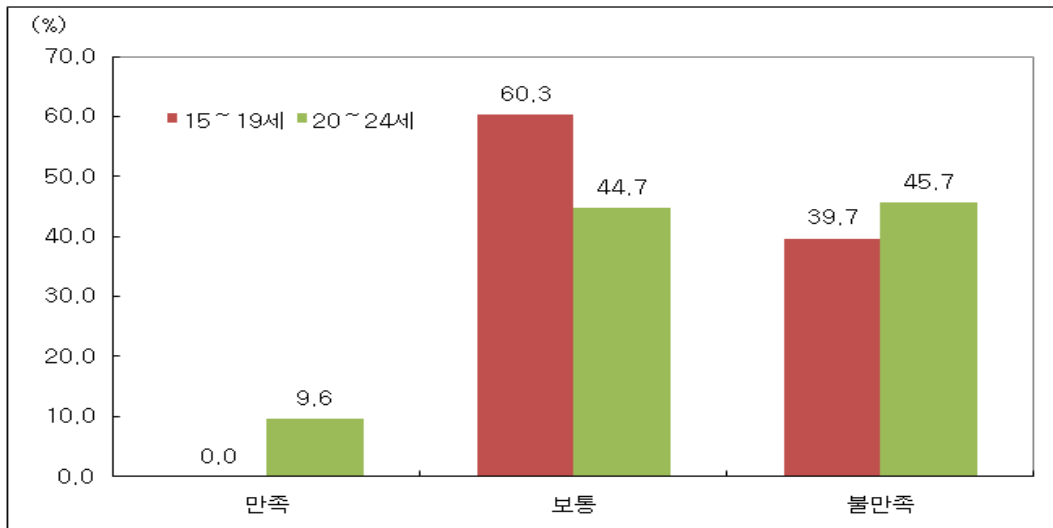
주 : 1) 취업자 : 순수 취업자(진학자, 입대자 제외)

3.3. 소득 만족도

2009년 소득이 있는 부산의 20~24세 중 9.6%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

- 2009년 부산 청소년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15~19세 3.4%, 20~24세의 43.4%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0.8%p 감소하였으며, 20~24세는 0.7%p 증가함
- 소득이 있는 청소년 중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20~24세 9.6%, '불만족'은 15~19세 39.7%, 20~24세 45.7%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불만족' 비율은 15~19세 23.5%p, 20~24세 6.6%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20~24세의 '만족'비율은 3.0%p 낮음

〈 청소년의 소득 만족도 (2009) 〉



〈 청소년의 소득 만족도 〉

(단위 : %)

		계	소득 있음 ¹⁾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소득 없음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부산	2007	15세 이상	100.0	60.4	100.0	8.6	1.2	7.4	34.4	57.0	37.7	19.3	39.6
		15~19세	100.0	4.2	100.0	5.8	5.8	0.0	31.0	63.2	56.3	6.9	95.8
		20~24세	100.0	42.7	100.0	9.6	0.8	8.8	38.1	52.3	40.4	11.9	57.3
	2009	15세 이상	100.0	66.4	100.0	11.5	1.1	10.4	32.6	55.9	36.4	19.6	33.6
		15~19세	100.0	3.4	100.0	0.0	0.0	0.0	60.3	39.7	26.5	13.2	96.6
		20~24세	100.0	43.4	100.0	9.6	0.0	9.6	44.7	45.7	31.6	14.1	56.6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65.9	100.0	14.1	1.5	12.5	39.3	46.6	33.2	13.4	34.1
		15~19세	100.0	7.5	100.0	13.0	3.2	9.7	36.0	51.0	40.7	10.4	92.5
		20~24세	100.0	45.2	100.0	12.6	1.5	11.1	40.4	47.1	36.2	10.9	54.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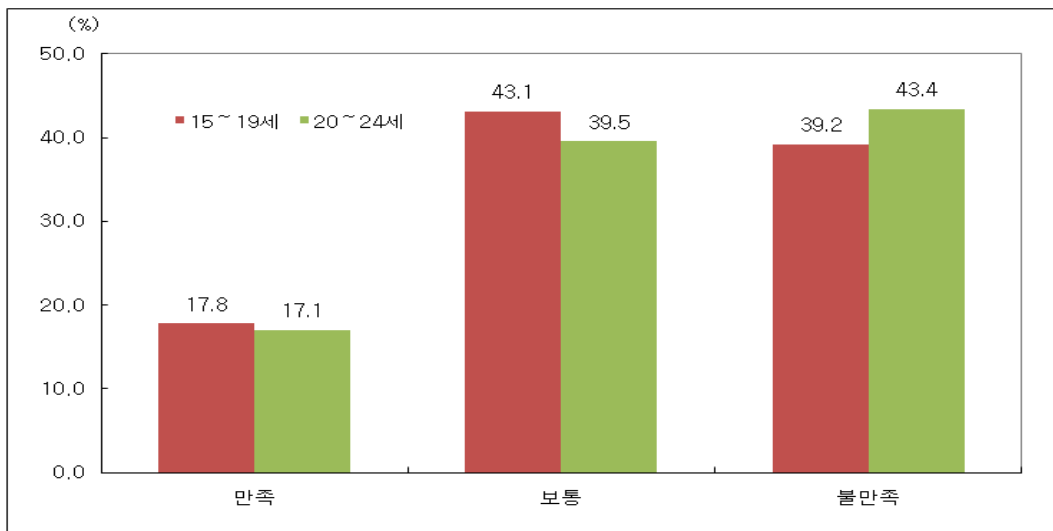
주 : 1) 조사시점 현재(2009년 7월) 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

3.4. 소비생활 만족도

**2009년 부산 15~19세의 17.8%, 20~24세의 17.1%가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하고 있음**

- 2009년 부산의 청소년이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현재 전반적인 소비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의 17.8%, 20~24세의 17.1%
 - 2007년에 비해 15~19세, 20~24세 각각 4.5%p, 3.5%p 증가
- 현재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39.2%, 20~24세 43.4%
 - 2007년에 비해 15~19세, 20~24세 각각 3.8%p, 2.1%p 감소
- 전국에 비해 '만족'비율은 15~19세는 0.9%p 낮고, 20~24세는 1.5%p 높음
 - '불만족'비율은 15~19세는 2.0%p, 20~24세는 6.6%p 높음

〈 청소년의 소비생활 만족도 (2009) 〉



〈 청소년의 소비생활 만족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부 산	2007	15세 이상	100.0	8.5	0.8	7.7	40.5	51.1	37.4	13.7
		15~19세	100.0	13.3	1.6	11.7	43.7	43.0	34.5	8.5
		20~24세	100.0	13.6	0.7	12.9	40.9	45.5	37.1	8.4
부 산	2009	15세 이상	100.0	10.3	1.5	8.9	45.1	44.5	32.6	11.9
		15~19세	100.0	17.8	2.6	15.1	43.1	39.2	29.6	9.6
		20~24세	100.0	17.1	4.1	13.0	39.5	43.4	32.0	11.4
전 국	2009	15세 이상	100.0	13.7	1.8	11.9	46.1	40.2	30.5	9.7
		15~19세	100.0	18.7	4.1	14.6	44.1	37.2	28.2	9.0
		20~24세	100.0	15.6	2.9	12.7	47.6	36.8	29.4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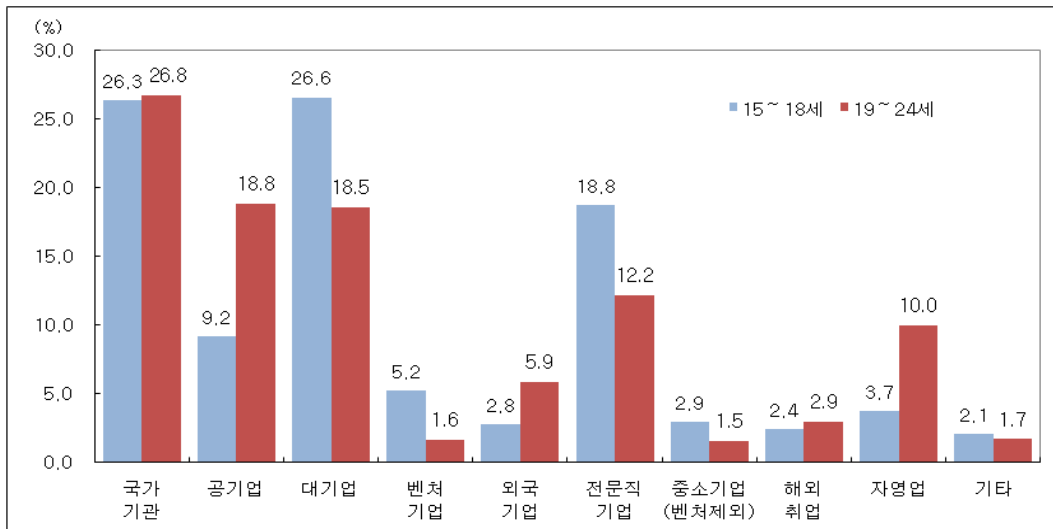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3.5.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2009년 부산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 2009년 부산의 15~24세 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으로 26.6%를 차지, 그 다음 '대기업' 22.3%, '전문직 기업' 15.2% 등의 순
 - 15~18세는 '대기업' 26.6%, '국가기관' 26.3%, '전문직 기업' 18.8% 등의 순
 - 19~24세는 '국가기관' 26.8%, '공기업(공사공단)' 18.8%, '대기업' 18.5% 등의 순
- 2006년에 비해 '대기업' 6.3%p, '공기업(공사공단)' 2.6%p, '외국계 기업' 2.0%p 증가, '국가기관' 7.9%p, '해외취업' 1.5%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24세의 '대기업' 선호비율은 3.7%p 높고, '국가기관', '공기업' 은 각각 1.7%p, 1.3%p 낮음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2009) 〉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

(단위 : 명, %)

		연령	국가 기관	공기업	대기업	벤처 기업	외국계 기업	전문직 기업	중소기업 (벤처제외)	해외 취업	자영업	기타
			부산	2006	15~24세	34.5	11.8	16.0	4.0	2.4	16.2	2.1
		15~18세	34.4	7.3	17.1	7.3	1.3	19.9	1.7	3.2	7.1	0.6
		19~24세	34.6	15.1	15.2	1.6	3.2	13.5	2.4	4.8	8.8	0.7
	2009	15~24세	26.6	14.4	22.3	3.3	4.4	15.2	2.2	2.7	7.1	1.9
		15~18세	26.3	9.2	26.6	5.2	2.8	18.8	2.9	2.4	3.7	2.1
		19~24세	26.8	18.8	18.5	1.6	5.9	12.2	1.5	2.9	10.0	1.7
전국	2009	15~24세	28.3	15.7	18.6	2.9	4.2	15.4	2.2	3.9	7.6	1.3
		15~18세	29.6	12.5	20.6	3.1	4.0	17.4	1.9	3.2	6.0	1.7
		19~24세	27.0	18.7	16.7	2.8	4.3	13.5	2.4	4.6	9.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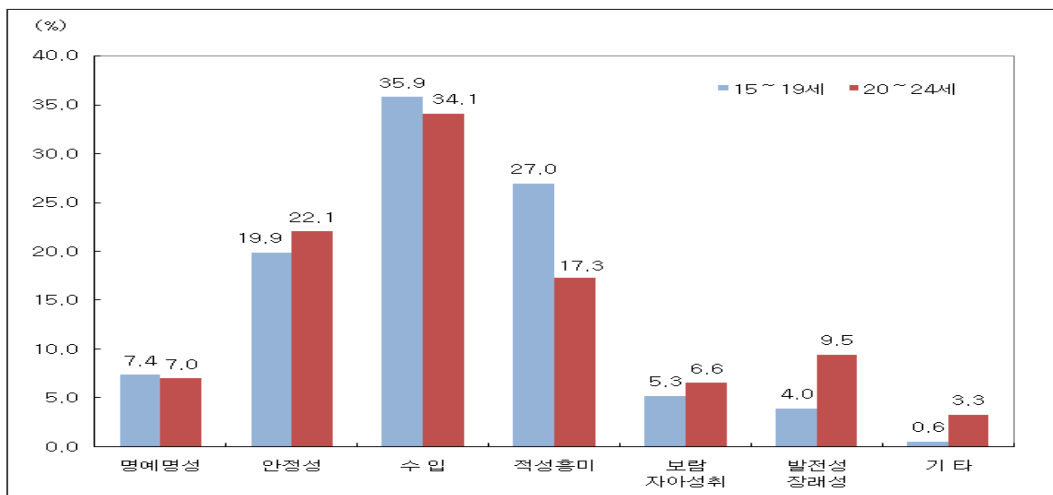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3.6. 직업선택요인

2009년 부산 청소년이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수입'

- 2009년 부산 청소년이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 15~19세는 '수입'이 35.9%로 가장 높고, '적성·흥미' 27.0%, '안정성' 19.9% 순
 - 20~24세는 '수입' 34.1%, '안정성' 22.1%, '적성·흥미' 17.3% 순으로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15~19세는 '수입'과 '명예·명성'이 각각 17.1%p, 1.3%p 증가한 반면, '발전성·장래성'과 '안정성'은 각각 5.4%p, 5.1%p 감소
 - 20~24세는 '수입'과 '명예·명성'이 각각 6.6%p, 3.4%p 증가한 반면, '안정성' 8.2%p,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은 각각 1.3%p 감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수입'과 '명예·명성'이 각각 11.0%p, 2.6%p 높음
 - 20~24세는 '수입'과 '명예·명성'이 각각 7.2%p, 3.1%p 높음

〈 직업선택요인 (2009) 〉



〈 직업선택요인 〉

(단위 : %)

		계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 자아성취	발전성 장래성	기타 ¹⁾	
부산	2006	15세 이상	100.0	2.9	34.8	33.6	11.1	5.1	9.2	3.3
		15~19세	100.0	6.1	25.0	18.8	28.5	10.3	9.4	2.0
		20~24세	100.0	3.6	30.3	27.5	17.6	7.9	10.8	2.2
	2009	15세 이상	100.0	3.7	29.2	40.5	9.8	5.8	6.6	4.5
		15~19세	100.0	7.4	19.9	35.9	27.0	5.3	4.0	0.6
		20~24세	100.0	7.0	22.1	34.1	17.3	6.6	9.5	3.3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3.3	30.4	36.3	11.3	7.4	7.8	3.5
		15~19세	100.0	4.8	19.3	24.9	30.1	10.0	9.4	1.5
		20~24세	100.0	3.9	25.2	26.9	21.9	9.4	11.5	1.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모르겠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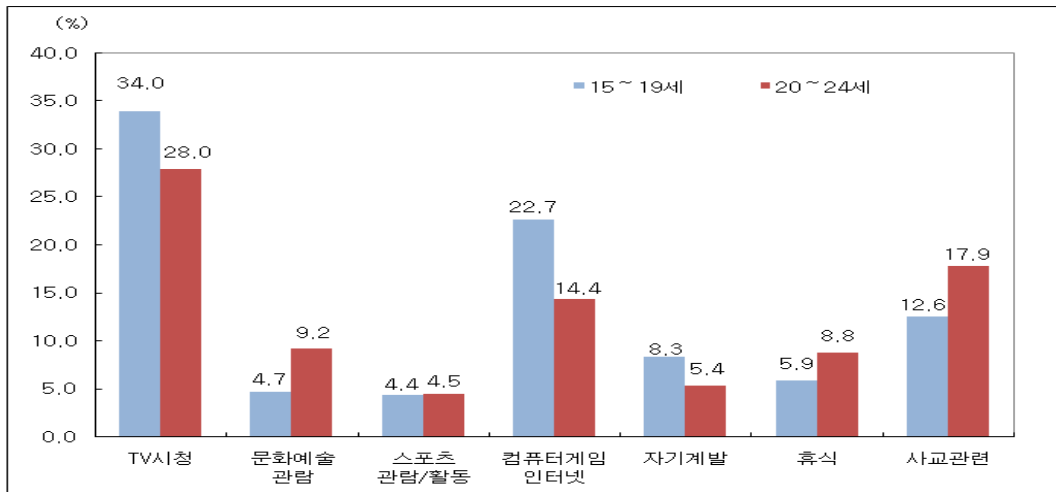
4. 문화여가

4.1.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2009년 부산 청소년은 'TV 시청'으로 주로 여가를 활용

- 2009년 부산 청소년의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으로 'TV시청'이 15~19세 34.0%, 20~24세 28.0%로 가장 많음
 - 그 다음 15~19세는 '컴퓨터게임, 인터넷' 22.7%, '사교관련 활동' 12.6% 등의 순
 - 20~24세는 '사교관련 활동' 17.9%, '컴퓨터게임, 인터넷' 14.4% 등의 순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TV시청'과 '문화예술관람'이 각각 13.6%p, 1.2%p 증가, 20~24세는 'TV시청'과 '문화예술관람'이 각각 6.7%p, 2.1%p 증가
- 전국에 비해 'TV시청' 비율이 15~19세는 7.5%p, 20~24세는 5.2%p 높음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2009) 〉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주된 응답) 〉

(단위 :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주된 응답) (%)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 개발	종교 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 ¹⁾
부 산	2007	15세 이상	29.6	5.0	2.1	6.4	6.1	0.7	3.2	7.7	13.4	15.5	9.4	0.9
		15~19세	20.4	0.3	3.5	4.2	26.6	1.3	13.9	4.7	0.8	10.9	12.5	0.9
		20~24세	21.3	1.7	7.1	5.0	12.4	1.0	8.4	5.1	1.7	13.5	22.3	0.5
부 산	2009	15세 이상	35.1	4.8	3.2	7.3	6.1	0.9	2.2	8.4	10.8	12.0	8.0	1.3
		15~19세	34.0	1.2	4.7	4.4	22.7	2.1	8.3	3.3	-	5.9	12.6	0.9
		20~24세	28.0	2.0	9.2	4.5	14.4	2.7	5.4	4.2	1.4	8.8	17.9	1.4
전 국	2009	15세 이상	30.1	5.3	2.5	6.3	5.9	1.0	3.1	9.6	14.1	12.9	8.3	1.1
		15~19세	26.5	1.2	3.4	4.4	25.2	1.4	14.2	4.1	0.7	7.4	10.7	0.7
		20~24세	22.8	3.5	8.9	5.6	14.9	1.4	7.6	3.9	2.2	8.7	20.1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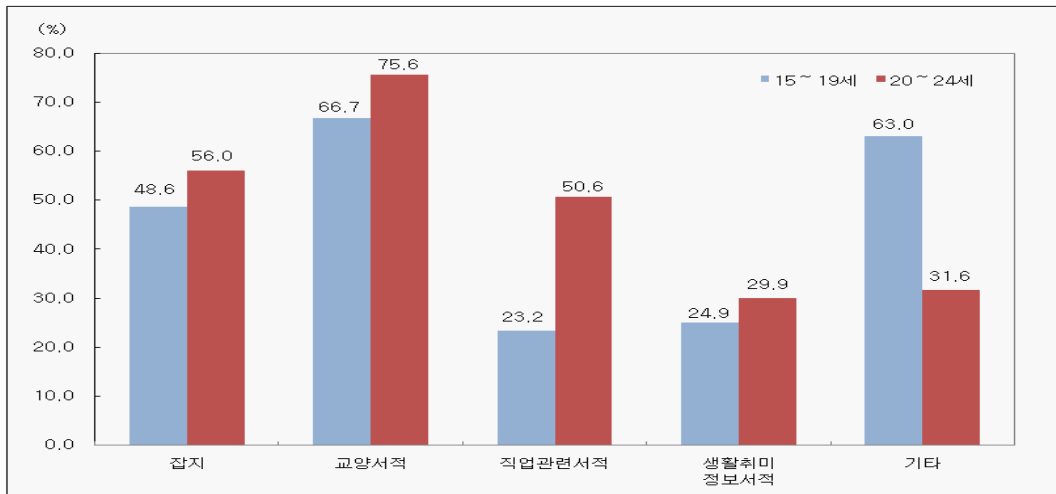
주 : 1) 「봉사활동」 포함

4.2. 독서인구

2009년 부산 청소년의 독서율은 15~19세 72.7%, 20~24세 79.6%

- 2009년 부산 청소년은 15~19세의 72.7%, 20~24세의 79.6%가 지난 1년 (2008. 7. 6.~2009. 7. 5.)동안 독서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9.8%p, 20~24세는 2.2%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5.6%p 낮고, 20~24세는 2.7%p 낮음
- 서적류별로는 '교양서적'이 15~19세 66.7%, 20~24세 75.6%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15~19세는 '기타'서적 63.0%, '잡지' 48.6% 등의 순
 - 20~24세는 '잡지' 56.0%, '직업관련서적' 50.6% 등의 순

〈 청소년의 서적류별 독서율 (2009) 〉



〈 청소년의 독서율 〉

(단위 : %)

		독서율 ¹⁾	독서율 (%)					
			잡지 ²⁾	교양서적 ²⁾	직업관련서적 ²⁾	생활취미 정보서적 ²⁾	기타 ²⁾	
부 산	2007	15세 이상	57.2	51.2	66.0	29.4	21.4	19.0
		15~19세	82.5	39.9	72.1	11.0	14.1	45.2
		20~24세	81.8	49.2	71.9	31.4	12.8	35.4
	2009	15세 이상	61.5	54.0	61.3	39.3	29.0	23.8
		15~19세	72.7	48.6	66.7	23.2	24.9	63.0
		20~24세	79.6	56.0	75.6	50.6	29.9	31.6
전 국	2009	15세 이상	62.1	51.1	67.2	39.0	27.6	20.4
		15~19세	78.3	38.0	75.1	19.8	17.0	49.0
		20~24세	82.3	56.3	73.6	45.2	27.6	34.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2008.7.6.~2009.7.5.)동안 독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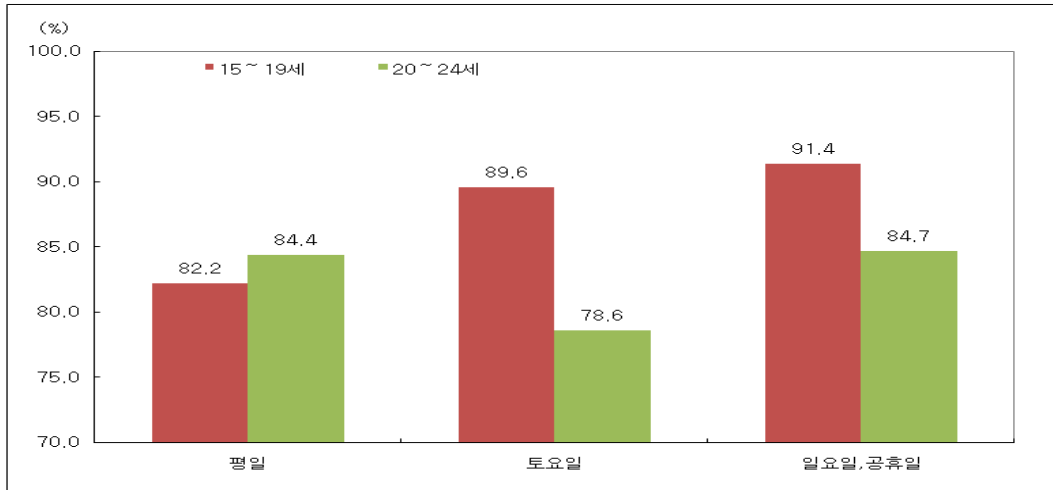
2) 서적별 독서율은 복수응답

4.3. TV 시청

2009년 부산 청소년의 TV시청비율은 15~19세 96.5%, 20~24세 97.3%

- 2009년 부산 청소년이 지난 1개월(2009. 6. 6.~ 7. 5.) 동안 TV를 시청한 비율은 15~19세 96.5%, 20~24세 97.3%로 나타남
 - 요일별로 15~19세는 일요일·공휴일 91.4%, 토요일 89.6%, 평일 82.2% 순
 - 20~24세는 일요일·공휴일 84.7%, 평일 84.4%, 토요일 78.6% 순임
- 2007년에 비해 TV시청비율은 15~19세 2.4%p, 20~24세 1.3%p 증가
 - 15~19세는 평일 7.3%p, 토요일 0.8%p 증가, 일요일·공휴일 0.4%p 감소
 - 20~24세는 토요일 12.0%p, 일요일·공휴일 7.5%p, 평일 2.1%p 감소
- 전국에 비해 TV시청비율은 15~19세, 20~24세는 각 2.8%p 높음

〈 TV 시청 비율(2009) 〉



〈 TV 시청 비율 〉

(단위 : %)

			계	TV ¹⁾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시청함			
부산	2007	15세 이상	100.0	96.9	92.0	92.9	93.7
		15~19세	100.0	94.1	74.9	88.8	91.8
		20~24세	100.0	96.0	86.5	90.6	92.2
	2009	15세 이상	100.0	97.0	91.0	86.9	89.1
		15~19세	100.0	96.5	82.2	89.6	91.4
		20~24세	100.0	97.3	84.4	78.6	84.7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96.4	90.4	89.5	91.1
		15~19세	100.0	93.7	72.5	85.1	89.0
		20~24세	100.0	94.5	86.5	86.0	87.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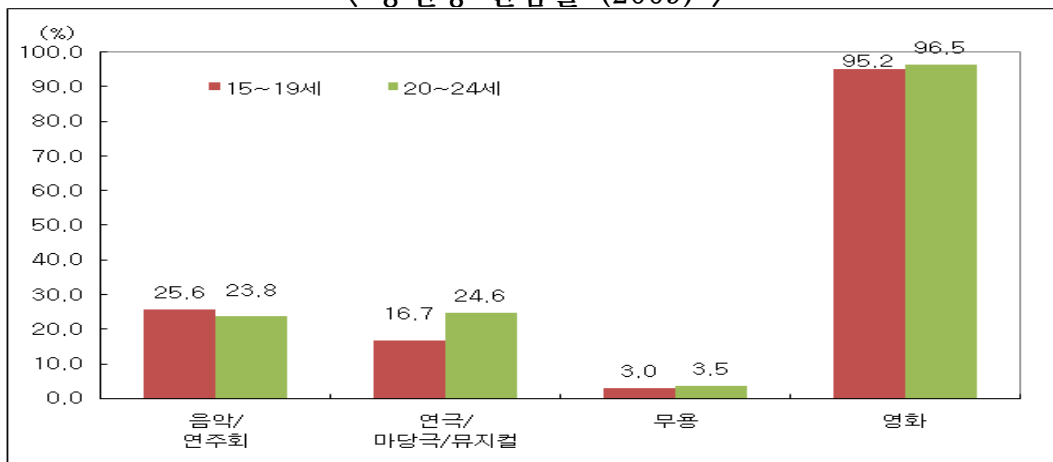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개월(2009.6.6.~7.5.) 동안 TV를 본 적이 있는 사람

4.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2009년 부산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의 81.8%, 20~24세의 83.3%**

- 2009년 부산 청소년의 지난 1년(2008. 7. 6.~ 2009. 7. 5.)동안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81.8%, 20~24세 83.3%
 - 분야별로는 공연장 관람률이 15~19세 92.7%, 20~24세 95.2%로 가장 높음
- 2007년에 비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20~24세 각각 4.4%p, 4.5%p 증가
 - 15~19세는 체육시설, 전시장이 각각 7.1%p, 4.4%p 증가, 공연장 2.8%p 감소
 - 20~24세는 전시장, 체육시설, 공연장 각각 11.7%p, 5.5%p, 1.6%p 증가
- 전국에 비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는 2.4%p 높고, 20~24세는 0.8%p 낮음

〈 공연장 관람률 (2009)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단위 : %)

		관람률 ¹⁾	공연장 ²⁾					전시장 ²⁾	체육시설 ²⁾	
			음악/연주회 ³⁾	연극/마당극/뮤지컬 ³⁾	무용 ³⁾	영화 ³⁾				
부 산	2007	15세 이상	50.7	86.0	22.0	17.7	2.7	91.9	31.4	25.1
		15~19세	77.4	95.5	24.4	15.0	4.2	94.9	31.4	15.1
		20~24세	78.8	93.6	20.2	20.2	1.8	97.7	14.6	28.2
	2009	15세 이상	54.2	88.6	22.7	21.1	2.5	92.9	28.5	30.6
		15~19세	81.8	92.7	25.6	16.7	3.0	95.2	35.8	22.2
		20~24세	83.3	95.2	23.8	24.6	3.5	96.5	26.3	33.7
전 국	2009	15세 이상	55.0	89.5	26.1	26.2	2.3	91.0	32.5	20.5
		15~19세	79.4	94.6	24.3	20.1	2.9	93.7	26.4	13.7
		20~24세	84.1	96.0	26.6	29.7	2.6	96.3	26.8	21.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2008.7.6.~2009.7.5.)동안 공연장이나 전시장 또는 체육시설에
가 본적이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대상을 100%로 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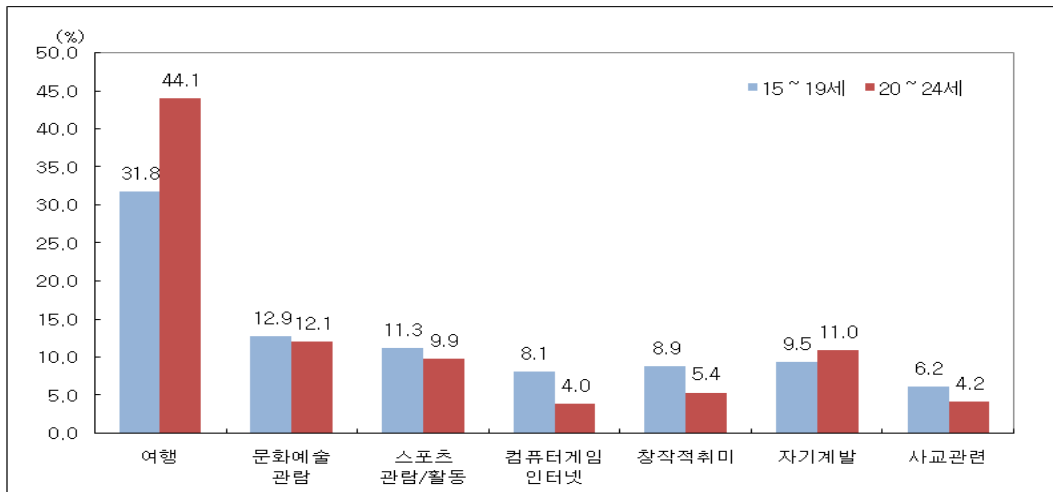
3)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 대상을 100%로 하여 산출

4.5.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09년 부산 청소년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 2009년 부산 15~19세의 31.8%, 20~24세의 44.1%가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꼽음
 - 그 다음 15~19세는 '문화예술관람' 12.9%, '스포츠관람·활동' 11.3%, '자기계발' 9.5% 등의 순
 - 20~24세는 '문화예술관람' 12.1%, '자기계발' 1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여행'과 '창작적 취미'가 각각 4.1%p, 3.8%p, 20~24세는 'TV 시청', '창작적 취미'가 각각 2.8%p, 2.4%p 증가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창작적 취미', '여행'이 각각 3.2%p, 2.5%p 높음
 - 20~24세는 'TV 시청', '문화예술관람'이 각각 2.5%p, 1.7%p 높음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09)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주된 응답) 〉

(단위 : %)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종교 활동	가사 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 ¹⁾
			부산	2007	15세 이상	5.2	43.0	6.6	11.0	2.0	4.2	8.8	4.7	1.4
		15~19세	4.3	27.7	13.6	12.6	10.0	5.1	16.6	0.9	0.0	2.3	6.4	0.5
		20~24세	2.4	44.0	11.9	10.5	2.7	3.0	19.6	1.7	0.0	1.7	2.0	2.5
	2009	15세 이상	5.1	41.5	7.1	11.5	1.6	4.5	9.0	5.4	1.1	5.0	5.0	3.1
		15~19세	4.1	31.8	12.9	11.3	8.1	8.9	9.5	0.6	0.0	5.0	6.2	1.6
		20~24세	5.2	44.1	12.1	9.9	4.0	5.4	11.0	1.3	0.0	2.8	4.2	0.0
전국	2009	15세 이상	4.7	45.1	6.8	9.5	1.8	4.2	8.9	4.3	1.1	5.6	5.1	2.8
		15~19세	4.6	29.3	13.7	11.3	9.7	5.7	13.7	1.1	0.0	4.0	6.2	0.7
		20~24세	2.7	46.6	10.4	8.6	3.3	4.4	16.5	0.8	0.0	2.8	3.2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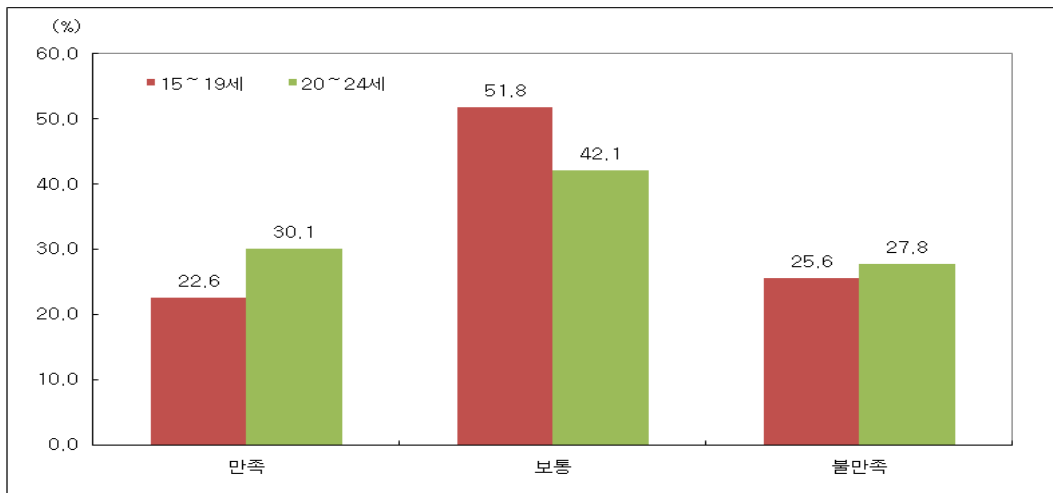
주 : 1) 기타에 봉사활동 포함됨

4.6. 여가활용 만족도

**2009년 부산 청소년 15~19세의 22.6%,
20~24세의 30.1%가 현재 여가활용에 만족**

- 2009년 부산 청소년 중 현재 여가활용에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의 22.6%, 20~24세의 30.1%로 나타남
 - '불만족'인 비율은 15~19세 25.6%, 20~24세 27.8%임
 - 15~19세는 여가활용 '불만족'이, 20~24세는 '만족' 비율이 더 높음
- 2007년에 비해 여가활용에 '만족'하는 15~19세는 1.9%p, 20~24세는 8.8%p 증가
- 전국에 비해 '만족'비율이 15~19세는 2.6%p 낮고, 20~24세는 2.5%p 높음

〈 여가활용 만족도 (2009) 〉



〈 여가활용 만족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부 산	2007	15세 이상	100.0	19.2	-	-	-	80.8	-	-
		15~19세	100.0	20.7	-	-	-	79.3	-	-
		20~24세	100.0	21.3	-	-	-	78.7	-	-
	2009	15세 이상	100.0	19.6	4.6	15.0	46.2	34.1	26.0	8.2
		15~19세	100.0	22.6	4.8	17.8	51.8	25.6	19.8	5.8
		20~24세	100.0	30.1	7.5	22.6	42.1	27.8	21.9	5.9
전 국	2009	15세 이상	100.0	21.8	4.9	16.9	46.1	32.1	24.7	7.4
		15~19세	100.0	25.2	6.5	18.6	44.3	30.5	22.8	7.8
		20~24세	100.0	27.6	5.6	22.1	47.5	24.9	20.8	4.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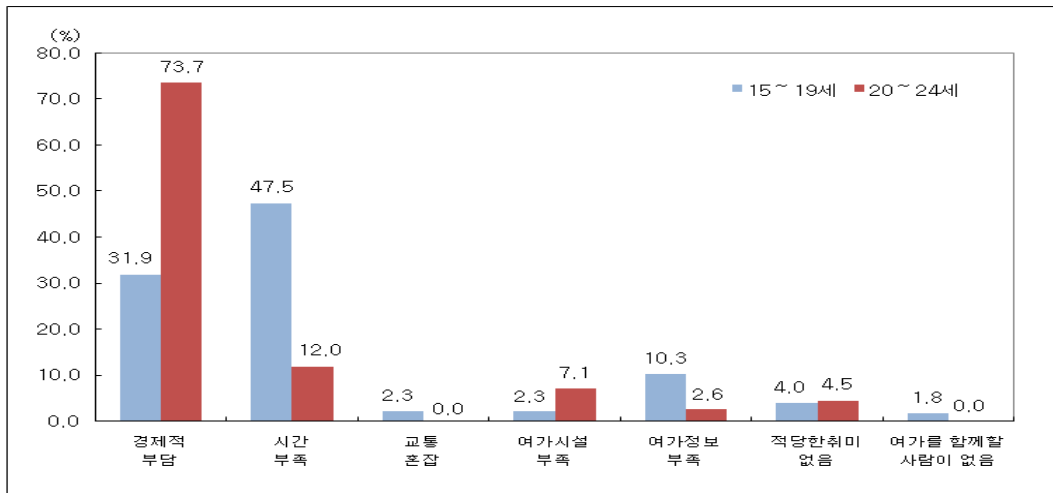
주 : 1) 2007년은 '만족', '불만족'으로만 구분

4.7.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9년 부산 청소년 15~19세는 '시간부족',
20~24세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불만족**

- 2009년 부산 청소년의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는 15~19세가 '시간부족'이 47.5%, 20~24세가 '경제적 부담'이 73.7%로 가장 높음
 - 그 다음 15~19세는 '경제적 부담' 31.9%, '여가정보부족' 10.3% 등의 순
 - 20~24세는 '시간부족' 12.0%, '여가시설부족' 7.1%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여가정보부족'과 '교통혼잡'이 각각 7.3%p, 2.0%p 증가한 반면 '시간부족'은 7.7%p 감소
 - 20~24세는 '경제적 부담'과 '여가시설부족'이 각각 13.7%p, 3.7%p 증가한 반면, '시간부족'은 12.5%p 감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여가정보부족' 8.1%p 높고, '시간부족'은 10.4%p 낮음
 - 20~24세는 '경제적 부담'이 20.4%p 높고, '시간부족'은 17.2%p 낮음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9) 〉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

(단위 : %)

	연도	연령	계 ¹⁾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 없음	건강, 체력 부족	여가를 함께 할 사람이 없음	기타
				(%)	(%)	(%)	(%)	(%)	(%)	(%)	(%)	(%)
부산	2007	15세 이상	100.0	58.9	23.5	1.8	1.9	1.7	3.1	7.6	1.4	0.1
		15~19세	100.0	34.4	55.2	0.3	1.7	3.0	3.4	1.0	0.7	0.3
		20~24세	100.0	60.0	24.5	3.0	3.4	2.1	4.7	0.4	1.7	0.0
	2009	15세 이상	100.0	61.9	21.4	1.5	1.7	1.2	2.1	7.2	1.6	1.5
		15~19세	100.0	31.9	47.5	2.3	2.3	10.3	4.0	0.0	1.8	0.0
		20~24세	100.0	73.7	12.0	0.0	7.1	2.6	4.5	0.0	0.0	0.0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54.3	28.4	1.9	1.8	0.8	2.4	7.7	1.8	0.9
		15~19세	100.0	25.9	57.9	2.2	4.2	2.2	4.4	0.6	1.5	1.0
		20~24세	100.0	53.3	29.2	2.0	4.5	1.7	4.6	1.9	2.0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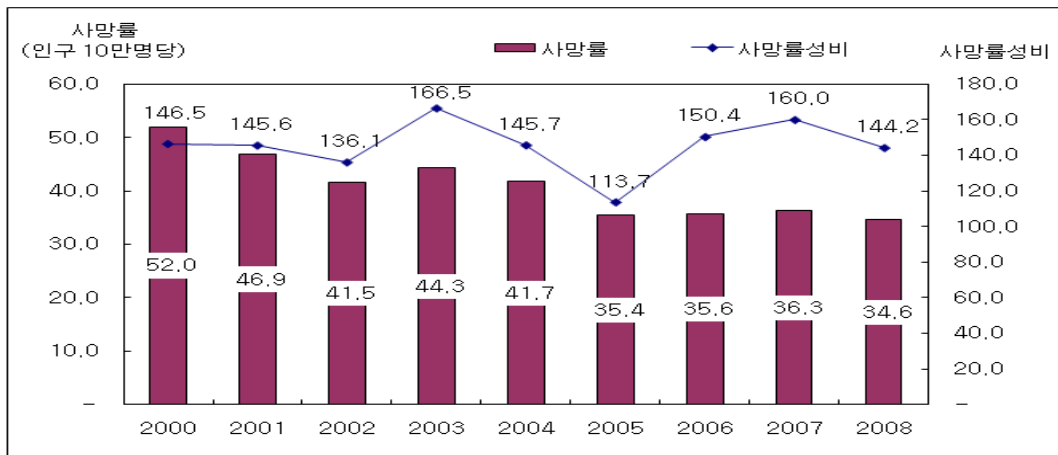
5. 보건·복지

5.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2008년 부산 0~24세 청소년의 사망률은 10만명당 34.6명으로 2000년 52.0명에 비해 17.4명 감소

- 2008년 부산의 0~24세 사망률은 10만명당 34.6명으로 2007년 36.3명에 비해 1.7명 감소하였음
 - 사망률성비는 2008년 144.2로 전년에 비해 15.8p 낮아졌음
 - 전국에 비해 0~24세 사망률은 0.7명(10만명당) 낮고 사망률 성비는 8.5p 높음
- 청소년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세의 사망률이 409.9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20~24세가 41.6명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사망률 >



< 청소년(0~24세) 사망자수 및 사망률 >

		계		남 자		여 자		사망률 성 비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부 산	2000(0~24세)	727	52.0	449	61.2	278	41.8	146.5
	2001(0~24세)	637	46.9	393	55.1	244	37.8	145.6
	2002(0~24세)	545	41.5	328	47.5	217	34.9	136.1
	2003(0~24세)	562	44.3	365	54.7	197	32.8	166.5
	2004(0~24세)	509	41.7	315	49.0	194	33.6	145.7
	2005(0~24세)	413	35.4	231	37.5	182	33.0	113.7
	2006(0~24세)	397	35.6	249	42.3	148	28.1	150.4
	2007(0~24세)	386	36.3	248	44.0	138	27.5	160.0
	2008(0~24세)	354	34.6	219	40.5	135	28.0	144.2
		(0세)	106	409.9	64	482.4	42	333.5
	(1 ~ 4세)	22	21.0	13	24.0	9	17.7	135.0
	(5 ~ 9세)	19	11.0	8	8.8	11	13.5	65.4
	(10~14세)	29	12.8	16	13.1	13	12.4	106.1
	(15~19세)	74	30.4	51	39.0	23	20.5	190.5
	(20~24세)	104	41.6	67	51.3	37	31.0	165.2
전 국	2008(0~24세)	5,381	35.3	3,223	40.4	2,158	29.8	135.7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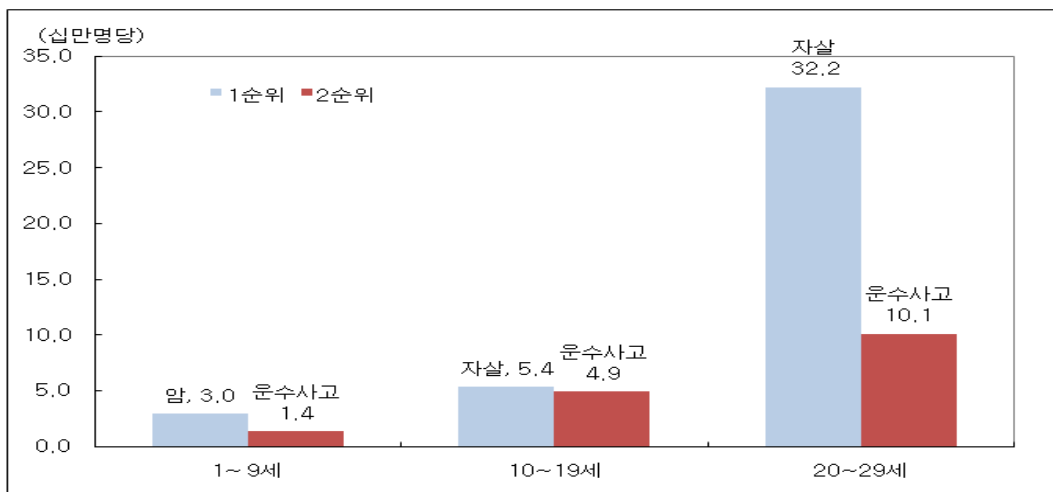
주 : 사망률성비=(남자사망률/여자사망률 × 100)

5.2. 청소년 사망원인

2008년 부산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1~9세 암(악성신생물), 10대와 20대는 고의적 자해(자살)

- 2008년 부산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1~9세는 '암', 10~19세 및 20~29세는 '고의적 자해'로 나타남
 - 그 다음 1~9세는 '운수사고', '추락사고', '심장질환' 및 '선천기형' 등이 원인
 - 10~19세는 '운수사고', '암', '익사사고', '심장질환' 등의 순
 - 20~29세는 '운수사고', '암', '심장질환', '추락사고' 순
- 남자 1~9세는 '암', 10~19세는 '운수사고'가 사망원인 1순위이며, 여자 1~9세는 '암', 10~19세는 '고의적 자해'가 사망원인 1순위
 - 20~29세는 남녀 모두 '고의적 자해'가 사망원인 1순위임

〈 청소년 주된 사망원인 (2008) 〉



〈 연령별 청소년 사망원인 (2008) 〉

(단위 : 10만명당)

	1위	2위	3위	4위	5위
1~9세 사망률	암(악성신생물) 3.0	운수사고 1.4	추락사고 0.9	심장질환, 선천기형 등 0.5	선천기형 등 0.5
남 자	암(악성신생물)	운수사고	추락사고	심장질환, 선천기형 등	선천기형 등
여 자	암(악성신생물)	운수사고, 추락사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10~19세 사망률	고의적자해(자살) 5.4	운수사고 4.9	암(악성신생물) 4.4	익사사고 1.9	심장질환 등 0.5
남 자	운수사고	고의적자해(자살)	암(악성신생물)	익사사고	심장질환 등
여 자	고의적자해(자살)	암(악성신생물)	운수사고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20~29세 사망률	고의적자해(자살) 32.2	운수사고 10.1	암(악성신생물) 7.9	심장질환 2.9	추락사고 2.2
남 자	고의적자해(자살)	운수사고	암(악성신생물)	심장질환	추락사고
여 자	고의적자해(자살)	암(악성신생물)	운수사고, 가해(타살)		심장질환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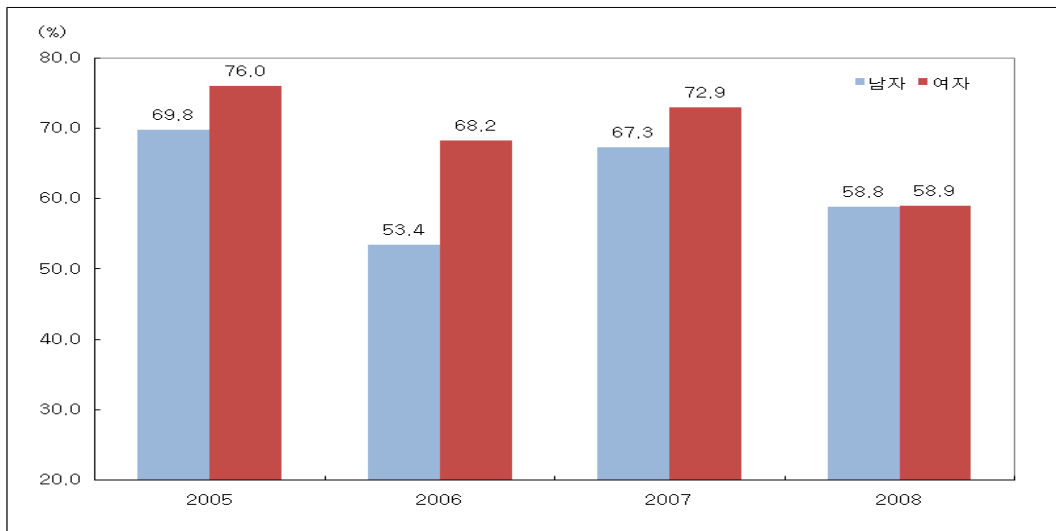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8년

5.3.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

2008년 부산 중·고등학생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58.8%

- 2008년 부산 중·고등학생 중 최근 12개월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본 비율은 58.8%로 나타남
 - 전국 평균 64.5%에 비해 5.7%p 낮음
 - 성별로는 남학생 58.8%, 여학생 58.9%로 비슷한 수준
- 2007년에 비해 성교육 경험률은 69.9%에서 11.1%p 감소
 - 남학생은 67.3%에서 8.5%p, 여학생은 72.9%에서 14.0%p 감소하였음

〈 청소년 성교육 경험률 〉



〈 청소년 성교육 경험률¹⁾ 〉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부 산	2005	72.6	69.8	76.0
	2006	60.2	53.4	68.2
	2007	69.9	67.3	72.9
	2008	58.8	58.8	58.9
전 국	2008	64.5	63.0	66.1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2005~2007년 : 지난 일년 동안 수업시간에 성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비율
 2008년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비율

5.4. 요보호아동 발생 및 보호내용

**2009년 발생한 부산의 요보호아동은 367명이며
발생유형의 32.2%는 '부모이혼 등'임**

- 2009년 부산에서 발생한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367명
 - 발생유형별로 '부모이혼 등' 32.2%, '학대' 28.6%, '부모사망' 17.7%, '기아' 10.6% 순
 - 전국에 비해 '학대' 17.0%p, '부모사망'은 9.2%p 높고, '미혼모 아동'은 33.5%p 낮음
- 요보호 아동의 보호내용을 보면 각종 시설보호가 61.0%, 가정보호가 39.0%
 - '양육시설'은 40.9%, '위탁보호가정' 28.9%, '공동생활가정' 10.1% 등의 순
 - 전국에 비해 '양육시설'은 14.2%p 높고, '입양가정', '일시보호시설'은 각각 11.3%p, 8.4%p 낮음

〈 요보호아동¹⁾ 발생유형 〉

(단위 : 명, %)

		계	기 아	미혼모 아	미 아	비행가출 부 량 아	학 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부 산	2006	396	26	12	11	40	307 ²⁾				
	2007	413	12	5	4	40	352 ²⁾				
	2008	681	22	230	7	27	68	39	139	24	125
	2009	367	39	2	1	5	105	14	65	18	118
	구성비	100.0	10.6	0.5	0.3	1.4	28.6	3.8	17.7	4.9	32.2
전 국	2009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구성비	100.0	2.5	34.0	0.4	7.8	11.6	7.9	8.5	2.5	24.8

〈 요보호아동 보호내용 〉

(단위 : 명, %)

		계	시 설 보 호				가 정 보 호		
			양육 ³⁾	일시보호 ³⁾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입 양	소년소녀 가정
부 산	2006	396	181		-	-	186	-	29
	2007	413	210		5	-	186	1	11
	2008	681	303	35	4	38	172	111	18
	2009	367	150	36	1	37	106	12	25
	구성비	100.0	40.9	9.8	0.3	10.1	28.9	3.3	6.8
전 국	2009	9,028	2,406	1,640	35	686	2,734	1,314	213
	구성비	100.0	26.7	18.2	0.4	7.6	30.3	14.6	2.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요보호아동 연령은 만 18세 미만임

2) 2005년~2007년 = 학대+빈곤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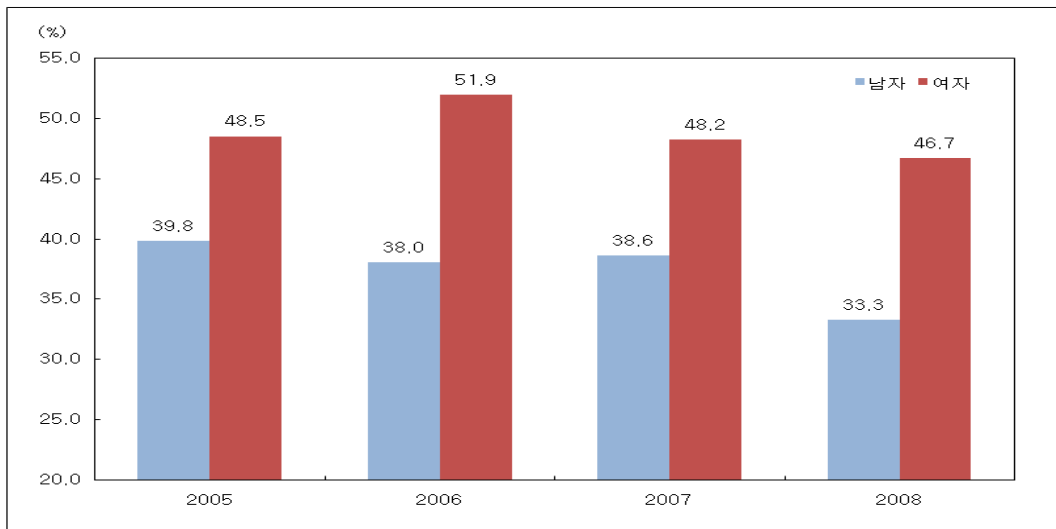
3) 2008년 아동보호시설이 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로 구분, 미혼모시설이 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됨

5.5.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2008년 부산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39.5%

- 2008년 부산 중·고등학생의 39.5%는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
 - 전국 평균 43.7%에 비해 4.2%p 낮음
 - 남학생은 33.3%, 여학생은 46.7%로 여학생이 13.4%p 높게 나타남
- 2007년 43.0%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율은 3.5%p 감소
 - 남학생, 여학생 각각 5.3%p, 1.5%p 감소하였음

〈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¹⁾ 〉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부 산	2005	43.8	39.8	48.5
	2006	44.4	38.0	51.9
	2007	43.0	38.6	48.2
	2008	39.5	33.3	46.7
전 국	2008	43.7	38.1	50.1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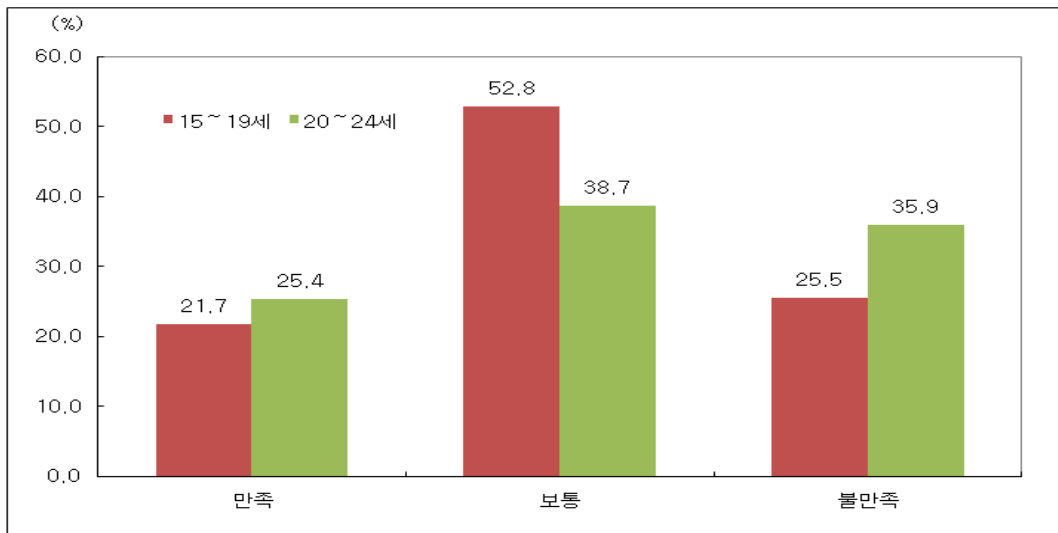
6. 사회참여·안전

6.1. 주관적 만족감

2009년 부산 청소년 15~19세의 21.7%, 20~24세의 25.4%는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 2009년 부산 청소년 중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21.7%, 20~24세 25.4%
 - '불만족'인 비율은 15~19세 25.5%, 20~24세 35.9%
 - 15~19세, 20~24세 모두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높게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만족' 비율은 15~19세 14.5%p, 20~24세 0.3%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만족'은 15~19세가 2.1%p 낮고, 20~24세가 2.1%p 높음

〈 주관적 만족감 (2009) 〉



〈 주관적 만족감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약간		매우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부 산	2006	15세 이상	100.0	24.4	3.5	20.9	39.3	36.4	26.0	10.3	
		15~19세	100.0	36.2	8.4	27.7	39.0	24.9	18.5	6.3	
		20~24세	100.0	25.7	2.7	22.9	41.8	32.5	26.1	6.5	
	2009	15세 이상	100.0	16.6	2.6	14.0	45.1	38.3	29.2	9.1	
		15~19세	100.0	21.7	4.9	16.8	52.8	25.5	21.3	4.2	
		20~24세	100.0	25.4	6.9	18.5	38.7	35.9	26.5	9.4	
전 국	2009	15세 이상	100.0	20.9	3.3	17.6	45.3	33.8	26.5	7.4	
		15~19세	100.0	23.8	5.3	18.5	48.8	27.4	22.2	5.2	
		20~24세	100.0	23.3	4.4	18.9	49.2	27.6	21.6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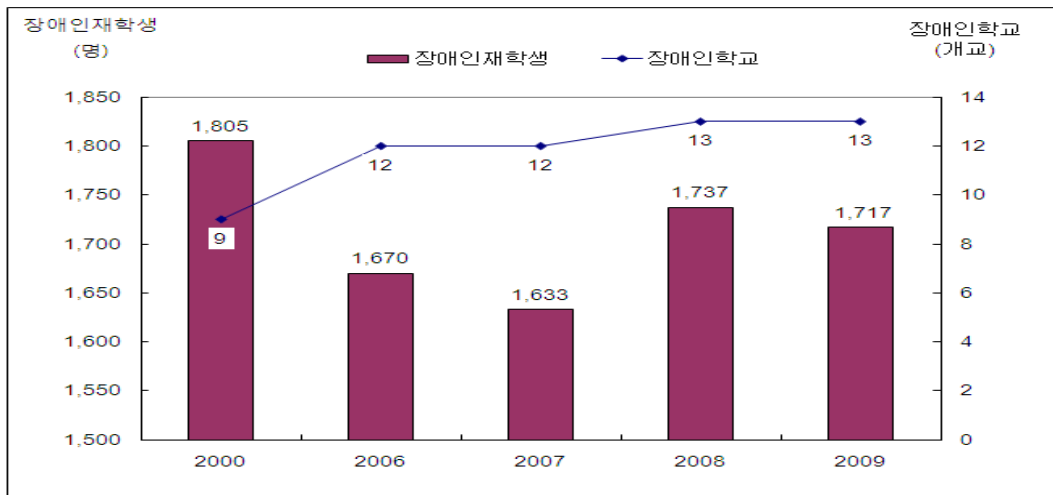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6.2. 장애인 학교 취학자

2009년 부산의 장애인 학교 취학자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67.7%로 가장 많음

- 2009년 부산의 장애인 학교는 13개로 총 재학생은 1,717명임
 - 2000년에 비해 장애인 학교는 4개교 증가한 반면, 총 재학생은 88명 감소
- 재학생의 장애유형별 구성비는 '정신지체'가 67.7%로 가장 많고, '지체부자유' 17.2%, '청각장애' 6.8%, '시각장애' 6.5%, '정서장애' 1.8% 순임
 - 2008년에 비해 정서장애는 40.4%, 지체부자유는 5.1%의 감소한 반면, 청각장애와 시각장애 취학자는 각각 2.7%, 1.8%의 증가
 - 전국에 비해 '지체부자유'는 6.2%p 높고, '정서장애'는 4.2%p 낮음

〈 장애인 학교 취학자 〉



〈 장애인 학교 취학자 현황 〉

(단위 : 개교, 명, %)

	연도	학교수	재학생 계	장애유형별 재학생 (명,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부자유인	정신지체인	정서장애인
부 산	2000	9	1,805 (100.0)	110 (6.1)	193 (10.7)	342 (18.9)	1,160 (64.3)	- (0.0)
	2006	12	1,670 (100.0)	98 (5.9)	123 (7.4)	363 (21.7)	1,044 (62.5)	42 (2.5)
	2007	12	1,633 (100.0)	96 (5.9)	152 (9.3)	309 (18.9)	1,041 (63.7)	35 (2.1)
	2008	13	1,737 (100.0)	110 (6.3)	113 (6.5)	311 (17.9)	1,151 (66.3)	52 (3.0)
	2009	13	1,717 (100.0)	112 (6.5)	116 (6.8)	295 (17.2)	1,163 (67.7)	31 (1.8)
	증감률 ¹⁾	0.0	△1.2	1.8	2.7	△5.1	1.0	△40.4
전 국	2009	150	23,720 (100.0)	1,457 (6.0)	1,347 (6.0)	2,648 (11.0)	16,734 (71.0)	1,518 (6.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비율임

6.3.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009년 부산 청소년은 자신의 장애인 차별은 '없다'고 생각하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심하다'고 생각

- 2009년 부산 청소년은 사회의 장애인 차별정도에 대해 15~19세는 '없다' 18.3%, '심하다' 81.8%, 20~24세는 '없다' 20.4%, '심하다' 79.7%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15~19세는 '없다' 82.0%, '심하다' 18.0%, 20~24세는 '없다' 89.0%, '심하다' 11.0%의 응답비율을 보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자신과 사회의 인식에 차이를 보임
- 전국에 비해 사회의 장애인 차별 '없음'은 15~19세가 0.2%p 낮고, 20~24세는 0.9%p 높음
 - 자신의 장애인 차별 '없음'은 15~19세는 4.4%p, 20~24세는 1.2%p 낮음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사회) 〉

(단위 : %)

			계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함	매우심함
부산	2007	15세이상	100.0	2.7	24.1	44.0	20.1	9.1
		15~19세	100.0	1.6	21.5	45.5	21.8	9.7
		20~24세	100.0	2.4	16.9	45.6	22.6	12.5
	2009	15세이상	100.0	1.6	19.4	50.2	20.4	8.4
		15~19세	100.0	2.2	16.1	47.2	22.7	11.9
		20~24세	100.0	1.9	18.5	48.2	25.6	5.9
전국	2009	15세이상	100.0	1.8	21.8	48.1	19.9	8.4
		15~19세	100.0	1.8	16.7	49.1	22.3	10.1
		20~24세	100.0	1.2	18.3	48.0	23.5	9.0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자신) 〉

(단위 : %)

			계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함	매우심함
부산	2007	15세이상	100.0	19.0	70.7	8.9	1.2	0.2
		15~19세	100.0	17.8	68.8	11.3	1.9	0.3
		20~24세	100.0	16.2	69.2	12.9	1.7	0.0
	2009	15세이상	100.0	18.4	73.0	7.2	1.0	0.3
		15~19세	100.0	12.5	69.5	13.2	4.2	0.6
		20~24세	100.0	16.4	72.6	9.6	1.4	0.0
전국	2009	15세이상	100.0	19.3	73.1	6.4	0.9	0.3
		15~19세	100.0	14.2	72.2	10.8	2.1	0.8
		20~24세	100.0	14.6	75.6	8.7	1.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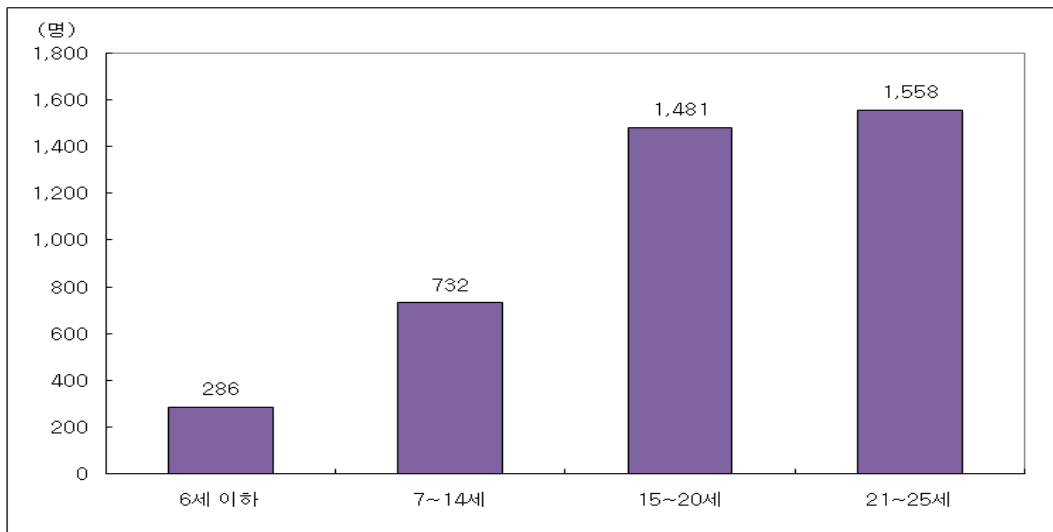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6.4. 청소년 교통사고

2008년 부산의 교통사고 사상자 중 25세 이하가 22.6%를 차지

- 2008년 교통사고로 인한 부산의 25세 이하 사상자는 4,05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자 17,954명의 22.6%를 차지함
 - 이 중 연령별로 보면 21~25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8.7%로 가장 높음
- 2007년에 비해 25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는 560명(16.0%) 증가하였음
- 전국에 비해 25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은 0.3%p 낮음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2008) 〉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

(단위 : 명, %)

		전 체	25세 이하	6세 이하 ¹⁾	7~14세 ¹⁾	15~20세	21~25세
부 산	2005	18,659	4,210	479	532	1,141	2,058
	2006	19,562	4,459	466	599	1,306	2,088
	2007	15,342	3,497	357	486	1,115	1,539
	2008	17,954	4,057	286	732	1,481	1,558
	구성비	100.0	22.6	1.6	4.1	8.2	8.7
증감률 ²⁾		17.0	16.0	△19.9	50.6	32.8	1.2
사망자		225	34	2	2	17	13
부상자		17,729	4,023	284	730	1,464	1,545
전 국	2008	344,831	79,029	7,230	15,295	26,348	30,156
	구성비	100.0	22.9	2.1	4.4	7.6	8.7
	증감률 ²⁾	0.8	△0.2	△8.3	1.1	10.2	△6.5
	사망자	5,870	815	69	92	295	359
	부상자	338,961	78,214	7,161	15,203	26,053	29,797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년도

주 : 1) 2005년 ~ 2007년 : 7세 이하와 8~14세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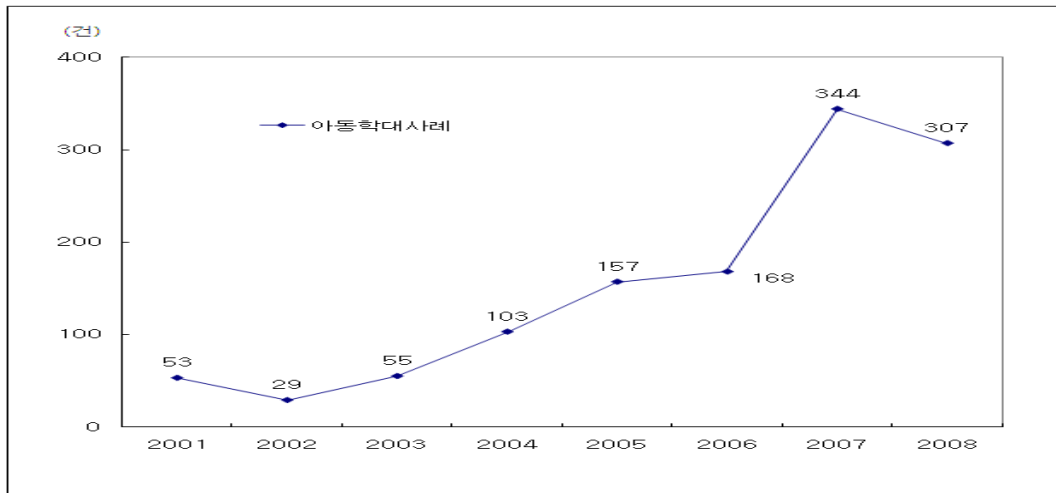
2) 2007년 대비 2008년의 증감비율임

6.5. 아동학대 현황

2008년 부산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63건, 아동학대 사례는 307건

- 2008년 부산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63건이고, 그 중 아동학대 사례는 307건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5건, 아동학대 사례는 37건 감소
 - 2002년과 비교하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51건에서 512건 증가, 아동학대 사례는 29건에서 278건 증가하였음
 - 증가추세였던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사례가 전년대비 감소하였음
- 전국 중 부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6.9%, 아동학대사례는 5.5%를 차지

〈 아동학대 사례 〉



〈 아동학대 현황 〉

(단위 : 건)

		아동학대 신고건수			초기개입결과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 상담	계 ¹⁾	아동학대사례		잠재 ²⁾ 위험사례	일반 사례
						응급아동 학대사례	단순아동 학대사례		
부 산	2001	163	65	98	65	53		11	-
	2002	151	44	107	44	3	26	8	7
	2003	157	80	77	80	11	44	12	13
	2004	296	134	162	134	18	85	14	17
	2005	519	168	351	168	23	134	6	5
	2006	463	202	261	202	19	149	23	11
	2007	698	554	144	554	30	314	47	163
	2008	663	440	223	440	19	288	65	68
전 국	2008	9,570	7,219	2,351	7,219	602	4,976	491	1,150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주 : 1) 2001년 초기개입결과 계에는 부적절 사례 포함

2) 2001년 잠재위험사례는 무혐의 사례 자료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IV.

울산 부분별 청소년통계

1. 인 구 · 가 족
2. 교 육
3. 노 동
4. 문 화 · 여 가
5. 보 건 · 복 지
6. 사 회 참 여 · 안 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IV. 울산 부문별 청소년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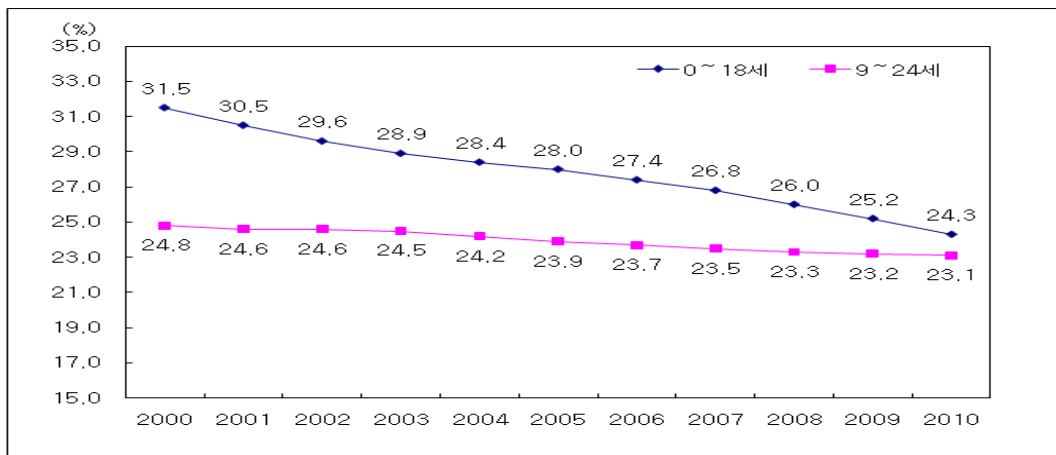
1. 인구와 가족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2010년 울산의 9~24세 청소년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3.1%로 2000년 24.8%에 비해 10년간 1.7%p 감소

- 2010년 현재 울산의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는 각각 266천명, 253천명으로 총 인구 중 각각 24.3%, 23.1%를 차지함
 - 2009년에 비해 인구구성비가 0~18세는 0.9%p, 9~24세는 0.1%p 낮아짐
 -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구성비는 2000년 각각 31.5%, 24.8%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0년간 7.2%p, 1.7%p 낮아짐

〈 울산 청소년 인구구성비 〉



〈 울산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단위 : 천명)

	연도	총인구	0~18세		9~24세		0~24세	
			인구	%	인구	%	인구	%
울 산	2000	1,036	326	31.5	257	24.8	419	40.5
	2001	1,047	319	30.5	258	24.6	416	39.7
	2002	1,056	313	29.6	260	24.6	411	38.9
	2003	1,056	307	28.9	260	24.5	403	38.0
	2004	1,066	303	28.4	258	24.2	394	36.9
	2005	1,070	300	28.0	256	23.9	384	35.8
	2006	1,075	295	27.4	255	23.7	375	34.9
	2007	1,080	289	26.8	254	23.5	368	34.1
	2008	1,085	282	26.0	253	23.3	361	33.3
	2009	1,089	275	25.2	253	23.2	355	32.6
	2010	1,094	266	24.3	253	23.1	351	32.1
전 국	2010	48,875	10,655	21.8	10,288	21.1	14,422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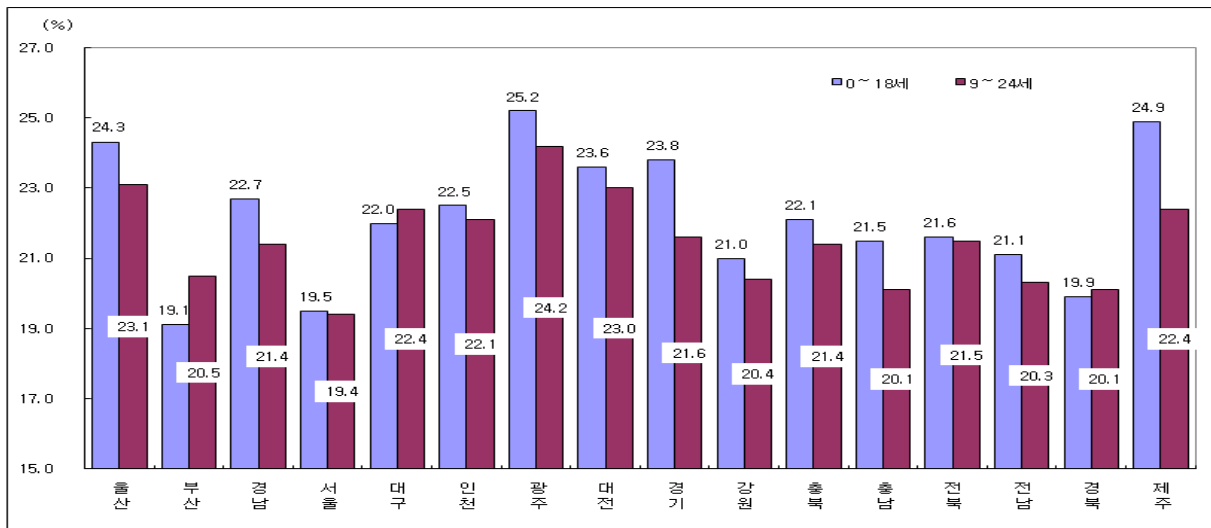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2007. 5), 「장래인구 특별추계」(2006. 11)

1.2. 시도별 청소년 인구

울산의 총 인구 대비 9~24세 청소년 인구 비중(23.1%)은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 다음으로 높은 수준임

- 울산의 0~18세 청소년 인구는 총인구의 24.3%로 전국 평균(21.8%)과 비교하여 2.5%p 높고, 이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25.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울산의 9~24세 청소년 인구는 총인구의 23.1%로 전국 평균(21.1%)과 비교하여 2.0%p 높고, 이는 7대 특광역시 가운데 광주(24.2%), 대전(23.0%)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시도별 청소년 인구구성비 (2010) 〉



〈 시도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2010) 〉

(단위 : 천명)

	총인구		0~18세		9~24세			총인구		0~18세		9~24세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인구	%
울산	1,094	24.3	266	23.1	253	23.1	경기	11,637	27.65	2,765	23.8	2,509	21.6
전국	48,875	21.8	10,655	21.8	10,288	21.1	강원	1,443	30.3	303	21.0	294	20.4
서울	10,039	19.5	1,957	19.4	1,951	19.4	충북	1,479	32.7	327	22.1	317	21.4
부산	3,446	19.1	660	20.5	705	20.5	충남	1,959	42.2	422	21.5	394	20.1
대구	2,431	22.0	534	22.4	544	22.4	전북	1,703	36.8	368	21.6	367	21.5
인천	2,661	22.5	600	22.1	588	22.1	전남	1,740	36.8	368	21.1	354	20.3
광주	1,450	25.2	365	24.2	350	24.2	경북	2,592	51.6	516	19.9	520	20.1
대전	1,515	23.6	357	23.0	348	23.0	경남	3,141	71.2	712	22.7	672	21.4
							제주	547	13.6	136	24.9	122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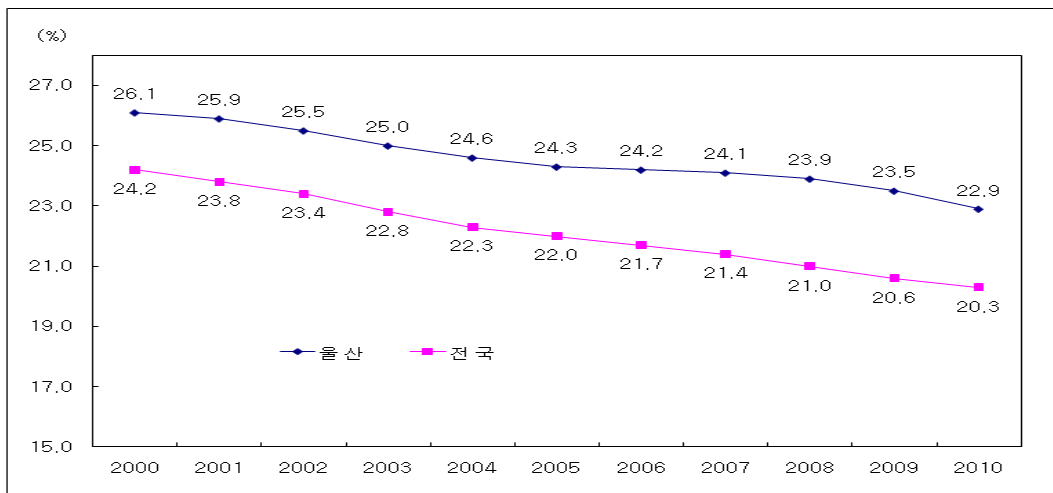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7. 5), 「장래인구 특별추계」 (2006. 11)

1.3. 학령인구

**2010년 울산의 학령인구(6~21세)는 251천명으로
2000년 271천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2010년 울산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6~21세)는 251천명임
 - 전체 학령인구에서 6~11세(초등학교) 인구가 80천명(31.9%) 12~14세(중학교) 51천명(20.3%), 15~17세(고등학교) 55천명(21.9%), 18~21세(대학교)가 65천명(25.9%) 임
 - 2000년(271천명)에 비해 20천명(7.4%) 감소하였으며, 2009년(256천명)에 비해 5천명(1.9%) 감소
 - 총 인구에 대한 학령인구 비중은 전국 대비 울산이 2.6%p 높음

〈 학령인구 (6~21세) 구성비 〉



〈 학령인구 (6~21세) 〉

(단위 : 천명)

	학령인구 (6~21세)	학령인구 구성비 (%)					변화율 (전년대비, %)	
		총인구대비 비율 (%)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울 산	2000	271	26.1	108	47	48	68	-
	2001	271	25.9	111	47	45	68	0.1
	2002	269	25.5	113	48	43	66	△0.7
	2003	266	25.0	112	50	43	60	△1.3
	2004	262	24.6	110	53	45	55	△1.2
	2005	260	24.3	106	55	47	51	△0.9
	2006	260	24.2	102	56	50	52	△0.1
	2007	260	24.1	98	56	52	55	0.1
	2008	259	23.9	92	54	54	59	△0.2
	2009	256	23.5	86	53	55	62	△1.4
2010	251	22.9	80	51	55	65	△1.9	
전 국	2010	9,901	20.3	3,297	1,962	2,069	2,57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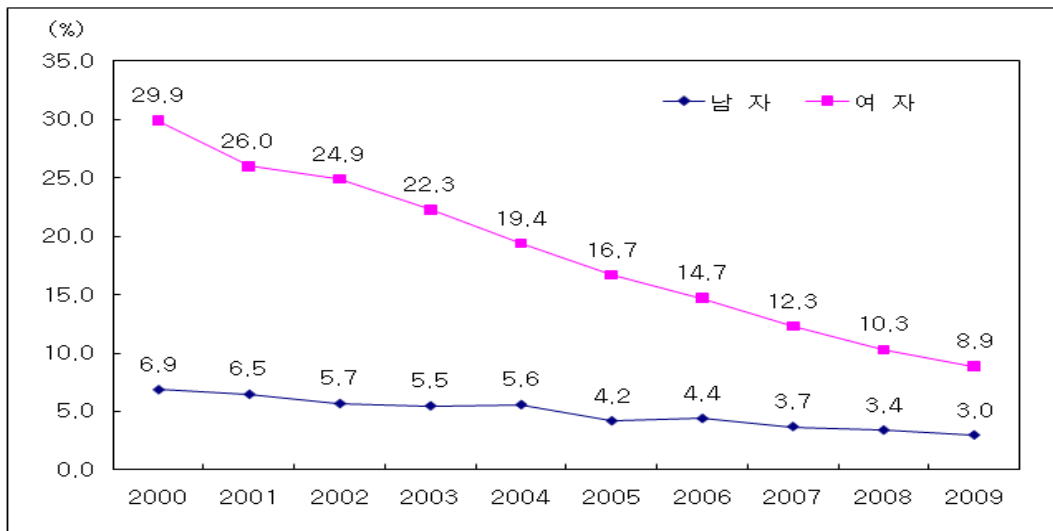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2007. 5), 「장래인구 특별추계」(2006. 11)

1.4. 청소년의 혼인

만혼 추세로 총 혼인건수에서 청소년(24세 이하)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울산의 24세 이하 인구의 남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1%, 2.8%이며, 여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7%, 8.1%임
 - 2008년에 비해 남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3.2%에서 2.8%로 0.4%p 감소, 여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9.6%에서 8.1%로 1.5%p 감소하였음
- 전국 15~24세 청소년의 혼인구성비(남자 3.2%, 여자 11.6%)에 비해 남자는 0.2%p, 여자는 2.7%p 낮음

〈 청소년의 혼인 구성비 (15~24세) 추이 〉



〈 청소년의 혼인 구성비 〉

(단위 : 건, %)

	연도	남 자				여 자			
		총 혼인	15~24세	15~19세	20~24세	총 혼인	15~24세	15~19세	20~24세
울 산	2000	6,890	6.9	0.3	6.6	5,958	29.9	2.2	27.7
	2001	6,730	6.5	0.4	6.1	5,867	26.0	2.0	24.0
	2002	6,512	5.7	0.4	5.3	5,802	24.9	2.3	22.6
	2003	6,528	5.5	0.4	5.1	5,736	22.3	1.5	20.8
	2004	6,647	5.6	0.3	5.3	5,935	19.4	1.1	18.3
	2005	6,939	4.2	0.2	4.0	6,099	16.7	0.9	15.8
	2006	7,493	4.4	0.3	4.1	6,510	14.7	0.8	13.9
	2007	7,563	3.7	0.3	3.3	6,696	12.3	0.7	11.6
	2008	7,837	3.4	0.2	3.2	7,021	10.3	0.7	9.6
	2009	7,267	3.0	0.1	2.8	6,400	8.9	0.7	8.1
전 국	2009	309,759	3.2	0.2	3.0	309,759	11.6	1.7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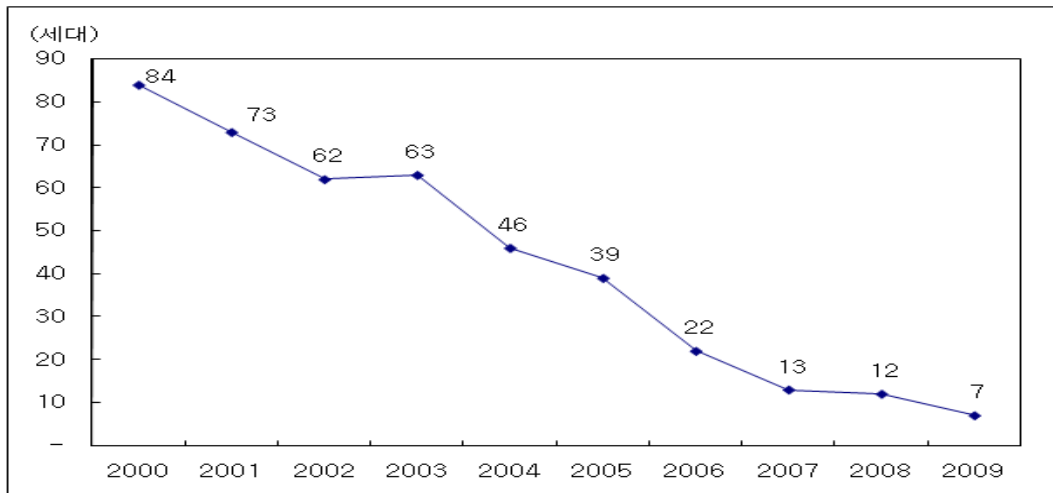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1.5.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2009년 울산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7세대로,
2000년(84세대)에 비해 77세대 감소**

- 2009년 울산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7세대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체 세대원은 9명이고, 재학상태별로는 초등학교 1명(11.1%), 중학교 3명(33.3%), 고등학교 5명(55.6%)임
- 2008년 12세대에 비해 5세대가 감소하였고, 2000년 84세대에 비해 77세대(91.7%) 감소하였음
- 전국 소년·소녀가장은 총 1,054세대, 1,596명으로 울산은 총 세대 중 0.7%, 세대원 중 0.6%를 차지

〈 소년·소녀가장 세대 추이 〉



〈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

(단위 : 세대, 명)

	세대주	세대원 ¹⁾	재학상태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²⁾	
울 산	2000	84	121	4	18	48	46	5
	2001	73	100	1	17	35	41	6
	2002	62	92	1	17	36	38	-
	2003	63	86	1	13	28	44	-
	2004	46	73	2	9	24	36	2
	2005	39	58	-	3	22	32	1
	2006	22	31	-	2	13	14	2
	2007	13	22	-	2	7	13	-
	2008	12	20	-	1	6	11	2
	2009	7	9	-	1	3	5	-
전 국	2009	1,054	1596	10	196	440	904	46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세대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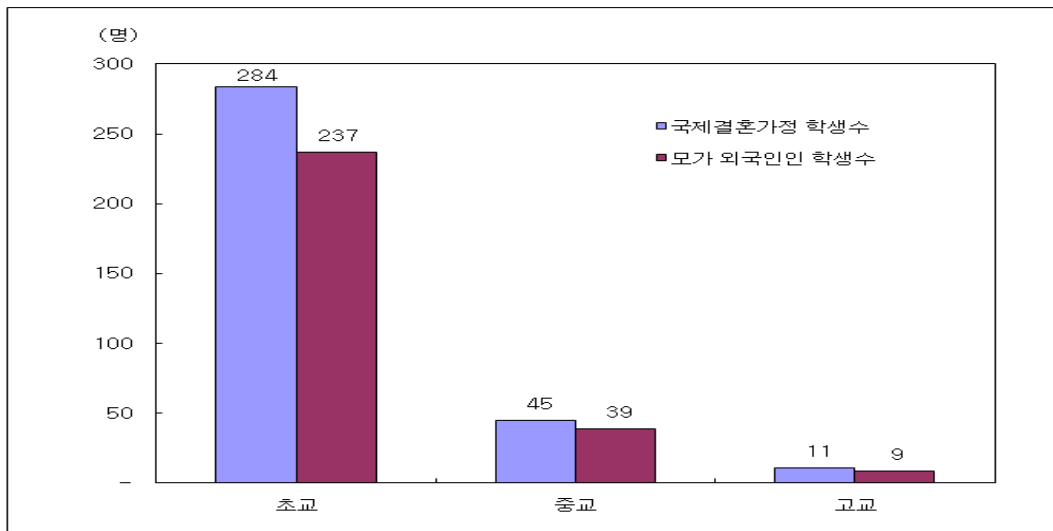
2) 미재학자, 기타 고교 재학자 및 대학 재학자 포함

1.6.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09년 울산의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는 340명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285명임**

- 2009년 울산의 국제결혼가정의 학생수는 전체 340명으로, 초등학생이 284명, 중학생이 45명, 고등학생이 11명임
 - 이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285명으로 국제결혼가정의 83.8%
 - 학교급별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은 초등학생이 83.5%, 중학생이 86.7%, 고등학생이 81.8%임
- 국제결혼가정 중 외국인 어머니 비율은 전국 90.0%에 비해 6.2%p 낮음

〈 학교급별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09) 〉



〈 다문화 청소년 현황 〉

(단위 : 명, %)

		울 산				전 국			
		계	초교	중교	고교	계	초교	중교	고교
2007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203	177	22	4	13,445	11,444	1,588	413
	구성비	100.0	87.2	10.8	2.0	100.0	85.1	11.8	3.1
2007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94	176	14	4	11,825	10,387	1,182	256
	구성비 ¹⁾	95.6	99.4	63.6	100.0	88.0	90.8	74.4	62.0
2008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264	220	30	14	18,778	15,804	2,213	761
	구성비	100.0	83.3	11.4	5.3	100.0	84.2	11.8	4.1
2008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242	204	25	13	16,937	14,452	1,885	600
	구성비 ¹⁾	91.7	92.7	83.3	92.9	90.2	91.4	85.2	78.8
2009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340	284	45	11	24,745	20,632	2,987	1,126
	구성비	100.0	83.5	13.2	3.2	100.0	83.4	12.1	4.5
2009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285	237	39	9	22,264	18,845	2,519	900
	구성비 ¹⁾	83.8	83.5	86.7	81.8	90.0	91.3	84.3	79.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주 : 1) 각 학교급별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대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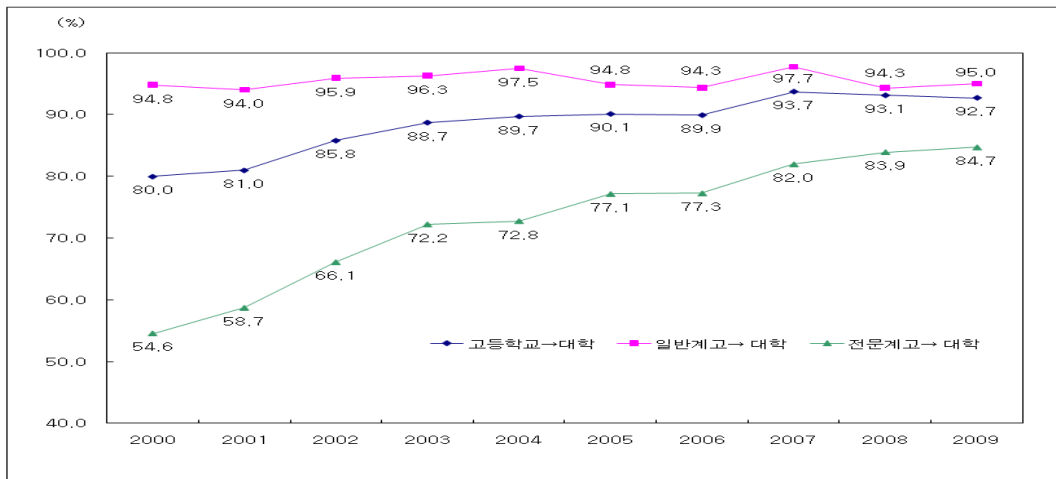
2. 교육

2.1. 진학률

2009년 울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92.7%임

- 2009년 울산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2.7%로 10명 중 9명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였음
 - 대학진학률은 2008년 대비 0.4%p 감소, 2000년 80.0%에 비해 12.7%p 증가
 - 전국 평균 대학진학률 92.2%에 비해 0.5%p 높음
- 2009년 울산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100.0%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6%로 2000년에 비해 0.2%p 감소

〈 대학교 진학률¹⁾ 추이 〉



〈 학교급별 진학률¹⁾ 〉

(단위 : %)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 ²⁾	일반계고교 → 대학 ²⁾	전문계 ³⁾ 고교 → 대학 ²⁾
울 산	2000	99.9 ⁴⁾	99.8	80.0	94.8	54.6
	2001	99.9 ⁴⁾	99.5	81.0	94.0	58.7
	2002	99.9 ⁴⁾	99.6	85.8	95.9	66.1
	2003	99.9	99.5	88.7	96.3	72.2
	2004	99.9 ⁴⁾	99.5	89.7	97.5	72.8
	2005	100.0	99.8	90.1	94.8	77.1
	2006	100.0	99.8	89.9	94.3	77.3
	2007	99.9 ⁴⁾	99.6	93.7	97.7	82.0
	2008	99.9 ⁴⁾	99.7	93.1	94.3	83.9
	2009	100.0	99.6	92.7	95.0	84.7
전 국	2009	99.9 ⁴⁾	99.6	92.2	97.0	78.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 /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포함

3) 2007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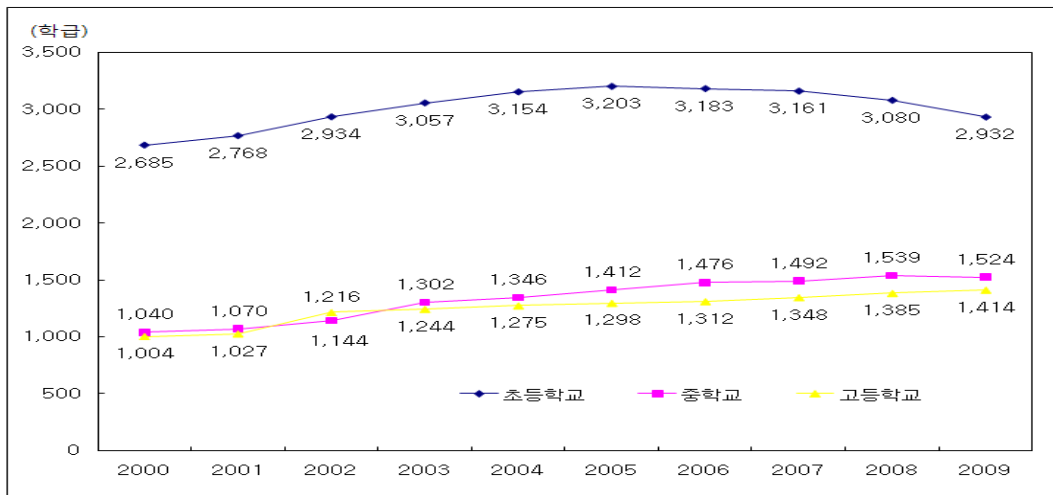
4)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2.2.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급수

2009년 울산은 전년대비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교 증가

- 2009년 울산의 초등학교는 116개교, 중학교 61개교, 고등학교 49개교로 2008년에 비해 중학교, 고등학교 각각 1개교씩 증가
 - 울산 학교 수는 전국 중 초등학교 2.0%, 중학교 2.0%, 고등학교 2.2%를 차지
- 학급 수는 초등학교가 2,932개로 2008년에 비해 148개 학급 감소, 중학교는 1,524개 학급으로 2008년에 비해 15개 학급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학급수는 1,414개로 2008년에 비해 29개 학급이 증가하였음

〈 학교급별 학급수 추이 〉



〈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급수 〉

(단위 : 개)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울 산	2000	85	2,685	41	1,040	34	1,004
	2001	86	2,768	42	1,070	34	1,027
	2002	92	2,934	43	1,144	36	1,216
	2003	94	3,057	46	1,302	37	1,244
	2004	100	3,154	49	1,346	41	1,275
	2005	106	3,203	51	1,412	41	1,298
	2006	108	3,183	52	1,476	45	1,312
	2007	114	3,161	56	1,492	45	1,348
	2008	116	3,080	60	1,539	48	1,385
	2009	116	2,932	61	1,524	49	1,414
전 국	2009	5,829	124,892	3,106	58,396	2,225	57,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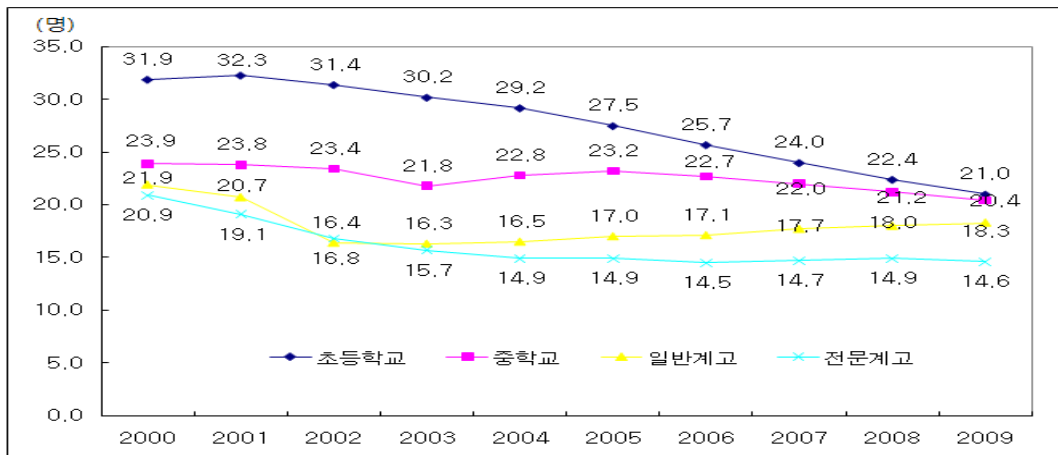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3. 교원 1인당 학생수

2009년 울산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21.0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계 고등학교 14.6명으로 가장 적음

- 2009년 울산의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21.0명, 중학교 20.4명, 일반계 고등학교 18.3명, 전문계 고등학교 14.6명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 전문계 고등학교는 각각 1.4명, 0.8명, 0.3명이 감소한 반면, 일반계 고등학교는 0.3명 증가하였음
 - 2000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 10.9명, 중학교 3.5명, 일반계 고등학교 3.6명, 전문계 고등학교 6.3명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중학교 2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1.6명, 전문계 고등학교는 1.3명, 초등학교 1.2명이 많음

〈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 〉



〈 교원 1인당 학생수 〉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울 산	2000	31.9	23.9	21.9	20.9
	2001	32.3	23.8	20.7	19.1
	2002	31.4	23.4	16.4	16.8
	2003	30.2	21.8	16.3	15.7
	2004	29.2	22.8	16.5	14.9
	2005	27.5	23.2	17.0	14.9
	2006	25.7	22.7	17.1	14.5
	2007	24.0	22.0	17.7	14.7
	2008	22.4	21.2	18.0	14.9
	2009	21.0	20.4	18.3	14.6
전 국	2009	19.8	18.4	16.7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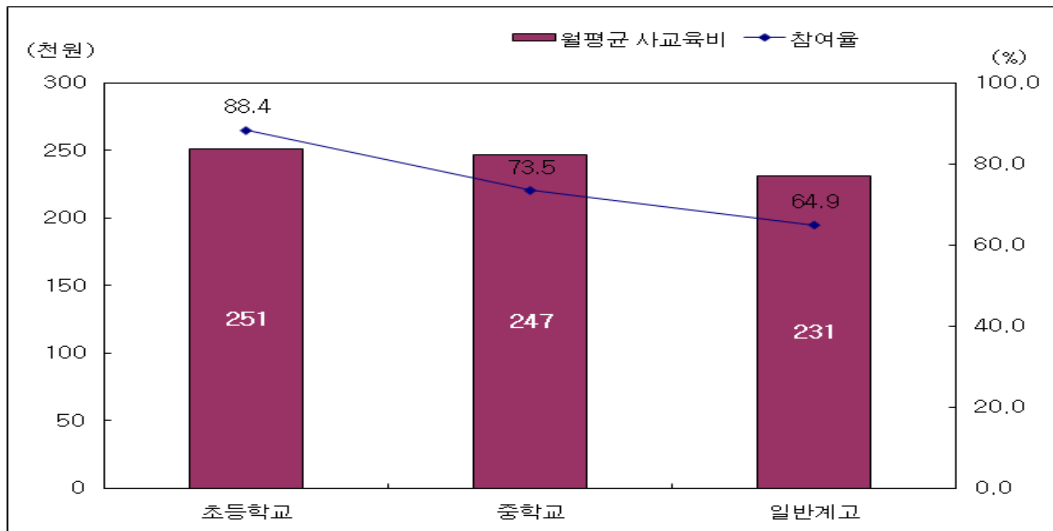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9년 울산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4천원

- 2009년 울산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8.4%, 중학교 73.5%, 고등학교 55.9%로 나타남
 - 일반계 고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64.9%로 전체 고등학교의 참여율 55.9%보다 9.0%p 높게 나타남
-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3만4천원으로 전국 평균 24만2천원보다 낮음
 - 초등학교가 25만1천원으로 가장 높으며, 중학교 24만7천원, 일반계 고등학교 23만1천원 순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9) 〉



〈 지역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9) 〉

(단위 : %, 천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울 산	75.4	234	88.4	251	73.5	247	55.9	190	64.9	231
전 국	75.0	242	87.4	245	74.3	260	53.8	217	62.8	269
서 울	79.6	331	88.8	305	76.9	326	67.3	377	74.2	433
부 산	72.4	203	87.4	197	70.7	218	51.5	198	60.5	251
대 구	77.5	251	89.6	253	76.5	291	59.0	206	62.9	235
인 천	73.9	221	86.7	231	69.3	213	57.0	211	65.1	253
광 주	75.9	209	91.8	230	75.3	228	47.6	151	55.0	185
대 전	74.2	234	87.1	249	69.5	217	56.2	225	64.5	268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09년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 평균 참여 비용을 말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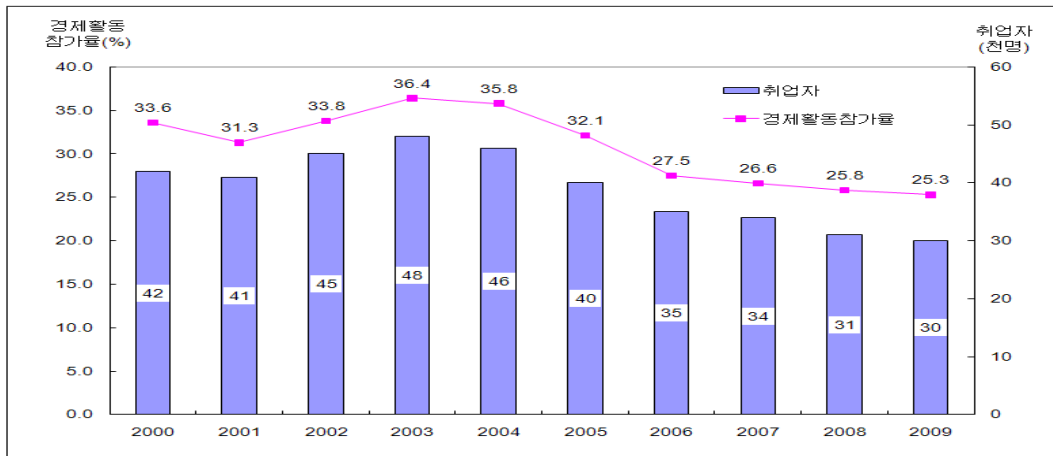
3. 노 동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2009년 울산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5.3%

- 2009년 울산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3%이며, 이 중 15~19세는 6.8%, 20~24세는 50.2%임
- 2000년과 비교하면, 진학률의 증가로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3.6%에서 9년간 8.3%p 하락
- 전국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5.4%로 울산은 이보다 0.1%p 낮음

〈 청소년의 경제활동 〉



〈 청소년의 경제활동 〉

(단위 : 천명, %)

	연도	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비취업자		
울 산	2000(15~24세)	143	48	42	95	33.6
	2001(15~24세)	144	45	41	98	31.3
	2002(15~24세)	145	49	45	95	33.8
	2003(15~24세)	145	53	48	92	36.4
	2004(15~24세)	144	51	46	92	35.8
	2005(15~24세)	140	45	40	95	32.1
	2006(15~24세)	139	38	35	101	27.5
	2007(15~24세)	140	37	34	102	26.6
	2008(15~24세)	138	36	31	102	25.8
	(15~19세)	78	4	4	74	5.6
	(20~24세)	59	31	28	28	52.4
	2009(15~24세)	140	35	30	104	25.3
전 국	2009(15~24세)	5,934	1,507	1,359	4,427	25.4
	(15~19세)	3,284	203	178	3,082	6.2
	(20~24세)	2,650	1,305	1,181	1,346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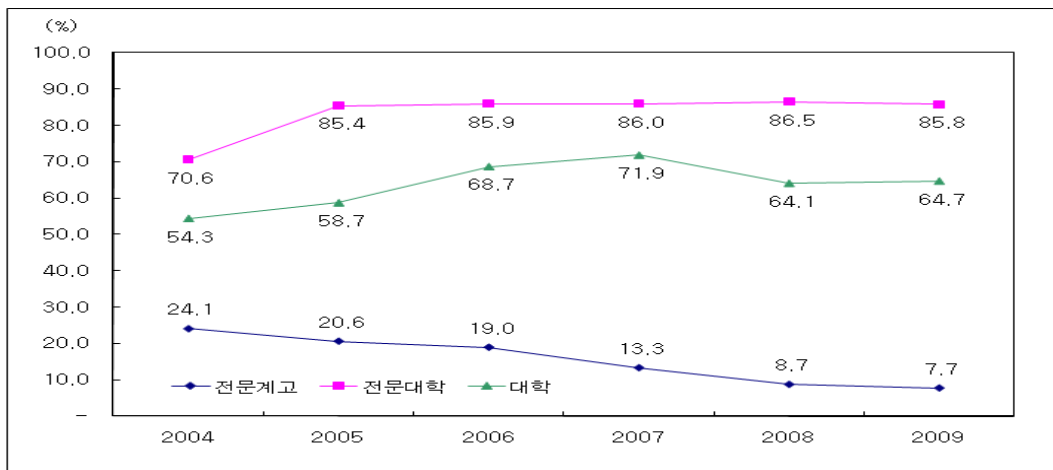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3.2.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현황

**2009년 울산의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 비율은
전문대학이 85.8%로 가장 높음**

- 2009년 울산의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 비율은 전문대학이 85.8%로 가장 높고, 대학 64.7%, 전문계고 7.7% 순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대학 졸업자의 취업비율은 0.6%p 증가, 전문계고, 전문대학의 취업비율은 1.0%p, 0.7%p 각각 감소
 - 2004년과 비교하면 전문대학과 대학은 15.2%p, 10.4%p 각각 증가, 전문계고 졸업자의 취업비율은 16.4%p 감소
- 전국에 비해 졸업자의 취업비율은 전문계고는 9.0%p 낮고, 전문대학과 대학은 각각 4.3%p, 4.0%p 높음

〈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



〈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 현황 〉

(단위 : 명, %)

	연도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울 산	2004	4,445	1,070	24.1	2,886	2,038	70.6	2,889	1,570	54.3
	2005	3,676	759	20.6	3,285	2,807	85.4	2,748	1,613	58.7
	2006	3,644	691	19.0	3,046	2,618	85.9	2,624	1,803	68.7
	2007	3,723	495	13.3	2,993	2,573	86.0	2,873	2,065	71.9
	2008	3,583	311	8.7	2,851	2,467	86.5	2,680	1,718	64.1
	2009	3,355	258	7.7	2,847	2,444	85.8	2,552	1,651	64.7
전 국	2009	151,410	25,297	16.7	199,421	162,608	81.5	279,059	169,277	60.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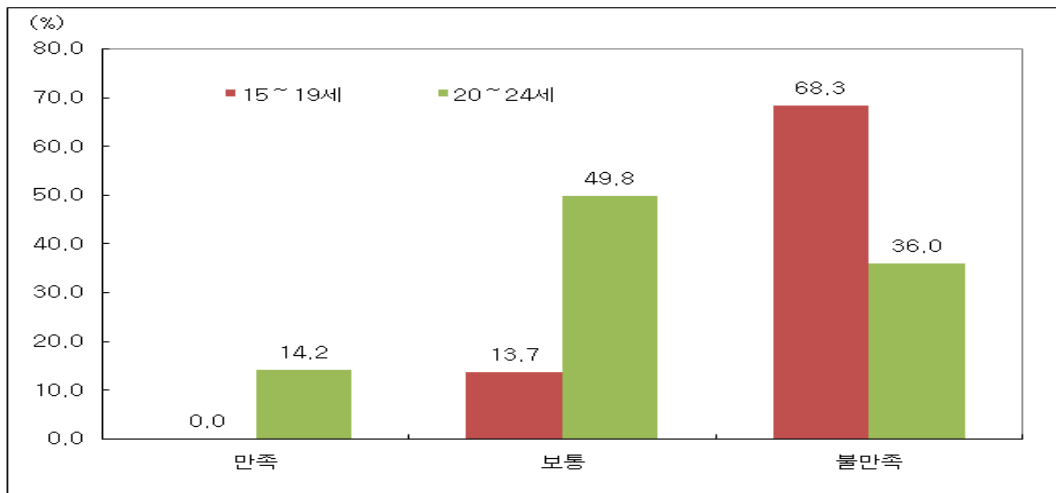
주 : 1) 취업자 : 순수 취업자(진학자, 입대자 제외)

3.3. 소득 만족도

2009년 소득이 있는 울산의 20~24세 청소년 중 14.2%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

- 2009년 울산 청소년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15~19세 7.8%, 20~24세 43.2%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3.2%p 증가한 반면, 20~24세는 7.6%p 감소함
- 소득이 있는 청소년 중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20~24세의 14.2%, '불만족'은 15~19세 68.3%, 20~24세 36.0%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만족'은 15~19세는 7.9%p 감소, 20~24세는 7.9%p 증가
 - 전국에 비해 20~24세의 '만족'비율은 1.6%p 높음

〈 청소년의 소득 만족도 (2009) 〉



〈 청소년의 소득 만족도 〉

(단위 : %)

			계	소득 있음 ¹⁾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소득 없음	
						매우	약간	매우		약간			
울산	2007	15세 이상	100.0	61.7	100.0	11.3	1.1	10.3	38.7	49.9	35.1	14.8	38.3
		15~19세	100.0	4.6	100.0	7.9	0.0	7.9	42.9	49.2	49.2	0.0	95.4
		20~24세	100.0	50.8	100.0	6.3	1.4	4.9	40.4	53.3	38.5	14.8	49.2
	2009	15세 이상	100.0	65.1	100.0	14.9	1.7	13.3	43.0	42.0	28.8	13.2	34.9
		15~19세	100.0	7.8	100.0	0.0	0.0	0.0	31.7	68.3	51.6	16.7	92.2
		20~24세	100.0	43.2	100.0	14.2	0.0	14.2	49.8	36.0	32.3	3.7	56.8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65.9	100.0	14.1	1.5	12.5	39.3	46.6	33.2	13.4	34.1
		15~19세	100.0	7.5	100.0	13.0	3.2	9.7	36.0	51.0	40.7	10.4	92.5
		20~24세	100.0	45.2	100.0	12.6	1.5	11.1	40.4	47.1	36.2	10.9	54.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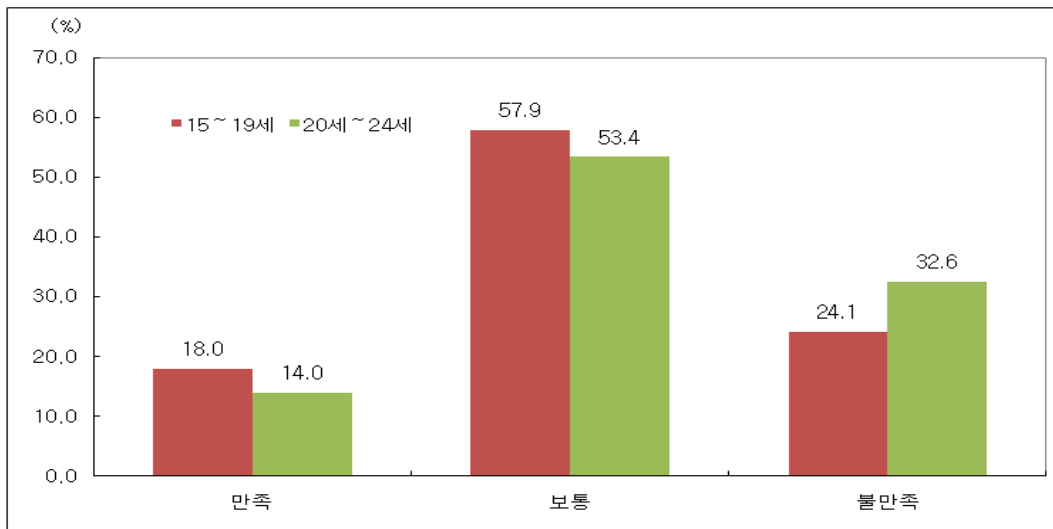
주 : 1) 조사시점 현재(2009년 7월) 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

3.4. 소비생활만족도

**2009년 울산 15~19세의 18.0%, 20~24세의 14.0%가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하고 있음**

- 2009년 울산 청소년이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현재 전반적인 소비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18.0%, 20~24세 14.0%
 - 2007년에 비해 15~19세, 20~24세 각각 5.6%p, 4.8%p 증가
- 현재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24.1%, 20~24세 32.6%
 - 2007년에 비해 15~19세, 20~24세 각각 12.7%p, 5.2%p 감소
- 전국에 비해 '만족'비율은 15~19세, 20~24세 각각 0.7%p, 1.6%p 낮음
 - '불만족'비율은 15~19세, 20~24세 각각 13.1%p, 4.2%p 낮음

〈 청소년의 소비생활 만족도 (2009) 〉



〈 청소년의 소비생활 만족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울 산	2007	15세 이상	100.0	9.9	1.1	8.7	47.1	43.0	32.3	10.7
		15~19세	100.0	12.4	2.4	10.0	50.8	36.8	29.8	7.0
		20~24세	100.0	9.2	0.7	8.5	52.9	37.8	28.3	9.5
울 산	2009	15세 이상	100.0	15.5	1.1	14.3	50.8	33.7	25.3	8.4
		15~19세	100.0	18.0	1.8	16.3	57.9	24.1	18.2	5.9
		20~24세	100.0	14.0	3.1	11.0	53.4	32.6	21.7	10.9
전 국	2009	15세 이상	100.0	13.7	1.8	11.9	46.1	40.2	30.5	9.7
		15~19세	100.0	18.7	4.1	14.6	44.1	37.2	28.2	9.0
		20~24세	100.0	15.6	2.9	12.7	47.6	36.8	29.4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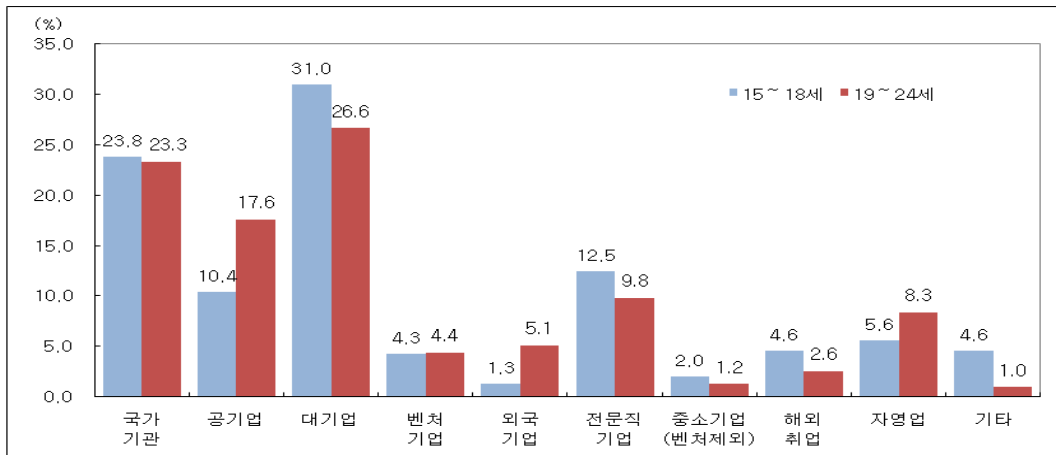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3.5.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2009년 울산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대기업'

- 2009년 울산의 15~24세 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대기업'으로 29.0%를 차지, 그 다음 '국가기관' 23.6%, '공기업(공사공단)' 13.7% 등의 순
 - 15~18세는 '대기업' 31.0%, '국가기관' 23.8%, '전문직 기업' 12.5% 등의 순
 - 19~24세는 '대기업' 26.6%, '국가기관' 23.3%, '공기업(공사공단)' 17.6% 등의 순
- 2006년에 비해 '대기업'은 4.5%p, '벤처기업' 2.1%p 증가, '전문직 기업' 5.5%p, '국가기관'은 4.8%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24세의 '대기업' 선호비율은 10.4%p 높고, '국가기관', '전문직 기업'은 각각 4.7%p, 4.1%p 낮음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2009) 〉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

(단위 : 명, %)

		연령	직장 유형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외국계기업	전문직기업	중소기업(벤처제외)	해외취업	자영업	기타
울산	2006	15~24세	28.4	12.8	24.5	2.2	2.3	16.8	2.8	2.0	7.9	0.3
		15~18세	28.6	11.8	18.3	3.8	3.5	20.4	3.1	2.3	8.1	0.0
		19~24세	28.2	13.7	30.0	0.9	1.2	13.7	2.5	1.7	7.7	0.5
	2009	15~24세	23.6	13.7	29.0	4.3	3.1	11.3	1.7	3.7	6.9	2.9
		15~18세	23.8	10.4	31.0	4.3	1.3	12.5	2.0	4.6	5.6	4.6
		19~24세	23.3	17.6	26.6	4.4	5.1	9.8	1.2	2.6	8.3	1.0
전국	2009	15~24세	28.3	15.7	18.6	2.9	4.2	15.4	2.2	3.9	7.6	1.3
		15~18세	29.6	12.5	20.6	3.1	4.0	17.4	1.9	3.2	6.0	1.7
		19~24세	27.0	18.7	16.7	2.8	4.3	13.5	2.4	4.6	9.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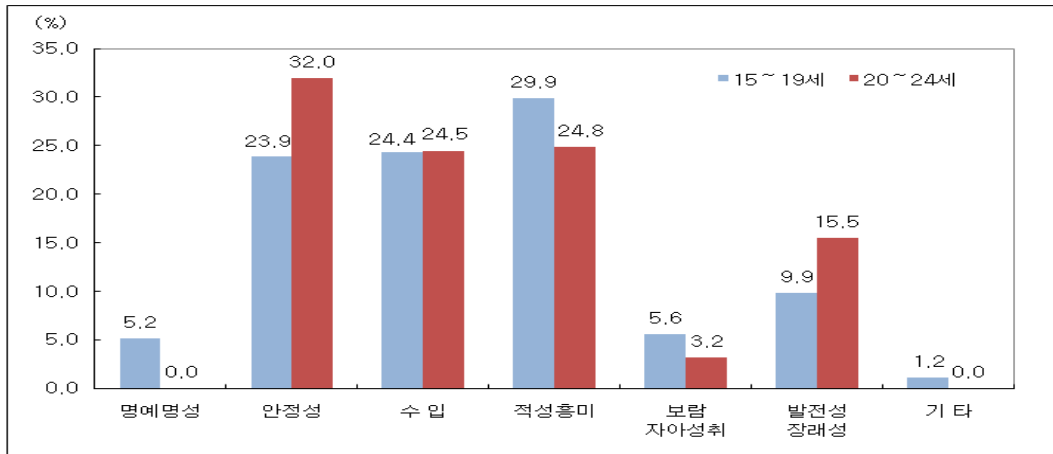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3.6. 직업선택요인

2009년 울산 15~19세는 '적성·흥미', 20~24세는 '안정성'을 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 2009년 울산의 청소년이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 15~19세는 '적성·흥미'가 29.9%로 가장 높고, '수입' 24.4%, '안정성' 23.9% 순
 - 20~24세는 '안정성' 32.0%, '적성·흥미' 24.8%, '수입' 24.5% 순으로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15~19세는 '안정성', '적성·흥미'가 2.5%p, 2.3%p 각각 증가한 반면 '보람·자아성취'와 '발전성·장래성'이 각각 3.1%p, 4.5%p 감소
 - 20~24세는 '적성·흥미', '발전성·장래성'이 각각 10.4%p, 2.2%p 증가한 반면, '수입'이 6.9%p, '보람·자아성취'가 2.8%p 감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안정성'이 4.6%p 높고, '보람·자아성취' 4.4%p 낮음
 - 20~24세는 '안정성'이 6.8%p 높고, '보람·자아성취' 6.2%p 낮음

〈 직업선택요인 (2009) 〉



〈 직업선택요인 〉

(단위 : %)

			계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자아성취	발전성·장래성	기타 ¹⁾
울산	2006	15세 이상	100.0	2.3	34.3	34.7	10.9	4.9	11.0	2.0
		15~19세	100.0	2.9	21.4	23.8	27.6	8.7	14.4	1.4
		20~24세	100.0	1.2	33.1	31.4	14.4	6.0	13.3	0.6
	2009	15세 이상	100.0	2.3	28.9	40.3	13.4	4.5	8.2	2.2
		15~19세	100.0	5.2	23.9	24.4	29.9	5.6	9.9	1.2
		20~24세	100.0	0.0	32.0	24.5	24.8	3.2	15.5	0.0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3.3	30.4	36.3	11.3	7.4	7.8	3.5
		15~19세	100.0	4.8	19.3	24.9	30.1	10.0	9.4	1.5
		20~24세	100.0	3.9	25.2	26.9	21.9	9.4	11.5	1.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모르겠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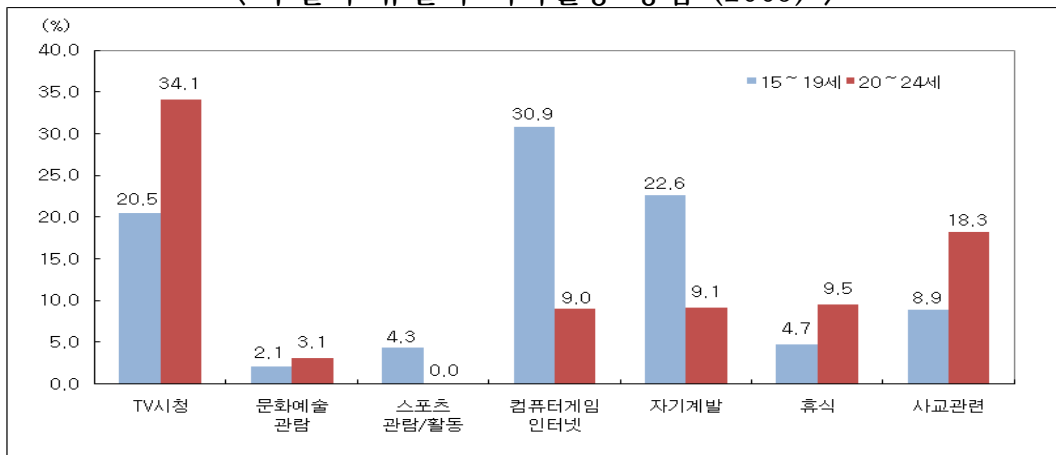
4. 문화·여가

4.1.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2009년 울산의 15~19세는 '컴퓨터게임/인터넷',
20~24세는 'TV시청'으로 주로 여가를 활용**

- 2009년 울산 청소년의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으로 15~19세는 '컴퓨터게임·인터넷'이 30.9%, 20~24세는 'TV시청'이 34.1%로 가장 많음
 - 그 다음 15~19세는 '자기계발' 22.6%, 'TV시청' 20.5, '사교관련 활동' 8.9% 등
 - 20~24세는 '사교관련 활동' 18.3%, '여행' 10.7%, '휴식' 9.5% 등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자기계발'과 '컴퓨터게임, 인터넷'이 각각 8.6%p, 4.8%p 증가, 20~24세는 'TV시청'과 '여행', '자기계발'이 각각 15.9%p, 9.4%p, 3.4%p 증가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자기계발'이 8.4%p 높고, 'TV시청'은 6.0%p 낮음
 - 20~24세는 'TV시청'과 '여행'이 각각 11.3%p, 7.2%p 높음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2009) 〉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주된 응답) 〉

(단위 : %)

			TV 시청	여행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계발	종교활동	가사일	휴식	사교관련	기타 ¹⁾
울산	2007	15세 이상	29.0	6.3	2.4	6.2	7.1	0.9	3.1	6.1	12.5	16.9	8.8	0.7
		15~19세	22.0	0.4	3.8	6.4	26.1	0.0	14.0	3.9	0.0	13.3	8.6	1.5
		20~24세	18.2	1.3	7.0	7.7	20.7	0.0	5.7	4.5	0.7	12.5	21.3	0.4
	2009	15세 이상	29.9	7.7	2.7	6.6	7.0	0.8	4.0	7.8	12.6	9.9	8.8	2.3
		15~19세	20.5	0.0	2.1	4.3	30.9	0.7	22.6	4.6	0.0	4.7	8.9	0.6
		20~24세	34.1	10.7	3.1	0.0	9.0	0.0	9.1	0.0	3.1	9.5	18.3	3.1
전국	2009	15세 이상	30.1	5.3	2.5	6.3	5.9	1.0	3.1	9.6	14.1	12.9	8.3	1.1
	15~19세	26.5	1.2	3.4	4.4	25.2	1.4	14.2	4.1	0.7	7.4	10.7	0.7	
	20~24세	22.8	3.5	8.9	5.6	14.9	1.4	7.6	3.9	2.2	8.7	20.1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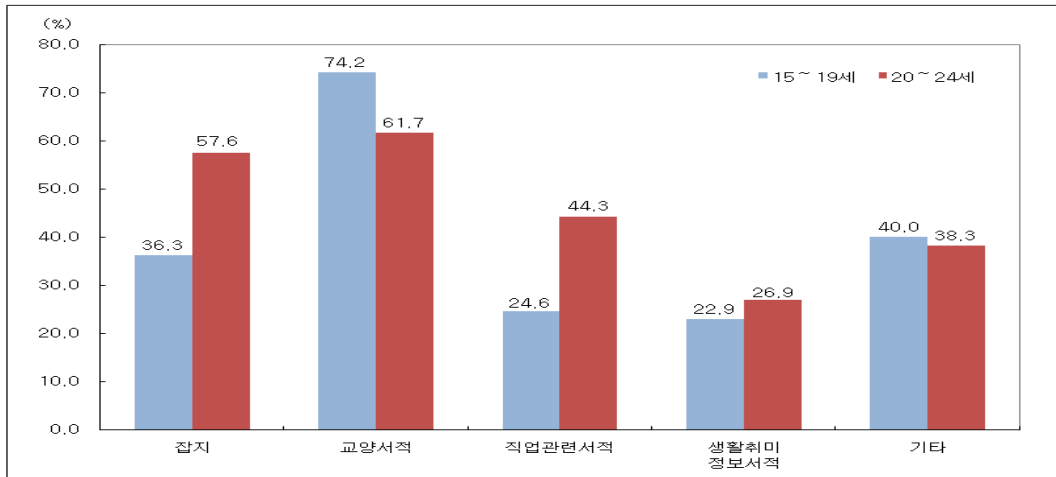
주 : 1) 「봉사활동」 포함

4.2. 독서인구

2009년 울산 청소년의 독서율은 15~19세 82.9%, 20~24세 80.0%

- 2009년 울산 청소년은 15~19세의 82.9%, 20~24세의 80.0%가 지난 1년(2008. 7. 6.~ 2009. 7. 5.)동안 독서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9.8%p, 20~24세는 0.5%p 증가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4.6%p 높고, 20~24세는 2.3%p 낮음
- 서적류별로는 '교양서적'이 15~19세 74.2%, 20~24세 61.7%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15~19세는 '기타'서적 40.0%, '잡지' 36.3% 등의 순
 - 20~24세는 '잡지' 57.6%, '직업관련서적' 44.3% 등의 순

〈 청소년의 독서율 (2009) 〉



〈 청소년의 독서율 〉

(단위 : %)

		독서율 ¹⁾	독서율 ¹⁾					
			잡지 ²⁾	교양서적 ²⁾	직업관련서적 ²⁾	생활취미 정보서적 ²⁾	기타 ²⁾	
울산	2007	15세 이상	61.8	55.2	60.6	30.1	27.2	18.8
		15~19세	73.1	34.7	71.6	9.4	11.0	45.8
		20~24세	79.5	51.2	69.7	36.4	18.1	27.5
	2009	15세 이상	65.4	50.6	64.7	35.6	29.3	22.4
		15~19세	82.9	36.3	74.2	24.6	22.9	40.0
		20~24세	80.0	57.6	61.7	44.3	26.9	38.3
전국	2009	15세 이상	62.1	51.1	67.2	39.0	27.6	20.4
		15~19세	78.3	38.0	75.1	19.8	17.0	49.0
		20~24세	82.3	56.3	73.6	45.2	27.6	34.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2008.7.6.~2009.7.5.)동안 독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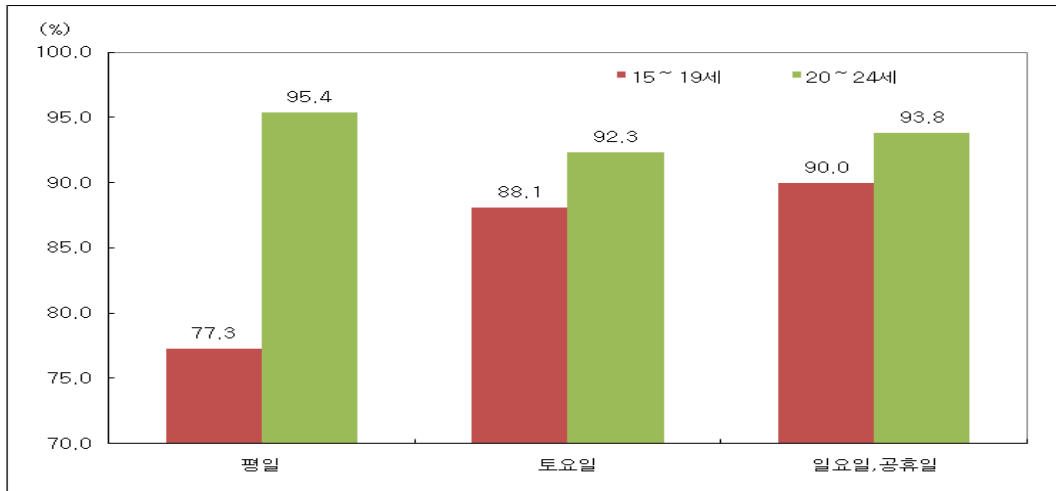
2) 서적별 독서율은 복수응답

4.3. TV 시청

2009년 울산 청소년의 TV시청비율은 15~19세 94.4%, 20~24세 96.9%

- 2009년 울산 청소년이 지난 1개월(2009. 6. 6.~ 7. 5.) 동안 TV를 시청한 비율은 15~19세 94.4%, 20~24세 96.9%로 나타남
 - 요일별로 15~19세는 일요일·공휴일 90.0%, 토요일 88.1%, 평일 77.3% 순
 - 20~24세는 평일 95.4%, 일요일·공휴일 93.8%, 토요일 92.3% 순임
- 2007년에 비해 TV시청비율은 15~19세 1.7%p 감소, 20~24세 1.0%p 증가
 - 15~19세는 평일, 토요일 각각 4.0%p, 1.8%p 증가, 일요일·공휴일 2.5%p 감소
 - 20~24세는 평일, 일요일·공휴일 각각 1.6%p 증가, 토요일 1.4%p 감소
- 전국에 비해 TV시청비율은 15~19세, 20~24세 각각 0.7%p, 2.4%p 높음

〈 TV 시청 비율(2009) 〉



〈 TV 시청 비율 〉

(단위 : %)

			계	TV ¹⁾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시청함			
울 산	2007	15세 이상	100.0	97.2	91.9	92.2	93.5
		15세~19세	100.0	96.1	73.3	86.3	92.5
		20세~24세	100.0	95.9	89.8	93.7	92.2
	2009	15세 이상	100.0	97.2	92.6	93.0	93.9
		15세~19세	100.0	94.4	77.3	88.1	90.0
		20세~24세	100.0	96.9	95.4	92.3	93.8
전 국	2009	15세 이상	100.0	96.4	90.4	89.5	91.1
		15세~19세	100.0	93.7	72.5	85.1	89.0
		20세~24세	100.0	94.5	86.5	86.0	87.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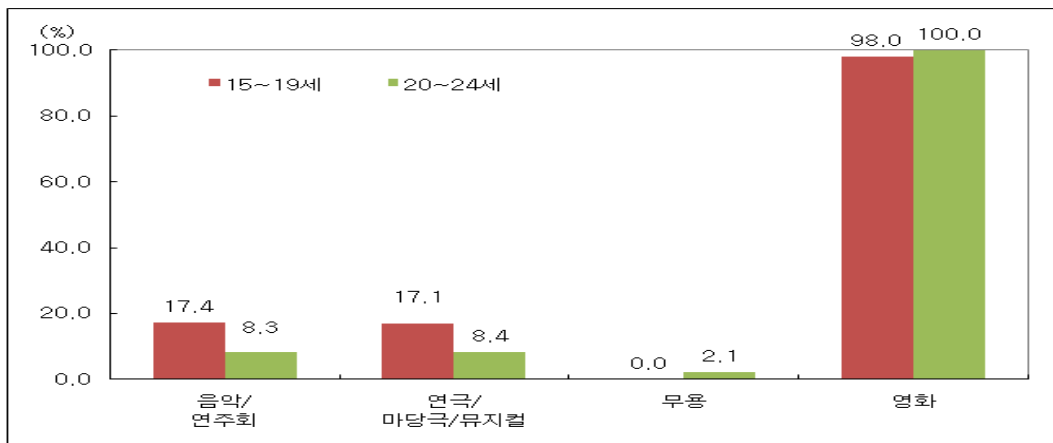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개월 (2009.6.6.~7.5.) 동안 TV를 본 적이 있는 사람

4.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2009년 울산 15~19세의 76.5%, 20~24세 76.9%가 1년간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 경험이 있음

- 2009년 울산 청소년의 지난 1년(2008. 7. 6.~ 2009. 7. 5.)동안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76.5%, 20~24세 76.9%
 - 분야별로는 공연장 관람률이 15~19세 94.7%, 20~24세 96.0%로 가장 높음
- 2007년에 비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2.6%p 증가한 반면, 20~24세는 2.7%p 감소
 - 15~19세는 공연장 3.8%p 증가, 체육시설, 전시장은 각각 6.5%p, 4.5%p 감소
 - 20~24세는 공연장 0.5%p 증가, 체육시설, 전시장은 각각 12.4%p, 1.0%p 감소
- 전국에 비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20~24세 각각 2.9%p, 7.2%p 낮음

〈 공연장 관람률 (2009)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단위 : %)

		관람률 ¹⁾	공연장 ²⁾	공연장 관람률 ³⁾				전시장 ²⁾	체육시설 ²⁾	
				음악/연주회 ³⁾	연극/마당극/뮤지컬 ³⁾	무용 ³⁾	영화 ³⁾			
울 산	2007	15세 이상	57.5	85.9	27.8	21.2	2.4	85.4	37.0	25.8
		15~19세	73.9	90.9	27.5	9.5	3.5	91.0	25.0	24.0
		20~24세	79.6	95.5	19.2	14.3	1.6	95.3	19.3	29.9
	2009	15세 이상	58.9	87.8	25.1	19.9	1.4	87.8	33.6	19.3
		15~19세	76.5	94.7	17.4	17.1	0.0	98.0	20.5	17.5
		20~24세	76.9	96.0	8.3	8.4	2.1	100.0	18.3	17.5
전 국	2009	15세 이상	55.0	89.5	26.1	26.2	2.3	91.0	32.5	20.5
		15~19세	79.4	94.6	24.3	20.1	2.9	93.7	26.4	13.7
		20~24세	84.1	96.0	26.6	29.7	2.6	96.3	26.8	21.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2008.7.6.~2009.7.5.)동안 공연장이나 전시장 또는 체육시설에 가 본적이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대상을 100%로 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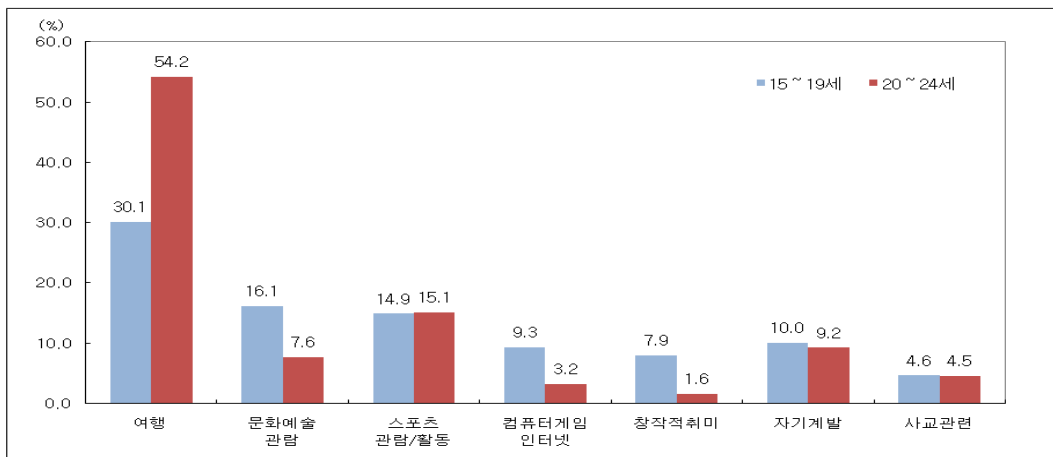
3)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 대상을 100%로 하여 산출

4.5.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09년 울산의 청소년이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 2009년 울산 15~19세의 30.1%, 20~24세의 54.2%가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꼽음
 - 그 다음 15~19세는 '문화예술관람' 16.1%, '스포츠관람·활동' 14.9%, '자기계발' 10.0% 등의 순
 - 20~24세는 '스포츠관람·활동' 15.1%, '자기계발' 9.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여행'과 'TV시청'이 각각 7.0%p, 2.5%p 증가, 20~24세는 '여행', '스포츠관람·활동'이 각각 10.2%p, 5.3%p 증가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스포츠관람·활동', '문화예술관람'이 각각 3.6%p, 2.4%p 높고, 20~24세는 '여행', '스포츠관람·활동'이 각각 7.6%p, 6.5%p 높음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09)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주된 응답) 〉

(단위 : %)

		15세 이상	주요 여가활동											기타 ¹⁾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종교 활동	가사 일	휴식	사교 관련	
울산	2007	15세 이상	4.0	45.9	7.8	11.8	2.0	5.3	9.2	3.4	1.1	4.5	3.6	1.5
		15~19세	1.8	23.1	15.7	15.6	10.0	8.0	12.7	1.2	0.4	4.8	4.8	2.0
		20~24세	2.5	44.0	6.6	9.8	6.3	2.9	20.5	2.0	0.0	2.0	3.3	3.4
	2009	15세 이상	5.1	43.4	7.7	13.6	1.8	5.1	7.9	4.1	1.0	3.6	3.6	3.0
		15~19세	4.3	30.1	16.1	14.9	9.3	7.9	10.0	1.3	0.0	1.4	4.6	0.0
		20~24세	-	54.2	7.6	15.1	3.2	1.6	9.2	0.0	0.0	1.6	4.5	3.0
전국	15세 이상	4.7	45.1	6.8	9.5	1.8	4.2	8.9	4.3	1.1	5.6	5.1	2.8	
	15~19세	4.6	29.3	13.7	11.3	9.7	5.7	13.7	1.1	0.0	4.0	6.2	0.7	
	20~24세	2.7	46.6	10.4	8.6	3.3	4.4	16.5	0.8	0.0	2.8	3.2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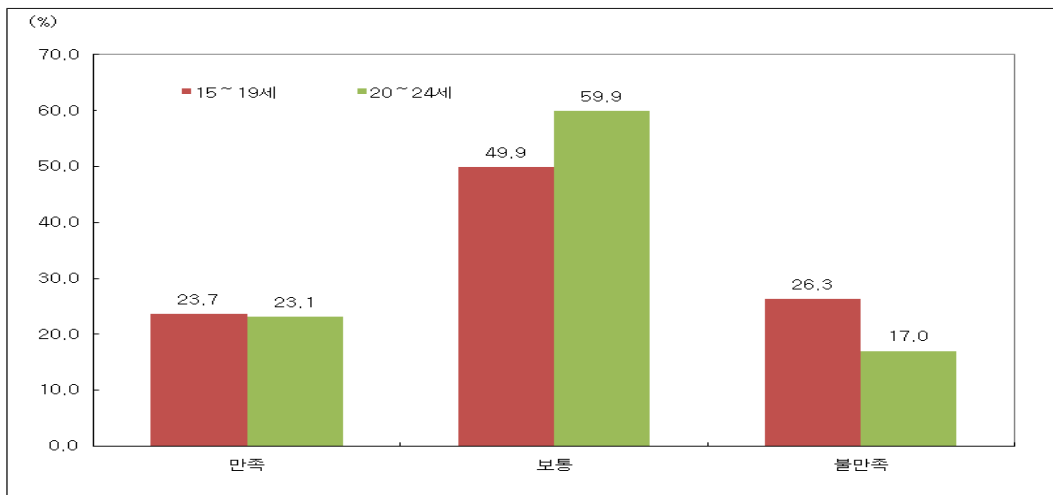
주 : 1) 기타에 봉사활동 포함됨

4.6. 여가활동 만족도

**2009년 울산 15~19세의 23.7%, 20~24세의 23.1%가
현재 여가활동에 만족**

- 2009년 울산의 청소년 중 현재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23.7%, 20~24세 23.1%로 나타남
 - '불만족'은 15~19세 26.3%, 20~24세의 17.0%임
 - 15~19세는 여가활동 '불만족'이, 20~24세는 '만족' 비율이 더 높음
- 2007년에 비해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15~19세는 1.1%p, 20~24세는 3.3%p 증가
- 전국에 비해 '만족'비율이 15~19세, 20~24세 각각 1.5%p, 4.5%p 낮음

〈 여가활동 만족도 (2009) 〉



〈 여가활동 만족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울 산	2007	15세 이상	100.0	21.2	-	-	-	78.8	-	-
		15~19세	100.0	22.6	-	-	-	77.4	-	-
		20~24세	100.0	19.8	-	-	-	80.2	-	-
	2009	15세 이상	100.0	25.8	5.2	20.6	48.1	26.0	19.8	6.2
		15~19세	100.0	23.7	3.8	20.0	49.9	26.3	16.5	9.9
		20~24세	100.0	23.1	7.8	15.3	59.9	17.0	14.0	3.1
전 국	2009	15세 이상	100.0	21.8	4.9	16.9	46.1	32.1	24.7	7.4
		15~19세	100.0	25.2	6.5	18.6	44.3	30.5	22.8	7.8
		20~24세	100.0	27.6	5.6	22.1	47.5	24.9	20.8	4.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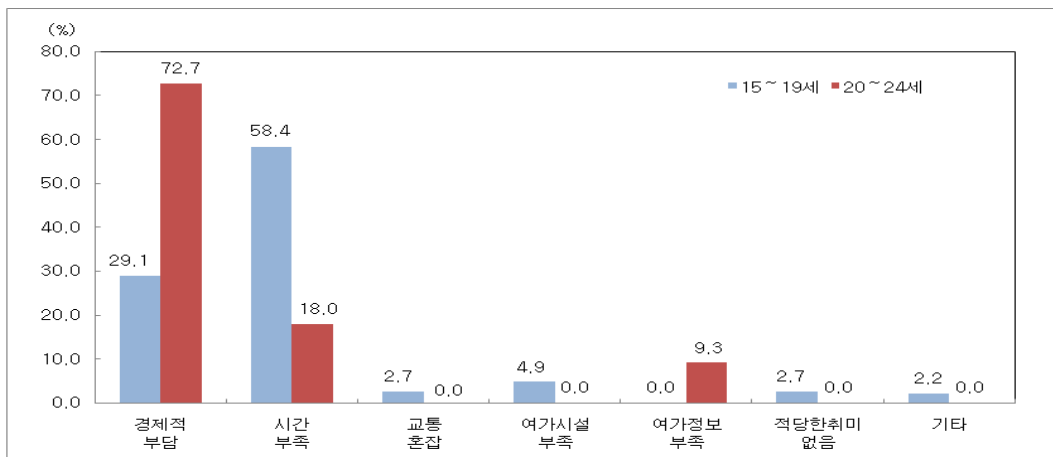
주 : 1) 2007년은 '만족', '불만족'으로만 구분

4.7.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9년 울산의 15~19세는 '시간부족',
20~24세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불만족**

- 2009년 울산 청소년의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는 15~19세가 '시간부족'이 58.4%, 20~24세가 '경제적 부담'이 72.7%로 가장 높음
 - 그 다음 15~19세는 '경제적 부담' 29.1%, '여가시설부족' 4.9% 등의 순
 - 20~24세는 '시간부족' 18.0%, '여가정보부족' 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시간부족'과 '교통혼잡'이 각각 3.9%p, 1.8%p 증가한 반면 '적당한 취미없음'은 1.4%p 감소
 - 20~24세는 '경제적 부담'과 '여가정보부족'이 각각 13.0%p, 6.8%p 증가한 반면, '시간부족'은 6.0%p 감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경제적 부담', '여가시설 부족'이 각각 3.2%p, 0.7%p 높음
 - 20~24세는 '경제적 부담', '여가정보 부족'이 각각 19.4%p, 7.6%p 높음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9) 〉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

			(단위 : %)									
			계 ¹⁾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 없음	건강, 체력 부족	여가를 함께 할 사람이 없음	기타
울산	2007	15세 이상	100.0	56.8	24.9	2.8	2.1	2.1	3.8	6.0	1.5	0.0
		15~19세	100.0	29.2	54.5	0.9	6.2	2.0	4.1	1.5	1.6	0.0
		20~24세	100.0	59.7	24.0	2.5	3.1	2.5	5.1	0.9	2.2	0.0
울산	2009	15세 이상	100.0	59.6	21.8	3.2	2.7	1.7	2.5	4.9	0.9	2.7
		15~19세	100.0	29.1	58.4	2.7	4.9	0.0	2.7	0.0	0.0	2.2
		20~24세	100.0	72.7	18.0	0.0	0.0	9.3	0.0	0.0	0.0	0.0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54.3	28.4	1.9	1.8	0.8	2.4	7.7	1.8	0.9
		15~19세	100.0	25.9	57.9	2.2	4.2	2.2	4.4	0.6	1.5	1.0
		20~24세	100.0	53.3	29.2	2.0	4.5	1.7	4.6	1.9	2.0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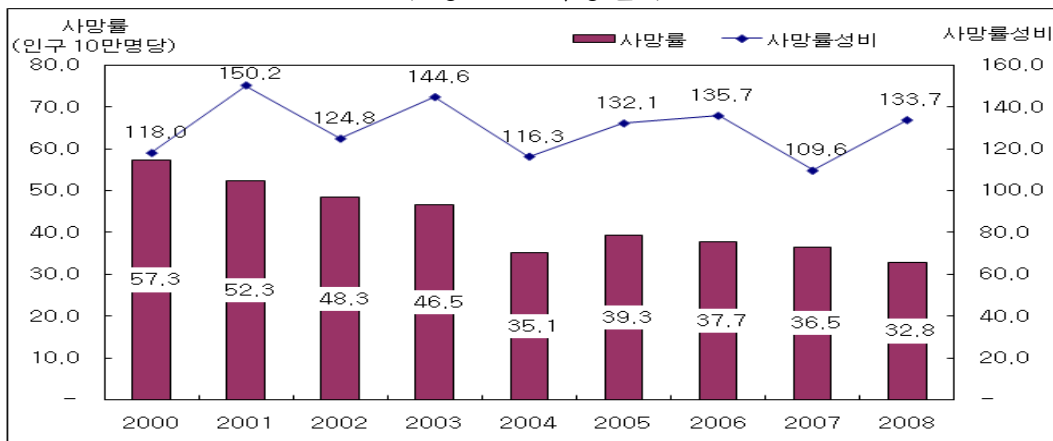
5. 보건·복지

5.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2008년 울산 0~24세 사망률은 10만명당 32.8명으로
2000년 57.3명에 비해 24.5명 감소**

- 2008년 울산의 0~24세 사망률은 10만명당 32.8명으로 2007년 36.5명에 비해 3.7명 감소하였음
 - 사망률성비는 2008년 133.7로 전년에 비해 24.1p 높아졌음
 - 전국에 비해 0~24세 사망률은 2.5명(10만명당) 낮고 사망률 성비는 2.0p 낮음
- 청소년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세의 사망률이 258.6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20~24세가 51.2명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사망률 〉



〈 청소년(0~24세) 사망자수 및 사망률 〉

		계		남 자		여 자		사망률 성 비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울 산	2000(0~24세)	241	57.3	138	61.8	103	52.3	118.0
	2001(0~24세)	220	52.3	139	62.0	81	41.3	150.2
	2002(0~24세)	202	48.3	119	53.3	83	42.7	124.8
	2003(0~24세)	192	46.5	120	54.2	72	37.5	144.6
	2004(0~24세)	143	35.1	82	37.6	61	32.3	116.3
	2005(0~24세)	157	39.3	95	44.3	62	33.6	132.1
	2006(0~24세)	147	37.7	90	43.0	57	31.7	135.7
	2007(0~24세)	139	36.5	78	38.0	61	34.7	109.6
	2008(0~24세)	123	32.8	75	37.1	48	27.8	133.7
	(0세)	29	258.6	9	154.1	20	372.2	41.4
	(1 ~ 4세)	12	27.2	8	34.4	4	19.2	179.2
(5 ~ 9세)	10	14.2	5	13.3	5	15.1	88.5	
(10~14세)	9	10.0	6	12.3	.3	7.2	169.5	
(15~19세)	26	30.1	20	42.2	6	15.4	274.4	
(20~24세)	37	51.2	27	68.9	10	30.3	227.6	
전 국	2008(0~24세)	5,381	35.3	3,223	40.4	2,158	29.8	135.7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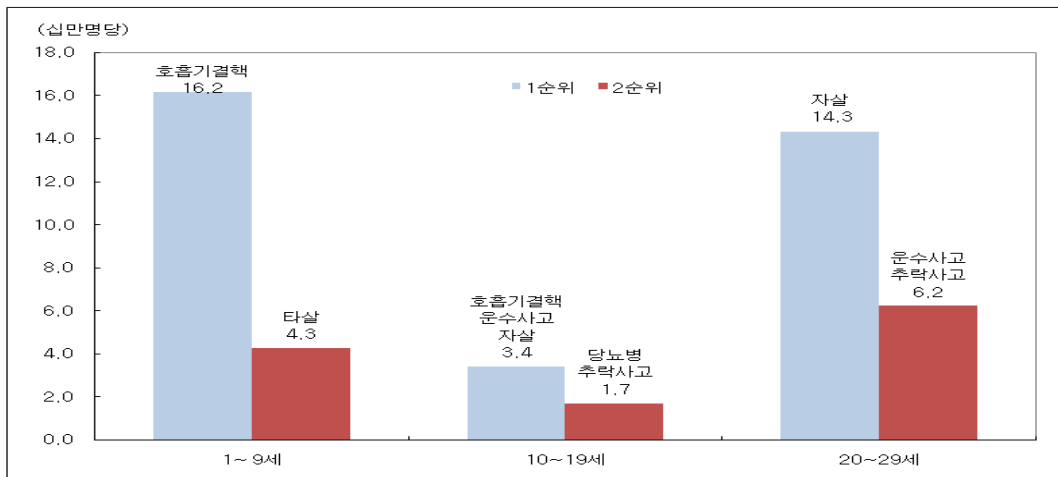
주 : 사망률성비 = (남자사망률/여자사망률 × 100)

5.2. 청소년 사망원인

2008년 울산 10~29세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고의적 자해(자살)

- 2008년 울산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1~9세 '호흡기결핵', 10~19세 '호흡기결핵', '운수사고' 및 '고의적 자해', 20~29세 '고의적 자해'
 - 그 다음 1~9세는 '가해(타살)', '선천기형', '암(악성신생물)', '추락사고' 순
 - 10~19세는 '추락사고' 및 '당뇨병' 등의 순
 - 20~29세는 '운수사고' 및 '추락사고', '화재사고' 및 '가해' 순
- 1~9세는 남녀 모두 '호흡기결핵', 20~29세는 남녀 모두 '고의적 자해'가 사망원인 1순위
 - 10~19세 남자는 '운수사고', 여자는 '호흡기결핵'이 사망원인 1순위임

〈 청소년 주된 사망원인 (2008) 〉



〈 연령별 청소년 사망원인 (2008) 〉

(단위 : 10만명당)

	1위	2위	3위	4위	5위
1~9세 사망률	호흡기 결핵 16.2	가해(타살) 4.3	선천기형 3.4	암(악성신생물) 2.6	추락사고 1.7
남 자	호흡기 결핵	가해(타살)	선천기형	추락사고	암(악성신생물) 등
여 자	호흡기 결핵	암(악성신생물)	가해(타살)	화재사고	선천기형
10~19세 사망률	호흡기 결핵, 운수사고, 고의적 자해(자살) 3.4			추락사고, 당뇨병 1.7	
남 자	운수사고	고의적 자해(자살)	호흡기 결핵	당뇨병, 추락사고 등	
여 자	호흡기 결핵	고의적 자해(자살)	암(악성신생물), 당뇨병, 심장질환 등		
20~29세 사망률	고의적 자해(자살) 14.3	운수사고, 추락사고 6.2		화재사고, 가해(타살) 4.4	
남 자	고의적 자해(자살)	추락사고	운수사고, 화재사고		가해(타살)
여 자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가해(타살)	폐렴	호흡기 결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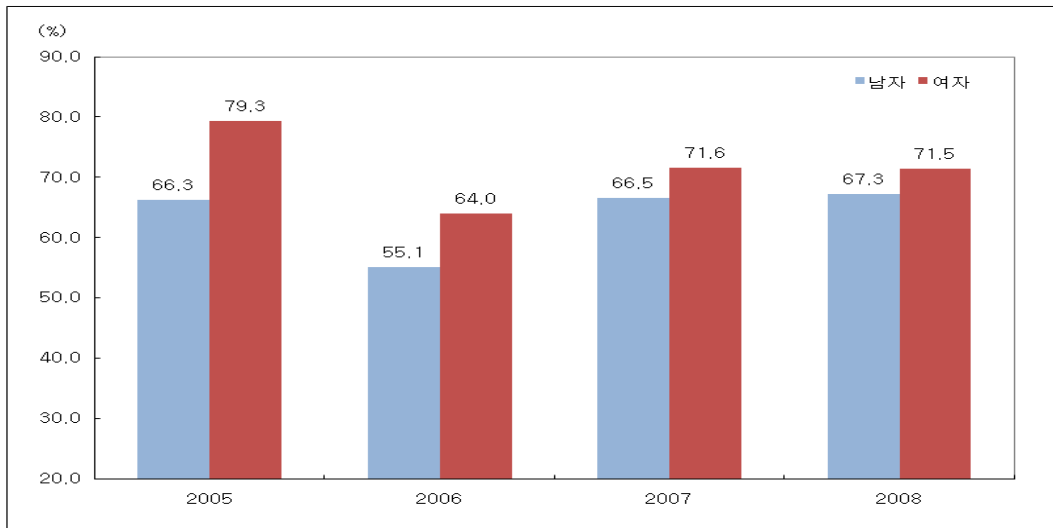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8년

5.3.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

2008년 울산 중·고등학생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69.2%

- 2008년 울산 중·고등학생 중 최근 12개월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본 비율은 69.2%로 나타남
 - 전국 평균 64.5%에 비해 4.7%p 높음
 - 성별로 보면 남자 67.3%, 여자 71.5%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성교육 경험률은 68.8%에서 0.4%p 증가
 - 남학생은 66.5%에서 0.8%p 증가, 여학생은 71.6%에서 0.1%p 감소

〈 청소년 성교육 경험률 (2009) 〉



〈 청소년 성교육 경험률¹⁾ 〉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울 산	2005	72.2	66.3	79.3
	2006	59.1	55.1	64.0
	2007	68.8	66.5	71.6
	2008	69.2	67.3	71.5
전 국	2008	64.5	63.0	66.1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2005~2007년 : 지난 일년 동안 수업시간에 성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비율
 2008년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비율

5.4. 요보호아동 발생유형 및 보호내용

**2009년 발생한 울산의 요보호아동은 109명이며
발생유형의 42.2%는 '부모이혼 등'**

- 2009년 울산에서 발생한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109명
 - 발생유형별로 '부모이혼 등' 42.2%, '미혼모아동' 23.9%, '부모빈곤, 실직' 12.8%, '학대' 7.3% 순
 - 전국에 비해 '부모이혼 등' 17.4%p, '부모빈곤, 실직'은 4.9%p 높고, '미혼모 아동'은 10.1%p 낮음
- 요보호 아동의 보호내용을 보면 각종 시설보호가 33.0%, 가정보호가 67.0%를 차지하였음
 - '위탁보호가정' 51.4%, '양육시설'은 19.3%, '입양가정' 14.7% 등의 순
 - 전국에 비해 '위탁보호가정'은 21.1%p 높고, '양육시설'은 7.4%p 낮음

〈 요보호아동¹⁾ 발생유형 〉

(단위 : 명, %)

		계	기아	미혼모아동	미아	비행가출아 부랑아	학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사망	부모질병	부모이혼 등
	2007	121	2	-	-	1	118 ²⁾				
	2008	175	5	31	-	2	4	49	13	13	58
	2009	109	2	26	-	1	8	14	8	4	46
	구성비	100.0	1.8	23.9	0.0	0.9	7.3	12.8	7.3	3.7	42.2
전국	2009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구성비	100.0	2.5	34.0	0.4	7.8	11.6	7.9	8.5	2.5	24.8

〈 요보호아동 보호내용 〉

(단위 : 명, %)

		계	시설보호				가정보호		
			양육 ³⁾	일시보호 ³⁾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입양	소년소녀 가장책정
	2007	121	63		-	-	51	4	3
	2008	175	43	-	-	14	86	22	10
	2009	109	21	-	-	15	56	16	1
	구성비	100.0	19.3	0.0	0.0	13.8	51.4	14.7	0.9
전국	2009	9,028	2,406	1,640	35	686	2,734	1,314	213
	구성비	100.0	26.7	18.2	0.4	7.6	30.3	14.6	2.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요보호아동 연령은 만 18세 미만임

2) 2005년~2007년 = 학대+빈곤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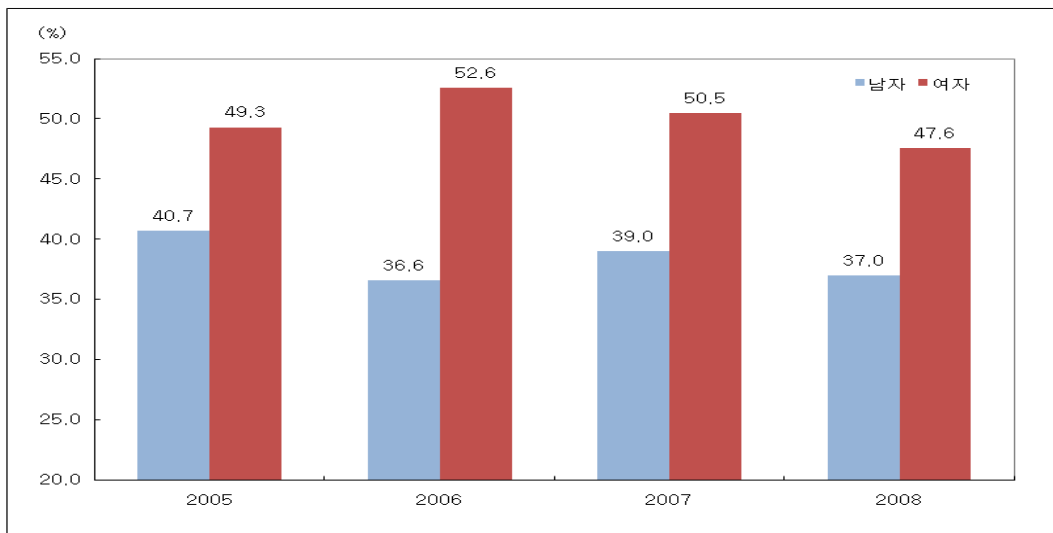
3) 2008년 아동보호시설이 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로 구분, 미혼모시설이 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됨

5.5.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2008년 울산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1.8%

- 2008년 울산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1.8%로 나타남
 - 성별로 보면 남자의 37.0%, 여자의 47.6%로 여자의 스트레스 인지율이 10.6%p 높음
- 2007년 44.2%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율은 2.4%p 감소
 - 남학생은 39.0%에서 2.0%p, 여학생은 50.5%에서 2.9%p 감소하였음

〈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2009) 〉



〈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¹⁾ 〉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울 산	2005	44.6	40.7	49.3
	2006	43.8	36.6	52.6
	2007	44.2	39.0	50.5
	2008	41.8	37.0	47.6
전 국	2008	43.7	38.1	50.1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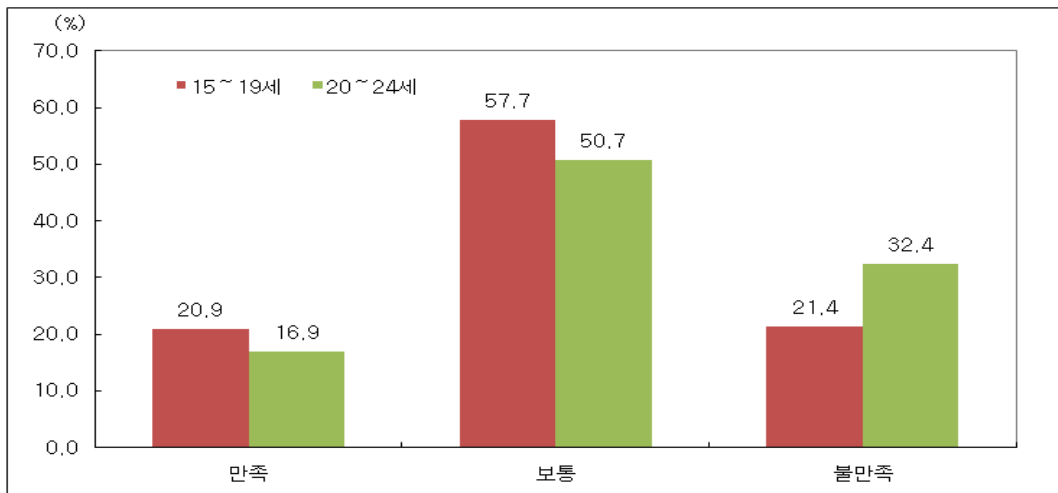
6. 사회참여·안전

6.1. 주관적 만족감

**2009년 울산 15~19세의 20.9%, 20~24세의 16.9%는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 2009년 울산 청소년 중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20.9%, 20~24세 16.9%
 - '불만족'인 비율은 15~19세 21.4%, 20~24세 32.4%임
 - 15~19세, 20~24세 모두 '만족'보다 '불만족'이 더 높게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만족' 비율은 15~19세 14.7%p, 20~24세 9.0%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만족'은 15~19세, 20~24세 각각 2.9%p, 6.4%p 낮음

〈 주관적 만족감 (2009) 〉



〈 주관적 만족감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울 산	2006	15세 이상	100.0	31.7	4.4	27.3	40.2	28.1	21.5	6.5
		15~19세	100.0	35.6	4.3	31.3	45.3	19.1	16.2	2.9
		20~24세	100.0	25.9	3.6	22.3	44.0	30.1	25.3	4.8
	2009	15세 이상	100.0	20.7	3.0	17.7	50.5	28.8	22.2	6.6
		15~19세	100.0	20.9	4.1	16.8	57.7	21.4	17.4	4.0
		20~24세	100.0	16.9	3.1	13.9	50.7	32.4	26.2	6.2
전 국	2009	15세 이상	100.0	20.9	3.3	17.6	45.3	33.8	26.5	7.4
		15~19세	100.0	23.8	5.3	18.5	48.8	27.4	22.2	5.2
		20~24세	100.0	23.3	4.4	18.9	49.2	27.6	21.6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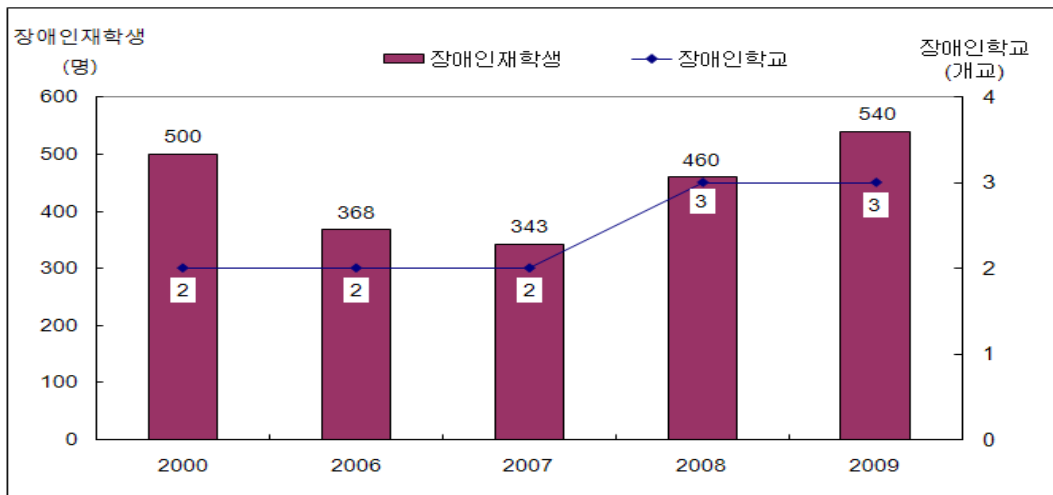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6.2. 장애인 학교 취학자

2009년 울산의 장애인 학교 취학자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76.9%로 가장 많음

- 2009년 울산의 장애인 학교는 3개로 총 재학생은 540명임
 - 2000년 대비 장애인 학교는 1개교 증가하였으며 총 재학생은 40명 증가
- 재학생의 장애유형별 구성비는 '정신지체'가 76.9%로 가장 많고, '청각장애' 11.7%, '지체부자유' 9.3%, '시각장애' 2.2% 순임
 - 2008년에 비해 정신지체 취학자는 25.0% 증가한 반면, 청각장애 취학자는 16.0%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정신지체'와 '청각장애'가 각각 5.9%p, 5.7%p 높음

〈 장애인 학교 취학자 〉



〈 장애인 학교 취학자 현황 〉

(단위 : 개교, 명, %)

	연도	학교수	재학생 계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부자유인	정신지체인	정서장애인
				(명)	(명)	(명)	(명)	(명)
울 산	2000	2	500	-	84	36	380	-
			100.0	(0.0)	(16.8)	(7.2)	(76.0)	(0.0)
	2006	2	368	-	76	51	241	-
			(100.0)	(0.0)	(20.7)	(13.9)	(65.5)	(0.0)
	2007	2	343	-	73	53	217	-
			(100.0)	(0.0)	(21.3)	(15.5)	(63.3)	(0.0)
	2008	3	460	7	75	46	332	-
			(100.0)	(1.5)	(16.3)	(10.0)	(72.2)	(0.0)
	2009	3	540	12	63	50	415	-
			(100.0)	(2.2)	(11.7)	(9.3)	(76.9)	(0.0)
	증감률 ¹⁾	0.0	17.4	71.4	△16.0	8.7	25.0	0.0
전 국	2009	150	23,720	1,457	1,347	2,648	16,734	1,518
			(100.0)	(6.0)	(6.0)	(11.0)	(71.0)	(6.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2008년 대비 2009년 증감비율임

6.3.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009년 울산 청소년은 자신의 장애인 차별은 '없다'고 생각하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심하다'고 생각

- 2009년 울산 청소년은 사회의 장애인 차별정도에 대해 15~19세는 '없다' 22.2%, '심하다' 77.8%, 20~24세는 '없다' 21.1%, '심하다' 78.9%로 인식
-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15~19세는 '없다' 94.2%, '심하다' 5.8%, 20~24세는 '없다' 92.4%, '심하다' 7.6%에 불과하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주관적 인식에 차이를 보임
- 전국에 비해 사회의 장애인 차별 '없음'은 15~19세, 20~24세 각각 3.7%p, 1.6%p 낮고 자신의 장애인 차별 '없음'은 15~19세, 20~24세 각각 7.8%p, 2.2%p 높음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사회) 〉

(단위 : %)

			계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함	매우심함
울산	2007	15세이상	100.0	1.7	20.8	44.9	21.3	11.2
		15~19세	100.0	2.0	20.2	43.9	21.8	12.0
		20~24세	100.0	1.5	18.7	49.5	17.2	13.0
	2009	15세이상	100.0	2.1	24.1	45.1	19.3	9.4
		15~19세	100.0	2.5	19.8	44.2	23.9	9.7
		20~24세	100.0	0.0	21.1	46.5	15.3	17.1
전국	2009	15세이상	100.0	1.8	21.8	48.1	19.9	8.4
		15~19세	100.0	1.8	16.7	49.1	22.3	10.1
		20~24세	100.0	1.2	18.3	48.0	23.5	9.0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자신) 〉

(단위 : %)

			계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함	매우심함
울산	2007	15세이상	100.0	15.8	74.6	8.2	1.2	0.2
		15~19세	100.0	13.4	72.7	11.4	2.0	0.4
		20~24세	100.0	16.6	77.1	5.0	1.3	0.0
	2009	15세이상	100.0	20.2	75.2	4.0	0.5	0.2
		15~19세	100.0	13.9	80.4	4.6	0.6	0.6
		20~24세	100.0	12.1	80.2	7.6	0.0	0.0
전국	2009	15세이상	100.0	19.3	73.1	6.4	0.9	0.3
		15~19세	100.0	14.2	72.2	10.8	2.1	0.8
		20~24세	100.0	14.6	75.6	8.7	1.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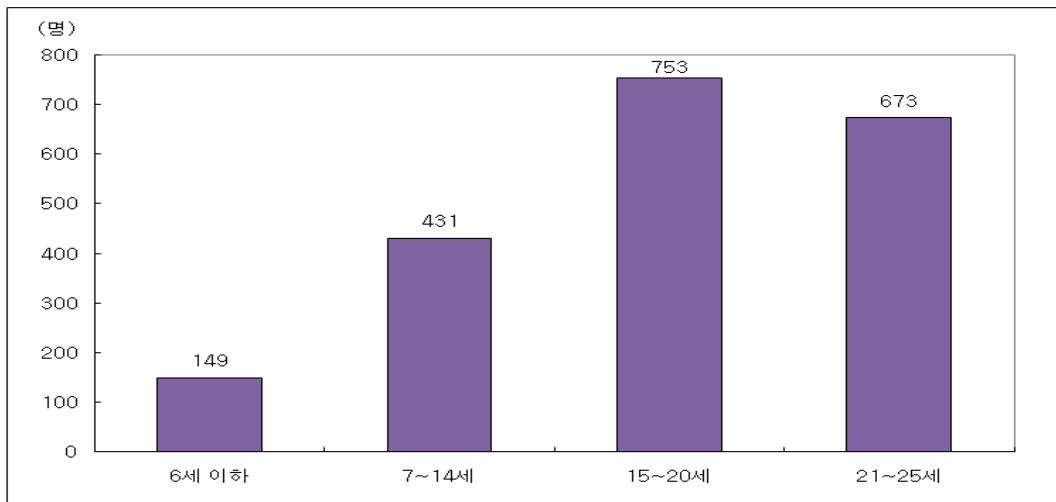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6.4. 청소년 교통사고

2008년 울산의 교통사고 사상자 중 25세 이하가 25.1%를 차지

- 2008년 교통사고로 인한 울산의 25세 이하 사상자는 2,006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자 8,007명의 25.1%를 차지함
 - 이 중 연령별로 보면 15~20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9.4%로 가장 높음
- 2007년에 비해 25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는 15.0% 증가하였음
- 전국에 비해 25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은 2.2%p 높음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2008) 〉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

(단위 : 명, %)

		전 체	25세 이하	25세 이하			
				6세 이하 ¹⁾	7~14세 ¹⁾	15~20세	21~25세
울 산	2005	6,528	1,571	244	250	448	629
	2006	7,254	1,661	223	241	513	684
	2007	7,347	1,745	197	280	541	727
	2008	8,007	2,006	149	431	753	673
	구성비	100.0	25.1	1.9	5.4	9.4	8.4
증감률 ²⁾	9.0	15.0	△24.4	53.9	39.2	△7.4	
사망자	103	21	1	2	6	12	
부상자	7,904	1,985	148	429	747	661	
전 국	2008	344,831	79,029	7,230	15,295	26,348	30,156
	구성비	100.0	22.9	2.1	4.4	7.6	8.7
	증감률 ²⁾	0.8	△0.2	△8.3	1.1	10.2	△6.5
	사망자	5,870	815	69	92	295	359
	부상자	338,961	78,214	7,161	15,203	26,053	29,797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년도

주 : 1) 2005년 ~ 2007년 : 7세 이하와 8~14세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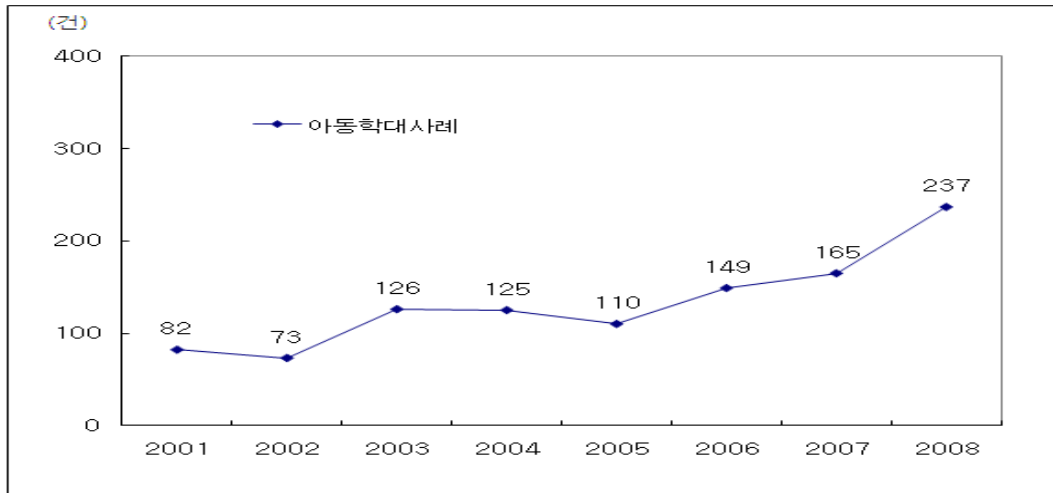
2) 2007년 대비 2008년의 증감비율임

6.5. 아동학대 현황

2008년 울산지역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46건, 아동학대 사례는 237건

- 2008년 울산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46건이고, 그 중 아동학대 사례는 237건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98건, 아동학대 사례는 72건 증가하였음
 - 2002년과 비교하면 신고건수는 107건에서 346건으로 239건 증가하였고, 아동학대 사례는 73건에서 237건으로 164건 증가
 - 아동학대 신고건수와 아동학대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남
- 전국 중 울산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3.6%, 아동학대사례는 4.2%를 차지

〈 아동학대 의심사례 〉



〈 아동학대 상담현황 〉

(단위 : 건)

		아동학대 신고건수			초기개입결과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 상담	계 ¹⁾	아동학대사례		잠재 ²⁾ 위험사례	일반 사례
						응급아동 학대사례	단순아동 학대사례		
울 산	2001	154	101	53	101	82		5	-
	2002	107	86	21	86	5	68	-	13
	2003	223	157	66	157	24	102	21	10
	2004	223	146	77	146	22	103	5	16
	2005	173	121	52	121	18	92	2	9
	2006	280	199	81	199	11	138	5	45
	2007	248	187	61	187	14	151	2	20
	2008	346	247	99	247	24	213	2	8
전 국	2008	9,570	7,219	2,351	7,219	602	4,976	491	1,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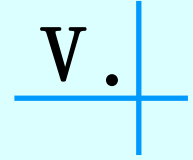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주 : 1) 2001년 초기개입결과 계에는 부적절 사례 포함

2) 2001년 잠재위험사례는 무혐의 사례 자료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경남 부분별 청소년통계

1. 인 구 · 가 족
2. 교 육
3. 노 동
4. 문 화 · 여 가
5. 보 건 · 복 지
6. 사회참여 · 안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V. 경남 부문별 청소년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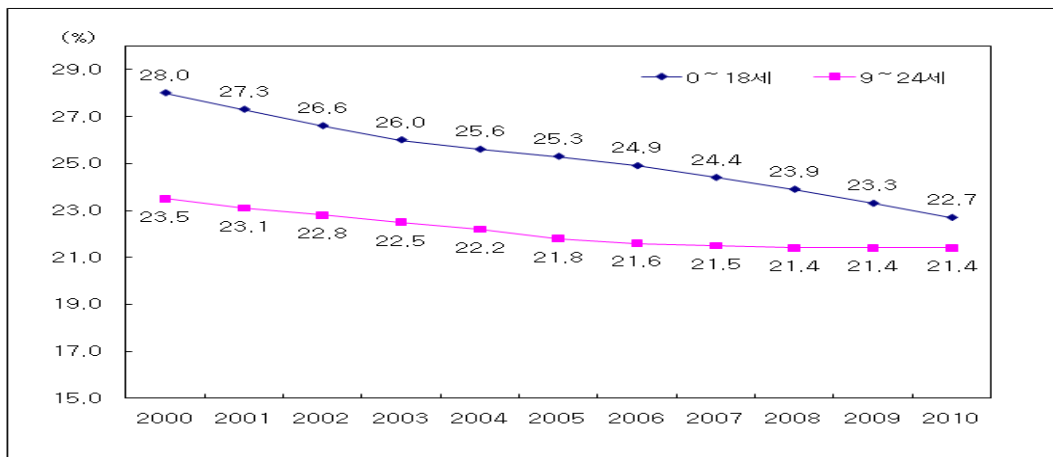
1. 인구와 가족

1.1.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2010년 경남의 9~24세 청소년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21.4%로 2000년 23.5%에 비해 10년간 2.1%p 감소

- 2010년 현재 경남의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는 각각 712천명, 672천명으로 총 인구 중 각각 22.7%, 21.4%를 차지함
 - 2009년에 비해 인구구성비가 0~18세는 0.6%p 낮아졌으나 9~24세는 동일
 - 0~18세, 9~24세 청소년 인구구성비는 2000년 각각 28.0%, 23.5% 이후 계속 감소하여 10년간 5.3%p, 2.1%p 낮아짐

〈 경남 청소년 인구구성비 〉



〈 경남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

(단위 : 천명)

	연도	총인구	0~18세		9~24세		0~24세	
			인구	%	인구	%	인구	%
경 남	2000	3,036	851	28.0	712	23.5	1,122	37.0
	2001	3,047	831	27.3	705	23.1	1,106	36.3
	2002	3,069	815	26.6	701	22.8	1,092	35.6
	2003	3,093	805	26.0	697	22.5	1,077	34.8
	2004	3,100	794	25.6	687	22.2	1,051	33.9
	2005	3,108	787	25.3	678	21.8	1,026	33.0
	2006	3,117	776	24.9	673	21.6	1,004	32.2
	2007	3,125	763	24.4	671	21.5	986	31.6
	2008	3,131	748	23.9	670	21.4	970	31.0
	2009	3,137	731	23.3	670	21.4	955	30.4
	2010	3,141	712	22.7	672	21.4	942	30.0
전 국	2010	48,875	10,655	21.8	10,288	21.1	14,422	2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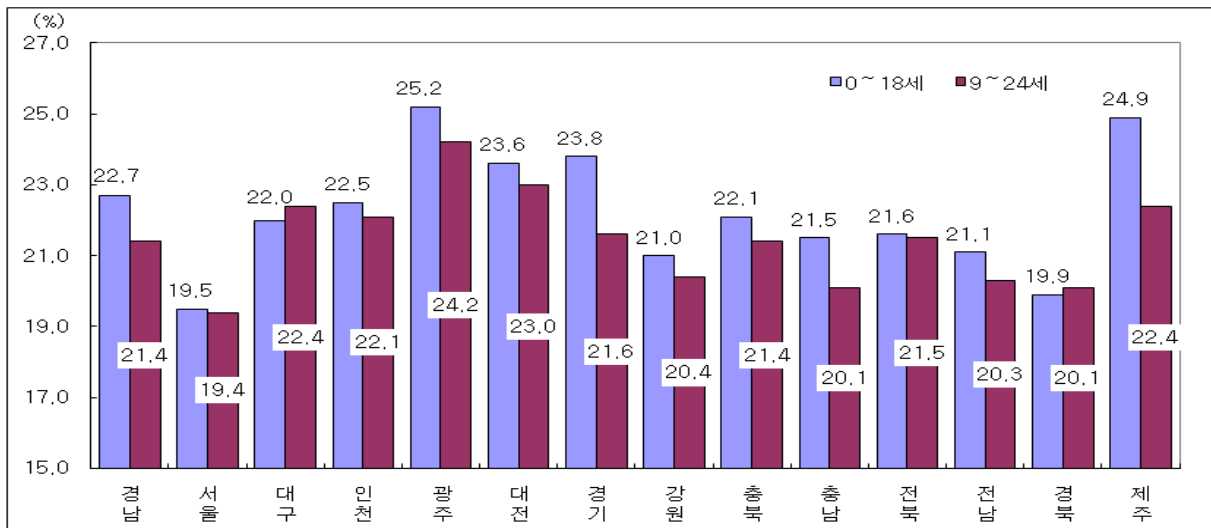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 (2007. 5)

1.2. 시도별 청소년 인구

경남의 총 인구 대비 9~24세 청소년 인구 비중(21.4%)은 9개 도(道) 가운데 4번째로 높음

- 경남의 0~18세 청소년 인구는 22.7%로 전국 평균(21.8%)과 비교하여 0.9%p 높고, 이는 9개 도(道) 가운데 제주(24.9%), 경기(23.8%)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임
- 경남의 9~24세 청소년 인구는 21.4%로 전국 평균(21.1%)과 비교하여 0.3%p 높고 9개 도(道) 가운데 제주(22.4%), 경기(21.6%), 전북(21.5%) 이어 충북과 함께 네 번째로 높은 수준임

〈 시도별 청소년 인구구성비 (2010) 〉



〈 시도별 청소년 인구 및 구성비 (2010) 〉

(단위 : 천명)

	총인구	0~18세		9~24세			총인구	0~18세		9~24세	
			%		%				%		
경남	3,141	712	22.7	672	21.4	전국	48,875	10,655	21.8	10,288	21.1
경기	11,637	2,765	23.8	2,509	21.6	서울	10,039	1,957	19.5	1,951	19.4
강원	1,443	303	21.0	294	20.4	부산	3,446	660	19.1	705	20.5
충북	1,479	327	22.1	317	21.4	대구	2,431	534	22.0	544	22.4
충남	1,959	422	21.5	394	20.1	인천	2,661	600	22.5	588	22.1
전북	1,703	368	21.6	367	21.5	광주	1,450	365	25.2	350	24.2
전남	1,740	368	21.1	354	20.3	대전	1,515	357	23.6	348	23.0
경북	2,592	516	19.9	520	20.1	울산	1,094	266	24.3	253	23.1
제주	547	136	24.9	122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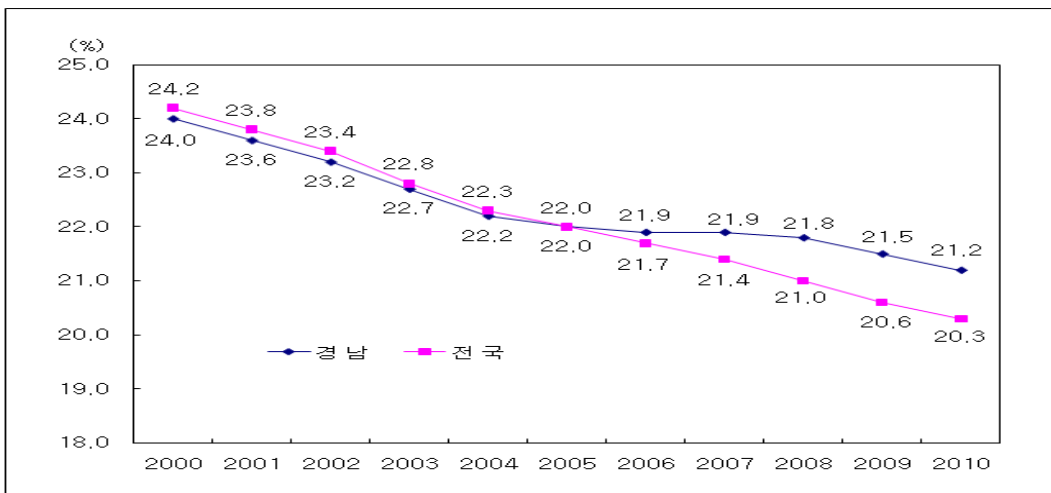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2007. 5), 「장래인구추계」 (2006. 11)

1.3. 학령인구

**2010년 경남의 학령인구(6~21세)는 667천명으로
2000년 728천명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

- 2010년 경남의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의 학령인구(6~21세)는 667천명임
 - 전체 학령인구에서 6~11세(초등학교) 인구가 226천명(33.9%) 12~14세(중학교) 134천명(20.1%), 15~17세(고등학교) 138천명(20.7%), 18~21세(대학교)가 168천명(25.2%)임
 - 2000년(728천명)에 비해 61천명(8.4%) 감소하였으며, 2009년(676천명)에 비해 9천명(1.3%) 감소
 - 총 인구에 대한 학령인구 비중은 전국 대비 경남이 0.9%p 높음

〈 학령인구 (6~21세) 구성비 〉



〈 학령인구 (6~21세) 〉

(단위 : 천명)

	학령인구 (6~21세)	학령인구 구성비 (%)					변화율 (전년대비, %)	
		총인구대비 비율 (%)	6~11세 (초등학교)	12~14세 (중학교)	15~17세 (고등학교)	18~21세 (대학교)		
경 남	2000	728	24.0	272	124	136	196	-
	2001	720	23.6	277	122	126	196	△1.0
	2002	712	23.2	281	123	119	189	△1.1
	2003	701	22.7	283	127	117	174	△1.6
	2004	688	22.2	280	132	118	158	△1.8
	2005	683	22.0	275	137	122	149	△0.8
	2006	682	21.9	270	139	126	147	0.0
	2007	684	21.9	262	141	130	151	0.3
	2008	683	21.8	251	140	134	158	△0.2
	2009	676	21.5	238	138	137	163	△1.0
	2010	667	21.2	226	134	138	168	△1.3
전 국	2010	9,901	20.3	3,297	1,962	2,069	2,574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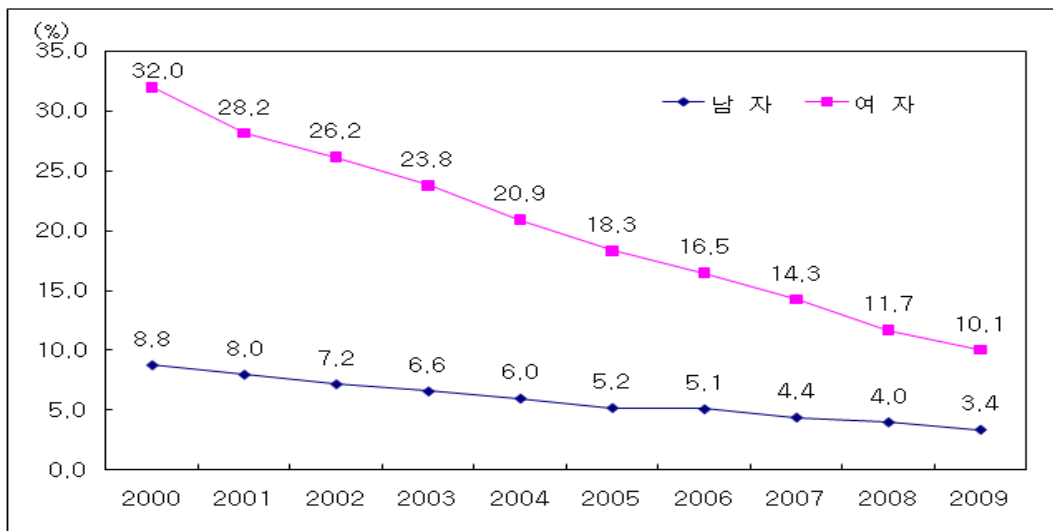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2007. 5), 「장래인구추계」(2006. 11)

1.4. 청소년의 혼인

만혼 추세로 총 혼인건수에서 청소년(24세 이하)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음

- 2009년 경남의 24세 이하 인구의 남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2%, 3.2%이며, 여자 혼인 구성비는 15~19세, 20~24세 각각 0.6%, 9.4%임
 - 2008년에 비해 남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3.8%에서 3.2%로 0.6%p 감소, 여자 20~24세 혼인 구성비는 10.8%에서 9.4%로 1.4%p 감소하였음
- 전국 15~24세 청소년의 혼인구성비(남자 3.2%, 여자 11.6%)에 비해 남자는 0.2%p 높고, 여자는 1.5%p 낮음

〈 청소년의 혼인 구성비 (15~24세) 추이 〉



〈 청소년의 혼인 구성비 〉

(단위 : 건, %)

		남 자			여 자				
		총 혼인	15~24세	15~19세	20~24세	총 혼인	15~24세	15~19세	20~24세
경 남	2000	19,900	8.8	0.6	8.2	19,560	32.0	2.7	28.7
	2001	18,849	8.0	0.6	7.4	18,617	28.2	2.5	25.3
	2002	17,905	7.2	0.7	6.6	17,567	26.2	2.0	23.6
	2003	17,558	6.6	0.5	6.2	16,877	23.8	1.7	21.1
	2004	18,375	6.0	0.4	5.6	17,275	20.9	1.4	18.3
	2005	18,664	5.2	0.3	4.8	17,093	18.3	1.3	15.5
	2006	20,789	5.1	0.3	4.8	18,446	16.5	1.0	13.6
	2007	21,555	4.4	0.2	4.2	19,189	14.3	0.8	11.8
	2008	20,497	4.0	0.3	3.8	18,185	11.7	0.9	10.8
	2009	19,494	3.4	0.2	3.2	17,081	10.1	0.6	9.4
전 국	2009	309,759	3.2	0.2	3.0	309,759	11.6	1.7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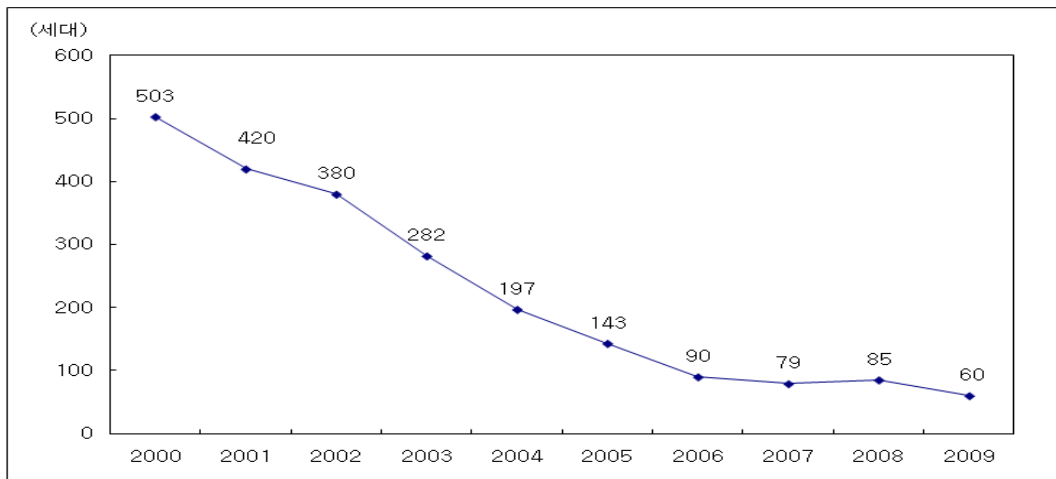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 각년도

1.5.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2009년 경남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60세대로,
2000년(503세대)에 비해 443세대 감소**

- 2009년 경남의 소년·소녀가장은 총 60세대로, 세대주를 포함한 전체 세대원은 88명이고, 재학상태별로는 초등학교 4명(4.5%), 중학교 23명(26.1%), 고등학교 59명(67.0%), 기타 2명(2.3%) 임
 - 2008년 85세대에 비해 25세대(29.4%)가 감소하였고, 2000년 503세대에 비해 818세대(88.1%) 감소하였음
 - 전국 소년·소녀가장은 총 1,054세대, 1,596명으로 경남은 총 세대 중 5.7%, 세대원 중 5.5%를 차지

〈 소년·소녀가장 세대 추이 〉



〈 소년·소녀가장 세대현황 〉

(단위 : 명)

	연도	세대주	세대원 ¹⁾	재학상태별				
				미취학	초등	중학	고교	기타 ²⁾
경 남	2000	503	797	11	144	274	347	21
	2001	420	666	14	131	219	283	19
	2002	380	591	9	137	187	251	7
	2003	282	457	5	92	144	211	5
	2004	197	316	5	64	99	146	2
	2005	143	227	2	35	71	114	5
	2006	90	148	1	22	44	72	9
	2007	79	123	1	13	39	66	4
	2008	85	129	0	11	38	74	6
	2009	60	88	0	4	23	59	2
전 국	2009	1,054	1,596	10	196	440	904	46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세대주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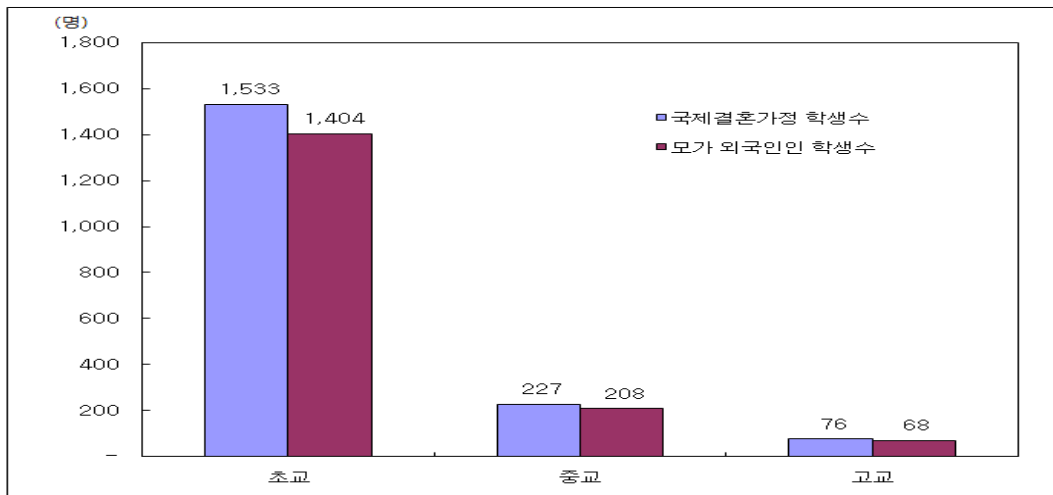
2) 미재학자, 기타 고교 재학자 및 대학 재학자 포함

1.6.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09년 경남의 국제결혼가정 학생수는 1,836명이고,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1,680명임**

- 2009년 경남의 국제결혼가정 학생수는 전체 1,836명으로, 초등학생이 1,533명, 중학생이 227명, 고등학생이 76명임
 - 이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학생은 1,404명으로 국제결혼가정의 91.5%
 - 학교급별로 국제결혼가정에서 어머니가 외국인인 비율은 초등학생이 91.6%, 중학생이 75.1%, 고등학생이 89.5%임
- 국제결혼가정 중 외국인 어머니 비율은 전국 90.0%에 비해 1.5%p 높음

〈 학교급별 다문화 청소년 현황 (2009) 〉



〈 다문화 청소년 현황 〉

(단위 : 명, %)

		경 남				전 국			
		계	초교	중교	고교	계	초교	중교	고교
2007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1,120	968	125	27	13,445	11,444	1,588	413
	구성비	100.0	86.4	11.2	2.4	100.0	85.1	11.8	3.1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956	849	89	18	11,825	10,387	1,182	256
	구성비 ¹⁾	85.4	87.7	71.2	66.7	88.0	90.8	74.4	62.0
2008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1,530	1,239	237	54	18,778	15,804	2,213	761
	구성비	100.0	81.0	15.5	3.5	100.0	84.2	11.8	4.1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490	1,212	232	46	16,937	14,452	1,885	600
	구성비 ¹⁾	97.4	97.8	97.9	85.2	90.2	91.4	85.2	78.8
2009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1,836	1,533	227	76	24,745	20,632	2,987	1,126
	구성비	100.0	83.5	12.4	4.1	100.0	83.4	12.1	4.5
	모가 외국인인 학생수	1,680	1,404	208	68	22,264	18,845	2,519	900
	구성비 ¹⁾	91.5	91.6	75.1	89.5	90.0	91.3	84.3	79.9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복지정책과

주 : 1) 각 학교급별 국제결혼가정 학생수 대비 비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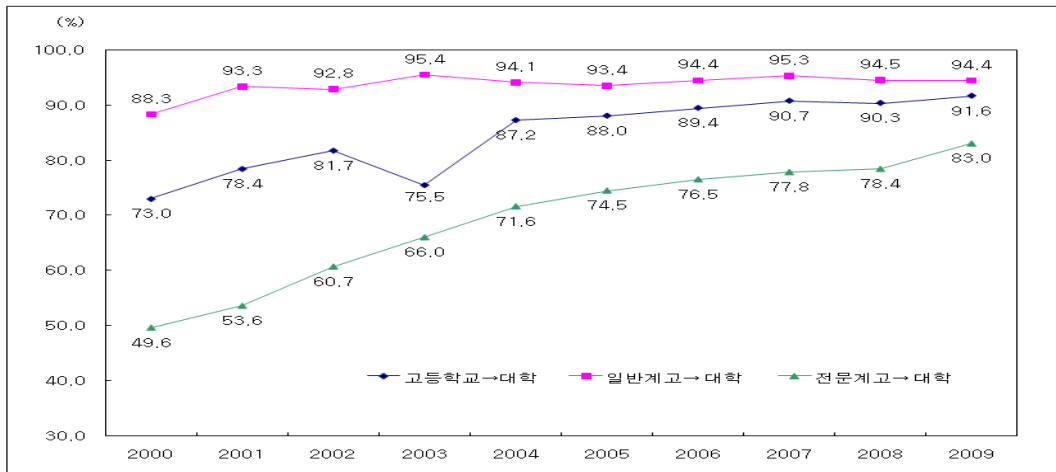
2. 교육

2.1. 진학률

2009년 경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진학률은 91.6%임

- 2009년 경남지역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학 진학률은 91.6%로 10명 중 9명이상 대학에 진학하였음
 - 대학진학률은 2008년 90.3% 대비 1.3%p 증가, 2000년 73.0%에 비해 18.6%p 증가
 - 전국 평균 대학진학률 92.2%에 비해 0.6%p 낮음
- 2009년 경남 초등학교 졸업자의 중학교 진학률은 2000년 이후 계속 99.9%이며, 중학교 졸업자의 고등학교 진학률은 99.2%로 2000년 이후 감소 추세에 있음

〈 대학교 진학률¹⁾ 추이 〉



〈 학교급별 진학률¹⁾ 〉

(단위 : %)

		초등학교 → 중학교	중학교 → 고등학교	고등학교 → 대학 ²⁾	일반계고교 → 대학 ²⁾	전문계 ³⁾ 고교 → 대학 ²⁾
경 남	2000	99.9 ⁴⁾	99.8	73.0	88.3	49.6
	2001	99.9 ⁴⁾	99.9	78.4	93.3	53.6
	2002	99.9 ⁴⁾	99.9	81.7	92.8	60.7
	2003	99.9 ⁴⁾	99.9	75.5	95.4	66.0
	2004	99.9 ⁴⁾	99.9	87.2	94.1	71.6
	2005	99.9 ⁴⁾	99.8	88.0	93.4	74.5
	2006	99.9 ⁴⁾	99.8	89.4	94.4	76.5
	2007	99.9 ⁴⁾	99.6	90.7	95.3	77.8
	2008	99.9 ⁴⁾	99.7	90.3	94.5	78.4
	2009	99.9 ⁴⁾	99.2	91.6	94.4	83.0
전 국	2009	99.9 ⁴⁾	99.6	92.2	97.0	78.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진학률 = (상급학교 진학자 수 / 졸업생 수) × 100, 기타학교 진학 포함

2) 전문대학, 일반대학교, 교육대학 등 포함

3) 2007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명칭이 전문계 고등학교로 변경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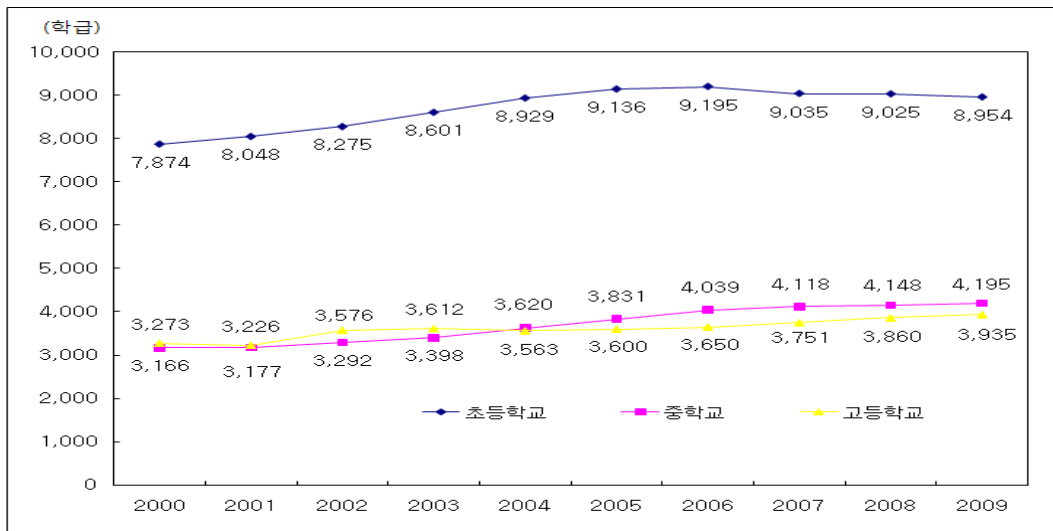
4)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면 100이 넘으므로 절사하였음

2.2.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급수

2009년 경남은 전년대비 초등학교 3개교 감소, 중학교 4개교 증가

- 2009년 경남의 초등학교는 495개교, 중학교 265개교, 고등학교 181개교로 2008년에 비해 초등학교는 3개교 감소, 중학교 4개교 증가
 - 경남 학교 수는 전국 중 초등학교 8.5%, 중학교 8.5%, 고등학교 8.1%를 차지
- 학급 수는 초등학교가 8,954개로 2008년에 비해 71개 학급 감소, 중학교는 4,195개 학급으로 47개 학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고등학교 학급수는 3,935개로 2008년에 비해 75개 학급이 증가하였음

〈 학교급별 학급수 추이 〉



〈 학교급별 학교수 및 학급수 〉

(단위 : 개)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학교수	학급수
경 남	2000	449	7,874	239	3,166	160	3,273
	2001	455	8,048	243	3,177	161	3,226
	2002	460	8,275	244	3,292	163	3,576
	2003	468	8,601	249	3,398	168	3,612
	2004	476	8,929	249	3,620	174	3,563
	2005	482	9,136	255	3,831	174	3,600
	2006	493	9,195	258	4,039	181	3,650
	2007	491	9,035	262	4,118	180	3,751
	2008	498	9,025	261	4,148	181	3,860
	2009	495	8,954	265	4,195	181	3,935
전 국	2009	5,829	124,892	3,106	58,396	2,225	57,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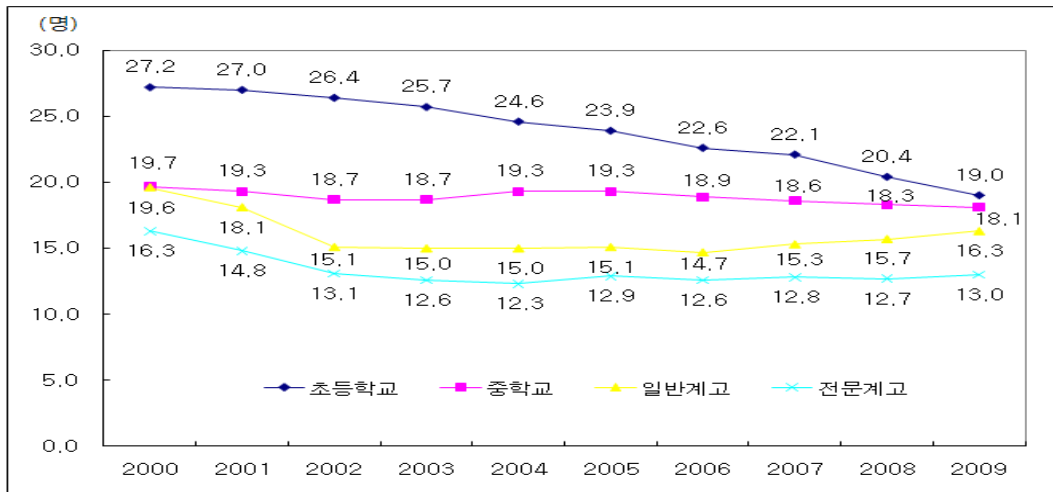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3. 교원 1인당 학생수

2009년 경남의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가 19.0명으로 가장 많고, 전문계 고등학교 13.0명으로 가장 적음

- 2009년 경남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초등학교 19.0명, 중학교 18.1명, 일반계 고등학교 16.3명, 전문계 고등학교 13.0명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초등학교, 중학교는 각각 1.4명, 0.2명 감소한 반면, 고등학교(일반계·전문계)는 0.6명, 0.3명 증가하였음
 - 2000년과 비교하면, 초등학교의 경우 8.2명, 중학교는 1.6명, 일반계 고등학교는 3.3명, 전문계 고등학교는 3.3명이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초등학교 0.8명, 일반계 고등학교 0.4명, 중학교·전문계 고등학교는 각 0.3명이 적음

〈 교원 1인당 학생수 추이 〉



〈 교원 1인당 학생수 〉

(단위 : 명)

	연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전문계고
경 남	2000	27.2	19.7	19.6	16.3
	2001	27.0	19.3	18.1	14.8
	2002	26.4	18.7	15.1	13.1
	2003	25.7	18.7	15.0	12.6
	2004	24.6	19.3	15.0	12.3
	2005	23.9	19.3	15.1	12.9
	2006	22.6	18.9	14.7	12.6
	2007	22.1	18.6	15.3	12.8
	2008	20.4	18.3	15.7	12.7
	2009	19.0	18.1	16.3	13.0
전 국	2009	19.8	18.4	16.7	1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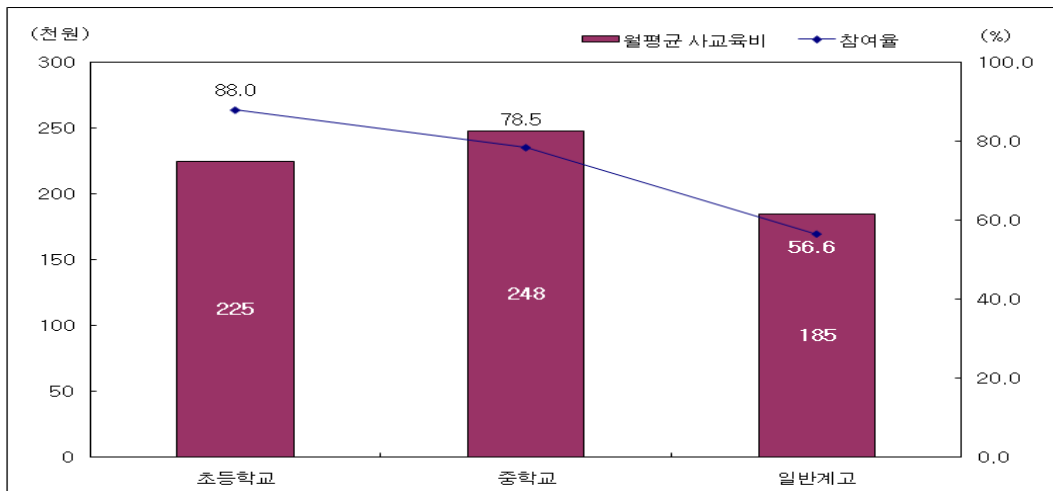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2.4.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9년 경남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1만3천원

- 2009년 경남의 사교육 참여율은 초등학교 88.0%, 중학교 78.5%, 고등학교 49.5%로 나타남
 - 일반계 고등학교의 사교육 참여율은 56.6%로 전체 고등학교의 참여율 49.5%보다 7.1%p 높게 나타남
 - 전체 사교육 참여율은 75.6%로 전국 평균 75.0%에 비해 0.6%p 높으며, 9개도(道) 중 경기도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음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비용은 21만3천원으로 전국 평균 24만2천원보다 낮음
 - 중학생이 24만8천원으로 가장 높고, 초등학생 22만5천원, 일반계 고등학생 18만5천원 순으로 나타남

〈 학교급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9) 〉



〈 지역별 사교육 참여실태 (2009) 〉

(단위 : %, 천원)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일반계고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참여율	비용 ¹⁾
경 남	75.6	213	88.0	225	78.5	248	49.5	154	56.6	185
전 국	75.0	242	87.4	245	74.3	260	53.8	217	62.8	269
경 기	77.4	269	89.2	278	76.4	293	55.8	225	65.8	281
강 원	68.1	184	80.3	188	72.4	233	41.0	124	50.1	164
충 북	69.4	173	81.7	174	72.8	208	43.3	135	52.7	175
충 남	68.5	187	84.7	220	66.1	193	40.0	118	47.8	147
전 북	65.8	157	76.9	157	66.9	183	44.5	127	54.5	175
전 남	67.7	163	82.5	163	69.2	208	39.2	116	46.9	132
경 북	74.0	197	90.5	225	77.5	224	40.9	119	52.6	161
제 주	68.7	181	80.3	177	75.5	247	38.3	115	53.6	169

자료 : 통계청, 「사교육비조사」, 2009년

주 : 1) 전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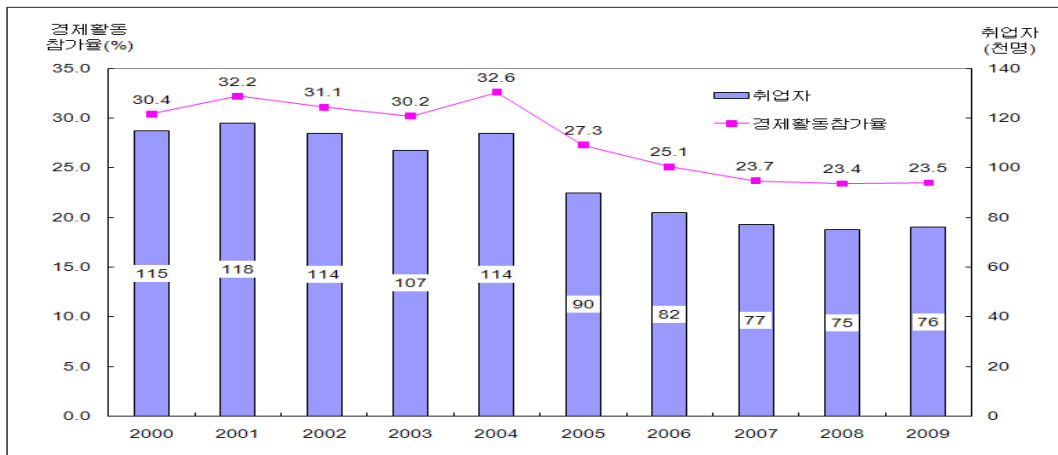
3. 노 동

3.1. 청소년의 경제활동

2009년 경남 15~24세 청소년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3.5%

- 2009년 경남 청소년(15~2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3.5%이며, 이 중 15~19세는 3.2%, 20~24세는 52.0%임
- 2000년과 비교하면, 진학률의 증가로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이 30.4%에서 9년간 6.9%p 하락
- 전국 청소년의 경제활동참가율 25.4%에 비해 경남은 1.9%p 낮음

〈 청소년의 경제활동 〉



〈 청소년의 경제활동 〉

(단위 : 천명, %)

	연도	계	경제활동인구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비취업자		
경 남	2000(15~24세)	411	125	115	286	30.4
	2001(15~24세)	401	129	118	272	32.2
	2002(15~24세)	392	122	114	270	31.1
	2003(15~24세)	384	116	107	268	30.2
	2004(15~24세)	375	122	114	252	32.6
	2005(15~24세)	360	98	90	262	27.3
	2006(15~24세)	354	89	82	265	25.1
	2007(15~24세)	353	84	77	270	23.7
	2008(15~24세)	354	83	75	271	23.4
	2009(15~24세)	359	84	76	275	23.5
경 남	(15~19세)	207	9	8	198	4.5
	(20~24세)	148	74	67	74	50.0
	2009(15~24세)	359	84	76	275	23.5
전 국	(15~19세)	211	7	6	204	3.2
	(20~24세)	149	78	70	71	52.0
	2009(15~24세)	5,934	1,507	1,359	4,427	25.4
전 국	(15~19세)	3,284	203	178	3,082	6.2
	(20~24세)	2,650	1,305	1,181	1,346	4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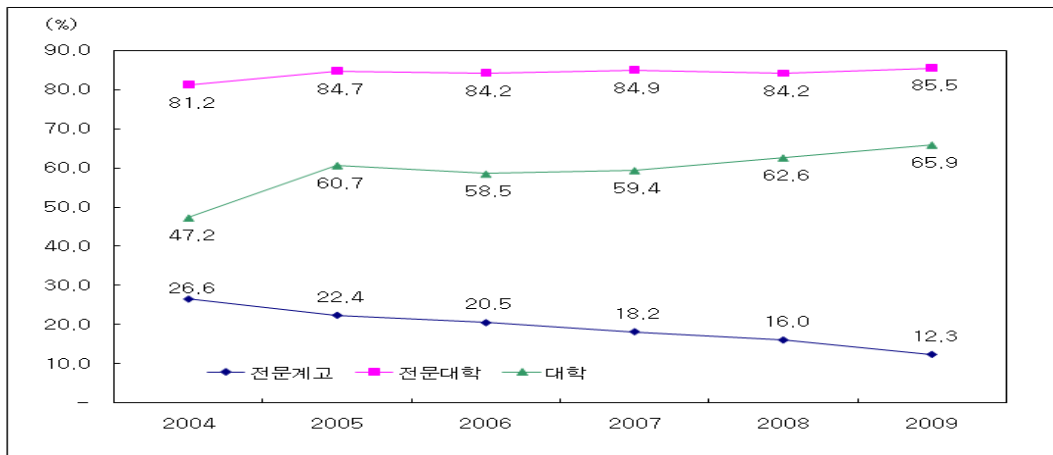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3.2.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2009년 경남의 학교급별 취업자 비율은 전문대학이 85.5%로 가장 높음

- 2009년 경남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은 전문대학이 85.5%로 가장 높고, 대학 65.9%, 전문계고 12.3% 순으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3.3%p, 1.3%p 증가한 반면, 전문계고는 3.7%p 감소하였음
 - 2004년과 비교하면, 대학과 전문대학은 각각 18.7%p, 4.3%p 증가, 전문계고는 14.3%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전국에 비해 졸업자의 취업비율은 대학, 전문대학은 각각 5.2%p, 4.0%p 높고, 전문계고는 4.4%p 낮음

〈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



〈 학교급별 졸업자의 취업비율 〉

(단위 : 명, %)

	연도	전문계고			전문대학			대학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졸업자	취업자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인원	구성비
경 남	2004	11,738	3,123	26.6	14,176	11,514	81.2	10,544	4,982	47.2
	2005	10,531	2,361	22.4	12,896	10,920	84.7	10,375	6,295	60.7
	2006	10,238	2,099	20.5	12,142	10,220	84.2	10,391	6,078	58.5
	2007	9,459	1,719	18.2	11,513	9,778	84.9	11,163	6,628	59.4
	2008	9,691	1,552	16.0	10,816	9,102	84.2	11,661	7,304	62.6
	2009	9,169	1,126	12.3	10,149	8,681	85.5	11,292	7,444	65.9
전 국	2009	151,410	25,297	16.7	199,421	162,608	81.5	279,059	169,277	60.7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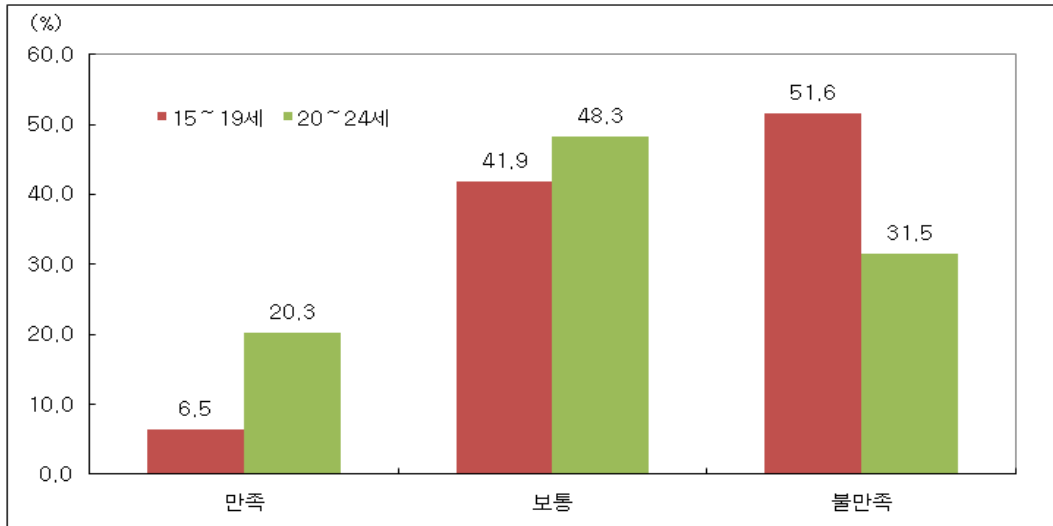
주 : 1) 취업자 : 순수 취업자(진학자, 입대자 제외)

3.3. 소득 만족도

2009년 소득이 있는 경남의 청소년 중 15~19세의 6.5%, 20~24세의 20.3%가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

- 2009년 경남 청소년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은 15~19세의 7.5%, 20~24세의 47.6%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1.7%p 증가한 반면, 20~24세는 2.0%p 감소함
- 소득이 있는 청소년 중 자신의 소득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6.5%, 20~24세 20.3%, '불만족'인 비율은 15~19세 51.6%, 20~24세 31.5%
 - 2007년에 비해 '만족'은 15~19세는 1.0%p 감소, 20~24세는 18.0%p 증가
 - 전국에 비해 15~19세의 '만족'비율은 6.5%p 낮고, 20~24세는 7.7%p 높음

〈 청소년의 소득 만족도 (2009) 〉



〈 청소년의 소득 만족도 〉

(단위 : %)

			계	소득 있음 ¹⁾	소계	만족			보통	불만족			소득 없음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경남	2007	15세 이상	100.0	63.3	100.0	10.1	0.9	9.1	39.4	50.6	35.9	14.6	36.7
		15~19세	100.0	5.8	100.0	7.5	0.0	7.5	44.1	48.4	23.5	24.9	94.2
		20~24세	100.0	49.6	100.0	2.3	0.0	2.3	47.2	50.5	36.2	14.3	50.4
	2009	15세 이상	100.0	64.6	100.0	14.8	1.4	13.4	41.4	43.8	32.7	11.1	35.4
		15~19세	100.0	7.5	100.0	6.5	0.0	6.5	41.9	51.6	45.1	6.5	92.5
		20~24세	100.0	47.6	100.0	20.3	2.3	18.0	48.3	31.5	26.7	4.8	52.4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65.9	100.0	14.1	1.5	12.5	39.3	46.6	33.2	13.4	34.1
	15~19세	100.0	7.5	100.0	13.0	3.2	9.7	36.0	51.0	40.7	10.4	92.5	
	20~24세	100.0	45.2	100.0	12.6	1.5	11.1	40.4	47.1	36.2	10.9	54.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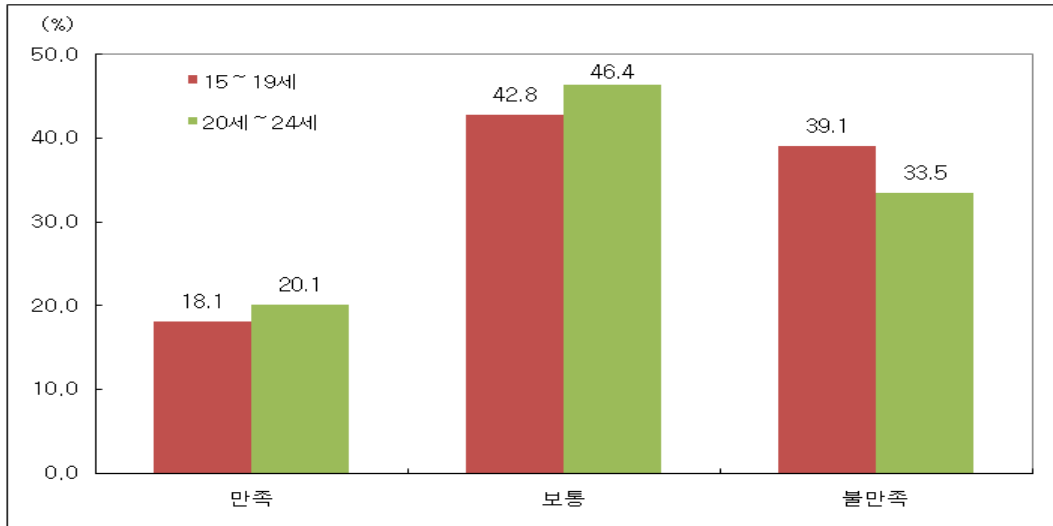
주 : 1) 조사시점 현재(2009년 7월) 소득이 있는 사람의 비율

3.4. 소비생활만족도

**2009년 경남 15~19세의 18.1%, 20~24세의 20.1%가
현재 소비생활에 '만족'하고 있음**

- 2009년 경남 청소년이 의식주, 여가 및 취미생활 등을 포함한 현재 전반적인 소비 생활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18.1%, 20~24세 20.1%
 - 2007년에 비해 15~19세, 20~24세 각각 3.2%p, 10.9%p 증가
- 현재 소비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39.1%, 20~24세 33.5%
 - 2007년에 비해 15~19세, 20~24세 각각 0.8%p, 6.2%p 감소
- 전국에 비해 '만족'비율은 15~19세는 0.6%p 낮고, 20~24세는 4.5%p 높음
 - '불만족'비율은 15~19세는 1.9%p 높고, 20~24세는 3.3%p 낮음

〈 청소년의 소비생활 만족도 (2009) 〉



〈 청소년의 소비생활 만족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만족도	
				매우	약간	매우			약간	
경 남	2007	15세 이상	100.0	10.4	1.0	9.4	47.1	42.5	32.8	9.6
		15~19세	100.0	14.9	3.0	11.9	45.2	39.9	34.7	5.2
		20~24세	100.0	9.2	1.2	8.0	51.1	39.7	28.5	11.2
	2009	15세 이상	100.0	13.8	2.2	11.6	44.6	41.6	34.8	6.8
		15~19세	100.0	18.1	5.7	12.4	42.8	39.1	31.8	7.3
		20~24세	100.0	20.1	5.8	14.3	46.4	33.5	30.5	3.0
전 국	2009	15세 이상	100.0	13.7	1.8	11.9	46.1	40.2	30.5	9.7
		15~19세	100.0	18.7	4.1	14.6	44.1	37.2	28.2	9.0
		20~24세	100.0	15.6	2.9	12.7	47.6	36.8	29.4	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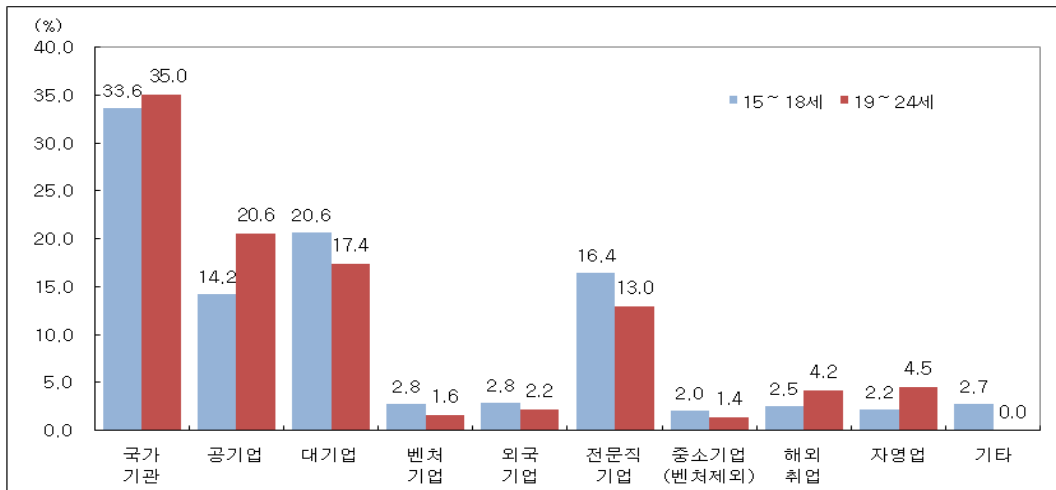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3.5.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2009년 경남 청소년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

- 2009년 경남의 15~24세 청소년이 가장 근무하고 싶은 직장은 '국가기관'으로 34.3%를 차지, 그 다음 '대기업' 19.1%, '공기업(공사공단)' 17.2% 등의 순
 - 15~18세는 '국가기관' 33.6%, '대기업' 20.6%, '전문직 기업' 16.4% 등의 순
 - 19~24세는 '국가기관' 35.0%, '공기업(공사공단)' 20.6% '대기업' 17.4% 등의 순
- 2006년에 비해 '공기업(공사공단)'은 5.4%p, '대기업' 1.2%p 증가, '국가기관' 5.6%p, '전문직 기업'은 0.7%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24세의 '국가기관' 선호비율은 6.0%p 높고, '자영업'과 '외국계 기업'은 각각 4.3%p, 1.9%p 낮음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2009) 〉



〈 청소년이 선호하는 직장 〉

(단위 : %)

연도	연령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벤처기업	외국계기업	전문직기업	중소기업(벤처제외)	해외취업	자영업	기타	
		경남	2006	15~24세	39.9	11.8	17.9	2.5	2.9	15.5	1.7	2.2
	15~18세	38.4	9.3	19.8	2.5	2.8	20.7	1.1	1.4	3.9	0.0	
	19~24세	41.4	14.0	16.1	2.5	2.9	10.7	2.2	3.0	7.3	0.0	
	2009	15~24세	34.3	17.2	19.1	2.2	2.3	14.8	1.7	3.3	3.3	1.4
	15~18세	33.6	14.2	20.6	2.8	2.8	16.4	2.0	2.5	2.2	2.7	
	19~24세	35.0	20.6	17.4	1.6	2.2	13.0	1.4	4.2	4.5	0.0	
전국	2009	15~24세	28.3	15.7	18.6	2.9	4.2	15.4	2.2	3.9	7.6	1.3
	15~18세	29.6	12.5	20.6	3.1	4.0	17.4	1.9	3.2	6.0	1.7	
	19~24세	27.0	18.7	16.7	2.8	4.3	13.5	2.4	4.6	9.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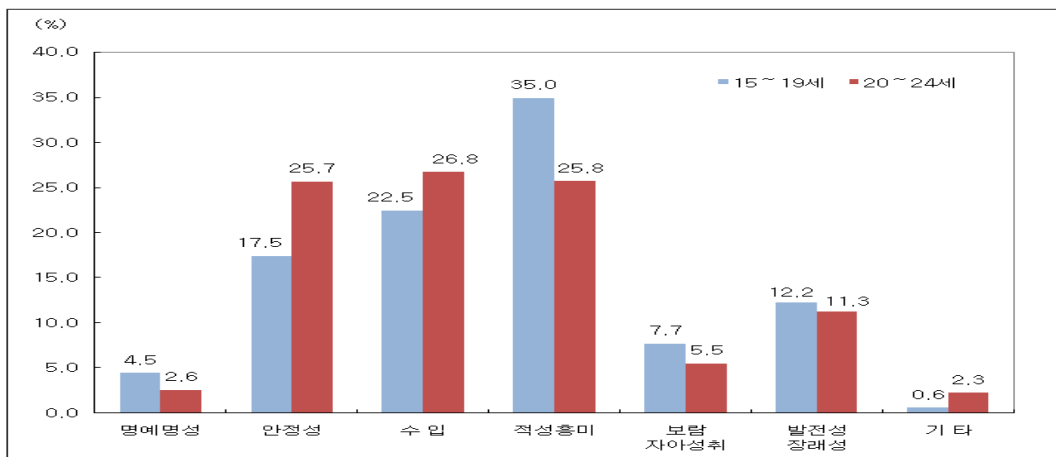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3.6. 직업선택요인

2009년 경남 15~19세는 '적성·흥미', 20~24세는 '수입'을 직업선택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

- 2009년 경남의 청소년이 직업선택에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 15~19세는 '적성·흥미'가 35.0%로 가장 높고, '수입' 22.5%, '안정성' 17.5% 순
 - 20~24세는 '수입' 26.8%, '적성·흥미' 25.8% '안정성' 25.7%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적성·흥미'와 '수입'이 각각 5.1%p, 4.9%p 증가한 반면, '안정성'과 '기타'가 각각 9.4%p, 3.8%p 감소
 - 20~24세는 '적성·흥미'와 '명예·명성'이 각각 5.9%p, 1.1%p 증가한 반면 '수입', '안정성'이 각각 4.9%p, 1.8%p 감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적성·흥미', '발전성·장래성'이 각각 4.9%p, 2.8%p 높음
 - 20~24세는 '적성·흥미'는 3.9%p 높고, '보람·자아성취'는 3.9%p 낮음

〈 직업선택요인 (2009) 〉



〈 직업선택요인 〉

(단위 : %)

			계	명예명성	안정성	수입	적성흥미	보람 자아성취	발전성 장래성	기타 ¹⁾
경남	2007	15세 이상	100.0	2.4	32.1	34.1	10.5	5.9	8.8	6.2
		15~19세	100.0	4.0	26.9	17.6	29.9	8.1	9.0	4.4
		20~24세	100.0	1.5	27.5	31.7	19.9	5.6	12.2	1.5
	2009	15세 이상	100.0	2.6	26.2	44.2	13.0	4.7	6.7	2.4
		15~19세	100.0	4.5	17.5	22.5	35.0	7.7	12.2	0.6
		20~24세	100.0	2.6	25.7	26.8	25.8	5.5	11.3	2.3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3.3	30.4	36.3	11.3	7.4	7.8	3.5
		15~19세	100.0	4.8	19.3	24.9	30.1	10.0	9.4	1.5
		20~24세	100.0	3.9	25.2	26.9	21.9	9.4	11.5	1.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모르겠음'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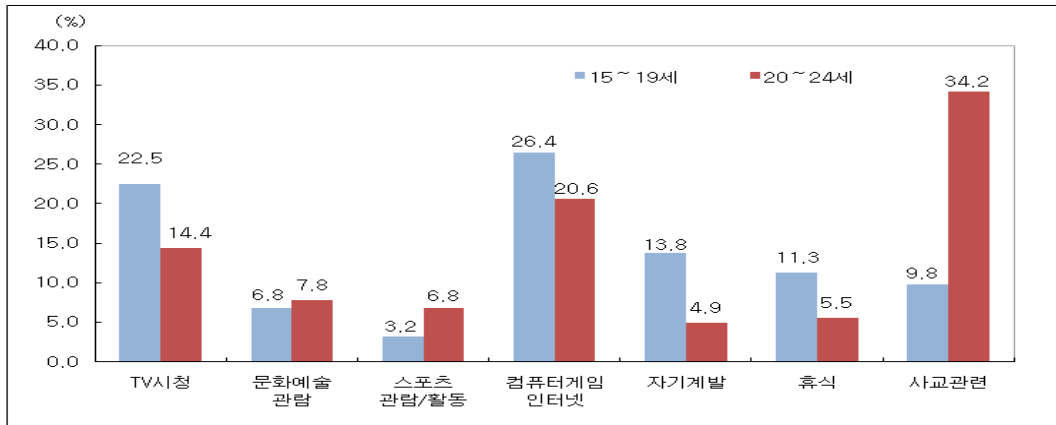
4. 문화여가

4.1.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2009년 경남 15~19세는 '컴퓨터게임·인터넷',
20~24세는 '사교관련 활동'으로 주로 여가를 활용**

- 2009년 경남 청소년의 주말,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으로 15~19세는 '컴퓨터 게임·인터넷'이 26.4%, 20~24세는 '사교관련 활동'이 34.2%로 가장 많음
 - 그 다음 15~19세는 'TV시청' 22.5%, '자기계발' 13.8%, '휴식' 11.3% 등의 순
 - 20~24세는 '컴퓨터게임·인터넷' 20.6%, 'TV시청' 14.4%, '문화예술 관람' 7.8% 등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문화예술 관람', '사교관련활동' 각각 3.3%p, 1.9%p 증가
 - 20~24세는 '사교관련 활동', '문화예술 관람', '스포츠관람·활동'이 각각 17.4%p, 1.8%p, 1.1%p 증가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휴식'이 3.9%p 높고, 'TV시청'은 4.0%p 낮음
 - 20~24세는 '사교관련', '컴퓨터게임, 인터넷'이 각각 14.1%p, 5.7%p 높고 'TV시청'은 8.4%p 낮음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2009) 〉



〈 주말과 휴일의 여가활동 방법 (주된 응답) 〉

(단위 : %)

지역	연도	연령	주요 여가활동 방법 (%)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계발	종교 활동	가사 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 ¹⁾
경남	2007	15세 이상	28.0	6.0	1.4	5.8	6.6	1.1	2.3	5.5	15.1	18.1	9.7	0.4
		15~19세	28.3	0.7	3.5	3.8	26.4	2.1	12.3	3.6	0.3	11.1	7.9	0.0
		20~24세	22.8	2.0	6.0	5.7	24.6	2.6	4.9	3.0	2.7	7.7	16.8	1.1
	2009	15세 이상	27.3	5.5	2.3	6.4	6.3	1.3	2.9	4.0	17.4	15.5	10.1	1.0
		15~19세	22.5	0.4	6.8	3.2	26.4	1.5	13.8	2.0	1.7	11.3	9.8	0.5
		20~24세	14.4	2.3	7.8	6.8	20.6	0.8	4.9	1.8	0.8	5.5	34.2	0.0
전국	2009	15세 이상	30.1	5.3	2.5	6.3	5.9	1.0	3.1	9.6	14.1	12.9	8.3	1.1
		15~19세	26.5	1.2	3.4	4.4	25.2	1.4	14.2	4.1	0.7	7.4	10.7	0.7
		20~24세	22.8	3.5	8.9	5.6	14.9	1.4	7.6	3.9	2.2	8.7	20.1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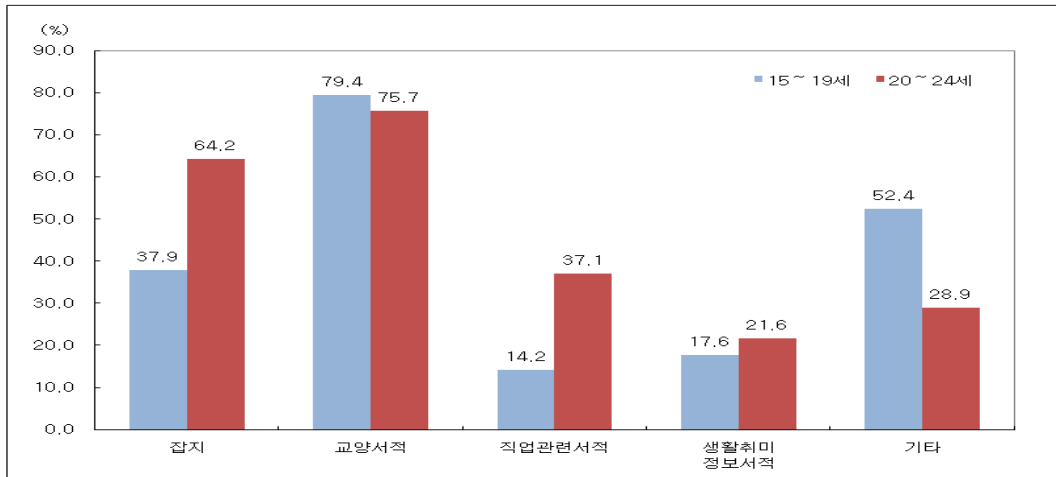
주 : 1) 「봉사활동」 포함

4.2. 독서인구

2009년 경남 청소년의 독서율은 15~19세 80.6%, 20~24세 77.2%

- 2009년 경남 청소년은 15~19세의 80.6%, 20~24세의 77.2%가 지난 1년 (2008. 7. 6.~ 2009. 7. 5.)동안 독서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5.8%p 증가한 반면, 20~24세는 4.1%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2.3%p 높고, 20~24세는 5.1%p 낮음
- 서적류별로는 '교양서적'이 15~19세 79.4%, 20~24세 75.7%로 가장 높음
 - 그 다음으로 15~19세는 '기타'서적 52.4%, '잡지' 37.9% 등의 순
 - 20~24세는 '잡지' 64.2%, '직업관련서적' 37.1% 등의 순

〈 청소년의 독서율 (2009) 〉



〈 청소년의 독서율 〉

(단위 : %)

			독서율 ¹⁾	잡지 ²⁾	교양서적 ²⁾	직업관련 서적 ²⁾	생활취미 정보서적 ²⁾	기타 ²⁾
경남	2007	15세 이상	55.2	49.6	60.1	33.2	27.0	21.6
		15~19세	74.8	38.3	68.3	15.6	15.2	59.0
		20~24세	81.3	48.8	59.1	43.0	25.0	44.1
	2009	15세 이상	53.9	55.6	61.6	32.5	27.1	22.1
		15~19세	80.6	37.9	79.4	14.2	17.6	52.4
		20~24세	77.2	64.2	75.7	37.1	21.6	28.9
전국	2009	15세 이상	62.1	51.1	67.2	39.0	27.6	20.4
		15~19세	78.3	38.0	75.1	19.8	17.0	49.0
		20~24세	82.3	56.3	73.6	45.2	27.6	34.5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2008.7.6.~2009.7.5.)동안 독서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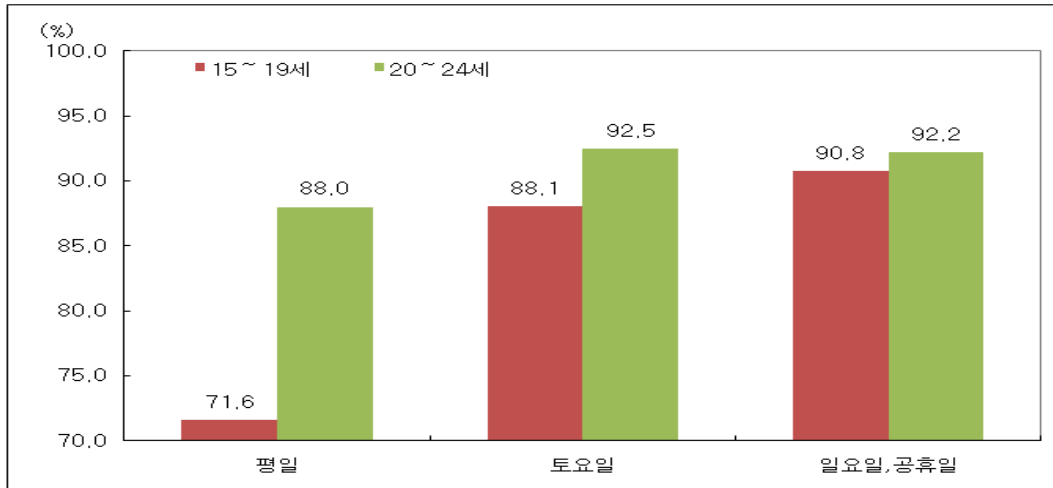
2) 서적별 독서율은 복수응답

4.3. TV 시청

2009년 경남 청소년의 TV시청비율은 15~19세 95.3%, 20~24세 95.9%

- 2009년 경남 청소년이 지난 1개월(2009. 6. 6.~ 7. 5.) 동안 TV를 시청한 비율은 15~19세 95.3%, 20~24세 95.9%로 나타남
 - 요일별로 15~19세는 일요일·공휴일 90.8%, 토요일 88.1%, 평일 71.6% 순
 - 20~24세는 토요일 92.5%, 일요일·공휴일 92.2%, 평일 88.0% 순임
- 2007년에 비해 TV시청비율은 15~19세 1.4%p, 20~24세 0.9%p 증가
 - 15~19세는 평일 4.1%p 감소,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각각 2.2%p, 3.5%p 증가
 - 20~24세는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각각 1.5%p, 5.4%p, 2.7%p 증가
- 전국에 비해 TV시청비율은 15~19세, 20~24세는 각각 1.6%p, 1.4%p 높음

〈 TV 시청 비율(2009) 〉



〈 TV 시청 비율 〉

(단위 : %)

			계	TV ¹⁾	평일	토요일	일요일·공휴일
				시청합			
경남	2007	15세 이상	100.0	95.6	91.6	90.9	91.6
		15~19세	100.0	93.9	75.7	85.9	87.3
		20~24세	100.0	95.0	86.5	87.1	89.5
	2009	15세 이상	100.0	96.4	92.1	91.6	91.9
		15~19세	100.0	95.3	71.6	88.1	90.8
		20~24세	100.0	95.9	88.0	92.5	92.2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96.4	90.4	89.5	91.1
		15~19세	100.0	93.7	72.5	85.1	89.0
		20~24세	100.0	94.5	86.5	86.0	87.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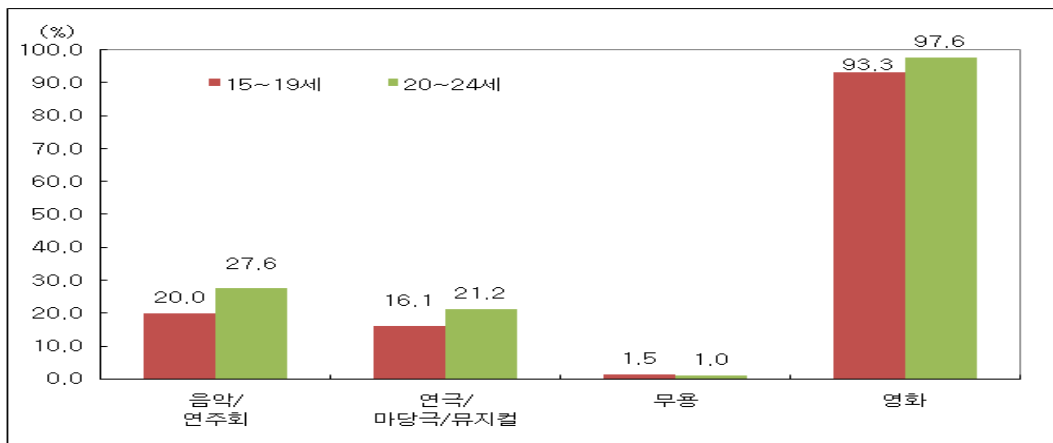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개월(2009.6.6.~7.5.) 동안 TV를 본 적이 있는 사람

4.4.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2009년 경남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82.0%, 20~24세 80.9%

- 2009년 경남 청소년의 지난 1년(2008. 7. 6.~ 2009. 7. 5.)동안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82.0%, 20~24세 80.9%
 - 분야별로는 공연장 관람률이 15~19세 92.2%, 20~24세 96.4%로 가장 높음
- 2007년에 비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 20~24세 각각 6.9%p, 3.3%p 증가
 - 15~19세는 체육시설 2.6%p 증가, 전시장, 공연장은 각각 6.2%p, 1.1%p 감소
 - 20~24세는 체육시설, 공연장 각각 13.8%p, 4.5%p 증가, 전시장 6.7%p 감소
- 전국에 비해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은 15~19세는 2.6%p 높고, 20~24세는 3.2%p 낮음

〈 공연장 관람률 (2009) 〉



〈 문화예술 및 스포츠 관람률 〉

(단위 : %)

		관람률 ¹⁾	공연장 ²⁾					전시장 ²⁾	체육시설 ²⁾	
			음악/연주회 ³⁾	연극/마당극/뮤지컬 ³⁾	무용 ³⁾	영화 ³⁾				
경 남	2007	15세 이상	50.8	83.2	31.2	21.1	3.1	80.8	41.1	17.8
		15~19세	75.1	93.3	32.3	15.3	3.7	91.0	33.6	15.4
		20~24세	77.6	91.9	18.2	13.7	0.0	93.0	26.9	19.0
	2009	15세 이상	49.6	85.2	23.4	20.0	2.2	89.3	31.4	25.5
		15~19세	82.0	92.2	20.0	16.1	1.5	93.3	27.4	18.0
		20~24세	80.9	96.4	27.6	21.2	1.0	97.6	20.2	32.8
전 국	2009	15세 이상	55.0	89.5	26.1	26.2	2.3	91.0	32.5	20.5
		15~19세	79.4	94.6	24.3	20.1	2.9	93.7	26.4	13.7
		20~24세	84.1	96.0	26.6	29.7	2.6	96.3	26.8	21.9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조사시점 기준 지난 1년(2008.7.6.~2009.7.5.)동안 공연장이나 전시장 또는 체육시설에 가 본적이 있는 사람

2)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한 적이 있는 대상을 100%로 하여 산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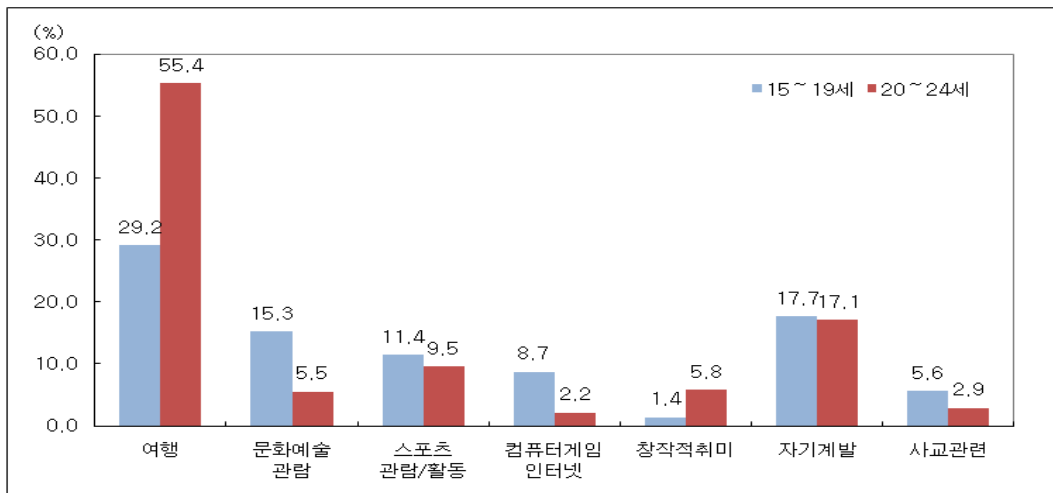
3)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 대상을 100%로 하여 산출

4.5.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09년 경남 청소년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은 '여행'

- 2009년 경남 15~19세의 29.2%, 20~24세의 55.4%가 청소년이 앞으로 가장 하고 싶은 여가활동으로 '여행'을 꼽음
 - 그 다음 15~19세는 '자기계발' 17.7%, '문화예술관람' 15.3%, '스포츠관람·활동' 11.4% 등의 순
 - 20~24세는 '자기계발' 17.1%, '스포츠관람·활동' 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자기계발'과 '사교관련활동'이 각각 5.3%p, 2.8%p, 20~24세는 '여행', '자기계발'이 각각 13.4%p, 2.6%p 증가하였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자기계발' 4.0%p 높고, '창작적 취미'는 4.3%p 낮음
 - 20~24세는 '여행'은 8.8%p 높고, '문화예술관람'이 4.9%p 낮음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2009) 〉



〈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활동 (주된 응답) 〉

(단위 : %)

		TV 시청	여행	문화 예술 관람	스포츠 관람/활동	컴퓨터 게임, 인터넷	창작적 취미	자기 계발	종교 활동	가사 일	휴식	사교 관련	기타 ¹⁾	
														15세 이상
경남	2007	15세 이상	4.7	43.8	6.9	10.6	1.6	5.1	7.6	2.6	1.8	7.2	5.2	2.8
		15~19세	3.2	31.7	16.2	13.9	9.4	7.3	12.4	1.0	0.0	2.0	2.8	0.0
		20~24세	3.3	42.0	8.9	14.7	2.2	6.0	14.5	0.9	0.4	2.7	4.3	0.0
	2009	15세 이상	4.1	44.5	5.2	8.5	1.6	5.3	11.7	2.4	1.1	5.2	7.5	2.9
		15~19세	5.6	29.2	15.3	11.4	8.7	1.4	17.7	0.5	0.0	3.5	5.6	1.0
		20~24세	0.0	55.4	5.5	9.5	2.2	5.8	17.1	0.8	0.0	0.0	2.9	0.8
전국	2009	15세 이상	4.7	45.1	6.8	9.5	1.8	4.2	8.9	4.3	1.1	5.6	5.1	2.8
		15~19세	4.6	29.3	13.7	11.3	9.7	5.7	13.7	1.1	0.0	4.0	6.2	0.7
		20~24세	2.7	46.6	10.4	8.6	3.3	4.4	16.5	0.8	0.0	2.8	3.2	0.8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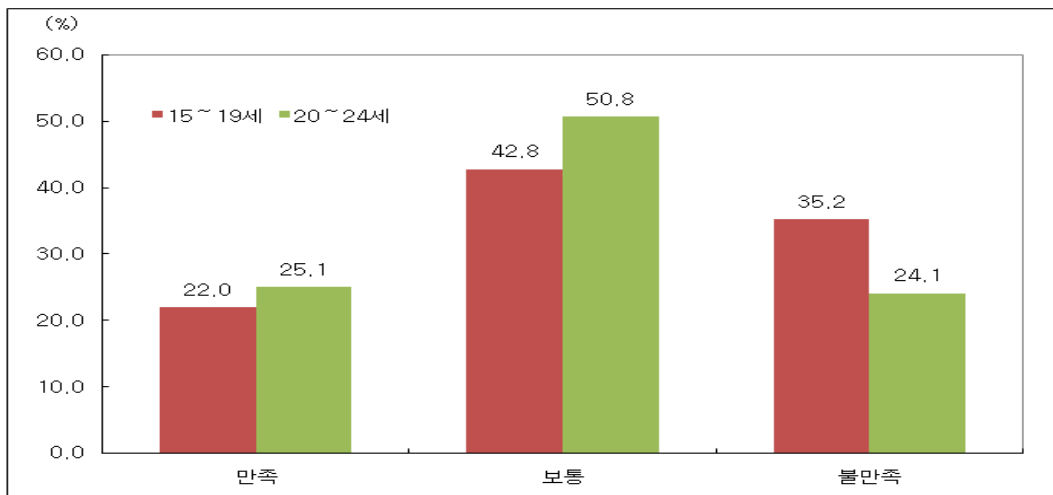
주 : 1) 기타에 봉사활동 포함됨

4.6. 여가활동 만족도

**2009년 경남 15~19세의 22.0%, 20~24세의 25.1%가
현재 여가활동에 만족**

- 2009년 경남 청소년 중 현재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의 22.0%, 20~24세의 25.1%로 나타남
 - '불만족' 비율은 15~19세의 35.2%, 20~24세의 24.1%임
 - 15~19세는 여가활동 '불만족'이, 20~24세는 '만족' 비율이 더 높음
- 2007년에 비해 여가활동에 '만족'하는 15~19세는 0.3%p, 20~24세는 1.0%p 증가
- 전국에 비해 '만족'비율이 15~19세, 20~24세 각각 3.2%p, 2.5%p 낮음

〈 여가활동 만족도 (2009) 〉



〈 여가활동 만족도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불만족	
				매우	약간	약간			매우	
경 남	2007	15세 이상	100.0	22.5	-	-	-	77.5	-	-
		15~19세	100.0	21.7	-	-	-	78.3	-	-
		20~24세	100.0	24.1	-	-	-	75.9	-	-
	2009	15세 이상	100.0	17.9	3.7	14.1	44.4	37.8	31.9	5.9
		15~19세	100.0	22.0	4.4	17.6	42.8	35.2	28.8	6.4
		20~24세	100.0	25.1	2.3	22.8	50.8	24.1	21.5	2.6
전 국	2009	15세 이상	100.0	21.8	4.9	16.9	46.1	32.1	24.7	7.4
		15~19세	100.0	25.2	6.5	18.6	44.3	30.5	22.8	7.8
		20~24세	100.0	27.6	5.6	22.1	47.5	24.9	20.8	4.1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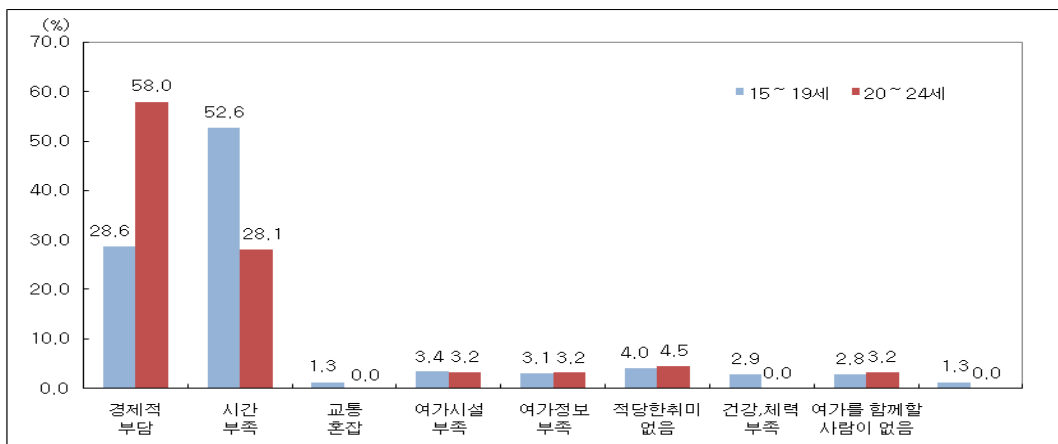
주 : 1) 2007년은 '만족', '불만족'으로만 구분

4.7.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9년 경남 15~19세는 '시간부족',
20~24세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여가활동에 불만족**

- 2009년 경남 청소년의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는 15~19세가 '시간부족'이 52.6%, 20~24세가 '경제적 부담'이 58.0%로 가장 높음
 - 그 다음 15~19세는 '경제적 부담' 28.6%, '적당한 취미없음' 4.0% 등의 순
 - 20~24세는 '시간부족' 28.1%, '적당한 취미없음' 4.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15~19세는 '시간부족'이 7.8%p 증가, '여가시설부족', '경제적 부담' 각각 5.7%p, 5.2%p 감소
 - 20~24세는 '시간부족'과 '여가정보부족'은 7.0%p 증가, '여가시설부족'은 5.3%p 감소
- 전국에 비해 15~19세는 '경제적 부담', '건강·체력부족'이 각각 2.7%p, 2.3%p 높고, '시간부족'은 5.3%p 낮음
 - 20~24세는 '경제적 부담', '여가정보부족' 각각 4.7%p, 1.5%p 높음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2009) 〉



〈 여가활동 불만족 이유 〉

(단위 : %)

			계 ¹⁾	경제적 부담	시간 부족	교통 혼잡	여가시설 부족	여가정보 부족	적당한 취미 없음	건강, 체력 부족	여가를 함께할 사람이 없음	기타
경남	2007	15세 이상	100.0	56.5	24.1	2.1	3.3	1.5	2.9	7.7	1.7	0.1
		15~19세	100.0	33.8	44.8	0.8	9.1	3.2	5.2	0.9	1.6	0.6
		20~24세	100.0	57.1	21.1	1.1	8.5	0.7	5.9	0.7	4.9	0.0
	2009	15세 이상	100.0	52.7	28.2	1.7	1.8	0.7	1.6	9.7	3.1	0.5
		15~19세	100.0	28.6	52.6	1.3	3.4	3.1	4.0	2.9	2.8	1.3
		20~24세	100.0	58.0	28.1	0.0	3.2	3.2	4.5	0.0	3.2	0.0
전국	2009	15세 이상	100.0	54.3	28.4	1.9	1.8	0.8	2.4	7.7	1.8	0.9
		15~19세	100.0	25.9	57.9	2.2	4.2	2.2	4.4	0.6	1.5	1.0
		20~24세	100.0	53.3	29.2	2.0	4.5	1.7	4.6	1.9	2.0	0.6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여가활동에 대해 불만족한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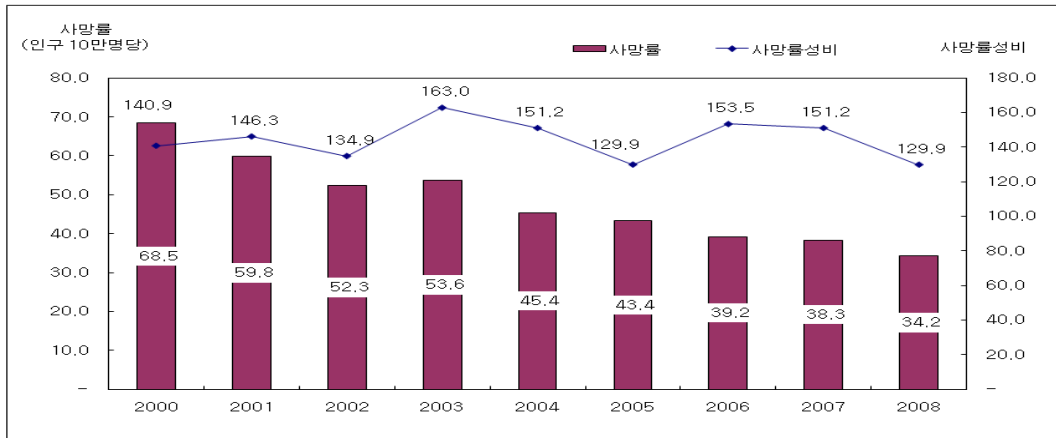
5. 보건·복지

5.1. 청소년 사망자수 및 사망률

2008년 경남 0~24세 청소년의 사망률은 10만명당 34.2명으로 2000년 68.5명에 비해 34.3명 감소

- 2008년 경남의 0~24세 사망률은 10만명당 34.2명으로 2007년 38.3명에 비해 4.1명 감소하였음
 - 사망률성비는 2008년 129.9로 전년에 비해 21.3p 낮아졌음
 - 전국에 비해 0~24세 사망률은 1.1명(10만명당) 낮고 사망률 성비는 5.8p 낮음
- 청소년 사망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0세의 사망률이 306.9명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20~24세가 45.6명으로 높게 나타남

〈 청소년 사망률 〉



〈 청소년(0~24세) 사망자수 및 사망률 〉

		계		남 자		여 자		사망률 성 비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사망자수 (명)	사망률 (10만명당)	
경 남	2000(0~24세)	792	68.5	484	79.4	308	56.4	140.9
	2001(0~24세)	683	59.8	424	70.3	259	48.1	146.3
	2002(0~24세)	589	52.3	355	59.6	234	44.2	134.9
	2003(0~24세)	594	53.6	385	65.4	209	40.1	163.0
	2004(0~24세)	494	45.4	312	53.9	182	35.7	151.2
	2005(0~24세)	461	43.4	275	48.6	186	37.4	129.9
	2006(0~24세)	407	39.2	259	46.8	148	30.5	153.5
	2007(0~24세)	390	38.3	247	45.5	143	30.1	151.2
	2008(0~24세)	343	34.2	205	38.3	138	29.5	129.9
	(0세)	96	306.9	50	309.7	46	303.9	101.9
	(1~4세)	28	22.5	17	26.1	11	18.5	141.0
	(5~9세)	30	15.3	15	14.5	15	16.1	89.8
(10~14세)	26	11.1	15	12.0	11	10.1	118.2	
(15~19세)	73	33.4	51	43.2	22	21.8	198.0	
(20~24세)	90	45.6	57	53.4	33	36.4	146.7	
전 국	2008(0~24세)	5,381	35.3	3,223	40.4	2,158	29.8	135.7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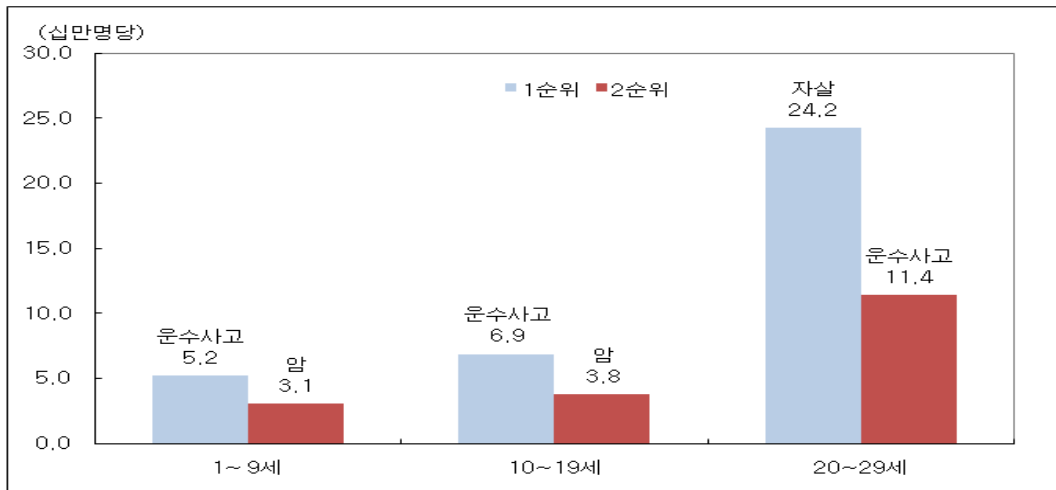
주 : 사망률성비 = (남자사망률 / 여자사망률 × 100)

5.2. 청소년 사망원인

2008년 경남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19세 이하는 운수사고, 20~29세 고의적 자해(자살)

- 2008년 경남 청소년의 사망원인 1순위는 1~19세 '운수사고', 20~29세 '고의적 자해'로 나타남
 - 그 다음 1~9세는 '암(악성신생물)', '익사사고', '선천기형', '가해(타살)'이 원인
 - 10~19세는 '암', '고의적 자해', '익사사고', '심장질환' 순
 - 20~29세는 '운수사고', '암', '심장질환', '익사사고' 순
- 성별에 따른 사망원인 1순위는 차이가 없으나 10~19세 여자는 '운수사고'와 더불어 '암' 및 '고의적 자해'가 사망원인 1순위임

〈 청소년 주된 사망원인 (2008) 〉



〈 연령별 청소년 사망원인 (2008) 〉

(단위 : 10만명당)

	1위	2위	3위	4위	5위
1~9세 사망률	운수사고 5.2	암(악성신생물) 3.1	익사사고 1.2	선천기형 1.2	가해(타살) 0.9
남 자	운수사고	암(악성신생물)	익사사고	선천기형	가해(타살)
여 자	운수사고	암(악성신생물)	익사사고, 선천기형, 가해(타살)		
10~19세 사망률	운수사고 6.9	암(악성신생물) 3.8	고의적자해(자살) 3.1	익사사고 1.6	심장질환 등 0.9
남 자	운수사고	암(악성신생물)	고의적자해(자살), 익사사고		
여 자	운수사고, 암(악성신생물), 고의적자해(자살)		심장질환	호흡기 결핵 등	
20~29세 사망률	고의적자해(자살) 24.2	운수사고 11.4	암(악성신생물) 7.8	심장질환 2.7	익사사고 1.1
남 자	고의적자해(자살)	운수사고	암(악성신생물)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등
여 자	고의적자해(자살)	암(악성신생물)	운수사고	심장질환, 호흡기 결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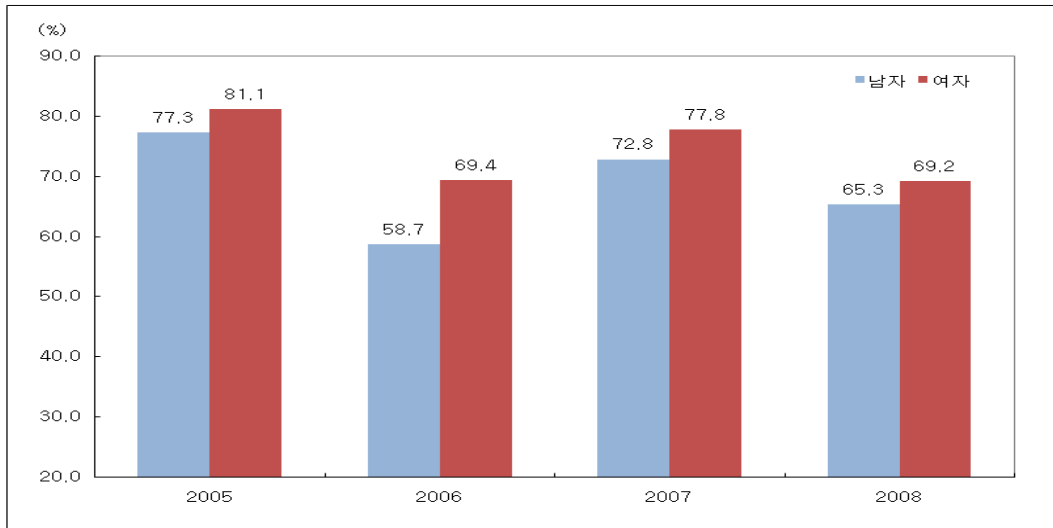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망원인통계연보」 2008년

5.3. 청소년의 성교육 경험률

2008년 경남 중·고등학생의 연간 성교육 경험률은 67.1%

- 2008년 경남 중·고등학생 중 최근 12개월간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본 비율은 67.1%로 나타남
 - 전국 평균 64.5%에 비해 2.6%p 높음
 - 성별로는 남학생 65.3%, 여학생 69.2%로 여학생이 3.9%p 높음
- 2007년에 비해 성교육 경험률은 75.1%에서 8.0%p 감소
 - 남학생은 72.8%에서 7.5%p, 여학생은 77.8%에서 8.6%p 감소하였음

〈 청소년 성교육 경험률 〉



〈 청소년 성교육 경험률¹⁾ 〉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경 남	2005	79.1	77.3	81.1
	2006	63.6	58.7	69.4
	2007	75.1	72.8	77.8
	2008	67.1	65.3	69.2
전 국	2008	64.5	63.0	66.1

자료 :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2005~2007년 : 지난 일년 동안 수업시간에 성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비율
 2008년 : 최근 12개월 동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아 본 적이 있는 비율

5.4. 요보호아동 발생 및 발생유형

**2009년 발생한 경남의 요보호아동은 446명이며
발생유형의 33.4%는 '부모이혼 등'임**

- 2009년 경남에서 발생한 만 18세 미만의 요보호아동은 446명
 - 발생유형별로 '부모이혼 등' 33.4%, '학대' 17.3%, '부모빈곤실직' 15.9%, '부모사망' 13.2% 순
 - 전국에 비해 '부모이혼 등', '부모빈곤실직'은 각각 8.6%p, 8.0%p 높고, '미혼모 아동'은 27.5%p 낮음
- 요보호 아동의 보호내용을 보면 각종 시설보호가 46.9%, 가정보호가 53.1%를 차지하였음
 - '위탁보호가정' 46.2%, '양육시설'은 31.6%, '공동생활가정' 15.0% 등의 순
 - 전국에 비해 '위탁보호가정', '공동생활가정'은 각각 15.9%p, 7.4%p 높고, '입양가정'은 9.9%p 낮음

〈 요보호아동¹⁾ 발생 및 발생유형 〉

(단위 : 명, %)

		계	기 아	미혼모 아 동	미 아	비행가출 부 랑 아	학 대	부모빈곤, 실직	부모 사망	부모 질병	부모 이혼 등
	2007	546	15	20	3	70	438 ²⁾				
	2008	432	15	51	6	37	41	52	66	32	132
	2009	446	5	29	1	35	77	71	59	20	149
	구성비	100.0	1.1	6.5	0.2	7.8	17.3	15.9	13.2	4.5	33.4
전 국	2009	9,028	222	3,070	35	707	1,051	710	763	230	2,240
	구성비	100.0	2.5	34.0	0.4	7.8	11.6	7.9	8.5	2.5	24.8

〈 요보호아동 보호내용 〉

(단위 : 명, %)

		계	시 설 보 호				가 정 보 호		
			양육 ³⁾	일시보호 ³⁾	장애아동	공동생활가정	위탁보호	입 양	소년소녀 가정책임
경 남	2006	526	187		-	-	326	6	7
	2007	546	176		1	-	328	23	18
	2008	432	131	-	-	40	209	38	14
	2009	446	141	-	1	67	206	21	10
	구성비	100.0	31.6	0.0	0.2	15.0	46.2	4.7	2.2
전 국	2009	9,028	2,406	1,640	35	686	2,734	1,314	213
	구성비	100.0	26.7	18.2	0.4	7.6	30.3	14.6	2.4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요보호아동 연령은 만 18세 미만임

2) 2005년~2007년 = 학대+빈곤실직+부모사망+부모질병+부모이혼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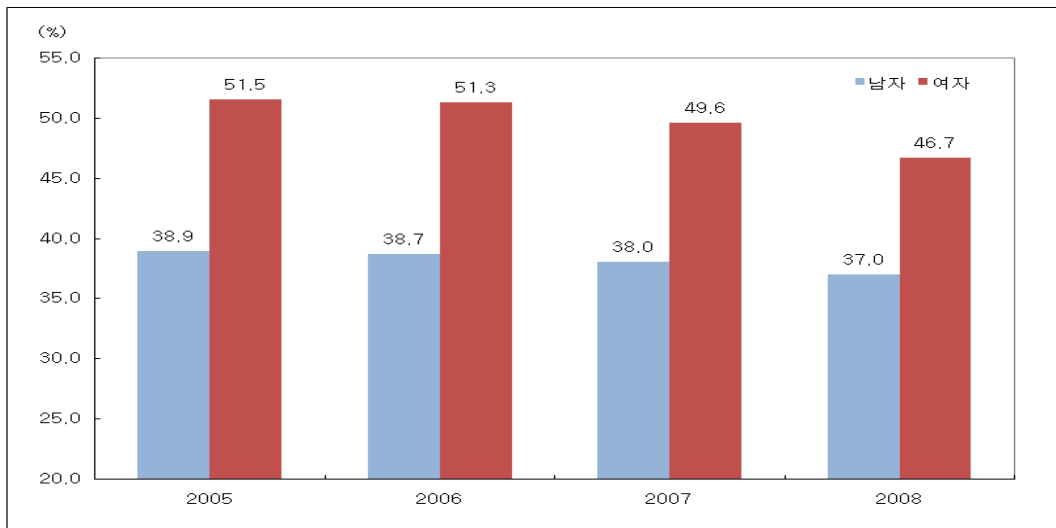
3) 2008년 아동보호시설이 양육시설과 일시보호시설로 구분, 미혼모시설이 공동생활가정으로 변경됨

5.5.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2008년 경남 중·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41.5%

- 2008년 경남 중·고등학생의 41.5%는 평소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
 - 전국 평균 43.7%에 비해 2.2%p 낮음
 - 남학생은 37.0%, 여학생은 46.7%로 여학생이 9.7%p 높게 나타남
- 2007년 43.4%에 비해 스트레스 인지율은 1.9%p 감소
 - 남학생은 38.0%에서 1.0%p, 여학생은 49.6%에서 2.9%p 감소하였음

〈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



〈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¹⁾ 〉

(단위 : %)

		전 체	남 자	여 자
경 남	2005	44.9	38.9	51.5
	2006	44.5	38.7	51.3
	2007	43.4	38.0	49.6
	2008	41.5	37.0	46.7
전 국	2008	43.7	38.1	50.1

자료 : 여성가족부, 질병관리본부, 교육과학기술부,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보고서」 각년도

주 : 1) 평상시 스트레스를 '대단히 많이' 또는 '많이' 느끼는 편인 사람의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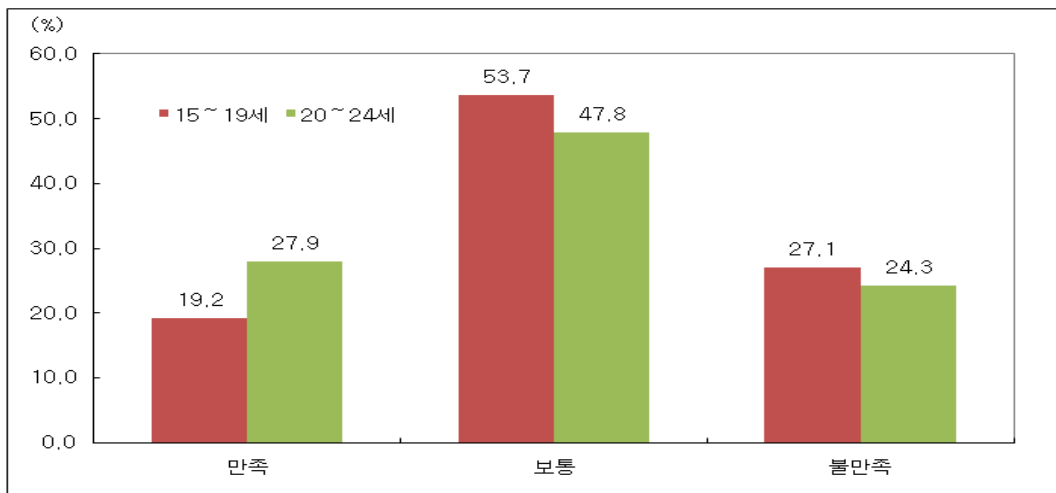
6. 사회참여·안전

6.1. 주관적 만족감

2009년 경남 청소년 15~19세의 19.2%, 20~24세의 27.9%는 현재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

- 2009년 경남 청소년 중 경제적인 면, 직업, 건강 등 현재의 전반적인 생활에 '만족'하는 비율은 15~19세 19.2%, 20~24세 27.9%
 - '불만족'인 비율은 15~19세 27.1%, 20~24세 24.3%임
 - 15~19세는 '불만족', 20~24세는 '만족'이 더 높게 나타남
- 2006년에 비해 '만족' 비율은 15~19세 12.9%p, 20~24세 4.3%p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만족'은 15~19세가 4.6%p 낮고, 20~24세는 4.6%p 높음

〈 주관적 만족감 (2009) 〉



〈 주관적 만족감 〉

(단위 : %)

			계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약간	매우		약간	매우	
경 남	2006	15세 이상	100.0	31.1	4.0	27.1	40.1	28.8	22.3	6.5
		15~19세	100.0	32.1	6.3	25.7	45.6	22.3	17.5	4.8
		20세~24세	100.0	32.2	5.0	27.2	38.3	29.5	22.5	7.0
	2009	15세 이상	100.0	19.9	2.8	17.1	44.3	35.8	30.1	5.6
		15~19세	100.0	19.2	3.5	15.7	53.7	27.1	23.0	4.1
		20세~24세	100.0	27.9	4.5	23.4	47.8	24.3	21.7	2.6
전 국	2009	15세 이상	100.0	20.9	3.3	17.6	45.3	33.8	26.5	7.4
		15~19세	100.0	23.8	5.3	18.5	48.8	27.4	22.2	5.2
		20세~24세	100.0	23.3	4.4	18.9	49.2	27.6	21.6	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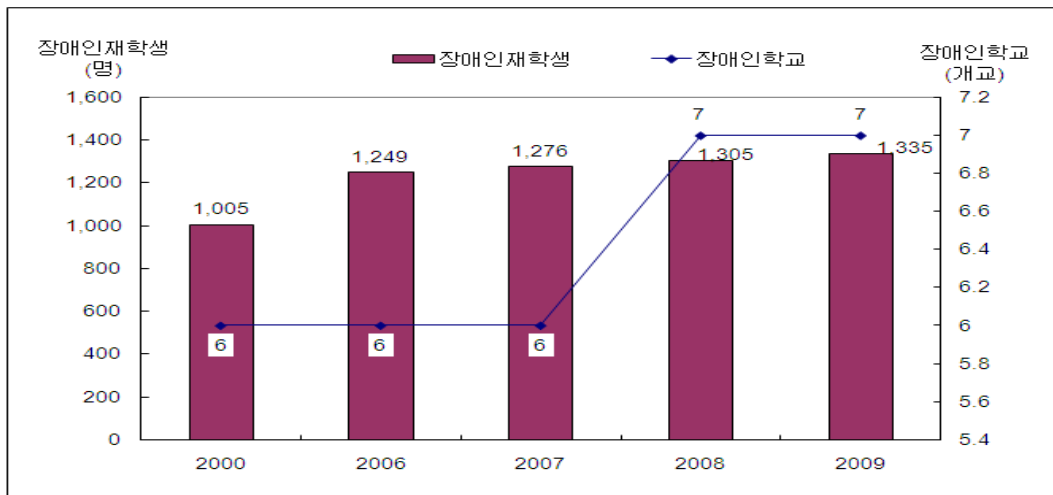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6.2. 장애인 학교 취학자

2009년 경남 장애인 학교 취학자의 장애유형은 '정신지체'가 78.6%로 가장 많음

- 2009년 경남의 장애인 학교는 7개로 총 재학생은 1,335명임
 - 2000년에 비해 장애인 학교는 1개교 증가, 총 재학생은 330명 증가
- 재학생의 장애유형별 구성비는 '정신지체'가 78.6%로 가장 많고, '지체부자유' 12.8%, '정서장애' 6.4%, '청각장애' 2.2%로 나타남
 - 2008년에 비해 '지체부자유'와 '정신지체'는 각각 23.0%, 0.5% 증가, '청각장애'와 '정서장애'는 각각 6.3% 5.6% 감소
 - 전국에 비해 '정신지체'는 7.6%p 높고, '청각장애'는 3.8%p 낮음

〈 장애인 학교 취학자 〉



〈 장애인 학교 취학자 현황 〉

(단위 : 개교, 명, %)

	연도	학교수	재학생 계	장애유형별 재학생 (명, %)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지체부자유인	정신지체인	정서장애인
경 남	2000	6	1,005 (100.0)	- (0.0)	87 (8.7)	168 (16.7)	750 (74.6)	- (0.0)
	2006	6	1,249 (100.0)	- (0.0)	39 (3.1)	159 (12.7)	985 (78.9)	66 (5.3)
	2007	6	1,276 (100.0)	- (0.0)	35 (2.7)	154 (12.1)	1,013 (79.4)	74 (5.8)
	2008	7	1,305 (100.0)	- (0.0)	32 (2.5)	139 (10.7)	1,044 (80.0)	90 (6.9)
	2009	7	1,335 (100.0)	- (0.0)	30 (2.2)	171 (12.8)	1,049 (78.6)	85 (6.4)
	증감률 ¹⁾	0.0	2.3	0.0	△6.3	23.0	0.5	△5.6
전 국	2009	150	23,720 (100.0)	1,457 (6.0)	1,347 (6.0)	2,648 (11.0)	16,734 (71.0)	1,518 (6.0)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주 : 1) 2007년 대비 2008년 증감비율임

6.3.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

2009년 경남 청소년은 자신의 장애인 차별은 '없다'고 생각하나 사회의 장애인 차별은 '심하다'고 생각

- 2009년 경남 청소년은 사회의 장애인 차별정도에 대해 15~19세는 '없다' 22.1%, '심하다' 77.9%, 20~24세는 '없다' 31.1%, '심하다' 68.9%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소 자신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정도에 대해서는 15~19세는 '없다' 80.1%, '심하다' 19.9%, 20~24세는 '없다' 90.4%, '심하다' 9.6%의 응답비율을 보여 장애인 차별에 대한 자신과 사회의 인식에 차이를 보임
- 전국에 비해 사회의 장애인 차별 '없음'은 15~19세, 20~24세 각각 3.6%p, 11.6%p 높음
 - 자신의 장애인 차별 '없음'은 15~19세는 6.3%p 낮고, 20~24세는 0.2%p 높음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사회) 〉

(단위 : %)

			계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함	매우심함
경남	2007	15세이상	100.0	2.8	23.3	44.3	20.7	8.9
		15~19세	100.0	1.8	20.1	43.6	24.7	9.8
		20~24세	100.0	0.4	16.4	47.1	21.3	14.8
	2009	15세이상	100.0	2.7	29.4	44.0	17.2	6.7
		15~19세	100.0	1.5	20.6	46.0	21.1	10.8
		20~24세	100.0	2.3	28.8	43.0	18.1	7.8
전국	2009	15세이상	100.0	1.8	21.8	48.1	19.9	8.4
		15~19세	100.0	1.8	16.7	49.1	22.3	10.1
		20~24세	100.0	1.2	18.3	48.0	23.5	9.0

〈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자신) 〉

(단위 : %)

			계	전혀없음	별로없음	조금심함	심함	매우심함
경남	2007	15세이상	100.0	21.0	69.7	8.1	1.0	0.3
		15~19세	100.0	15.5	69.1	13.8	1.6	0.0
		20~24세	100.0	11.3	71.8	14.7	1.1	1.0
	2009	15세이상	100.0	21.8	70.0	7.8	0.5	0.0
		15~19세	100.0	10.8	69.3	18.8	1.0	0.0
		20~24세	100.0	20.0	70.4	9.6	0.0	0.0
전국	2009	15세이상	100.0	19.3	73.1	6.4	0.9	0.3
		15~19세	100.0	14.2	72.2	10.8	2.1	0.8
		20~24세	100.0	14.6	75.6	8.7	1.0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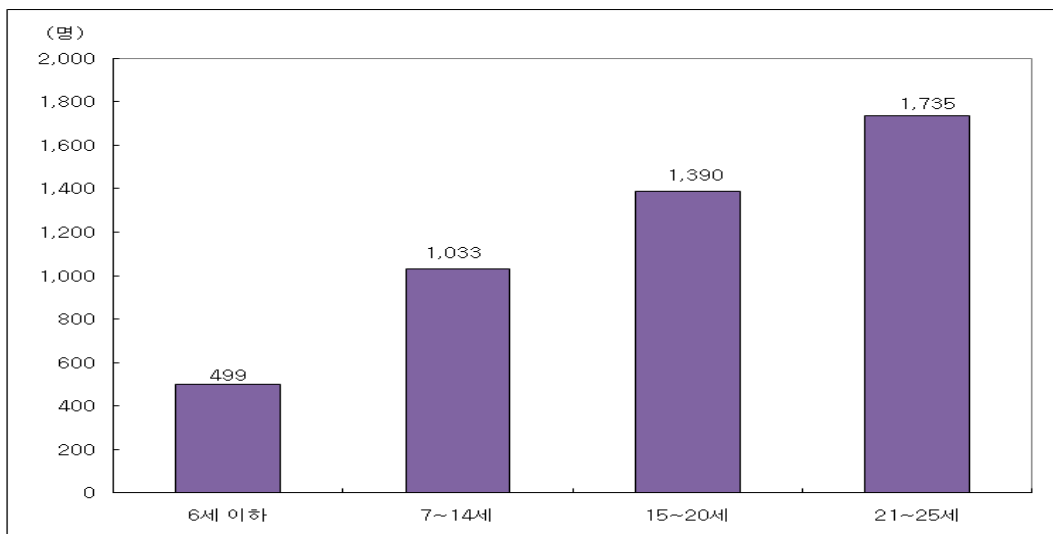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보고서」, 각년도

6.4. 청소년 교통사고

2008년 경남의 교통사고 사상자 중 25세 이하가 20.9%를 차지

- 2008년 교통사고로 인한 경남의 25세 이하 사상자는 4,657명으로 전체 교통사고자 22,275명의 20.9%를 차지함
 - 이 중 연령별로 보면 21~25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7.8%로 가장 높음
- 2007년에 비해 25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는 4.1% 감소하였음
- 전국에 비해 25세 이하 교통사고 사상자 비율은 2.0%p 낮음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2008) 〉



〈 청소년 교통사고 사상자 〉

(단위 : 명, %)

		전 체	25세 이하	25세 이하 구성비 (%)			
				6세 이하 ¹⁾	7~14세 ¹⁾	15~20세	21~25세
경 남	2005	20,738	4,861	839	856	1,195	1,971
	2006	21,387	4,754	775	830	1,215	1,934
	2007	21,299	4,854	760	870	1,402	1,822
	2008	22,275	4,657	499	1,033	1,390	1,735
	구성비	100.0	20.9	2.2	4.6	6.2	7.8
	증감률 ²⁾	4.6	△4.1	△34.3	18.7	△0.9	△4.8
전 국	사망자	551	59	7	8	23	21
	부상자	21,724	4,598	492	1,025	1,367	1,714
	2008	344,831	79,029	7,230	15,295	26,348	30,156
	구성비	100.0	22.9	2.1	4.4	7.6	8.7
	증감률 ²⁾	0.8	△0.2	△8.3	1.1	10.2	△6.5
	사망자	5,870	815	69	92	295	359
부상자	338,961	78,214	7,161	15,203	26,053	29,797	

자료 : 경찰청, 「교통사고통계」 각년도

주 : 1) 2005년 ~ 2007년 : 7세 이하와 8~14세로 구분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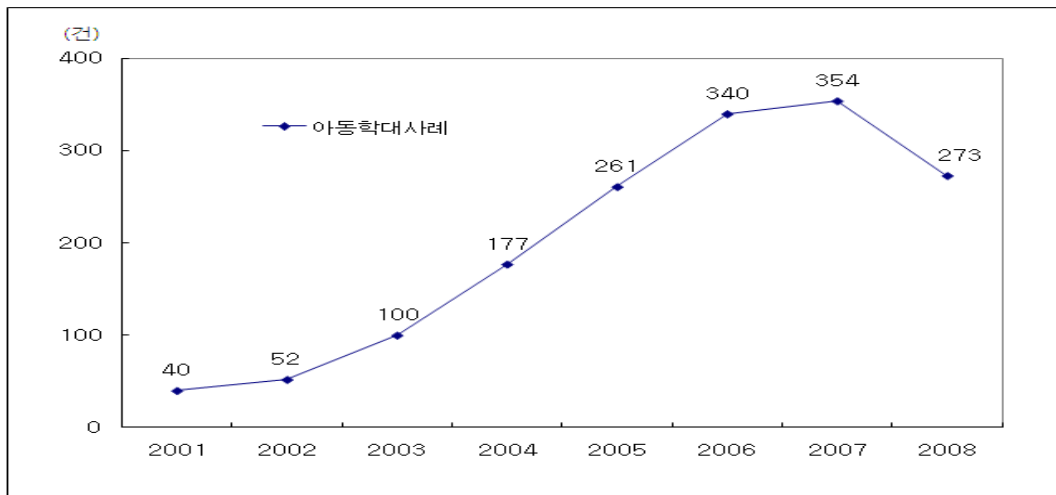
2) 2007년 대비 2008년의 증감비율임

6.5. 아동학대 현황

2008년 경남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51건, 아동학대 사례는 273건

- 2008년 경남의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51건이고, 그 중 아동학대 사례는 273건으로 나타남
- 2007년에 비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19건 증가, 아동학대 사례는 81건 감소
 - 2001년과 비교하면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94건에서 457건 증가, 아동학대 사례는 40건에서 233건 증가하였음
 -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계속 증가 추세이나,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대비 감소
- 전국 중 경남 아동학대 신고건수는 5.8%, 아동학대 사례는 4.9%를 차지

〈 아동학대 의심사례 〉



〈 아동학대 상담현황 〉

(단위 : 건)

		아동학대 신고건수			초기개입결과				
		계	아동학대 의심사례	일반 상담	계 ¹⁾	아동학대사례		잠재 ²⁾ 위험사례	일반 사례
						응급아동 학대사례	단순아동 학대사례		
경 남	2001	94	66	28	66	40		23	-
	2002	133	88	45	88	-	52	21	15
	2003	227	140	87	140	3	97	19	21
	2004	384	266	118	266	26	151	39	50
	2005	390	335	55	335	25	236	25	49
	2006	521	394	127	394	32	308	18	36
	2007	532	414	118	414	33	321	31	29
	2008	551	424	127	424	52	221	27	124
전 국	2008	9,570	7,219	2,351	7,219	602	4,976	491	1,150

자료 : 보건복지부·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 각년도

주 : 1) 2001년 초기개입결과 계에는 부적절 사례 포함

2) 2001년 잠재위험사례는 무혐의 사례 자료임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VI.

출처통계 목록



이 면은 빈 공간입니다.

1. 시도별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

- 조사목적 - 시도별 장래의 성·연령별 추계인구는 각종 지역 사업 계획 및 평가, 특히 균형적인 지역 개발 계획 등의 기초자료
- 시도별 인구 관련 경제·사회 지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등 제공
- 조사내용 - 시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5세계급)
- 시도별 출생(률), 사망(률), 및 순이동(률), 시도별 인구증가율 등
- 작성체계 - 전국단위로 작성된 추계인구자료를 기초로 시도별 향후 인구변동 요인(출생, 사망, 이동)을 가정하여 인구추계방법인 코호트 요인법에 의해 작성되는 가공통계

2. 장래인구 추계 (통계청)

- 조사목적 - 장래의 성별·연령별 추계인구는 국가 제반사업의 장단기 계획 (인력 및 식량 수급 계획, 고용, 교육, 주택, 보건정책, 공해문제, 노인문제 등 복지정책) 및 공공단체나 민간기업 사업계획의 기초자료
- 각종 인구 관련 경제·사회지표 작성의 기본자료 등
- 조사내용 - 연도별, 성별, 연령별 인구
- 연도별 출생(률) 및 사망(률)
- 인구증가율, 주요 인구지표 등
- 작성체계 -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및 인구동태 통계자료를 기초로 변동요인을 가정하여 인구추계방법인 조성법에 의해 작성되는 가공통계

3. 인구동향조사 (통계청)

- 조사목적 - 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과 같이 인구구조를 변동하게 하는 기본 요인을 파악하는 통계조사로서 국가 인구정책을 비롯한 경제·사회·교육·보건 등의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조사내용 - 출생신고서 : 출생자에 관한 사항(주소, 성별, 혼인중의자/혼인외의자, 출생일시, 출생장소, 임신주수, 다태아여부, 출생순위, 신생아 체중), 출생자 부모에 관한 사항(실제생년월일, 직업, 최종졸업 학교, 실제결혼년월일), 모의 출산아수, 신고일자

- 사망신고서 : 사망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망일시, 사망장소, 발병(사고발생)당시 직업, 사망원인진단자, 혼인상태, 최종졸업학교, 사망종류, 사고발생장소, 사고내용, 사망원인,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신고일자
- 혼인신고서 : 혼인당사자(부처)의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실제결혼연월일, 직업, 최종졸업학교, 혼인 종류, 직전혼인해소일자, 신고일자
- 이혼신고서 : 이혼당사자(부처)의 본적, 주소, 주민등록번호, 실제결혼년월일, 실제이혼년월일, 20세 미만 자녀수, 이혼종류, 이혼사유, 최종졸업학교, 직업, 신고일자

- 조사체계 - 동·읍·면(호적계)→구·시·군→시·도→통계청

4. 보건복지통계연보 (보건복지가족부)

- 연보개요 - 보건 및 사회복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수록
- 수록항목 - 국민건강, 보건의료, 보건사업, 사회복지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

5. 교육통계연보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

- 연보개요 - 학교 등 교육 기관 및 학생현황 등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하여 수록
- 수록항목 - 학교 기본 통계, 각급 학교 개황, 교육행정 현황 등

6. 사교육비조사 (통계청)

- 조사목적 - 사교육비 경감대책 및 공교육 내실화 등 교육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사교육비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공신력 있는 통계를 정기적으로 작성 제공
 - 사교육 실태, 원인,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효과를 병행하여 분석
- 조사내용 - 방과후 보충교육비, EBS 교재비 및 어학연수, 일반교과관련 사교육비, 예체능관련 사교육비, 취업목적 사교육비, 학생의 인적사항, 부모 인적 사항 및 가구소득 등

- 작성체계 - 학부모(학생) ⇒ 조사대상 학교 ⇒ 지방통계청(사무소, 출장소)
⇒ 통계청

7.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 조사목적 - 취업, 실업 등과 같은 인구의 경제적 특성을 조사하여 노동공급, 노동투입, 고용구조, 가용노동시간 및 인력자원의 활용정도 파악하여, 고용창출, 직업훈련, 소득증진 등을 위한 정부정책 입안 및 평가자료 제공
- 조사내용 - 인적사항 : 가구원 성명, 가구주와의 관계, 성별, 생년월일, 교육정도, 혼인관계
 - 확인항목 : 활동상태, 취업여부, 일시휴직 여부 및 이유, 1주간의 구직여부, 1개월간의 구직여부
 - 세부사항 : 부업여부, 취업시간, 36시간미만 일한 이유, 전직희망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구직경로, 구직기간, 희망근무형태, 취업희망여부, 취업가능성 여부, 비구직사유, 지난 1년간 구직경험여부 및 시기, 전직유무 및 이직시기, 이직사유, 산업, 직업, 종사상의 지위 등
- 조사체계 - 조사원(면접조사 PDA입력)→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8. 사회조사 (통계청)

- 조사목적 - 국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사회적 관심사와 주관적 의식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삶의 수준과 사회적 변동을 파악하고 이를 사회개발 정책의 기초자료로 제공
- 조사내용 - 기본항목(성별, 연령, 교육정도 등)과 인구, 가족, 소득소비, 노동, 교육, 보건, 주거교통, 정보통신, 환경, 복지, 문화여가, 안전, 정부사회참여 등 12개 부문을 4년주기로 3개 부문씩 선정하여 조사
- 조사체계 - 조사원→지방통계청(사무소)→통계청

9. 사망원인통계 (통계청)

- 조사목적 - 우리국민의 정확한 사망원인 구조를 파악하여 국민복지 및 보건 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 조사내용 - 가. 신고서 항목 : [사망자 주소, 신고지주소, 사망자 주민번호(나이, 성별)], 발병당시 직업, 최종학력, 혼인여부, 사망원인, 발병 시간, 사망진단자, 신고서 첨부서류, 사망장소
- 나. 공표항목 : 성별 및 연령별 사망자수, 성별 및 연령별 사망률, 성별 및 월별 사망자수, 성별 및 지역별 사망자수, 성별 및 혼인상태별 사망자수, 성별 및 직업별 사망자수, 성별 및 교육 정도별 사망자수
- 조사체계 - 가공분석 : 호적법과 통계법에 따라 전국 읍면동에서 신고된 사망 (호적승계)신고서로 작성

10.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보건복지부)

- 조사목적 - 중. 고등학생의 건강행태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해 효율적인 청소년 건강관리 정책 수립 및 수립된 정책의 평가에 활용
- 조사내용 - 흡연, 음주, 비만 및 체중조절, 신체활동, 식습관, 손상예방, 약물, 성행태, 정신보건, 구강보건, 개인위생, 아토피·천식, 인터넷 중독, 건강형평성 14개 영역
- 조사체계 - (학교컴퓨터실 일괄조사) 표본학교 → 보건복지부(질병관리본부)

11. 교통사고발생상황 (경찰청)

- 조사목적 - 교통사고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교통안전대책 수립, 학술연구 등의 기초자료 및 국민의 교통안전의식 제고에 활용
- 조사내용 - 교통사고 발생현황(46개 항목), 교통사고 발생건수(23개 항목), 사망사고 발생건수(11개 항목), 사망자와 부상자(31개 항목),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현황(9개 항목), 지방경찰청 경찰서별 교통사고 발생현황(18개 항목), 자치단체별 교통사고 발생현황(16개 항목) 등
- 조사체계 - 경찰서→지방경찰청→경찰청

2010 동남권 청소년 통계

발간등록번호 : 11-1240362-000001-10

발행일 : 2010년 6월

발행인 : 현영기

발행처 : 동남지방통계청

편집 : 안영민

전화 : 051) 850-4244

홈페이지 : <http://kostat.go.kr/dnro>

주소 : (611-829)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제로 27

국가청민원위원회

용기를 누르세요 1398
 상담, 조정, 중재, 화해, 조정위원회

부패신고상담 (02)1398

▶ 소비자 피해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소비자 피해 신고, 민원 신청, 불만 접수 상담 지원
 ▶ 소비자 상담: 112-78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팩스: 02-3281-0288 ▶ 인터넷: www.1398.go.kr

국가청민원위원회

정직을 누르세요 1398
 상담, 조정, 중재, 화해, 조정위원회

부패신고상담 (02)1398

▶ 소비자 피해 상담을 도와 드립니다. ▶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 소비자 피해 신고, 민원 신청, 불만 접수 상담 지원
 ▶ 소비자 상담: 112-781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팩스: 02-3281-0288 ▶ 인터넷: www.1398.go.kr